

| |
|----------------------|
| 발 간 등 록 번 호 |
| 11-1352000-000000-00 |

| |
|-------------|
| 정책보고서 2016- |
|-------------|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여유진·김미곤·정은희·이주미·정희선
권지성·김광혁·김은지·조준용·황정미

【책임연구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 연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지성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준용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정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16. 11. 30.)한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빈곤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빈곤했기에 상대적 박탈감은 오늘날보다 덜 할 수도 있었다. 비록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자식 세대에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있었다. 오늘날에는 절대적 결핍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아동기 빈곤과 관련해서 이는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아동기의 빈곤과 이로 인한 내상은 아동의 신체적·인지적·심리적 발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지금까지 아동빈곤의 추이와 실상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면 아동빈곤보다는 노인빈곤이 훨씬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니와, 아동기 빈곤의 문제는 주로 부모의 저소득에서 기인하는 것이니만큼 근로빈곤의 문제로 포괄되어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기 빈곤은 그 영향력과 향후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 노인빈곤, 근로빈곤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고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아동빈곤예방법의 제정으로 주기적인 실태연구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의 내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거의 최초의 정부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적지 않다.

본 보고서는 여유진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에서 김미곤 선임연구위원, 정은희 부연구위원, 이주미 연구원, 정희선 연구원이, 외부에서 권지성 침례신학대 교수, 김광혁 전주대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조준용 한림대 교수, 황정미 강원대 교수가 공동 연구진으로 함께 참여해 주었다.

연구진들은 질적 조사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보건복지부 설예승 과장, 유주현 과장, 김영아 사무관, 강유미

주무관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누구보다도, 질적 조사 자체의 어려움과 더불어 무더위와도 함께 싸우며 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해 주신 면접원과, 솔직하고 진솔하게 조사에 응해 주신 피면접자 부모님과 아동,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또한, 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자문회의를 통해 소중한 조언을 주신 정선옥 덕성여대 교수와 정정호 청운대 교수 외 자문진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향후 아동빈곤기본계획 수립에는 물론이고, 아동 빈곤 정책 수립과 나아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논쟁과 토론의 계기가 되고, 좀 더 발전된 논의로 진척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 | |
|-----------|---|
| 요 약 | 1 |
|-----------|---|

제1부 이론적 배경

| | |
|-------------------------------------|----|
| 제1장 서 론 | 3 |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3 |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53 |
| 제2장 아동빈곤의 이론 및 측정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 74 |
| 제1절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 94 |
| 제2절 아동빈곤의 측정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 46 |
| 제3장 해외의 아동빈곤 현황 및 정책 대응 | 97 |
| 제1절 유럽연합(EU)의 아동빈곤 현황 및 대응전략 | 18 |
| 제2절 미국의 아동빈곤 현황 및 대응전략 | 79 |

제2부 아동빈곤의 경향 및 다차원적 실태 분석

| | |
|---------------------------|-----|
| 제4장 아동빈곤의 최근 동향 | 71 |
| 제1절 서론 | 119 |
| 제2절 아동빈곤 추이 | 120 |
| 제3절 최근 아동빈곤율 감소의 원인 | 61 |
| 제4절 소결 | 142 |

| | |
|------------------------------|-----|
| 제5장 아동빈곤 실태의 다차원적 분석 | 541 |
| 제1절 서론 | 147 |
| 제2절 소득계층별 아동가구의 기본적 특성 | 941 |
| 제3절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실태 | 21 |
| 제4절 소결 | 179 |

| | |
|--------------------------|-----|
| 제6장 아동빈곤 실태의 질적 분석 | 31 |
| 제1절 서론 | 185 |
| 제2절 연구방법 | 16 |
| 제3절 연구참여자 특성 | 9 |
| 제4절 분석결과 | 13 |
| 제5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 8 |

제3부 가구유형별 아동빈곤의 실태와 특성 분석

| | |
|-----------------------------|-----|
| 제7장 한부모 빈곤가구의 실태와 특성 | 322 |
| 제1절 서론 | 25 |
| 제2절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 2 |
| 제3절 한부모 빈곤가구의 실태 및 특성 | 532 |
| 제4절 소결 | 264 |

| | |
|--------------------------------|-----|
| 제8장 다문화 빈곤가구의 실태와 특성 | 172 |
| 제1절 서론 | 273 |
| 제2절 다문화가구와 아동: 개념과 분석 방법 | 672 |
| 제3절 다문화 가구 및 아동: 인구 추이 | 42 |

| | |
|--|----------|
| 제4절 다문화가구 아동의 현황 분석 | 82 |
| 제5절 다문화가구 자녀(9~17세)의 사회적 배제 | 8·9 2 |
| 제6절 소결 | 305 |
| 제9장 시설 빈곤아동의 실태와 특성 | 93 |
| 제1절 서론 | 311 |
| 제2절 시설아동의 현황 | 3 |
| 제3절 연구방법 | 36 |
| 제4절 범주화 분석 결과 | 39 |
| 제5절 소결 | 337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제4부 결론</div> | |
| 제10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3 |
| 참고문헌 | 381 |
| 부록 1. 주요 EU 국가들의 아동빈곤 결과와 핵심 도전들 | 59 3 |
| 부록 2. 심층면접 조사표 | 0 |

표 목차

| | | | |
|----------|--|----|---|
| 〈표 1- 1〉 | 주요 연구 내용 | 7 | 3 |
| 〈표 1- 2〉 | 아동빈곤의 일반적 실태와 동향 분석 원자료 | 9 | 3 |
| 〈표 1- 3〉 | 아동 가구유형별 분석 원자료 | 10 | 4 |
| 〈표 1- 4〉 | 기초보장 수급·비수급가구 연구대상의 일반 현황 | 2 | 4 |
| 〈표 1- 5〉 | 질적조사표의 구성 | 2 | 4 |
| 〈표 1- 6〉 | 시설조사 연구참여자-종사자 특성 | 4 | 4 |
| 〈표 2- 1〉 | OECD 30개국의 아동복지 지표 순위 비교 | 9 | 6 |
| 〈표 2- 2〉 | OECD(2015)의 아동복지 차원과 지표들 | 10 | 7 |
| 〈표 2- 3〉 | UNICEF의 아동복지 측정 지표 | 1 | 7 |
| 〈표 2- 4〉 | EU-SILC 아동 박탈 진단 항목(2014년 모듈) | 3 | 7 |
| 〈표 2- 5〉 | TARKI의 아동복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차원적 지표 제안 | 4 | 7 |
| 〈표 2- 6〉 | 영국정부가 개발한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영역과 측정치 | 6 | 7 |
| 〈표 2- 7〉 | CSJ의 핵심적 빈곤지표 | 7 | 7 |
| 〈표 3- 1〉 | EU 국가들의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 아동 비율(2010년과 2014년) | 3 | 8 |
| 〈표 3- 2〉 | EU 회원국들의 박탈된 아동 비율(선택된 항목의 결핍)(1-15세, 2014년) | 6 | 8 |
| 〈표 3- 3〉 | EU 국가(27개국)의 상대적인 아동빈곤율 비교(2007년) | 1 | 9 |
| 〈표 4- 1〉 | 아동 인구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 | 1 | 2 |
| 〈표 4- 2〉 | 가구당 평균 아동 수 및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 변화 | 2 | 2 |
| 〈표 4- 3〉 |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근로소득 중위50% 미만 기준) 추이 | 4 | 2 |
| 〈표 4- 4〉 |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50% 미만 기준) 추이 | 5 | 2 |
| 〈표 4- 5〉 |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수별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50% 미만 기준) 추이 | 7 | 2 |
| 〈표 4- 6〉 | 계층분포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 8 | 2 |
| 〈표 4- 7〉 |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 10 | 3 |
| 〈표 4- 8〉 | 아동빈곤갭(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 3 | 3 |
| 〈표 4- 9〉 | 아동 수별 가구내 평균 취업인원수 | 7 | 3 |
| 〈표 4-10〉 | 아동 수별 중위 실질 근로소득 및 가처분소득 변화 추이 | 8 | 3 |
| 〈표 4-11〉 |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추이(중위소득 50% 기준) | 10 | 4 |
| 〈표 4-12〉 | 공적이전의 빈곤갭 감소 효과 추이(중위소득 50% 기준) | 1 | 4 |
| 〈표 5- 1〉 |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실태 분석 영역 | 8 | 4 |
| 〈표 5- 2〉 | 분석 대상 아동가구의 분포 | 9 | 4 |

| | |
|--|--------|
| 〈표 5- 3〉 아동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유형 | 0·5· 1 |
| 〈표 5- 4〉 아동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주 특성 | 1·5· 1 |
| 〈표 5- 5〉 아동가구의 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상태 및 평균 취업자수 | 3·5· 1 |
| 〈표 5- 6〉 아동가구의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상태 | 4·5· 1 |
| 〈표 5- 7〉 아동가구의 적자가구 비율 | 5·5· 1 |
| 〈표 5- 8〉 아동가구의 부채 현황 | 7·5· 1 |
| 〈표 5- 9〉 아동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 비율 | 9·5· 1 |
| 〈표 5-10〉 아동가구의 저축 영역 비자발적 결핍 | 9·5· 1 |
| 〈표 5-11〉 아동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 0·6· 1 |
| 〈표 5-12〉 아동가구의 주거빈곤 실태 | 2·6· 1 |
| 〈표 5-13〉 아동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 | 5·6· 1 |
| 〈표 5-14〉 아동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 | 6·6· 1 |
| 〈표 5-15〉 아동가구의 자녀교육 영역 비자발적 결핍 | 6·6· 1 |
| 〈표 5-16〉 아동가구의 주 양육자 | 7·6· 1 |
| 〈표 5-17〉 미취학 아동가구의 돌봄 형태 | 8·6· 1 |
| 〈표 5-18〉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실태 | 8·6· 1 |
| 〈표 5-19〉 아동가구의 자녀(아동) 보육문제와 관련한 취업(직장생활)에 어려움 여부 | 9·6· 1 |
| 〈표 5-20〉 아동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시 장애요인 | 9·6· 1 |
| 〈표 5-21〉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시간활용 실태 | 0·7· 1 |
| 〈표 5-22〉 학령기 아동의 평일 방과후 시간활용 유형 | 0·7· 1 |
| 〈표 5-23〉 아동가구의 양육의사결정 | 1·7· 1 |
| 〈표 5-24〉 아동가구의 부부간 양육의견 일치 정도 | 1·7· 1 |
| 〈표 5-25〉 아동가구의 부부싸움 횟수 | 2·7· 1 |
| 〈표 5-26〉 아동가구의 자녀양육과정에서 어려운 점 | 3·7· 1 |
| 〈표 5-27〉 아동가구의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 | 3·7· 1 |
| 〈표 5-28〉 아동가구의 식생활 영역의 비자발적 결핍 | 4·7· 1 |
| 〈표 5-29〉 아동가구의 식사해결 방법 | 5·7· 1 |
| 〈표 5-30〉 아동가구의 의료서비스 영역의 비자발적 결핍 | 5·7· 1 |
| 〈표 5-31〉 아동가구의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월평균 1인당 지출(희망)금액 | 6·7· 1 |
| 〈표 5-32〉 아동가구의 문화생활 및 사회생활 영역 비자발적 결핍 | 7·7· 1 |
| 〈표 5-33〉 아동가구의 문화(여가)생활 실태 | 7·7· 1 |

| | |
|---|-------|
| 〈표 5-34〉 아동가구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관심 | 8·7·1 |
| 〈표 6- 1〉 연구대상의 일반 현황 | 7·81 |
| 〈표 6- 2〉 조사표의 구성 | 881 |
| 〈표 6- 3〉 성인 참여자 요약(N=19) | 0·9·1 |
| 〈표 6- 4〉 아동 참여자 요약(N=20) | 1·9·1 |
| 〈표 6- 5〉 빈곤과정과 경험의 범주화 | 6·91 |
| 〈표 6- 6〉 주거 환경의 범주화 | 891 |
| 〈표 6- 7〉 건강의 범주화 | 002 |
| 〈표 6- 8〉 교육의 범주화 | 202 |
| 〈표 6- 9〉 양육의 범주화 | 502 |
| 〈표 6-10〉 문화의 범주화 | 702 |
| 〈표 6-11〉 가족관계의 범주화 | 012 |
| 〈표 6-12〉 아동의 꿈과 전망의 범주화 | 2·1·2 |
| 〈표 6-13〉 사회정책 체감의 범주화 | 4·1·2 |
| 〈표 7- 1〉 한부모가구와 한부모가족 개념 비교 | 7·2·2 |
| 〈표 7- 2〉 한부모가구 빈곤통계에 사용된 한부모가족 개념 비교 | 0·3·2 |
| 〈표 7- 3〉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 개념 비교 | 1·3·2 |
| 〈표 7- 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3·3·2 |
| 〈표 7- 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내용 | 3·3·2 |
| 〈표 7- 6〉 본 절의 빈곤층 정의 | 432 |
| 〈표 7- 7〉 지원 종류에 따른 한부모가구 비율 | 5·3·2 |
| 〈표 7- 8〉 한부모 성별 | 532 |
| 〈표 7- 9〉 한부모 연령 | 632 |
| 〈표 7-10〉 가장 어린 자녀 | 632 |
| 〈표 7-11〉 한부모 혼인상태 | 732 |
| 〈표 7-12〉 한부모 학력 | 732 |
| 〈표 7-13〉 가구원 수 | 732 |
| 〈표 7-14〉 한부모가 된 기간 | 832 |
| 〈표 7-15〉 소득수준 | 832 |
| 〈표 7-16〉 주 소득원 | 932 |
| 〈표 7-17〉 월평균 지출 | 042 |

| | |
|---|-----|
| 〈표 7-18〉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 142 |
| 〈표 7-19〉 평균 자산액 및 부채액 | 142 |
| 〈표 7-20〉 빚을 지게 된 이유 | 242 |
| 〈표 7-21〉 취업률 | 242 |
| 〈표 7-22〉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342 |
| 〈표 7-23〉 취업자의 직업 | 442 |
| 〈표 7-24〉 취업자의 부업 여부 | 542 |
| 〈표 7-25〉 취업자의 근로소득 수준 | 542 |
| 〈표 7-26〉 취업자의 현재 어려운 점 | 642 |
| 〈표 7-27〉 거주형태 | 642 |
| 〈표 7-28〉 주택형태 | 742 |
| 〈표 7-29〉 주택위치 | 842 |
| 〈표 7-30〉 주거면적 | 842 |
| 〈표 7-31〉 미취학 자녀 돌봄 방법(1순위) | 942 |
| 〈표 7-32〉 미취학 자녀 돌봄 방법(2순위) | 942 |
| 〈표 7-33〉 일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미취학) | 052 |
| 〈표 7-34〉 초등자녀 돌봄 방법(1순위) | 052 |
| 〈표 7-35〉 초등자녀 돌봄 방법(2순위) | 152 |
| 〈표 7-36〉 일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초등) | 152 |
| 〈표 7-37〉 일과후 활동(중고등, 1순위) | 252 |
| 〈표 7-38〉 일과후 활동(중고등, 2순위) | 252 |
| 〈표 7-39〉 일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중고등) | 352 |
| 〈표 7-40〉 주관적 건강 상태 | 352 |
| 〈표 7-41〉 활동 제한율 | 452 |
| 〈표 7-42〉 우울증상 경험율 | 452 |
| 〈표 7-43〉 우울시 해결방법 | 452 |
| 〈표 7-44〉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건강검진 종류별) | 552 |
| 〈표 7-45〉 1년간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 552 |
| 〈표 7-46〉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 652 |
| 〈표 7-47〉 규칙적인 운동 빈도 | 652 |
| 〈표 7-48〉 한부모가구의 사회적 지지망(상황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기관) | 752 |

| | | |
|----------|---|-------|
| 〈표 7-49〉 | 한부모가족의 차별경험 | 8·5·2 |
| 〈표 7-50〉 | 양육비 정가지급 채권 형태 | 9·5·2 |
| 〈표 7-51〉 | 양육비 정가지급 채권자 중 최근 1년간 양육비를 받은 형태 | 9·5·2 |
| 〈표 7-52〉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 0·6·2 |
| 〈표 7-53〉 | 자녀와 전 배우자 연락 방식 | 1·6·2 |
| 〈표 7-54〉 | 한부모와 전 배우자 연락 방식 | 1·6·2 |
| 〈표 7-55〉 | 한부모가족이 된 후 변화 | 2·6·2 |
| 〈표 7-56〉 | 필요한 지원(1순위) | 3·6·2 |
| 〈표 7-57〉 | 필요한 지원(2순위) | 3·6·2 |
| 〈표 8- 1〉 | 중앙정부의 다문화 아동 관련 정책: 부처별 주요 정책 현황(2015년) | 0·8·2 |
| 〈표 8- 2〉 | 다문화가구 구성원 - 연령별(2015년) | 5·8·2 |
| 〈표 8- 3〉 | 외국인 주민 자녀: 연령별 추이(2009~2015) | 7·8·2 |
| 〈표 8- 4〉 |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구: 아동가구원 수와 가구소득 수준 | 0·9·2 |
| 〈표 8- 5〉 |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구: 가구유형별 | 1·9·2 |
| 〈표 8- 6〉 | 다문화가구의 아동 | 2·9·2 |
| 〈표 8- 7〉 | 다문화가구 아동: 연령별 가구소득 분포 | 3·9·2 |
| 〈표 8- 8〉 |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구소득 수준·출생시 국적별 | 4·9·2 |
| 〈표 8- 9〉 | 다문화가족 아동: 가구소득 수준별 주택 유형 | 4·9·2 |
| 〈표 8-10〉 | 다문화가족 아동: 가구소득 수준별 주택점유 형태 | 5·9·2 |
| 〈표 8-11〉 | 이민자·귀화자 부모의 특성 | 6·9·2 |
| 〈표 8-12〉 | 여성 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수준 | 7·9·2 |
| 〈표 8-13〉 | 남성 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수준 | 8·9·2 |
| 〈표 8-14〉 | 다문화가족 자녀: 1주일 사교육 시간 | 9·9·2 |
| 〈표 8-15〉 |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 0·0·3 |
| 〈표 8-16〉 |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출신 부모님을 주위사람들이 아는 것에 대한 태도 | 0·0·3 |
| 〈표 8-17〉 | 다문화가족 자녀: 차별/무시당한 경험 | 1·0·3 |
| 〈표 8-18〉 | 다문화가족 자녀: 학교폭력 경험 | 1·0·3 |
| 〈표 8-19〉 | 다문화가족 자녀: 지난 1년간 우울감 경험 | 2·0·3 |
| 〈표 8-20〉 | 다문화가족 자녀: 자아존중감 평균 비교 | 2·0·3 |
| 〈표 8-21〉 | 다문화가족 자녀: 희망 교육수준 | 4·0·3 |
| 〈표 8-22〉 |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로의 유학 의향 | 4·0·3 |

| | |
|--|-------|
| 〈표 9-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2015년 12월 기준) | 2·1·3 |
| 〈표 9-2〉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종사자수, 보호아동 정원 및 현원 현황(2015년 12월 기준) ... | 3 |
| 〈표 9-3〉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성별 현황(2015년 12월 기준) | 3·1·3 |
| 〈표 9-4〉 연도별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 5·1·3 |
| 〈표 9-5〉 연구참여자-아동 특성 | 7·1·3 |
| 〈표 9-6〉 연구참여자-종사자 특성 | 7·1·3 |
| 〈부표 1〉 주요 EU 국가들의 아동빈곤 결과와 핵심 도전들 | 5·9·3 |
| 〈부표 2〉 주요 EU 국가들의 핵심 도전과 정책 대응 | 0·0·4 |

그림 목차

| | | |
|-----------|---|----------------|
| [그림 2- 1] | EU-28개국의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 인구의 하위지표 총합 | 2..... 7 |
| [그림 3- 1] | 유럽 국가들의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 아동의 비율(AROPE, 2012) | 2..... 8 |
| [그림 3- 2] | EU 국가들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위험 아동 비율(2010년과 2014년) | 4..... 8 |
| [그림 3- 3] | EU 국가들의 아동빈곤율(2014년) | 5..... 8 |
| [그림 3- 4] | EU 국가들의 심각한 박탈 아동 비율(2006년과 2014년) | 5..... 8 |
| [그림 3- 5] | EU 국가들의 사회이전의 빈곤감소효과(2012년) | 8..... 8 |
| [그림 3- 6] | 18세 미만 아동 빈곤율 및 빈곤 아동 수(1959~2014) | 8..... 9 |
| [그림 3- 7] | 빈곤의 정도에 따른 아동 빈곤율(2014) | 9..... 9 |
| [그림 3- 8] | 고용상태에 따른 아동가구 빈곤율(2014) | 0...0... 1 |
| [그림 3- 9] | 주거안정성 | 101 |
| [그림 3-10] | 소득계층별 아동의 의료보험 유형별 가입률(2014) | 2...0... 1 |
| [그림 3-11] | 미국의 주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총지출 변화: FY1975~2011 | 4...0... 1 |
| [그림 3-12] | 미국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수급자 수 변화: FY1996~2013 | 5...0... 1 |
| [그림 3-13] | 월평균 CCDBG 수급 아동 수: FY 1998~2014 | 6...0... 1 |
| [그림 3-14] | 미국의 헤드스타트 지출 및 수급자 수 변화: FY1965~2015 | 7...0... 1 |
| [그림 3-15] | SNAP 수급아동 수 변화: FY1965~2014 | 8...0... 1 |
| [그림 4- 1] | 18세 미만 아동 수 및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계(중위가정) | 0.....2..... 1 |
| [그림 4- 2] |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추이 | 1...2... 1 |
| [그림 4- 3] | 가구당 평균 아동 수 및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 변화 | 2.....2... 1 |
| [그림 4- 4] |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근로소득 중위 50% 미만 기준) 추이 | 4.....2..... 1 |
| [그림 4- 5] |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 기준) 추이 | 5.....2..... 1 |
| [그림 4- 6] |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수별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50% 미만 기준) 추이 | 7.....2..... 1 |
| [그림 4- 7] | 계층분포 변화 추이 | 821 |
| [그림 4- 8] |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 0...3... 1 |
| [그림 4- 9] | 연령별 빈곤율 변화(2006년과 2015년) | 1...3... 1 |
| [그림 4-10] |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 3...3... 1 |
| [그림 4-11] | 연령별 빈곤율 | 431 |
| [그림 4-12] |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2007년과 2011년) | 5...3... 1 |
| [그림 4-13] |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2011년) | 5...3... 1 |
| [그림 4-14] | 가구내 평균 취업인원수 및 맞벌이가구의 비율 변화 | 7...3... 1 |

| | | |
|-----------|---|-------|
| [그림 4-15] | 아동 수별 실질소득 상승률 | 8·3 1 |
| [그림 4-16] | 공적 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 0·4 1 |
| [그림 4-17] | 공적 이전의 빈곤갭 감소 효과 | 1·4 1 |
| [그림 5- 1] | 아동가구의 가구유형별 수급률과 가구빈곤율 | 1·5 1 |
| [그림 5- 2] | 아동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3·5 1 |
| [그림 5- 3] | 아동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 비율 | 6·5 1 |
| [그림 5- 4] | 아동가구의 과부채가구 비율 | 7·5 1 |
| [그림 5- 5] | 아동가구 주거점유형태의 전세 및 월세 비율 | 1·6 1 |
| [그림 5- 6] | 아동가구의 월세과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2·6 1 |
| [그림 5- 7] | 아동가구의 월평균 교육비와 교육비 과부담가구 비율 | 5·6 1 |
| [그림 7- 1] |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 숫자 추정 | 7·2 2 |
| [그림 7- 2] | 한부모가구 절대적 빈곤율 추이(정부 최저생계비 기준, 1인가구 포함, 농어가제외) | 2 2 |
| [그림 7- 3] | 한부모가구 상대적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기준, 1인가구 포함, 농어가제외) | 8 2 |
| [그림 7- 4] | 한부모가구 기초보장수급자 추이 | 9·2 2 |
| [그림 7- 5] | 한부모가족 기초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자 추이 | 0·3 2 |
| [그림 7- 6] | 한부모가구의 소득수준 | 9·3 2 |
| [그림 7- 7] | 한부모가구의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4·4 2 |
| [그림 7- 8] |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별 주거 현황 | 7·4 2 |
| [그림 8- 1]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8·7 2 |
| [그림 8- 2] |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 | 9·7 2 |
| [그림 8- 3] | 16세 미만 아동의 상대 빈곤율: 이민자 가구 내 아동과 선주민 가구 아동(2012) | 8 2 |
| [그림 8- 4] | 다문화가구원 연령별 인구구조(2015, 내국인인구와 비교) | 6·8 2 |
| [그림 8- 5] |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추이(2009~2015) | 7·8 2 |
| [그림 8- 6] |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9~2015) | 8·8 2 |
| [그림 8- 7] | 다문화가족 아동: 가구소득 수준별 주택점유 형태 | 5·9 2 |
| [그림 8- 8]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 3·0 3 |
| [그림 9- 1] |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취학 현황(2015년 12월 기준) | 4·1 3 |
| [그림 9- 2] |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2015년 기준) | 5·1 3 |
| [그림 9- 3] | 시설아동의 빈곤맥락 | 9·5 3 |
| [그림 9- 3] |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주요 영향인자들(agents) | 5·7 3 |

1. 서론

본 연구는 2012년에 제정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빈곤예방법)에 근거하여 첫 번째 실시되는 아동빈곤 실태조사보고서로서, 아동빈곤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계측 방식에 기초하여 아동빈곤의 최근 추이와 규모를 추정하고, 아동의 빈곤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는 총 4부 제10장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이론적 배경으로써 서론, 아동빈곤의 이론 및 측정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과 국내외 아동빈곤에 대한 대응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제2부는 아동 빈곤의 최근 동향과 다차원적 실태를 분석하는데 할애되었다. 먼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아동빈곤율과 아동빈곤갭의 최근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욕구실태조사 원자료를 경제적 수준, 주거, 교육과 양육, 건강, 그리고 문화생활 영역에서 빈곤 아동가구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저소득 아동 질적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초보장 수급과 비수급 빈곤아동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질적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3부에서는 아동빈곤예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빈곤아동가구의 유형별로 빈곤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부모 저소득아동, 다문화 저소득아동 그리고 시설아동의 영역별 생활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결론을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아동의 실태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 기존 문헌 자료의 검토를 통해 아동빈곤에 관한 이론적 논의, 아동빈곤의 계측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 그리고 국내외 아동빈곤의 현황과 이에 대한 주요 대응책을 정리하였다. 둘째, 기존의 대표성 있는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계량적 방법을 통해 아동빈곤의 동향과 실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양적 연구에서 보여줄 수 없는 빈곤아동의 생활실태와 심리·인지적 상태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역동적인 분석을 위하여 질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아동빈곤의 이론 및 측정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가.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빈곤은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며, 인간 생활 전반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민감한 발달과정을 겪고 있는 아동기의 빈곤경험은 다른 인간 발달 시기에 비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가족소득이나 빈곤의 영향은 아동의 여러 발달 영역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아동의 발달은 미래의 사회·경제적 복리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 분야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기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부모나 가족, 친구, 학교, 지역 사회환경 등 여러 가지 아동을 둘러싼 복합적인 환경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 단편적인 빈곤의 영향 여부를 넘어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어떠한 과정이나 매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의 소득수준이나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이론과 가설로 설명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이론으로는 인적자본이론, 사회적자본이론, 가족 스트레스모형, 생태체계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각각 아동기 빈곤의 영향을 매개하는 다양한 변수 및 복합적 경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때로 다소 중복적인 변수 및 경로를 보이기도 한다. 가족소득이나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가족소득이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러 소득 계층 중 특히, 빈곤층에서 소득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단기적인 빈곤보다는 여러 해에 거친 장기적인 빈곤이 누적된 빈곤의 영향으로 인해 아동의 발달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는 시기가 이룰수록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보고된다.

빈곤은 다차원적인 방식이나 경로를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빈곤은 잘 알려졌듯이 아동의 능력과 학구적 성취나 학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이나 인지적 영역의 발달, 정서적 문제나 행동적 문제에 까지 다양한 영역

에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된다고 보고되어 왔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부모의 교육적 투자나 지원, 가족기능, 학교 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나. 아동빈곤의 측정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전통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가장 잘 알려진—그리고 가장 분명한—방법은 기본적인 욕구의 결핍이 발생하는 기준선(poverty line)을 설정하고, 기준선 미만인 사람들의 수를 세는 방법이다. 오늘날 빈곤율은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빈곤 지표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표준화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1인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수가 빈곤율의 조작화된 정의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빈곤율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한 사회의 빈곤 수준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데 좋은 지표이지만, 빈곤선 미만 사람들의 결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빈곤의 심도를 보여주는 빈곤지표로는 빈곤갭(poverty gap)을 들 수 있다. 이 지표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미만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과 빈곤선과의 차이를 계산한 값이다. 즉, 총 빈곤갭을 빈곤선으로 나누어 준 값을 총 인구 수로 나누어준 값이 빈곤갭이다. 빈곤갭 비율은 빈곤율의 대체지표라기보다는 보완지표로서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빈곤지표는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빈곤 측정에서 다차원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와 아동빈곤 차원에서 다차원적 접근의 활용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경우 단순히 물질적 자원의 결핍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혹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환경적·사회적·문화적 열악함이 아동의 발달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 혹은 아동빈곤과 관련하여 국제기구나 국가 차원의 다차원적 지표가 꾸준히 개발되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2009년에 아동 복지 계측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서, 2015년 소득과 재산, 일자리와 소득, 주거, 건강상태, 교육과 숙련, 시민참여, 사회환경과 가족환경, 개인 안전, 주관적 복지의 9가지 차원에서 아동 복지 지표를 제시하였다. 유럽연합(EU)은 전체 인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빈곤 혹은 사

회적 배제 위험 비율(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rate; 이하 AROPE rate)’ 지표와 더불어, 아동의 박탈을 진단할 수 있는 17개 항목을 개발하여 EU-SILC에서 조사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의뢰로 TARKI 사회조사연구소의 아동빈곤 관련 작업팀(task-force)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상태, 주거, 교육, 건강, 위험에 대한 노출과 위험 행위, 사회적 참여·관계·가족 환경, 지역사회 환경의 7개 차원의 아동복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차원적 지표를 제안하였다. 그 밖에, 영국, 벨기에를 비롯한 호주, 일본, 캐나다, 독일, 핀란드 등 각 국가 차원에서도 아동빈곤과 복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체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 국내외의 아동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응

가. 유럽연합(EU)의 아동빈곤 현황 및 대응전략

2012년 기준으로, 유럽에서 거의 2700만명의 아동이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이하 AROPE)’ 상태에 놓여 있다. EU 28개 회원국의 경우, 18세 미만 총인구의 28%가 AROPE 상태이고, 20.8% 아동은 가처분소득이 해당국가 중위의 60% 미만이며, 9%는 매우 낮은 노동강도를 가진 가구에서 살고 있으며, 11.8%는 물질적으로 박탈된 가구에 속했다(Save the Children 2014, p.3). 2014년에도 27.8%의 아동이 AROPE 상태로 2012년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Eurostat March 2016), 특히, 매우 낮은 근로강도를 가진 부모를 가진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를 가진 아동들에 비해 56.7% 더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 또한 고용조건에서 불평등도가 높고, 가장 열악한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부를 재분배하는 사회이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EU 회원국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위험 수준과 사회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상이하지만, EU는 “현명하고(smart), 지속가능하며(sustainable), 포용적인(inclusive) 성장”이라는 “Europe 2020”의 공동 목표를 수립하였다. Europe 2020 전략에서는 7개의 핵심의안(flagship initiatives)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이 중 하나가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유럽 플랫폼(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이다. 특히, 아동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플랫폼에 의해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명시되었고, 2011년 플랫폼의 첫 연차대회에서 핵심 주제이기도 했다(EC 2010, p.17). EU는 아동 빈곤에 대한 대응에서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적 투자, 다차원적 접근, 권리기반 접근, 보편적 조치와 선별적 조치 간의 균형(EU 2013, p.3-5).

EU의 아동빈곤 현황과 대응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파악하기 위한 EU 통계청(Eurostat)의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첫걸음은 체계화된 빈곤과 복지 지표를 개발하고, 대표성 있는 조사를 통해 아동의 빈곤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빈곤에 대한 종합 계획을 계기로 아동빈곤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아동빈곤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EU의 AROPE 지표는 세 가지 항목, 즉 균등화된 중위가처분소득 60% 미만, 물질적으로 심각한 박탈로 간주되는 아동,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낮은 가구의 아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로 계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빈곤을 산정에서 중위소득 50% 기준을 사용하지만, EU에서는 중위소득 60%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아동의 빈곤 계측에서는 고려해 볼만하다. 생애주기 동안 상대적으로 교육비, 주거비, 기타 생활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기간이 가구 내 아동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빈곤선 또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EU 차원에서는 아동빈곤 퇴치를 위한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각 국가들은 이에 조응하는 국가개혁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국가개혁프로그램은 개방적 조정방식으로 EU 차원에서의 모니터링과 조정, 그리고 전문가 그룹의 평가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EU와 국가 간의 상호 협력·조정과 피드백체계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치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아동빈곤과 관련해서는 소득, 주거, 보육과 교육, 건강, 문화활동 등 다차원적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이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부처 간 조정 매커니즘도 필수적이다. 넷째, EU의 아동권리에 대한 강조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아동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빈곤정책 수립에 있어 대상과 욕구에 따라 좀 더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U에서도 보편적 프로그램과 선별적

프로그램의 조화, 현금과 서비스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록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빈곤을 좀 더 근본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대상과 급여 방식을 달리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다. EU 차원에서도 Europe 2020이라는 큰 목표 하에, 각 부문별 세부 목표, 그러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추진과정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향후 아동빈곤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목표, 정책수단, 평가지표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미국의 아동빈곤 현황

2014년 현재 아동빈곤율은 21.1%로 전체 미국 아동 중 1천 5백만 여명의 아동이 빈곤하다(U.S. Bureau of the Census, 2016). 전체 빈곤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빈곤 아동이 전체 빈곤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한다(DeNavas-Walt and Proctor, 2015). 극빈층 아동, 빈곤층 아동, 차상위 빈곤층 아동까지 포괄하여 보면 미국은 아동의 약 절반가량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취업상태와 고용형태는 아동빈곤 경험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 아동빈곤율은 부모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장 높다. 부모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계절제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에 종사할 경우보다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Jiang, Ekono and Skinner, 2016). 2014년 기준으로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시간제 일자리나 계절직에 종사하는 경우라는 74%가 차상위 빈곤층이며, 48%는 빈곤층에 속한다(Jiang, Ekono and Skinner, 2016). 미국의 아동빈곤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주거와 관련한 영역이다. 미국의 저소득층은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며, 월세비용 또한 매우 높고(진현환, 2013), 거주지역을 이동하게 되는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다(Dohmen, 2005). 빈곤층 아동의 2/3 정도가 월세에 살며, 한 곳에 정착하여 아동기를 보내기보다는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동을 경험하는 비율도 일반아동보다 1.5배 높다(Jiang, Ekono, and Skinner 2016).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민간보험이나

공적 의료보조제도에 가입되어야 한다.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공적 의료보조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2014년 현재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은 7%~8%이다(Jiang, Ekono, and Skinner, 2016).

아동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사회보장법은 크게 두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하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Social Security)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요보호아동 부조이다(Aid to Dependent Children: 이하 ADC). ADC는 가정의 사별이나 실직으로 인해 주소득원을 상실했을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Bank and Blum, 1997; Lindsey, 2009:68). 이후, 빈곤 아동과 관련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식품(1964), 주거(1974), 의료(1965)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은 대 빈곤 정책이 빈곤으로부터 탈출, 빈곤 세습 차단, 빈곤의 예방, 빈곤의 영향 최소화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한시적 요보호 가족 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이하 TANF)과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인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자녀장려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이하 CTC)가 있다. 기타 현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영양보조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이하 SNAP), 학교급식지원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여성 및 영유아 건강지원 프로그램(Women, Infant and Children: 이하 WIC), 저소득층 아동 대상 의료보험 지원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주택보조금(Subsidized Housing, Section 8) 등이 있다. 미국의 아동빈곤 전략 중 최근경향은 부모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EITC와 CTC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아동양육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빈곤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식은 주로 생활상의 박탈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공형태는 현물지원 방식이 주를 이룬다. 미국은 직접적인 현금지원 방식인 TANF를 축소시키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을 지원하기 위해 현물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Haveman, Blank, Moffitt, Smeeding and Wallace, 2014). 그러나 TANF의 5년 급여연수 제한으로 인해 일시적인 현금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가장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기 간 빈곤이 지속될 가능성 매우 높다. 미국은 이들 집단을 고려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아동빈곤 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현금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다양한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현물지원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을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비용 효과성이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 아동빈곤에 대한 노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근거로 아동빈곤 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전병유, 2016; Smeeding & Thévenot, 2016), 재분 배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이나 조세정책 또한 약하다. 따라서 아동빈곤 문제의 가 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부모의 노동 대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 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소득을 증대시킬 수 방안과 함께, 아동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학계와 시민단체는 연방차원의 아동빈곤 국가계획 수립 과 행동전략 및 구체적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빈곤 탈출을 위한 빈곤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정책 및 빈곤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복지, 교육, 문화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빈곤 대응 전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워야 할 것이다.

4. 아동빈곤율의 최근 동향

본 장에서는 먼저, 1960년 이후 아동인구 수와 인구에서의 상대적 비중을 분석함으 로써 아동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종단 데이터로서 가장 공신력있 고 대표성이 높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아동의 규모와 빈곤 의 심도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능한 긴 기간 동안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빈곤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좀 더 대표성 있는 빈곤지표 산출을 위하여 1인 가구가 추가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빈곤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아동빈곤율은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최저점이던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로 전체 가구와의 격차를 벌이며 아동 빈곤율과 빈곤갭 모두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확인된다. 빈곤아동의 감소는 특히 연령면에서 7-12세 아동, 가구 구성면에서는 아동이 1명 내지 2명 있는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둘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비해, 아동빈곤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노르딕 국가들에 비해서는 약간 높지만,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영미권 국가들이나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셋째, 최근 아동빈곤율 감소의 원인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근로소득 상승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증가 모두에서 찾을 수 있지만, 주로 전자의 영향이 좀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특히 가구 내 아동이 1명 내지 2명 있는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이 아동이 없거나 3명 이상인 가구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동일 기간 동안 공적이전, 즉 복지급여의 빈곤율과 빈곤갭 감소효과는 오히려 2010년을 전후로 가장 컸고, 2015년에는 2010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최근 아동빈곤 추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동빈곤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아동빈곤율이 낮은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한 결과지만, 이러한 결과가 만약 오폐세대와 같이 애초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가 늘고 있거나, 또한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출산할 경우 빈곤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아제한을 한 결과라면 어두운 이면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빈곤아동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출산율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아동빈곤의 최근 감소에 아동이 있는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가 그 원인이라는 점에서, 가구 내 성인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과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숙련이 낮거나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보호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나 고용서비스(enabling service)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또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적 사회지출의 상대적 규모 면에서나 그것의 재분배효과를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여유진 외 2016).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다. 아동이 있는 가구, 특히 빈곤아동가구에 대해서 현금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율과 빈곤갭을 감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아동빈곤 실태의 다차원적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함께 수행한 「복지욕구조사」를 주로 활용하여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가구를 기초보장 수급가구,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중위소득 50~100% 가구, 중위소득 100~150% 가구,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5개로 구분하여 가구의 경제활동과 경제적 수준, 주택 및 주거환경, 교육과 양육, 건강, 문화활동 영역에서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먼저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 등의 가구유형에서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구가 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상당히 컸다. 또한 빈곤가구 가구주는 저학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저소득과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둘째, 빈곤한 아동가구의 저소득은 일차적으로 가구주의 비경제활동이나 실업, 혹은 불안정 일자리 등 근로활동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빈곤 아동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자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특히 비수급 빈곤아동가구 중 적자가구가 절반을 훨씬 넘었다. 수급가구의 경우 부채 기준 과부채가구의 비율이 1/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빈곤 아동가구의 월세 비율은 40~60%에 이를 정도로 높고, 이로 인해 이들 가구의 월세 과부담 가구 가구 비율 또한 12~20%로 비빈곤 가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빈곤 아동가구의 비율 또한 30~40%에 이르렀다. 월세 과부담가구는 상대적으로 비수급 빈곤아동가구에서,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수급 아동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넷째, 교육비가 소비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비 과부담 가구는 비수급 빈곤아동가구에서 가장 출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급가구의 경우 아예 자녀 사교육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비해, 비수급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비율이 높은 결과로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다섯째, 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의 이용률은 계층간 큰 차이가 없지만, 빈곤 아동가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매우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양육자의 양육태도와 관련해서 빈곤아동 가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부부싸움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자녀 양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섯째, 건강과 관련하여 빈곤 아동가구의 경우 단백질과 비타민의 주공급원인 육류와 과일 등의 섭취가 확연히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곤아동의 결식비율은 매우 낮았고, 대신 직접 끼니를 챙겨먹는 아동의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마지막으로, 문화활동의 경우 계층 간 문화활동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으며, 특히 가족과의 여행이나 기념일 외식 등을 하지 못하는 빈곤 아동의 비율이 비빈곤 아동에 비해 매우 높았고, 취미활동 역시 대부분 옥내 취미활동으로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의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구의 저소득은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본 연구 결과는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결핍이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욕구별 개별급여 형태로 해당 부처별로 선정과 급여 기준을 달리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결핍된 욕구의 영역을 좀 더 엄밀히 사정함으로써 욕구별 급여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에 대한 영역별 선정과 급여 기준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영역에서 욕구의 결핍률이 계층에 따라 비례적이라기보다는 승수적으로 발생한다. 즉, 중위소득 50% 미만 아동가구과 그 이상 아동가구 간에 상당한 분절이 존재한다. 이는 중위소득 50% 내지 60% 주변에서 절대적 수준의 박탈 기준선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기초보장 기준선은 교육급여만이 중위소득 50%이고 나머지는 40% 내외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급여에 따라 빈곤아동가구의 급여 기준선을 중위소득의 50% 내지 60%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빈곤 아동가구의 가구주는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한부모) 가구주 비율이 높은 만큼 고용의 장벽을 제거해 주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빈곤아동가구의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이 떨어지고, 보육시설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저소득 거주지역에 질 높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아동빈곤 실태의 질적 분석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빈곤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경험을 성인과 아동이라는 빈곤 내부자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기술하고, 빈곤현상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총 19가구, 39명(성인 19, 아동 20)을 대상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들의 빈곤경험의 다차원성에 대한 범주분석과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 참여자의 경우 연령대는 33세에서 72세에 이르며, 평균 나이는 46.4세였고, 평균 자녀수는 2.5명이었다. 가구유형의 경우 한부모 가구(7), 양부모(11), 조손가구(1)로 나뉘어지며, 수급지위에 따르면 수급가구(9), 차상위 가구(3), 일반 빈곤가구(7)로 구분되었다. 학력은 고졸이 제일 많았으며(8명), 가구 평균 소득은 158.8만원이었다. 아동의 경우 평균 나이는 14.3세였으며, 초등학생 6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8명이었다.

분석결과는 빈곤과정과 경험, 주거, 건강, 교육, 양육, 문화, 가족관계, 아동의 꿈과 전망, 사회정책 체감으로 범주화하여 제시되었고, 여기서 도출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정책수요의 발굴로 이어질 수 있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빈곤과정과 경험은 빈곤이 단순한 경제적 궁핍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경험을 동반하는 것이며, 절대적 수준보다 상대적 수준의 빈곤, 즉 박탈감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열악한 주거 환경은 그 자체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스트레스가 되지만, 더 나아가, 아동 인권과 발달 측면에서 보면, 성인 중심의 관리형 공간 배치는 아이답게 성장할 기회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건강은 곧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심리적 건강은 아동에게 전이될 수 있었다. 빈곤한 경제 여건은 아동들에게도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야기하고 있었으나, 치료에 대한 부모의 접근성이 높지 않아 보였다.

넷째, 교육은 기회균등 차원에서 빈곤아동에게 더욱 중요한 탈빈곤 수단이 되어야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사교육이나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교육을 매개로 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우려하게 하였고, 이는 수저계급론을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로 보여진다.

다섯째, 양육에 있어서 빈곤가구의 부모들은 종종 주도권을 잃으며, 아동들은 어른 역할을 기대받기도 하지만, 감당 못할 어른 역할을 하며 성장하는 아동들은 자연스러운 성장 속도를 뛰어넘으며 이내 부정적인 발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는 애어른이란 주제로 도출되었다.

여섯째, 아동들의 문화와 여가의 활용은 가족 내에서 소소한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친구들과, 혹은 혼자하는 게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의 관여가 느슨해지면 게임중독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빈곤 경험은 부모들을 사회활동에서 수동적으로 변하게 만들거나 위축시키기도 하였다.

일곱째, 가족관계는 크게 가족기능의 틈새와 이를 메우는 부모화된 아동, 배우자화된 아동의 모습으로 요약되었다.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아동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 앞서 문화활동과 결부되어 가족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였다.

여덟째, 아동의 꿈과 전망은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스스로 꿈을 접거나 제한하는 모습,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요약되며, 이는 ‘하면 된다보다는 되면 한다’라는 주제로 도출되었다.

아홉째, 사회정책에 대한 체감은 아동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나 제도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교육과 주거에 대한 욕구를 세심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자 시각을 드러낸다.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스티그마, 근로유인의 땃, 사각지대, 남용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탈수급 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개념의 범주화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발견들을 바탕으로, 아동 빈곤경험의 핵심 주제는 [1] 전쟁과 같은 빈곤의 경험: 트라우마, 그리고 상대적 빈곤 [2] 주거환경: 관리로서의 주거와 권리로서의 주거 [3] 교육과 수저계급론: 금수저, 흙수저 [4] 애어른: 어른스런 아이도 그저 아이일 뿐 [5] 꿈꾸는 방법: 하면 되는 것보다는 되면 한다 [6] 그래도 역시 가족: 소소한 일상의 행복의 근원으로 제시하였다.

내부자의 목소리와 인식에 기반한 본 연구에서 아동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함의는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세대를 키우는 빈곤가정을 위한 보다 세심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빈곤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적절한 주거기준과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거가 아동발달과 성장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공간 배치나 관리가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적절 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빈곤이 아동들의 인적자본 형성의 기회와 꿈의 선택을 가로막지 않도록, 보다 수요자의 니드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빈곤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교육 지원책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꿈을 접할 수 있도록, 꿈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끝으로, 빈곤아동들의 꿈을 지원하고, 동시에 경제관념을 키워주고 싶은 부모들의 니드를 반영하여, 아동발달계좌형(CDAs)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7. 한부모 빈곤가구의 실태와 특성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빈곤특성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본 장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빈곤과 관련된 각종 개념을 검토하고, 한부모가족 중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특성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빈곤통계에 활용된 각종 자료들은 성인자녀를 포함하거나, 주말부부 등 유배우가족을 포함하는 등 개념정의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이한 ‘한부모가구’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즉 정책적 의미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 생산에서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다 명확하게 아동을 ‘실질적으로’ 배우자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조사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부모와 한부모와 자녀 만으로 구성된 가구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한부모가구는 빈곤수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지원 한부모(‘수급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저소득 한부모’), 기타 지원받지 않는 한부모(‘비빈곤 한부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특성에 따른 일반적 특성이다. 모자가

구일수록 수급 한부모가 많고, 부자가구일수록 비빈곤 한부모가 많아서 명확한 성별 대비를 보이고 있다. 연령 분포로는 전반적으로 40대가 가장 많은 가운데, 저소득 한부모에 상대적으로 30대가 많고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젊은 한부모가구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상태로는 전반적으로 이혼이 가장 많고 평균 가구원수는 2.6명으로 혼인상태와 평균가구원수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수준으로는 전반적으로 고졸이 가장 많은 가운데, 비빈곤 집단일수록 고학력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분명한 경향이 발견된다. 한부모가 된 기간을 살펴보면, 더 빈곤층일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이다. 소득수준은,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빈곤층일수록 소득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빈곤특성에 따라 주 소득원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본인 근로소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수급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1/3 이상이었다. 월평균 지출액 또한 빈곤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비빈곤 한부모의 지출액이 높은 가운데, 특히 자녀교육비에서 빈곤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비빈곤 한부모의 지출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녀를 위한 투자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평균 자산액과 부채액 응답을 살펴보면,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빈곤층일수록 확연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채의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구가 가장 높았다. 부채가 있는 가구 중 빚을 지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수급 한부모의 경우 ‘생활비’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반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주거비 마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다.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들의 전체 취업률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수급 한부모의 경우 약 61%만 취업 상태에 있었다. 한부모가 된 당시에 한부모가 되기 1년전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현재의 취업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한부모가 된 이후에 취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절반 이상이 상용근로자인 반면, 수급 한부모의 경우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급 한부모와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 된 당시에는 고용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었으나, 한부모가 된 이후 임시·일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진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수급 한부모일수록 안정적이거나 충분한 임금수준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업 비율도 높았다. 취업자의 근로소득 수준은 앞서 가구소득 수준과 마찬가지로 빈곤층일수록 낮고, 비빈곤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의 현재 어려운 점으로는, 수급 한부모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 소득부족 문제가 가장 큰 반면, 비빈곤 한부모들은 시간부족과 육체적 피로 등 시간부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별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특성에 따라 주거안정성은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자기집’과 ‘전세’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비하여, 수급 한부모와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보증부 월세’와 ‘공공임대’가 많아 주거가 불안정하였다. 또한 수급 한부모의 경우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주거면적도 작아 주거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교육과 양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를 돌보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수급 한부모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직접 돌보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유치원 이용확률도 상당히 높고, 학원이나 친인척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 학원, 민간베이비시터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확인된 것처럼 빈곤 한부모는 소득부족의 문제, 비빈곤 한부모는 시간부족의 문제가 더 큰 것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초등자녀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등돌봄/방과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수급 또는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빈곤 한부모는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 자녀에 대해서는 일과후에 보내는 활동을 질문한 결과, 수급 한부모가 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들은 TV 등 미디어시청, 게임·컴퓨터, 숙제, 쉬거나 잠자기 등 집에서 스스로 하는 활동 중심으로 일과를 보내는 반면, 비빈곤 한부모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원’이라는 응답이 높아 비용이 소요되는 조직화된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미취학, 초등, 중고등 모

두 수급 한부모일수록 혼자보내는 시간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비빈곤 한부모일수록 혼자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비빈곤 한부모가구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는 28%, 초등 아동은 71%, 중고등 아동은 60%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별로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강상태, 활동제한율, 우울증상 경험률 등 모든 영역에서 수급 한부모일수록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이나 활동도 빈곤한 한부모일수록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우울증상을 경험한 한부모 중 수급 한부모일수록 혼자 참는 비율이 높았고,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수급 한부모들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보다는 무료건강검진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높았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병원이용을 하지 못한 경험 비율이 높았고, 특히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수급 한부모의 70%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빈곤이 병원이용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에는 ‘진료시간이 일하는 시간과 겹쳐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시간부족의 문제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망과 차별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한부모가구의 사회적 지지망을 살펴본 결과, 빈곤수준이 높을수록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망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있는 경우, 아이가 아픈 경우, 정보나 조언을 얻고 싶은 경우 등 모든 경우에서 수급 한부모가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한부모가구가 경험한 차별을 살펴보면, 본인이 느끼는 차별과 자녀가 느끼는 차별, 차별의 장소를 막론하고 수급 한부모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부모로서의 차별 뿐 아니라 수급자로서의 차별 인식이 더해져 보다 큰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저소득 한부모 지원 여부는 차별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이혼 또는 미혼한부모가구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와 전 배우자가 양육

비를 주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생활영역이 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권리와 관련해서, 수급 한부모일수록 법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는 비율이 높았으며,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절반 정도가 실제로 양육비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응답에서도 빈곤수준에 따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어, 수급 한부모는 정부가 실질적인 대지급을 해주기를 바라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비빈곤 한부모는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는 것을 보다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배우자와의 연락여부를 살펴보면 수급 한부모의 경우 전 배우자와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반면, 비빈곤 한부모들은 전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어려움과 지원 욕구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이 된 후 변화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 한부모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부모 역할을 혼자 감당해야 함’, ‘자녀양육 등 집안일의 부담 증가’,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건강상태가 나빠짐’, ‘미래에 대한 부담이 커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수급 한부모의 ‘그렇다’ 응답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지원 영역을 질문한 결과, 수급 한부모의 경우 압도적으로 ‘현금 지원’의 비율이 높았고,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현금지원’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주거 지원’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에는 ‘의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인식개선’ 등 다양한 영역의 응답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한부모 빈곤가구의 아동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빈곤 한부모가구의 아동은 비빈곤 한부모가구 아동에 비해 교육적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할수록 한부모의 학력자본도 이미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빈곤한 가구의 자녀교육비 지출수준은 비빈곤 가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빈곤한 가구의 아동들은 미취학의 경우 어린이집, 초등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기능이 강한 곳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아동들은 미취학의 경우 어린이집, 초등의 경우 학원 등 교육기능이 보다 강한 곳을 많이 이용하였다. 중고등자녀의 경우에도 빈곤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집에서 스스로 하는 활동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빈곤하지 않은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학원 등 비용이 소요되는 조직화된 활동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았다. 즉 빈곤한 한부모가구의 자녀들은 미취학시기부터 중고등학생 시기까지 교육활동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는 아동기 전반에 걸쳐 누적되어 성인이 된 후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산층 이상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교육활동 몰입 또한 사회문제가지만, 한쪽에서는 이와 같은 집중된 교육투자를 받고 있는데 비해 빈곤 한부모가족 아동들은 생애 전반에서 교육투자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적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지나친 사교육 경쟁이 규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빈곤 수준에 따라 가장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건강영역이었다. 빈곤 한부모일수록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이용도 제한이 많았으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도 높았다.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여 수급 한부모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나, 역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한부모는 혼자서 일과 가족생활을 모두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강수준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부모의 건강수준은 자녀의 복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빈곤 한부모에 대한 의료적 지원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수급 한부모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등의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으나,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자녀에게는 차상위 지원으로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지지만 한부모에게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김은지·황정임·최인희, 2013).

셋째, 빈곤차이에 따른 소득수준, 자산수준, 주거상황의 차이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빈곤할수록 현재 소득수준은 낮고, 저축액이 작아 자산수준도 낮으며, 자산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거상황도 열악하였다. 빈곤하지 않은 한부모들의 경우에는 부채가 있더라도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가 많은 반면, 빈곤한 한부모들은 생활비를 위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의 격차는 더욱 누적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나 주거지원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부모들은 전형적인 근로빈곤층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높이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중 저축 등 자산형성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부모가족은 아동을 키우는 가족으로서, 주거환경이 성인들만으로 구성된

가구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아 안전한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기는 쉽지 않고,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 내에 포함은 되지만 순위자 내의 가점 경쟁에서 가구원수 점수로 인해 선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인과 아동의 가구원 수는 배점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순위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황정임·김은지·남원석, 2013).

넷째,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차별수준이 높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망도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빈곤한 한부모들은 더 차별을 많이 느끼고 사회적 지지망도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와 친인척 외의 사회적 지지망은 적절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발굴하는 한편, 사회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인식개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하지 않은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빈곤한 한부모가구보다 어려움을 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부족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아동이 일과 후에 혼자 보내는 시간은 아동의 나이를 불문하고 빈곤 가구보다 비빈곤 가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간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돌봄의 틈새를 메워주는 정책이 꼼꼼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지원에는 소득수준보다 한부모가족여부가 더 중요한 지원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

8. 다문화 빈곤가구의 실태와 특성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외국인의 증가는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인구변화 중의 하나이다. 행자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의 3.4%에 해당하는 1,741,919명의 외국인 주민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안에서 생활을 공유하는 주민 100명 중 3~4명이 이주민 또는 이주배경을 지닌 주민이라는 점은 아동지원 정책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현실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등록통계(인구센서스, 외국인주민통계)와 조사자료(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년)를 분석하였다. 먼저 행정등록통계 상의 인구 추이를 보면, 2009년 이후 다문화가구 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2015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0세~19세 다문화가구 아동은 245,537명으로 나타났다. 행자부의 외국인인 주민 자녀 현황에 따르면 0세~17세 외국인 주민 자녀는 203,846명으로 집계되었다.

다문화가구 아동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연령구성 변화가 주목된다.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면 0~9세 아동의 비중이 높은 반면 10대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인구센서스). 그런데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013년 이후 0~6세 영유아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반면 7~12세와 13~17세 아동들의 구성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학령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아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 자료를 재분석함으로써 아동이 있는 다문화 가구의 소득수준, 그리고 다문화 가구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생활경험 등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가구 단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이 있는 다문화 가구의 경우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수급가구나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기초수급 가구의 평균 아동수는 1.81명, 저소득 가구는 1.74명, 그리고 빈곤 가구는 1.50명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이민배경의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수급 가구 또는 저소득층 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구의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초생활 수급가구나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13~17세 청소년들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0~6세 영유아에 비해 훨씬 높다. 다문화가족 중 청소년들은 영유아에 비해 아직 그 수는 적지만, 빈곤 가구에 속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빈곤위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수급가구와 저소득 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빈곤 가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수급가구의 경우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28.9%에 그친 반면, 월세나 사글세 거주자가 4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수급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중 자녀조사 결과(9세~17세) 아동들이 스스로 응답한 교육 경험, 생활실태, 차별 경험 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먼저, 다문

화가구 자녀들의 사교육 경험이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45.9%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54.3%, 비빈곤 가구는 70.9%로 확연히 높아졌다. 또한 사교육 시간은 가구소득 수준 및 아동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1주일 평균 사교육시간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이 7.35시간, 저소득 가구 7.2시간, 비빈곤 가구 8.26 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급가구 아동의 사교육 시간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9~12세 아동(7.93시간)보다 13~17세 아동(6.24시간)의 사교육 시간이 더 적는데, 이는 사교육 수요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중고등 학령기 아동이 오히려 학습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가구소득 수준은 아동들이 느끼는 부모관계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부모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다.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는데, 특히 수급가구나 저소득 가구 아동이 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수급가구(12.2%) 아동의 경우 저소득 가구(8.6%), 비빈곤 가구(8.9%) 아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에서도 수급가구 아동(7.0%)이 저소득 가구(4.9%)나 비빈곤 가구(5.1%)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가구소득에 따른 폭력피해 경험률의 차이는 차별경험률의 차이보다 적었다.

지난 1년간 우울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는 응답에는 가구소득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끔 느꼈다”는 응답률은 수급가구 아동(20.7%)이 저소득가구(14.6%), 비빈곤 가구(13.5%) 아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수급가구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반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존중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빈곤이 아동들로 하여금 우울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문화가구 아동들의 장래 진로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디까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교육 및 학력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14.2%는 고등학교 이하, 그리고 30.1%는 4년제 미만의 대학까지 진학하기를 희망하였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고려할 때, 빈곤 다문화가구 아동들은 진학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 및 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한 경험은 수급가구 및 저소득 가구 아동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수급가구 아동들은 학교 내 방과후 교실(81.3%), 공부방 및 지역 아동센터(5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37.0%) 등을 저소득 및 비빈곤 가구 아동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급가구나 저소득층 다문화가구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가족관계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교육 욕구나 미래 설계 등에서 중첩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앞으로 학령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진입하는 다문화가구 아동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아동기의 다차원적 박탈 경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기존 정책은 ‘아동’ 보다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즉 아동의 권리 보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부모나 양육자(즉 성인)의 입장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법률상 다문화 가족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이주배경의 아동을 사각지대로 배제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 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아동빈곤예방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자녀’가 아니라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 모든 아동이 사회공동체가 공유하는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하게끔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청사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9. 시설 빈곤아동의 실태 및 특성

이 연구의 목적은 시설아동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시설아동들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과 결핍, 사회적 배제, 차별 등을 의식주, 물리적 환경, 재정, 건강, 교육, 문화, 가족과 관계망, 일상생활 패턴, 미래 전망 등의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례’는 개별 아동양육시설(대규모와 중소규모 각 1개소)과 아동공동생활가정들이다. 서울과 충남 두 지역에서 현원 50인 이상의

아동양육시설과 50인 이하의 아동양육시설, 7인 이내의 공동생활가정 각 1개소, 총 6개 시설을 선정하고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그 보호제공자인 시설 종사자(관리자 또는 보육사, 시설별로 1명씩 총 6명)들이다. 각 시설별로 아동은 초등학생 고학년(4-6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 각 1-2명씩을 선정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시설아동은 총 6개 시설에서 초등학생 7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6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반구조화된 질문지(구조화된 박탈지표 포함)를 활용한 심층면접이다. 시설아동용 질문지와 시설종사자용 질문지는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사원들이 3-4회 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참여자별로 1-2회씩, 1-2시간 정도의 면접을 진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설종사자들을 통해 시설아동들의 생활조건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 접근에서 주로 활용하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내 분석은 각 사례(시설)별로 연구참여자(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과 시설 종사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난 빈곤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례 간 분석은 각 사례를 넘어서 시설아동들과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빈곤의 맥락과 그 안에서 나타난 차이점들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는 시설아동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시설종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분석, 통합적 맥락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사례 내 분석의 경우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본 연구보고서에는 생략하고, 시설아동과 종사자의 두 집단별로 분석한 사례 간 분석과 통합적 맥락분석 결과만 제시하였다. 시설아동들이 경험한 빈곤의 맥락은 일상생활 패턴, 일상생활의 어려움, 건강, 재정, 학교생활과 학업, 주거, 시설생활 경험, 관계, 진로와 꿈, 시설 이전 경험, 시설의 영향, 시설생활이 만든 차이, 사회적 배제, 차별 경험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시설종사자들이 경험한 시설아동 빈곤의 맥락은 일상생활 패턴, 재정, 자원과 지원, 일상생활의 어려움, 건강, 학교생활과 학업, 주거, 관계, 진로와 꿈, 시설의 영향, 시설생활이 만든 차이, 사회적 배제, 차별 경험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절대적 빈곤 개념을 기준으로 할 때, 의식주라는 단순한 욕구들만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시설아동들은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들은 원가정에서 빈곤했거나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들을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정부의 개입, 즉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부담’에 해당하는 법인부담금이나 후원금을 통해 빈곤선의 경계에 있는 아동들을 빈곤선 위로 올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의류를 구입하는 피복비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유형에 따라 주거의 질이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보조금만으로 시설아동의 빈곤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 시설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맥락의 요소들은 첫째, 시설장과 보육사, 간호사, 임상심리상담원을 포함한 시설 종사자들과 그들의 양육 행위와 개입, 둘째, 공공기관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과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 셋째, 학습과 적성, 교양을 위한 학원, 과외(개별지도), 넷째, 물질적 자원을 주로 제공하는 후원자와 비물질적 지원을 위주로 한 자원봉사자, 학교체계와 교사들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설아동의 신체건강과 발달,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 자립준비를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며,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시설아동의 빈곤맥락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자아상’인 것으로 보인다. 원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위축된 자아상은 다른 발달영역들의 지연과 누적으로 인한 영향을 받아 긍정적인 반전을 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아상에서도 핵심은 자아존중감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학습 의욕을 갖기 어렵고, 학업이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시점에서 시설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나 차별, 편견은 시설의 당사자들에게 예상보다 크게 또는 심각하게 경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재정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생계급여’가 아닌 ‘생활급여’ 수준으로 증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시설아동의 급식비는 실제 시설들이 지출하는 급식비 총액과 1인당 비용을 조사하여 다시 산정하고, 이 금액을 토대로 총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즉, 실제 생활수준에 맞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복비 항목도 마찬가지다. 주거생활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후 건물들을 가진 시설부터 폐쇄하고, 소규모 시설들을 중심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공간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

해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1-2인 단독가구의 지역별 전월세비를 고려하여 그 수준에 맞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시설 차원의 후원금과 친부모의 용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아동들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심리정서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확대하고 내용을 보완하며, 공공지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특히 입소 초기 1-3년 사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후에는 학습지원과 적성/진로탐색과 준비 과정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캠프, 각종 행사 등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넷째, 시설아동들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시설장, 보육사, (퇴소생 선배들을 포함한) 시설아동, 후원자, 자원봉사자, 친부모, 친척, 교사, 친구, 이웃 등으로 구성된 관계망의 각 단위들은, 비록 일반가정의 팬츠는 부모들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과 비교하면 연결고리가 약하고 지원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단위들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그 관계들을 강화하면 총체적인 사회적 자본의 양과 질은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단위부터 순차적으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확대와 입소기간 연장, 또는 양쪽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생활할 수 있는 가족생활시설 또는 가족공동생활가정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아동양육시설의 현원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시설의 유희공간이 늘어나고, 시설 자체가 폐쇄되고 있으며, 시설의 다기능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자주 아동을 방문할 수 있는 부모들이 있는 경우 부모가 시설에 입주하여 공동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것이 당분간 어렵다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공동주택의 형태로 추가 신설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는 현재 기본적으로 3년 이내,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입소기간을 현실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시설아동의 빈곤맥락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넘어 당사자인 시설아동과 시설종사자들이 경험한 시설생활의 주관적 의미를 탐색하였다는 점에

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연구사례와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선택의 편의’가 발생하는 등 나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나 운영체계, 프로그램, 종사자와 아동 간 관계 등의 여러 측면들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시설들이 참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시설평가와 감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 학대사례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부정적인 극단에 있는 아웃라이어 시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높이고, 평가나 감사, 내부고발, 언론 등을 통해 재정 부족이나 비리, 학대 사실이 노출된 시설들을 특별 관리하면서 양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입하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이다.

10.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분석 결과를 요약함과 아울러, 분석의 결과가 주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과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다차원적 아동빈곤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주요 선진국의 아동빈곤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개입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아동가구 내 성인의 활성화(activation)와 복지지원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섯째, 아동빈곤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아동의 특성과 재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곱째,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여덟째, 빈곤아동의 문화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아동의 가구유형별 특수성을 감안한 배려깊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요용어: 아동빈곤, 빈곤아동, 다차원빈곤, 기초보장수급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시설아동

제 1 부

이론적 배경

제1장 서론

제2장 아동빈곤의 이론 및 측정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제3장 해외의 아동빈곤 현황 및 정책 대응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의 안녕이 성인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문헌들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영양 섭취, 교육 투자, 주거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빈곤의 세대 간 이전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아동기의 빈곤과 상대적 박탈은 아동의 신체적·인지적·심리적 잠재력의 발현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개인의 장기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사회·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도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아동 빈곤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함께, 빈곤한 아동에 대한 대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무료 예방접종, 공공보육과 공교육의 확대, 학교급식, 아동수당, 기타 긍정적 차별시책(affirmative actions) 등이 그러한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54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이래, 1985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¹⁾. 또한, 최근까지 공공보육, 양육수당, 무료급식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들이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저소득아동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차상위교육지원, 지역아동센터, 바우처사업, 저소득층 자녀 특례입학제도 등의 정책들도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아동빈곤의 실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 작업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왔다. 2008년에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2013년에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두 차례에 걸쳐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조사는 아동빈곤에 초점을 둔 조사라기보다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

1) 네이버 지식백과(terms.naver.com)

동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성격을 가진 조사라 할 수 있다²⁾. 이외에도 지자체 혹은 민간 차원에서 아동빈곤의 실태에 대한 연구³⁾들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아동빈곤 관련 보고서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아동빈곤의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몇 가지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아동빈곤의 원인은 아동이 아니라 아동의 부양자, 즉 주로 부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아동빈곤에 대한 관심은 아동빈곤의 원인보다는 “이미 발생한” 빈곤 아동에 대한 대책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즉, 아동의 빈곤은 아동을 포함한 가족 혹은 가구의 빈곤을 의미하며, 그 주요 원인을 주부양자에게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동의 빈곤은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의 빈곤과 거의 동일시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아동빈곤에 관한 연구는 아동빈곤의 실태나 원인보다는 그 결과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더 주안점이 두어졌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OECD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률과 근로빈곤율이 낮았다. 이에 비해 급격한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 소득보장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결과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빈곤 위험은 OECD국가 평균과 한국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OECD 국가의 경우 평균적으로 아동·청년기의 빈곤율이 높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장년기 후반부 이후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노년기의 빈곤율이 유독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여유진 외 2015, p.78).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의 빈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노인에게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빈곤 실태와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미비했던 점도 아동빈곤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적었던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대표적인 종단 데이터로 꼽히지만 여기에 포함된 변수로는 아동빈곤율, 가구 소득, 소비지출 실태 등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 정도만 가능하다. 아동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포괄적인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조사들이 비교적 최근에 실시되면서 아동빈곤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비로소 가능해진 측면도 없지 않다.

2)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한 빈곤 연구로는 김은주(2015), 정은희(2015) 등을 들 수 있다.

3)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2007). 「경기도 빈곤아동 특성분석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2012) 보고서 등이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최근까지 아동빈곤의 실태와 변화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동빈곤이 가지는 개인적·사회적·경제적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2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아동빈곤예방법」)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에서 규정하는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제3조3)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한부모가족지원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을 받는 아동 등(시행규칙 제2조)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제6조에서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이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아동빈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법에 근거하여 첫 번째 실시되는 아동빈곤 실태연구 보고서이다. 본 연구는 아동빈곤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계측 방식에 기초하여 아동빈곤의 최근 추이와 규모를 추정하고, 아동의 빈곤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총 4부 제10장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본 장을 포함하는 제1부는 이론적 배경으로써 서론, 아동빈곤의 이론 및 측정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그리고 해외의 아동빈곤 현황과 대응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등을 소

개하는 데 할애되었다. 제2장에서는 아동빈곤에 대한 이론과 계측 방법에 대해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아동빈곤에 대한 기존 이론으로서 인적자본이론, 사회적 자본이론, 가족 스트레스모형, 생태체계이론 등 다차원적 빈곤이론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빈곤이 아동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가족기능, 인지적 자극과 문화적 자본, 지역사회 환경과 주거 환경, 학교의 역할과 학교 적응 등의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아동빈곤의 측정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빈곤 측정 방식인 빈곤율, 빈곤갭과 더불어, OECD, UNICEF, TARKI 사회연구소, 영국 정부 등에서 개발된 다차원적 아동(복지) 빈곤지표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EU와 미국의 아동빈곤 현황과 아동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 EU와 미국의 최근 아동 빈곤 동향과 다차원적 빈곤의 실태와 특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2부는 아동 빈곤의 최근 동향과 다차원적 실태를 분석하는데 할애되었다. 먼저 제4장에서는 아동 인구의 절대 수와 상대적인 구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아동 빈곤율과 빈곤갭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통하여 한국 아동빈곤 수준의 상대적인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여 빈곤 아동가구의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빈곤아동가구와 빈곤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과 경제적 수준, 주거, 교육 및 양육, 건강, 그리고 문화생활의 실태를 비빈곤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제5장의 양적분석에 이어 본 보고서를 위해 실시된 「저소득 아동 질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초보장 수급과 비수급 빈곤아동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질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제3부에서는 아동빈곤의 유형별 특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 빈곤예방법」 상의 빈곤아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 저소득아동, 다문화 저소득아동, 그리고 시설아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7장에서는 한부모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본 후,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보장 수급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비빈곤 한부모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제8장에서는 다문화가구의 규모와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2015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보장 수급 및 저소득 다문화가구과 아동의 특성을 빈곤 다문화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어서, 제9장에서는 「시설 아동 질적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질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부이자 제10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된 아동빈곤에 대한 검토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본계획수립을 포함한 아동빈곤에 대한 대응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표 1-1〉 주요 연구 내용

| 구분 | 영역 | 주요 연구 내용 | 분석 방법 |
|----|----------------------|---|----------------|
| 1부 | 이론 및 해외사례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빈곤 관련 다차원적 접근·이론 •아동빈곤의 계층방법 •EU와 미국의 아동빈곤 현황 및 대응 전략 | 국내외 문헌검토 |
| 2부 | 아동빈곤 추이 및 다차원적 실태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빈곤의 최근 동향 •아동빈곤의 국제 비교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물질적 박탈) 및 경제활동 -주택 및 주거환경 -교육 및 양육 -건강 -가족생활 및 문화활동 등 •빈곤아동의 생활상에 대한 질적 분석 | 계량 분석 질적 분석 |
| 3부 | 유형별 빈곤아동 실태 및 특성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구 아동실태 •다문화가구 아동실태 •시설아동 실태 | 계량 분석 질적 연구 |
| 4부 | 정책적 함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분석 함의 도출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빈곤아동의 실태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 기존 문헌 자료의 검토를 통해 아동빈곤에 관한 이론적 논의, 아동빈곤의 계층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 그리고 국내외 아동빈곤의 현황과 이에 대한 주요 대응책을 정리하였다. 둘째, 기존의 대표성 있는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계량적 방법을 통해 아동빈곤의 동향과 실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양적 연구에서 보여줄 수 없는 빈곤아동의 생활실태와 심리·인지적 상태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역동적인 분석을 위하여 질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계량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 양적 분석

먼저 전반적인 아동빈곤의 추이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가 활용되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조사는 2006년 이전까지는 2인 이상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가구만을 대상으로 아동빈곤 추이가 분석되었다. 1인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에 대한 자료가 가용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빈곤율과 아동빈곤갭 등의 추이 분석도 추가로 이루어졌다. 단, 이 경우에도 농어가가 제외된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빈곤아동의 다차원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루어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가 활용되었다. 아동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아동종합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도 있지만, 이 조사는 아동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소득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빈곤아동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국 대표성이 있는 원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동종합조사」 대신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전국가구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15년 실시되었다. 단, 소득 등의 기준연도는 2014년이다. 1차 기초조사 14,000여 가구, 2차 심층조사 4,800여 가구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

하여 빈곤아동의 경제적 수준, 주택과 주거환경, 교육과 양육 여건, 건강 상태, 문화활동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1-2〉 아동빈곤의 일반적 실태와 동향 분석 원자료

| 구분 | 가계동향조사 (1990~2015) | 복지욕구조사 (2015) |
|-----------------|---|---|
| 조사목적 | 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 조사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조사 실시, 빈곤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도출 |
| 조사대상 | 2006년 이전 2인이상 도시가구 2006년 이후 전국가구(농어가 제외) | 전국가구 |
| 조사주기 | 1년 | 3년 |
| 최초작성년도 | 1990년 | 2003년 기준 |
| 최근작성년도 | 2015년 | 2015년(2014년 기준) |
| 표본추출틀 | 인구주택총조사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 표본규모 | 9,000가구 내외 | -1차: 약 14,000가구(900조사구) -2차: 약 4,800가구 |
| 연구 및 조사 실시기관 | 통계청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법적근거 | 통계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 3년마다 실태조사 법제화 |

한부모가구와 다문화가구 저소득 아동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가 활용되었다. 두 조사는 모두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되었으며, 각각 한부모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경우 2012년 이래 3년마다 한번 수행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연도는 2015년이다. 표본의 규모는 약 2,500가구이며, 부자가구와 모자가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15년 7월 1일 기준 행정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외국인을 표집틀로 해서 전국에서 17,849가구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의 결혼 및 가족 생활,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 다

양한 실태 자료를 담고 있다. 조사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3〉 아동 가구유형별 분석 원자료

| 구분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5)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15) |
|-----------------|---|--|
| 연구목적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기초 자료 작성 및 정책지원개선방안 마련 | 다문화가족에 대한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 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등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
| 조사대상 | 전국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조사지역: 54개 지방청·사무소 관할지역 (1,033개 동·읍·면) |
| 조사주기 | 3년 | 2009년, 2012년, 2014년, 2015년 |
| 최초작성년도 | 2012년 | 2009년 |
| 최근작성년도 | 2015년 | 2015년 |
| 표본추출틀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2015년 7월 1일 기준시점 행정등록자료(외국인 등록 등) |
| 표본규모 | 약 2,500가구 | 17,849가구 |
| 연구 및 조사 실시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대행: 한국갤럽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대행: 통계청 |
| 법적근거 | 한부모지원법 제6조 (3년마다 조사실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 |

나. 질적 분석

본 보고서에서 양적 연구는 기존의 대표성 있는 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양적 조사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빈곤 아동의 구체적인 생활상과 특히 시설 아동의 실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조사가 실시되었다.

1) 저소득 아동 질적 조사

①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은 빈곤가구에 거주하는 성인과 아동이며, 빈곤 경험과 실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론적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복지패널에 연계된 질적패널 중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17가구를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선정하였으며, 이 중 4가구가 거부하여 총 13가구(성인 13명, 아동 14명)⁴⁾가 연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기존 패널조사를 통해 오랜 기간 조사관계가 형성되어, 짧은 시간에 관계형성이 이루어지고 거부감 없이 개방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하는 성인이 있는 빈곤 아동의 전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활참가 가구에 대한 의도적 표집을 실시하여, 강원지역에서 3가구(성인 3명, 아동 3명)가 연구대상에 더해졌고, 서울의 한 지역아동 센터를 통해 3가구(성인 3명, 아동 3명)를 추가 표집하였다. 이에 총 19가구(성인 19, 아동 20)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 1-4>는 연구대상의 구성 및 일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4) 이 중 #13 가구의 경우 두 명의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고로 4가구의 거부 사유는 아래와 같다.

#2: 자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루다 거부

#6: 응답자인 조모가 기억력이 안좋다는 이유로 거부

#10: 짧은 설문인줄 알았는데 인터뷰라는 사실에 대해 거부

#15: 연락하기로 하고 차일 피일 미루며 연락을 꺼려 거부의사로 판단

〈표 1-4〉 기초보장 수급·비수급가구 연구대상의 일반 현황

| 구분 | 성인 (N=19) | 아동 (N=20) |
|----------|---|-------------------------------|
| 지역 | 서울:7, 경기:6, 강원:6 | 서울:7, 경기:6, 강원:7 |
| 성별 | 남:4, 여:15 | 남:12, 여:8 |
| 나이(평균) | 33-72세 (46.4세) | 7-18세 (14.35세) |
| 학력 |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8 대재:1, 전문대졸:1, 대졸:2, 대학원:1 | 초:6, 중:6, 고:8 |
| 가구유형 | 한부모:7, 양부모:11, 조손:1 | 한부모:7, 양부모:12, 조손:1 |
| 수급여부 | 수급:9, 차상위:3, 기타 일반:7 | 수급:9, 차상위:3, 기타 일반:8 |
| 소득(평균) | 158.8만 | <10만: 1, 30-40만: 2, 40-50만: 2 |
| 가구주 여부 | 가구주: 11, 비가구주: 8 | |
| 아동과의 관계 | 부:4, 모:14, 조모:1 | |
| 가구원수(평균) | (4.2명) | |
| 자녀수(평균) | (2.5명) | |

② 조사표의 구성

심층면접을 위해 본 연구는 질문 문항을 조사표로 사전에 구성하되, 캐묻거나, 질문 순서를 바꾸거나,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문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표의 내용은 빈곤의 경험과 실태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및 성인 각각에 대한 질문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1-5〉 질적조사표의 구성

| | 성인 | 아동 |
|----------------|--|--|
| 질문 문항 분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 주거환경○ 문화생활○ 건강○ 빈곤 경험○ 사회정책 체감○ 탈빈곤 전망○ 자녀양육 및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꿈과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 및 고민○ 건강○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 학교 생활, 학업○ 문화생활○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주거환경○ 진로 및 꿈 |

③ 자료수집

2016년 7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위해 4명의 조사원이 조사표를 들고 각 가구를 방문하여, 참여자 개인별로 1-2회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⁵⁾, 해당 면접시간은 성인의 경우 평균 81분, 아동의 경우 평균 57분이었다. 면접내용은 IRB에서 승인을 받은 절차에 따라 참여자의 동의 후 녹취되었고, 각 조사원들은 가구의 물리적 환경이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이나 느낀 감정 등을 현장노트로 작성하여, 면접 종료 후 사례요약과 함께 제출하였다.

④ 자료분석

면접이 끝남과 동시에 조사원들은 현장노트를 포함한 각 사례들에 대한 요약본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녹취된 면접내용을 전사(transcription)하고, 동시에 질문 단위별로 면접 내용을 코딩하였다. 이후 2차례에 걸친 조사원간의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원들은 연구자의 시각으로 아동빈곤의 다차원성과 박탈지표와 관련된 유의미한 발견을 서로 나누고, 동시에 의미 있는 코딩의 단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 조사원이 진행한 심층 면접 내용에 대해, 최종 분석자가 현장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질적분석과 해석에 대한 엄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각 사례 간에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아동빈곤의 경험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상이한 상황에 따른 차별적인 대응방식에 대한 통찰도 가능하게 하였다.

2) 시설아동 질적 조사

① 연구사례와 연구참여자

이 연구에서 ‘사례’는 개별 아동양육시설(대규모와 중소규모 각 1개소)과 아동공동생활가정들이다. 서울과 충남 두 지역에서 현원 50인 이상의 아동양육시설과 50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7인 이내의 공동생활가정 각 1개소, 총 6개 시설을 선정하고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5) 2회 이상의 면접을 실시한 경우는 총 6사례이며, 사유는 녹취불량(n=1) 및 추가조사 필요성(n=5)에 의한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그 보호제공자인 시설 담당자(관리자 또는 보육사, 시설별로 1명씩 총 6명)들이다. 각 시설별로 아동은 초등학생 고학년(4-6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 각 1-2명씩을 선정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시설아동은 총 6개 시설에서 초등학생 7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6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이다.

〈표 1-6〉 시설조사 연구참여자-종사자 특성

| 번호 | 지역 | 정원 | 현원 | 직급 | 성별 | 연령 | 학력 | 근속기간 | 결혼여부 | 가족 |
|-----|----|-----|-----|-----|----|-----|-----|---------|------|----------|
| 시설1 | 서울 | - | 80명 | 보육사 | 여 | 35세 | 초대졸 | 13년 4개월 | 미혼 | 부모, 형제 |
| 시설2 | 충남 | - | 76명 | 보육사 | 여 | 28세 | 대졸 | 11개월 | - | - |
| 시설3 | 서울 | 50명 | 50명 | 보육사 | 여 | 32세 | 대졸 | 9년 1개월 | 미혼 | 부모, 형제 |
| 시설4 | 충남 | 52명 | 49명 | 보육사 | 여 | 49세 | 대졸 | 12년 | - | - |
| 시설5 | 서울 | 7명 | 7명 | 보육사 | 여 | 40대 | 대졸 | 1년반 | 기혼 | 배우자, 자녀1 |
| 시설6 | 충남 | 7명 | 7명 | 보육사 | 여 | 30대 | - | 7년 6개월 | - | - |

②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반구조화된 질문지(구조화된 박탈지표 포함)를 활용한 심층면접이다. 질문지는 시설아동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의 어려움에 대한 개방적 질문으로 시작하여 의식주, 물리적 환경, 재정, 건강, 교육, 문화, 가족과 관계망, 일상생활 패턴, 미래 전망 등을 묻는 구체적인 질문들과 아동박탈지표를 재구성한 구조화된 질문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시설아동의 빈곤과 관련된 객관적인 실태와 주관적인 의미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시설아동용 질문지와 시설종사자용 질문지는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사원들이 3-4회 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참여자로 1-2회씩, 1-2시간 정도의 면접을 진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설종사자들을 통해 시설아동들의 생활조건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시설 방문시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생활환경 등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③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 접근에서 주로 활용하는 사례별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별 분석은 각 사례(시설)별로 연구참여자(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과 시설 종사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난 빈곤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례간 분석은 각 사례를 넘어서 시설아동들과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빈곤의 맥락과 그 안에서 나타난 차이점들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사례간 분석에는 아동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시설종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분석, 통합적 맥락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사례별 분석의 경우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본 연구보고서에는 생략하고, 시설 종사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의 4개 집단별로 분석한 사례간 분석과 통합적 맥락분석 결과만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아동빈곤의 이론 및 측정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제1절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제2절 아동빈곤의 측정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2

아동빈곤의 이론 및 측정에 관한 < 다차원적 접근 <

제1절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1. 아동빈곤을 설명하는 다차원적 이론

빈곤은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며, 인간 생활 전반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민감한 발달과정을 겪고 있는 아동기의 빈곤경험은 다른 인간 발달 시기에 비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Duncan, Brooks-Gun, 1997). 가족소득이나 빈곤의 영향은 아동의 여러 발달 영역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veman and Wolfe, 1994; Hill and Sandfort, 1995; Duncan, Brooks-Gun, 1997;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특히 이러한 아동의 발달은 미래의 사회·경제적 복리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 분야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Duncan, Brooks-Gun, 1997; Haveman and Wolfe, 1994; McLoyd, 1998; Corcoran, 2000; Bradley and Corwyn, 2002). 또한 최근에는 아동기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부모나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환경 등 여러 가지 아동을 둘러싼 복합적인 환경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 단편적인 빈곤의 영향 여부를 넘어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어떠한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광혁, 2015).

가족의 소득수준이나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이론과 가설로 설명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이론으로는 인적자본이론, 사회적 자본이론, 가족 스트레스모형, 생태체계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각각 아동기 빈곤의 영향을 매개하는 다양한 변수 및 복합적 경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때로 다소 중복적인 변수 및 경로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론들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인적자본이론은 가족의 소득수준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인적자본이론은 인적자본도 실물자본과 같이 투자에 의해 축적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및 그 효과를 설명한다(Becker, 1981; Schultz, 1961).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아동의 경우, 미래 생산성 향상 또는 이를 위한 과정으로서 발달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가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인적자본에 대한 부모의 금전적, 시간적 투자는 투자에 대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투자의 비용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Becker, 1981; Becker and Tomes, 1986). 즉, 경제적 자원과 능력이 풍부한 부모의 경우, 아동의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양한 금전적, 시간적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빈곤한 부모의 경우, 투자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 아동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금전적, 시간적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이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부모는 아동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나 양육환경 및 양육비용에 대한 투자보다는 일상적인 생활비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높게 고려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아동에 대한 지원 및 투자의 결여 또는 감소가 낮은 인적자본의 형성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낮은 발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Becker and Tomes, 1986; Guo and Harris, 2000; Bradley and Corwyn, 2002; Linver et al, 2002; Eamon, 2002). 특히, 아동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부모의 투자는 발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지적 자극이나 사교육 지원 및 관여, 기초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지원, 가정 내 물리적, 정서적 환경 및 지역사회 환경이나 학교의 수준 선택, 건강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Brooks-Gunn and Duncan, 1997).

나. 사회적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

아동의 발달에 대한 가족 소득의 영향 경로를 부모의 경제적 비용에 따른 투자로 설명한 인적자본이론과 달리, 사회적 자본이론은 아동의 발달에 유용한 가족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나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발달의 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사회적 자본이론은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신뢰, 규범 등이 개인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Coleman, 1990). 즉 사회적 자본이론은 경제적 자본이 인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인정되지만, 사회적 자본이 기초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자본의 작용이 인간의 생산성으로 현실화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1990). 특히, 사회적 자본이론은 가정 내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인간 발달이나 생산성, 특히 아동의 발달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Coleman, 1988; 1990). 부모가 자신이 가진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자본은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통해 아동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자신이 축적한 경제적, 인적 자본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아동을 중심으로 한 가족 내외의 사회적 자본, 즉 아동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나 가치, 그리고 부모와 아동의 관계 등이 기초되지 않을 경우, 부모가 가진 여러 차원의 자본을 아동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낮은 발달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아동의 교육에 대한 가치가 큰 부모의 경우, 가정 내 사회적 자본, 즉 부모의 교육적 기대나 관심, 교육적 참여 및 관여 등을 통해 부모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부모가 가진 경제적 자본이 아동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매개적 역할 또는 경로 변수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부모의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빈곤에 처했을 경우,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빈곤한 부모는 아동에 대한 교육적 참여나 관심, 교육적 기대가 낮아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Brody, Stoneman, and Flor, 1995; Brody, Flor, and Gibson, 1999; Hill, Castellino, Lansford, Nowlin, Dodge, Bates, and Pettit, 2004).

또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가 형성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나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도 아동의 발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Wilson(1991a: 1991b)은 집합적 사회화 모델(collective socialization model)을 통해, 아동 발달에 대한 이웃환경의 영향이 이웃 간의 통합성이나 상호신뢰, 그리고 역할모델과 상호감독 등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Sampson, Raudenbush, and Earls(1997) 역시,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사회적 통합을 결합한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의 개념을 통해, 이웃환경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공동체나 지역사회 내의 부모들 간의 관계나 연대의 수준, 아동교육에 대한 상호 감독 및 보호나 신뢰, 집합적 규범과 양육행위에 대한 상호감독과 조언, 모방 등에 따라 아동의 발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Braatz and Putnam, 1996; Lee and Croninger, 1996). 다시 말해, 빈곤한 가정은 빈곤하고, 사회적 통합성이 떨어지며, 바른 성인역할모델 및 아동에 대한 상호 감독의 부재 등 위험요소가 많고 사회적 자본이 적은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며(Wilson, 1987; Sampson and Morenoff, 1997; Duncan, Brooks-Gunn, 1997; Corcoran, 2000), 이러한 이웃환경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zill, 1984; Homel and Burns, 1987). 특히, 초기 학령기 아동은 집에서 벗어나 이웃환경, 특히, 학교, 또래, 선생님, 이웃 주민 등과의 접촉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이웃환경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Leventhal, Brooks-Gunn and Kamerman, 1997).

또한 이러한 이론들은 주로 아동발달에 대한 이웃환경의 간접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사회적 자본이 결여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부모는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과 곤란이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부모의 아동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Jones, Clark, Hart, Plickert and Tepperman, 2002). 또한 이웃 간의 통합성이나 상호신뢰가 떨어지고, 역할모델과 상호감독이 부재한 이웃환경의 영향은 가족의 상호작용 방식과 부모의 양육행동의 습득 및 모방, 상호감독의 부재 등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다(Mayer and Jencks, 1989; Brooks-Gunn, Duncan and Klebanov, Sealander, 1993; Klebanov, Brooks-Gunn, Chase-Lansdale and Gordon, 1997; Leventhal et al, 1997; Corcoran, 2000).

다. 가족 스트레스모형(Family stress model)

아동의 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 경로를 설명하는 또 다른 관점은 가족스트레스 모형이다. 이 관점은 인적자본이론의 경제적 투자나 사회적 자본이론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또는 지역사회의 집합적 사회 자본 관점과 달리, 비자본적인 가족관계와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Conger, Conger, Elder, Simons, Whitebeck, 1992; Huston, McLoyd, Coll, 1994; Conger, Wallace, Sun, Simons, McLoyd, and Brody, 2002). 가족 스트레스모형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수행된 실업이나 극심한 경제적 박탈이 부부관계 및 자녀의 생활 등 전반적인 가족 기능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연구들이 모태가 되었으며(Elder, 1974; Elder and Caspi, 1988), 1980년대 이후, Conger와 그의 여러 동료들에 의해 수행된 다수의 연구들(Conger et al, 1990; 1992; 1993; 1994; 1997, 2002)과 McLoyd(1990)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면서,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 현재의 가족스트레스모형이 형성되었다(Conger and Donnellan, 2007). 이러한 가족 스트레스모형은 가족소득의 수준이나 소득의 변화가 부모의 정서적 안녕이나 스트레스,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이러한 가족과정 속에서 아동의 정서적 발달, 그리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한다(McLoyd, 1990; Conger et al 1992; Huston et al, 1994; Conger et al, 1997). 가족 스트레스모형에서는 낮은 가족소득이나 소득의 변화 특히, 급격한 감소에 대해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고, 인지하는가에 따라 가족소득과 소득의 변화가 가족과정 또는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Conger et al, 1992; Conger et al, 1997). 즉, 가족 소득 수준이 낮은 빈곤한 가족이나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가족은 수준 낮은 식생활과 질이 낮고, 위험한 이웃환경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러한 열악한 생활조건과 이러한 조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인해 부모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부모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증가되기 쉽고, 이러한 갈등은 부모-자녀 간 갈등 또는 부적절한 양육이나 정서적 지지의 감소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 가족과정을 초래하여 아동의 자기 유능감이나 자기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McLoyd, 1990; Conger et al, 1997). 최근 Conger와

Donnellan(2007)은 이러한 가족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부부 및 부모-자녀 간 가족관계나 가족 기능에 따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투자행위, 즉 교육적 지원이 달라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모형인 상호작용모형(Interactionist model)을 제시하여, 가족 스트레스 이론과 인적자본이론과의 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라.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

이상에서 설명한 인적자본이론, 사회적자본이론, 가족스트레스 모형이 빈곤과 아동발달을 매개하는 변수 간의 단편적 관계의 경로를 제시한 성격이 강하였다면, 생태체계이론은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와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들의 매개적 관계는 물론, 이들 매개변수 또는 매개변수 체계들 간의 다차원적인 복합적 상호작용 관계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인적자본이론에서는 빈곤이 부모가 제공하는 인지적 환경이나 사교육 지원 등 하나의 변수를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가족 스트레스 모형 역시, 빈곤이 부정적 가족기능을 통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하나의 단편적인 매개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이들 두 이론에서 각자 설명하고 있는 매개변수들은 각기 독립적인 사건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족기능 변수와 부모의 교육적 지원 및 투자 변수 등 매개변수들 간에도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Eamon, 2002; Linver et al, 2002; Conger and Donnellan, 2007). 즉 인적자본이론이나 사회적자본이론, 그리고 가족스트레스 모형 등의 이론들은 매개변수로 제시한 인지적 환경과 부정적 가족기능 간의 연관성 또는 사교육 지원과 가족기능 변수 간의 상호관계 등 매개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생태체계이론은 아동을 둘러싼 다차원의 체계들 간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아동발달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이론으로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매개하는 여러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인식의 틀을 제공해 준다(Eamon, 2002). 구체적으로 생태체계이론은 환경 속에서의 인간발달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Bronfenbrenner(1979)에 의해 아동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생태체계이론에서는 아동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기존의 이론적 관점들

이 개인의 속성들에만 초점을 맞추었거나, 개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환경과 그 환경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아동발달을 가져오는 아동과 환경의 상호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에서 출발하였다. 이 관점은 개인, 부모, 가족, 또래관계, 학교, 지역사회 등 아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요소들이 아동발달과 관련되어 존재하며,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복합적 상호작용 메커니즘 속에서 발달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Bronfenbrenner는 이러한 아동발달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상호 분리되어 존재하면서도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 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 등 5가지 차원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 체계 등 3가지 체계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미시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즉각적으로 접촉하는 부모나 가정, 친구, 양육시설, 학교 등의 객관적인 물리적 조건이나 물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즉 인간이 단순히 주어진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경험적 인지정도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발달해 간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미시체계의 하나로서 가정의 경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체계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연령, 건강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의 스트레스, 양육방식, 부부 및 가족 관계 등 가족 관계적 특성, 한 부모 가족, 형제 수 등 가족의 구조적 특성, 그리고 아동의 건강 및 기질적 특성 등이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동 역시, 이러한 미시적 환경을 인지하고, 상호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둘째, 중간체계는 발달하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 또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적 특성들 역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경우, 가정과 학교 또는 가정과 이웃, 가정과 친구 집단 등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아동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러한 미시체계들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발달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미시체계인 아동의 고유한 가족 관계나 가족 기능적 특성은 다른 미시체계인 아동의 학교에서의 생활과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미시체계 간 상호관계 속에서 아동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가정 내 부모의 특성 중의 하나인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 양육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러한 부모의 아동에 대한 부정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학교에서의 행동문제를 일으키거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외 체계는 발달하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아동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 및 연결들을 의미한다. 즉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아동발달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나 특성이 아동발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체계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 체계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체계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인과적 순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외 체계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발달하는 아동의 미시체계에서 일어나는 과정들과 연결되고, 이 미시체계의 과정들은 아동의 발달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절차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경우, 이웃이나 지역사회 특성, 부모의 소득 및 직업, 다른 형제의 친구관계, 부모의 사회적 연결망 등이 이러한 외 체계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외체계와 미시체계, 아동발달 간 관계의 인과적 영향을 예를 들면, 부모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변화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는 부모의 스트레스 증가시키고, 부정적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의 증가 및 아동의 정서적 수준 저하 등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예로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이나 사회적·정서적 환경(집합적 규범, 해체 및 통합, 상호 접촉 정도) 등도 이러한 인과적 과정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해체된 지역사회에서의 거주는 부모의 경제 활동 및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이 가족관계나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동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참여하는 체계인 가족 및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동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 체계 등으로 구성된 아동발달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포괄적 접근인 생태체계적 접근은 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생태 체계적 접근

근은 가정의 경제적 박탈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된 개인들의 심리적 변화 및 가정의 정서적 기능, 또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 및 교육적 지원이나 관여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또한 아동발달의 핵심적 체계라 할 수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발달과 관련된 또 다른 체계인 아동의 또래관계, 학교, 지역사회 환경 등 여러 체계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속에서 아동의 발달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틀을 제공해 준다(Eamon, 2002). 이러한 매개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증은 빈곤과 아동발달의 영향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의 결합 또는 포괄적 설명 이론의 탐색 가능성까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빈곤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가. 빈곤의 영향

가족소득이나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가족소득이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러 소득 계층 중 특히, 빈곤층에서 소득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Duncan and Brooks-Gunn, 1997; Duncan, Yeung, Brooks-Gunn, and Smith, 1998; McLoyd, 1998; Corcoran, 2000; Bradley and Corwyn, 2002; Sirin, 2005)⁶⁾. 또한 단기적인 빈곤보다는 여러 해에 거친 장기적인 빈곤이 누적된 빈곤의 영향으로 인해 아동의 발달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Duncan et al, 1994; Korenman et al, 1995; Smith et al, 1997; McLoyd, 1998). 특히 몇몇 선행연구들은 가족소득이나 빈곤의 정도가 아닌, 빈곤의 지속기간(duration)과 시기(timing)에 따라 빈곤이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도 하고, 적어질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6) 가족소득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두 일관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Mayer(1997)나 Rowe and Rodgers(1997)의 경우, 실제로 가족소득의 영향은 부모의 지능이나 가치, 태도 등 관측되지 않은 가정 내 변수의 대리변수로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관측되지 않은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소득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Duncan, Yeung, Brooks-Gunn, and Smith(1998)는 형제 자료를 이용한 효과고정모형(fixed-effect model)을 통해 관측되지 않은 가족 특성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소득의 효과가 적지 않음을 밝혔다. 특히, 초기 아동기나 빈곤층의 경우, 그리고 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Duncan, Brooks-Gun and Klebanov, 1994; Korenman, Miller and Sjaastad, 1995, Conger, Conger and Elder, 1997; Smith, Brooks-Gun and Klebanov, 1997;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빈곤층은 단기빈곤이나 일시적 빈곤을 경험하지만, 적지 않은 가구가 장기적인 연속빈곤을 경험하고(Bane and Ellwood, 1983; 구인회, 2005), 이러한 가구의 아동은 발달이 비빈곤 또는 일시적 빈곤에 비해 매우 크다고 보고 되고 있다. 또한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는 시기가 이룰수록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보고 된다. 즉, 단기간의 빈곤보다 연속적인 장기빈곤을 경험할수록, 또는 이른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할수록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저체중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의 분석을 통해 빈곤 기간의 영향을 연구한 Duncan 등(Duncan, Brooks-Gun and Klebanov, 1994)은 아동이 단기적 빈곤보다 장기적인 빈곤을 경험할 경우, 인지발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Koreman 등(Korenman, Miller and Sjaastad, 1995) 역시, 장기 빈곤은 일시적 빈곤에 비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보고했다. 또한 Brooks-Gun과 Duncan(Brooks-Gun and Duncan, 1997)은 아동기 초기에 경험하는 빈곤이 아동기 후기에 경험하는 빈곤보다 학구적 성취에 더 부정적이라고 보고했다.

이렇듯 빈곤은 다차원적인 방식이나 경로를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Brooks-Gun and Duncan, 1997; Conger, Ge, Elder, Lorenz and Simons, 1994; Duncan, Brooks-Gun and Klebanov, 1994; Korenman, Miller and Sjaastad, 1995)은 빈곤은 잘 알려졌다듯이 아동의 능력과 학구적 성취나 학력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이나 인지적 영역의 발달, 정서적 문제나 행동적 문제에 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되고 보고되어 왔다. 또한 그 과정 역시, 부모의 교육적 투자나 지원, 가족기능, 학교 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나. 빈곤이 아동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의 과정

아동의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가족소득의 영향이 경제적 어려움 정도, 아

동에 대한 부모의 물질적, 시간적 투자나 교육적 관여, 가족 관계 및 가족과정, 지역사회 환경, 학교생활 적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Duncan, Brooks-Gun, 1997; McLoyd, 1998; Corcoran, 2000; Bradley and Corwyn, 2002; 김광혁, 2015). 즉 빈곤을 경험한 가족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발달이 낮게 나타나며, 이러한 영향이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 부모의 투자 감소나 교육적 관여의 감소, 부정적 가족과정, 빈곤하거나 해체된 지역사회에서의 거주,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을 통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발달에 대한 빈곤이나 가족 소득의 영향을 매개하는 과정이나 매개변수들을 밝힌 선행 연구들은 가족소득이나 빈곤의 영향이 다양한 매개변수들을 통해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가족기능의 관점

아동에 대한 빈곤의 영향 과정을 설명한 첫 번째 연구 유형은 빈곤이 부모가 인지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부모의 정서 상태 및 스트레스를 높이고, 부부 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등 가족 관계나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들며, 이러한 부정적 가족과정이 아동의 정서적 유능감이나 자기 통제력 등 정서적 상태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낮은 발달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Conge et al, 1992; Conger et al, 1997; Jackson, et al, 2000; Conger et al, 2002; Mistry, Biesanz, Taylor, Burchinal and Cox, 2004; 김광혁, 2007; 김광혁, 2015).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 스트레스모형에 기초한 과정분석들로서 가구소득이나 빈곤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가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인지한 경제적 어려움 및 박탈감 정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즉,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보다는 이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이나 실업,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박탈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연구한 초창기 연구들로서 저소득이나 소득 상실의 심리적 충격 정도를 부정적 가족과정이나 결과적인 아동발달 저하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Voydanoff, 1990; Conger et al, 1992; 1993; Conger, Ge, Elder, Lorenz and Simons, 1994; Conger et al, 1997). 따라서 가족소득이나 빈곤의 영향의 핵심적 매개변수의 하나로 부모가 인지하거나 느끼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2) 인지적 자극 또는 문화적 자본 관점

아동에 대한 빈곤의 영향 과정을 설명한 두 번째 연구 유형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부모의 아동에 대한 인지적 자극이나 교육적 지원, 물리적·정서적 가정환경, 아동 건강 등 물질적 투자를 중심으로 한 매개변수들을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Guo and Harris, 2000; Eamon, 2002; 오승환, 김광혁, 2012; 김광혁, 2015).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적자본이론에 기초한 연구들로서 빈곤 상황이 부모의 교육적 투자나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질 저하 및 건강 악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아동의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의 인지적 자극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주요한 매개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다(Guo and Harris, 2000; 구인회, 정익중, 박현선, 2006).

3) 통합적 관점

아동에 대한 빈곤의 영향 과정을 설명한 세 번째 연구유형은 이 분야 연구의 가장 주요한 연구의 유형으로 아동의 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을 매개하는 인지적 자극이나 사교육 등 학습 지원, 물리적 환경 조성 등 부모의 물질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변수와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의 변화, 아동의 정서 상태의 저하 등 비물질적인 가족 과정 변수들을 한 모형에서 동시에 고려한 연구들이다(Duncan et al, 1994; DeGarmo, Forgatch, and Martinez, 1999; Linver et al, 2002; Yeung et al, 2002; 구인회 외, 2006; 김광혁, 2006b; 2006c; 2007; Gershoff, Aber, Raver and Lennon, 2007). 이들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아동의 발달에 대한 가족 빈곤의 영향이 부모의 물질적 지원이나 가족과정 등 별개의 과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특정한 매개변수가 주요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물질적 투자변수와 비물질적 가족 관계 변수 모두를 한 모형에서 고려한 분석을 시도 하였다. 더 나아가 Yeung과 그의 동료들은 가족과정 변수들이나 인적 자본 투자 변수들이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소득의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두 유형의 변수들이 한 모형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부분적인 매개변수 간 상호작용의 모형을 제시하였다(Linver et al, 2002; Yeung et al, 2002).

4) 부모의 교육적 역할의 영향

아동에 대한 빈곤의 영향 과정을 설명한 네 번째 연구유형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을 부모-자녀 관계 및 양육 행동 등 가족 과정변수와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참여, 생활 감독, 그리고 교육적 기대 변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변수 등이 매개한다는 연구이다(Brody, Stoneman, and Flor, 1995; Brody, Flor, and Gibson, 1999; Gutman and Eccles, 1999; 윤현선, 2006). 즉, 이 유형의 연구들 역시, 아동의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족과정 모델에서 제시한 변수들과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모의 교육적 참여나 아동감독, 교육적 기대 변수들이 동시에 고려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들은 빈곤이 부모-자녀 관계 및 양육 행동의 질을 낮추고, 이러한 가족기능의 저하가 부모의 교육적 관여나 교육적 참여의 수준을 낮추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가족스트레스모형과 사회적 자본이론에서 설명하는 매개변수들이 결합된 선행연구의 유형은 공통적으로 부모-자녀 간 관계 및 부모의 양육행동을 주요한 매개변수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이론의 자연스러운 결합의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족 부부 관계나 부모-자녀 간 정서적 관계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변화 및 발달의 과정을 강조한 성격이 강한 반면, 사회적 자본이론은 부모-자녀 간 교육과 관련된 관계나 교육적 양육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5) 지역사회 환경 및 주거 환경의 영향

아동에 대한 빈곤의 영향 과정을 설명한 다섯 번째 연구유형은 지역사회 환경과 가족 빈곤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자본 등 지역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한 가정은 빈곤하거나 해체된 지역사회 또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빈곤한 지역사회의 여러 부정적 요소들과 가정환경이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부유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정 아동에 비해 발달이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지역사회의 영향은 주로 부유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집합적 사회화나 교육적 시설 여건 등의 작용에 의해 빈곤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들보다 상대적으로 발달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면서, 빈곤한 지역사회환경보다는 부유한 지역사회환경의 영향이 유의미하였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Brooks-Gun et al, 1993; 임세희, 2010). 또한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환경의 영향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Cooper, 1990; Klebanov et al, 1997; Chung and Steinberg, 2006; 김광혁, 2006b). 즉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의 영향을 매개하는 지역사회 환경과 가족과정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빈곤한 가족의 경우,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웃 간의 통합성이나 상호신뢰가 떨어지고, 역할모델과 상호감독이 부재한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고, 가족 빈곤과 지역 환경이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Jones, Clark, Hart, Plickert and Tepperman, 2002). 더불어, 지역사회의 환경은 가족의 상호작용과 부모의 양육행동,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나 학습 환경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즉 부모들은 이웃환경 내의 다른 부모들의 영향을 통해, 아동양육방법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등 양육행동에 대한 상호 학습과 아동 양육에 대한 상호 감독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이웃환경의 영향을 통해 공유된 낮은 가정의 학습 환경을 통해서도 아동의 발달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Mayer and Jencks, 1989; Brooks-Gun et al, 1993; Gephart, 1997; Klebanov et al, 1997; Leventhal, et al, 1997).

6) 학교의 역할 및 학교 적응의 영향

또한 학교생활 특성이나 학교 부적응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의 매개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DeGarmo et al, 1999; Stewart, 2006).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동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교생활이 아동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Roeser, Eccles, and Sameroff, 2000). 선생님의 태도나 아동이 가진 학교에 대한 가치, 학교 및 교실의 분위기 등과 같은 학교생활의 특성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Rutter, 1983).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지지받거나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경우, 아동발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나 선생님과 관계의 질이나 친구관계의 질적 수준에 따라 아동의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Eccles and Midgley, 1989; Roeser et al, 2000). 즉 아동기에 학교생활 적응이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관심을 가질 점은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역시, 사회계층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Rutter, 1983; Alexander, Entwisle, and Thompson, 1987; Pagani, Boulerice, and Tremblay, 1997). 이러한 소득 계층 간 학교적응의 차이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빈곤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빈곤하거나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이 다소 미성숙하거나, 자기통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빈곤 학생들에 대한 발달의 기대를 낮게 갖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저소득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은 비 저소득층 학교의 선생님들에 비해 학교나 교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자원이나 수업방법, 재정적 자원 등 학교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도 빈곤지역 학교의 학생과 비빈곤 지역 학교의 학생 간의 발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Rutter, 1983; Lee and Croninger, 1994). 이러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가족 빈곤의 부정적 영향은 가족 과정이나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Conger, Conger, and Elder(1997)와 김광혁과 차유립(2007)은 이러한 학교생활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빈곤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은 빈곤이 가족 기능이나 부모의 교육 참여 및 감독을 매개로 하여 학교 만족도나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 및 또래 관계 특성 등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나 학습 지원 행동, 아동의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감독이나 관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아동이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과적으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Eamon, 2002). 또한 부모의 직업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학교 적응을 매개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DeGarmo et al, 1999; Stewart, 2006).

지금까지 살펴본 전반적인 선행연구들은 인적자본이론이나 가족 스트레스모형 또는 사회적 자본 이론 등에 기초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아동의 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 경로 및 그 매개 변수들을 설명하고 있다. 관심을 가질만한 점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매개변수로서 가족과정 변수들에 기초하였거나 가족과정 변수들이 매개변수 간 상호작용의 중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매개변수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 가족과정 변수들을 공통적으로 함께 고려하고 있다. 또한 매개변수로서 지역사회의 영향이나 학교생활의 영향은 물론, 부모의 교육적 투자가 가정의 사회적 자본을 강조한 연구들도 가족과정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2절 아동빈곤의 측정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1. 아동 빈곤의 개념과 전통적 측정 방식

빈곤(貧困)의 사전적 정의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 혹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 결핍된 상태”를 일컫는다. 이러한 정의를 따를 때 아동빈곤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⁷⁾

그렇다면 한 사회 혹은 국가에서 빈곤을 측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OECD는 빈곤을 측정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OECD 2013, p.2). 첫째, 사정(assessment)으로 이는 다양한 정책들이 빈민의 조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의 측정방법이 이해가능하고, 시간에 따라 일관적이어야 한다. 둘째, 진단(diagnosis)으로 이는 빈곤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빈곤의 원인과 관련인자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측정되어야 한다. 진단을 위해서는 소득보다 좀 더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7) 물론 이 때 어디까지를 기본적 욕구로 간주할 것인가와 같은 논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지만, 여기에서는 아동빈곤을 계측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와 일반적 계측 도구에 관한 것으로 논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빈곤의 정의와 계측 등을 둘러싼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여유진 외(2005)를 참조하시오.

으로 표적화(targeting)로 빈곤한 것으로 확인된 가족이나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와 정책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빈곤을 측정하는 목적은—그것이 순수히 개인적·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사회적이고 정책적인 것이다. 즉, 누가 빈곤하고, 왜 빈곤하며, 어떻게 빈곤을 해소 내지 경감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사전적 작업으로 빈곤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가장 잘 알려진—그리고 가장 분명한—방법은 기본적인 욕구의 결핍이 발생하는 기준선(poverty line)을 설정하고, 기준선 미만인 사람들의 수를 세는 방법이다. 빈곤율(headcount ratio)이라 불리는 것이 이러한 방법이다⁸⁾. 오늘날 빈곤율은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빈곤 지표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표준화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1인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수가 빈곤율의 조작화된 정의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OECD 역시 “연간 중위 균등화 세후-이전후 가구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가진 가구에 속한 아동(0-17세)의 비율”(OECD Family Database)을 아동 빈곤율(child income poverty rate)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은 OECD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인 중위소득 60%를 빈곤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text{아동빈곤율} = \frac{\text{빈곤선 미만 가구에 사는 아동의 수}}{\text{전체 아동수}} \times 100$$

빈곤율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한 사회의 빈곤 수준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데 좋은 지표이지만, 빈곤선 미만 사람들의 결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⁹⁾ 빈곤의 심도(深度)를 보여주는 빈곤지표로는 빈곤갭(poverty gap)을 들 수 있다. 이 지표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미만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과 빈곤선

8) 하지만 이 방법도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우선 욕구의 결핍이 발생하는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절대적 빈곤선, 상대적 빈곤선, 주관적 빈곤선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무엇이 빈곤인가의 측면에서 소득, 소비지출, 재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여유진 외(2005)를 참조하시오.

9) 센(Sen 1976)은 빈곤지수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공리로 핵심공리, 단조성공리, 이전공리를 제시한다. 핵심공리(focus axion)은 빈곤층의 소득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계층 사람들의 소득만 변화하는 경우 빈곤지수는 동일해야 한다는 공리이다. 단조성공리(monotonicity axiom)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빈곤선 미만 소득을 가진 사람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빈곤지수의 값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공리(transfer axiom)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빈곤선 미만 소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보다 부유한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경우 빈곤지수가 높아져야 한다는 공리이다. 빈곤율은 이 중 핵심공리만 충족할 뿐, 단조성 공리와 이전의 공리를 충족하지 못한다(Sen 1976; 여유진 외 2005, p.82 재인용).

과의 차이를 계산한 값이다. 즉, 총 빈곤갭을 빈곤선으로 나누어 준 값을 총 인구 수로 나누어준 값이 빈곤갭이다. 따라서 아동의 빈곤갭은 아동의 소득—1인 균등화된 가구 소득—과 빈곤선과의 차이를 더한 총 빈곤갭을 빈곤선으로 나누어 준 값을 전체 아동 수로 나누어준 값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아동 빈곤갭} = \frac{1}{\text{전체아동수}} \times \frac{\sum (\text{빈곤선} - \text{빈곤아동소득})}{\text{빈곤선}}$$

빈곤갭을 빈곤율로 나누어주면 소득갭비율(Income gap ratio)이 산출된다. 빈곤갭과 소득갭비율은 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규모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빈곤갭 비율은 빈곤율의 대체지표라기보다는 보완지표로서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센지수(Sen Index), FGT지수(Foster, Greer & Thorbecke Index) 등이 빈곤지수로 많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자주 활용되는 것은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 정도이다.

2.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측정

가.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기원과 발전

전통적인 빈곤지표—대표적으로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는 주로 소득, 드물게는 소비지출 혹은 재산이라는 단일한 경제적 자원을 기준으로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빈곤 측정에서 다차원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소득만으로는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온전히 대표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복지국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현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현금화해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구라 할지라도, 가구가 자체 생산·소비하는 다양한 자원—예를 들면 보육이나 케어, 주말농장의 농산물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소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단순한 경제적 결핍을 넘어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 자원의 결핍 또한 아동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기원은 타운센트(Townsend 1979)로부터 찾을 수 있다. 타운센트는 식품, 의류, 주택, 가재도구, 환경, 주거, 근로 등의 물질적 박탈과, 피고용 권리, 가족활동, 지역사회 통합, 사회제도에의 공식적 참여, 여가활동, 교육 등의 사회적 박탈이라는 두 가지 박탈의 범주에 대해 총 77개 항목을 선정하여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고자 하였다(Townsend 1993; 김미곤·여유진 외 1999, p.239 재인용)¹⁰⁾. 이후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은 빈곤한 사람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다층적 안녕 차원으로부터의 결핍 개념을 사용해 왔으며, 영미권을 중심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맥과 랜슬리(Mack & Lansley 1985)는 'Breadline Britain' 조사설계에 기초하여 박탈지수를 계측하였으며, 이후 데사이와 샤(Desai and Shah 1988), 놀란과 웰란(Nolan and Whelan 1996) 등에 의해서도 박탈지표방식을 활용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영미권 뿐만 아니라 OECD, EU 등 국제기구에서도 다양한 차원의 안녕을 기수적(cardinal) 측정치로 합산하는 이른바 박탈지표 방식 혹은 생활양식 접근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OECD(OECD 2013, p.10)는 다차원적 방식의 빈곤 측정이 센(Sen)의 가능성(capability) 틀로 안녕과 빈곤을 개념화하는 방식으로 최근 더 큰 인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차원적 사정을 가능케 하는 서베이 통계 생산물이 진화해 왔고, 다차원적 빈곤 사정을 수행하는 도구에 대한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OECD, EU, Save the Children 등에서는 아동과 성인의 빈곤에 대한 다차원지표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아동 복지(Child Well-being)과 아동 빈곤 차원에서 다차원적 접근의 활용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도 주장한 바와 같이, 아동의 경우 단순히 물질적 자원

10) Townsend(1993, Ch.4)는 박탈(deprivation)을 “개인, 가족 또는 집단이 소속된 지역사회나 국가와 관련된 관찰가능한, 그리고 논증가능한 취약 상태”로 정의하고, 이는 “자원 자체보다는 조건(즉,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상태나 환경)과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환경에 적용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빈곤과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의 결핍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혹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환경적·사회적·문화적 열악함이 아동의 발달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국제기구와 각국에 의해 개발되어 온 다차원적 아동복지 혹은 아동빈곤 지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OECD 아동복지 지표

OECD는 2009년에 아동 복지 측정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2009) 보고서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측정틀을 개발하였다(OECD 2015, p.142).

아동빈곤과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아동복지(child well-being)에 대해 OECD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을 제안하였다(OECD 2009, p.24); 첫 번째 접근은 아동복지를 다차원적 개념으로 간주하고, 연구자들이 삶의 중요한 차원을 결정하고, 지표들로 이러한 차원을 조사토록 권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접근은 아동에게 그들의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 즉 주관적·인지적 방식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벤-아리에와 프론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아동 복지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삶의 질을 포괄한다. 이는 아동의 경제적 상태, 동년배 관계, 정치적 권리, 그리고 자기개발 기회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아동 복지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두며, 종종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전체로서 복지를 포착하려는 어떠한 시도들도 다양한 측면의 복지에 대한 지표들을 사용해야만 한다.”(Ben-Arieh and Fronese 2007, p.1; OECD 2009 재인용)

OECD는 UN 아동권리헌장(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N 1989)에서 아동에 대해 국제기준 협약에 기초하여¹¹⁾, 물질적 복지, 주택과 환경, 교육, 건강, 위험 행동, 학교생활의 질의 6개 차원에서 아동 복지지표를 제시하

11) 아동복지의 준거점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아동권리헌장(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에 따르면, 아동복지(child well-being)는 생존권(예. 의료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발달에 대한 권리(예. 교육권), 보호에 대한 권리(예. 학대 혹은 착취로부터) 그리고 참여에 대한 권리(예. 개인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표출하는)로 간주된다(TARKI 2010, p.7).

고, OECD 회원국들의 아동복지 수준을 비교하였다(OECD 2009, p.28). 2009년 당시 아동복지 지표 순위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물질적 복지에서 13위로, 건강과 안전에서 10위, 교육복지와 위험행동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OECD 30개국의 아동복지 지표 순위 비교

| | 물질적 복지 | 주택과 환경 | 교육 복지 | 건강과 안전 | 위험 행동 | 학교생활의 질 |
|-----------------|-----------|-------------|----------|-----------|----------|-------------|
| Australia | 15 | 2 | 6 | 15 | 17 | n.a. |
| Austria | 5 | 9 | 18 | 27 | 27 | 11 |
| Belgium | 11 | 11 | 20 | 26 | 13 | 19 |
| Canada | 14 | n.a. | 3 | 22 | 10 | 16 |
| Czech Republic | 18 | 24 | 19 | 5 | 23 | 17 |
| Denmark | 2 | 6 | 7 | 4 | 21 | 8 |
| Finland | 4 | 7 | 1 | 6 | 26 | 18 |
| France | 10 | 10 | 23 | 19 | 12 | 22 |
| Germany | 16 | 18 | 15 | 9 | 18 | 9 |
| Greece | 26 | 19 | 27 | 23 | 7 | 24 |
| Hungary | 20 | 21 | 12 | 11 | 25 | 7 |
| Iceland | 8 | 4 | 14 | 2 | 8 | 1 |
| Ireland | 17 | 5 | 5 | 25 | 19 | 10 |
| Italy | 19 | 23 | 28 | 17 | 11 | 20 |
| Japan | 22 | 16 | 11 | 13 | 2 | n.a. |
| Korea | 13 | n.a. | 2 | 10 | 2 | n.a. |
| Luxembourg | 3 | 8 | 17 | 7 | 14 | 23 |
| Mexico | 29 | 26 | 29 | 28 | 30 | n.a. |
| Netherlands | 9 | 17 | 4 | 8 | 9 | 3 |
| New Zealand | 21 | 14 | 13 | 29 | 24 | n.a. |
| Norway | 1 | 1 | 16 | 16 | 4 | 2 |
| Poland | 28 | 22 | 8 | 14 | 20 | 15 |
| Portugal | 25 | 20 | 26 | 18 | 6 | 21 |
| Slovak Republic | 27 | 25 | 24 | 1 | 22 | 25 |
| Spain | 24 | 13 | 21 | 12 | 16 | 6 |
| Sweden | 6 | 3 | 9 | 3 | 1 | 5 |
| Switzerland | 7 | n.a. | 10 | 21 | 5 | 13 |
| Turkey | 30 | n.a. | 30 | 30 | 29 | 12 |
| United Kingdom | 12 | 15 | 22 | 20 | 28 | 4 |
| United States | 23 | 12 | 25 | 24 | 15 | |

자료: OECD(2009, p.23, Table 1)

더 나아가 OECD는 2015년에 발간된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OECD 2015), 아동의 복지에 관한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더 세부화된 아동복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도, 아동의 삶의 문제, 특히 발달적 측면과 권

리의 측면에서 다차원적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5, p.143). 특히, 아동복지지표를 선정함에 있어, 최소한에 있어 출생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하며, 특히 아동에 특정화된 복지 환경에 있어서는 가족보다는 아동이 분석의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을 종합하여 OECD는 아래 표와 같은 아동복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2-2〉 OECD(2015)의 아동복지 차원과 지표들

| 아동이 살고 있는 가족의 복지 조건 | |
|---------------------|---|
| 소득과 재산 | 아동가구의 가처분소득 아동 소득빈곤 |
| 일자리와 소득 | 무직가구 아동 장기실업 부모를 둔 아동 |
| 주거조건 | 아동당 평균 방수 기본 시설이 결여된 주택에 사는 아동 |
| 아동에게 특수한 복지 조건 | |
| 건강 상태 | 영아 사망률 저체중 출산율 주관적 건강상태 과체중과 비만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 출산율 |
| 교육과 숙련 | PISA 평균 읽기점수 PISA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점수 NEET 교육박탈 |
| 시민참여 | 투표의사 시민참여 |
| 사회환경과 가족환경 | 부모와 대화가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교우를 가진 학생 학업으로부터 많은 압박감을 느끼는 학생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 PISA 소속감 지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
| 개인 안전 | 아동 살해율 괴롭힘 |
| 주관적 복지 | 삶의 만족도 |

자료: OECD(2015, p.146 Table 4.1)

2) UNICEF의 아동복지 지표

대표적인 국제아동자선기구인 UNICEF는 아동의 복지(Child Well-being)를 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 교육, 행위와 위험, 주택과 환경의 5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종합지표 산출한 바 있다(UNICEF 2013). 이러한 지표는 OECD 아동복지 지표와 거의 유사하며, 각 차원별 구체적인 요소와 이를 계측하기 위한 지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3〉 UNICEF의 아동복지 측정 지표

| 차원 | 요소 | 지표 |
|--------------|-----------|--|
| 차원 1: 물질적 복지 | 물질적 박탈 | 상대아동빈곤율 |
| | | 상대아동빈곤갭 |
| | 물질적 박탈 | 아동박탈률 |
| | | 낮은 가족풍족률(Low family affluence rate) |
| 차원 2: 건강과 안전 | 출생시 건강 | 영아사망률 |
| | | 저체중률 |
| | 예방적 건강서비스 | 전체 감염률 |
| | 아동기 사망률 | 1-19세 사망률 |
| 차원 3: 교육 | 취학률 | 취학률: 조기교육 |
| | | 취학률: 15-19세 교육 |
| | 성취도 | NEET율 (15-19세 중 교육, 고용, 훈련 중이 아닌 %) 읽기, 수학, 과학의 PISA 평균점수 |
| 차원 4: 행위와 위험 | 건강 행위 | 비만 |
| | | 아침식사 하기 |
| | | 과일 섭취 |
| | | 운동하기 |
| | 위험 행위 | 10대 출산율 |
| | | 흡연 |
| | | 음주 |
| | 폭력에의 노출 | 마리화나 |
| | | 싸움 |
| 차원 5: 주택과 환경 | 주택 | 괴롭힘 당함 |
| | | 1인당 방 수 |
| | 환경 안전 | 다중적 주택 문제 |
| | | 자살률 |
| | | 공해 |

자료: UNICEF(2013, p.5 Box 1)

UNICEF 연구소의 2013년 보고서에서는 위에 제시된 지표로 유럽국가들과 미국을 포함하여 총 29개국을 비교하고 있으나, 여기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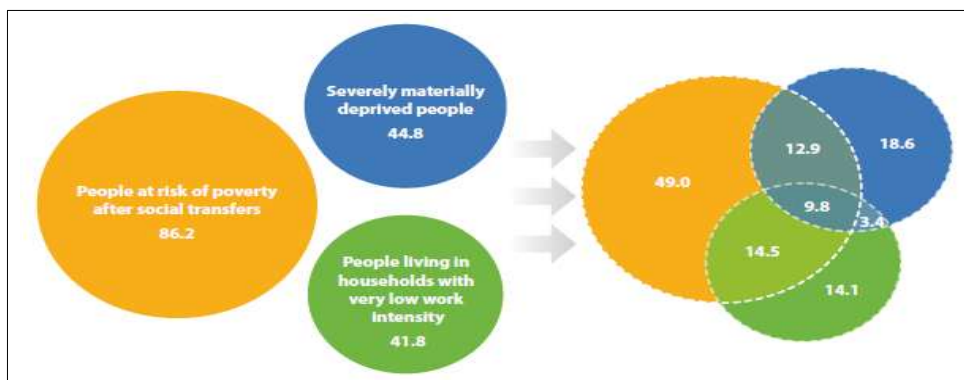
3) 유럽연합의 다차원적 빈곤지표

유럽연합의 통계청이라 할 수 있는 유로스타트(Eurostat)에서는 빈곤율을 대체하는 좀 더 포괄적인 지표로서 “빈곤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의 비율”(People 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Eurostat 2016 p.151-2).

유럽의회는 Europe 2020 전략에 기여할 목적으로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 비율’(at-risk-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rate; 이하 AROPE) 지표를 채택하였다(Eurostat 2016 p.151-2). 이 지표는 세 가지 하위지표들의 총합이다: (1) 금전적 빈곤, (2) 물질적 박탈, (3) 낮은 근로활동 참여. 먼저, 금전적 빈곤은 ‘사회적 이전 후에 빈곤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는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으로 빈곤선 미만 소득을 가진 사람의 비율로, 현금 사회이전 후 전체 중위균등화 가처분소득의 60%로 설정된다. 두 번째로, 물질적 박탈은 경제적 곤궁, 내구재, 주택과 주거환경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된다.

[그림 2-1] EU-28개국의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 인구의 하위지표 총합

(단위: 백만명)



자료: Eurostat(2016, p.152)

심각하게 물질적으로 박탈된 사람은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굉장히 곤궁한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최소한 다음 중 네 가지를 할 여력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임대료, 공공금, 생필품 구매대금이나 기타 부채 상환금을 지불하는 것; 주택 난방을 유지하는

것; 기대치 못한 지출을 지불하는 것; 이틀에 한 번 정도 육류, 생선 혹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 1주일정도 휴가를 즐기는 것; 자동차, 식기세척기, 칼라TV, 전화 소유. 마지막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여는 작년 한 해 동안 성인이 그들 잠재력의 20% 미만으로 일한 가구에 사는 0-59세인 사람의 수로 계산된다. 이 세 가지 차원은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더해질 경우 이중 혹은 삼중으로 중복계산된다. 따라서 중첩영역을 한 번만 계산해서 지표를 산출한다. 그 결과, EU 28개국의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 인구의 총합은 1억 22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 국한한 경우, EU-SILC(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014년 설문에서 별도의 물질적 박탈 모듈을 사용하는데 각 항목은 아래와 같다(Eurostat March 2016). 아동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에서 그 항목을 할 여력이 없다면 그 항목이 비자발적으로 결핍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모듈은 1-15세 아동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동의 정의(0-17세)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표 2-4〉 EU-SILC 아동 박탈 진단 항목(2014년 모듈)

1. 약간의 새옷
2. 두 켤레의 잘 맞는 신발,
3.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
4. 하루 세 끼
5. 하루 한끼 정도의 육류나 어류
6. 아동 연령에 맞는 도서
7. 야외 레저활동용 장비
8. 실내 게임
9. 숙제할 적절한 공간
10. 필요할 경우 치과 진료
11. 필요할 경우 의사 진료
12. 정기적 레저 활동(스포츠, 모임 등)
13. 특별한 날 축하
14. 때때로 놀거나 간식을 먹기 위해 친구 초대
15. 비용이 드는 소품이나 학교 행사에 참석
16.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동네 실외 공간
17. 매년 1주일 정도 휴가

자료: Eurostat March 2016

4) TARKI 사회조사연구소의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의 의뢰로 TARKI사회조사연구소의 아동빈곤 관련 작업팀(task-force)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아동복지의 차원을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상태, 2) 주거, 3) 교육, 4) 건강, 5) 위험에 대한 노출과 위험 행위, 6) 사회적 참여·관계·가족 환경, 7) 지역사회 환경 (TARKI 2010, p.8).

〈표 2-5〉 TARKI의 아동복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차원적 지표 제안

| 차원 | 아동의 연령 구분 | | |
|--------------------|---|--------------------------------|--|
| | 0-5세(0-2, 3-5) | 6-11세 | 12-17세 |
| A1: 소득 | • 빈곤율 | • 빈곤율 | • 빈곤율 |
| | • 상대적 중위빈곤위험값 • 지속빈곤위험율 • 빈곤선 주위의 분포(분산) | | |
| A2: 물질적 박탈 | • 일차적 지표 | • 일차적 지표 • 교육지표 | • 일차적 지표 • 교육지표 |
| A3: 주택 | • 주거비 • 과밀 | • 주거비 • 과밀 | • 주거비 • 과밀 |
| A4: 노동시장결착 | • 저노동활동참여 (무직포함) • 아동 케어 | • 저노동활동참여 (무직포함) • 아동 케어 | • 저노동활동참여 (무직포함) • 아동 케어 |
| B1: 교육 | • 유치원 참여 | • 10세 학생의 (낮은) 독해 능력 | • 10세 학생의 (낮은) 독해 능력 • 조기 자퇴(퇴학) (18-24세) |
| B2: 건강 | • 영아 사망률(by SES) • 분만전후 사망률 • 예방접종 • 저체중 • 모유수유 | • 비만 • 매일 과일섭취 • 주중 아침식사 | • 주관적 건강 • 신체 활동 |
| | • 출생시 기대수명(by SES) | | |
| B3: 위험노출과 위험행동 | | | • 10대 출산 • 흡연 • 음주 • 약물 |
| B4: 학교생활과 관계, 가족환경 | • 한부모가구 비율 | • 한부모가구 비율 | • 한부모가구 비율 |
| B5: 지역사회 환경 | • 우범지역 • 공해나 불결한 지역 | | |

자료: TARKI (2010, p.21, Table 1)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상태, 그리고 주거는 물질적 복지의 차원으로 아동이 생활과 발달 기간 동안 접근가능한 물질적 자원과 관련된 지표이며, 나머지 5개의 지표는 아동복지의 비물질적 차원으로서 상이한 발달 단계 동안 접근가능한 자원과 관련된 지표이다(TARKI 2010, p.8).

5) 영국의 아동빈곤 지표

영국은 아동빈곤과 관련된 지표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영국의 아동빈곤법 개정과 관련된 논쟁에서,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이 아동 빈곤을 측정하는데 소득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빈곤한 환경에서 자라는 전반적인 경험과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장벽들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주장(HM Government 2012, p.13)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에서는 아동빈곤 지표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정치를 사용한다.

- 상대소득: 현재 중위소득의 60% 미만 소득을 가진 가구
- 저소득과 물질적 박탈의 결합차: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고, 현재 중위소득 70% 미만 소득을 가진 가구
- 절대소득: 물가조정된 2010/2011 중위소득의 60% 미만 가구
- 지속빈곤: 이전 4년 중 적어도 3개 연도 동안 현재 중위소득 60% 미만 소득을 가진 가구

이에, 영국 정부는 아동의 삶의 현실을 더 잘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빈곤하게 사는지를 진정으로 알리기 위해 8가지 차원에서 아동 빈곤의 다차원적 측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과 물질적 박탈, 일자리 없음,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빈한한 주거, 부모의 숙련 수준,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 가족 안정성, 부모의 건강(HM Government 2012, p.17). 다차원적 측정치는 아동의 빈곤경험에 대한 상이한 요소들을 통찰하는 측정치로, 잠재적으로 ‘현재 빈곤’과 삶의 기회’ 유형 측정치의 혼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OECD와 UNICEF의 아동복지지표가 아동 자체에 초점을 둔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영국 정부의 아동빈곤지표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 특히 빈

곤의 원인 차원에서 부모의 노동시장 지위, 기술 수준, 건강, 가족 안정성과 같은 영역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좀 더 정책지향성을 강조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2-6〉 영국정부가 개발한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영역과 측정치

| 차원 | 빈곤영역 | 정의 |
|----|-------------|--|
| 1 | 소득과 물질적 박탈 | -소득: 가구에 유입되는 금전, 봉급, 급여 혹은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이득일 수 있음. -물질적 박탈: 아동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가 결핍된다면 물질적 박탈을 경험할 수 있음. |
| 2 | 무직 | -일자리없음: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구. 통계청 정의는 16세 이상인 가구원 중 아무도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는 가구. 이러한 가구원은 실업자 혹은 비경활일 수도 있음. |
| 3 | 감당할 수 없는 부채 |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는 부채, 현재의 재정상태로 갚을 수 없는 상태 |
| 4 | 빈한한 주택 | -좁고, 습하고, 과밀하며, 수리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고립된 지역에 있는 것 |
| 5 | 부모의 기술 수준 | -아동 부모의 교육 수준과 고용능력(employability) |
| 6 | 양질의 교육에의 접근 | -양질의 조기교육에 접근하는 것과 성공적으로 학업에 참가하는 것 |
| 7 | 가족 안정성 | -아동이 가족해체의 경험없는 안정적 가족환경에서 자라는 것 |
| 8 | 부모의 건강 | |

자료: HM Government(2012, p.17)

영국의 아동협회(Children's Society)는 정부가 아동빈곤의 수정된 접근을 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장이 견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The Children's Society 2013).

- 소득은 아동빈곤을 이해하는데 지속적으로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어떤 새로운 접근도 아동 빈곤 그 자체가 물질적 자원의 결핍이며, 이는 아동빈곤의 추동 인자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아동빈곤 측정한 새로운 접근은 영국에서 빈곤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아동의 수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기회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은 수정되거나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아동 빈곤을 종식시키는 작업으로부터 불필요한 불화를 일으킬 것이다.
- 새로운 측정치는 아동빈곤법에서 이미 확립된 측정치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일단 접근이 확립되면, 지속적 측정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협회는 또 새로운 측정치는 아동빈곤 '그 자체'를 측정하는 부분과 아동빈곤의

추동인자(drivers)을 측정하는 부분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자로는 소득, 부채, 주택 및 지역환경을, 후자로는 무직, 교육, 부모 학력과 숙련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정의센터(The Centre for Social Justice, CSJ)도 이와 유사하게 “빈곤이 소득에 대한 것만은 아니며, 기회, 포부, 그리고 안정성의 결핍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무엇이 빈곤을 추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빈곤 측정의 핵심이며, 따라서 정확하고 유용한 빈곤 측정치를 구성하기 위해 빈곤의 주요 추동인자—가족 해체, 교육 실패, 경제적 의존성과 무직, 중독, 심각한 개인부채—를 핵심적 지표로 제안하고 있다(CSJ 2012, p.1).

〈표 2-7〉 CSJ의 핵심적 빈곤지표

| 소득관련 지표 | 비소득관련 지표 |
|------------------------------------|--|
| 1. 소득원천 2. 소득 vs. 소비 3. 저축능력 | 1. 불충분한 양육(poor parenting) 2. 불안정한 가족구조 3. 무직 가구 4. 낮은 학업성취도 5. 가구원의 중독 혹은 약물남용 6. 가구의 심각한 개인부채 7. 나쁜 정신건강 8. 지역사회 요인들 9. 복리(well-being) 측정치 |

자료: CSJ(2012, p.1)

이외에도, 영국의 ONS도 「UK's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gramme」(ONS 2012, 2014)에서, 일반 인구에 대해 설계된 복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15세 미만 아동복지 측정치로, 7개 영역(개인적 복리, 관계, 건강, 무엇을 하는가, 어디에 사는가, 개인 재정, 교육과 숙련)에 걸쳐 31개 아동복지 측정치를 개발하였다. 31개 지표들 중 22개 기초(baseline) 측정치는 2014년에 계측되었다(ONS 2014).

6) 기타 아동 빈곤 및 복지 지표들

과거 10여년 간 아동복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많은 국제 기구와 NGO, 학술연구, 연구기관 등에서 아동복지를 계측한 바 있다(OECD 2015

p.142 Box 4.1). UNICEF (2007, 2009 and 2013), OECD (2009 and 2011), the European Commission(2008) Bradshaw, Hoelscher and Richardson(2007), Richardson, Hoelscher and Bradshaw(2008), Save the Children(2008 and 2011), TARKI(2010) 등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OECD 국가에서 아동복지 측정이 중심 주제로 떠올랐다(OECD 2015 p.142 Box 4.1). 예를 들면, 호주의 「아동의 건강, 발달과 복지 연구」 (the Child Health, Development and Well-being studies,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¹²⁾를 통해, 14세 미만 아동(56개 지표)과 12세 미만 아동(19개 지표)의 핵심적인 복지를 측정하고, 이러한 결과들은 7개 차원(건강, 건강한 발달, 학습과 발달, 위험요인, 가족과 지역사회, 안전과 안정, 시스템 성과)로 재분류한 바 있다. 벨기에의 Ben-Arieh 등(2001)의 학자들은 정기적으로 아동복지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매 5년마다 (물질적 통계와 아동건강 통계) 아동복지 측정을 하고 있다.

12) www.aihw.gov.au/child-health-development-and-wellbeing/

제 3 장

해외의 아동빈곤 현황 및 정책 대응

제1절 유럽연합(EU)의 아동빈곤 현황 및 대응전략

제2절 미국의 아동빈곤 현황 및 대응전략

3

해외의 아동빈곤 현황 및 정책 대응 <

제1절 유럽연합(EU)의 아동빈곤 현황 및 대응전략

1. 아동 빈곤의 현황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EU에서는 빈곤의 지표로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이하 AROPE)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AROPE 지표에서, 아동은 2014년 기준으로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의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연령집단이다(Eurostat 2016).¹³⁾

2012년 기준으로, 유럽(28개 EU 회원국과 아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거의 2700만명의 아동이 AROPE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28개 회원국의 경우, 18세 미만 총인구의 28%가 AROPE 상태이고, 20.8% 아동은 가처분소득이 해당국가 중위의 60% 미만이며, 9%는 매우 낮은 노동강도를 가진 가구에서 살고 있으며, 11.8%는 물질적으로 박탈된 가구에 속했다(Save the Children 2014, p.3). 2014년에도 27.8%의 아동이 AROPE 상태로 2012년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Eurostat March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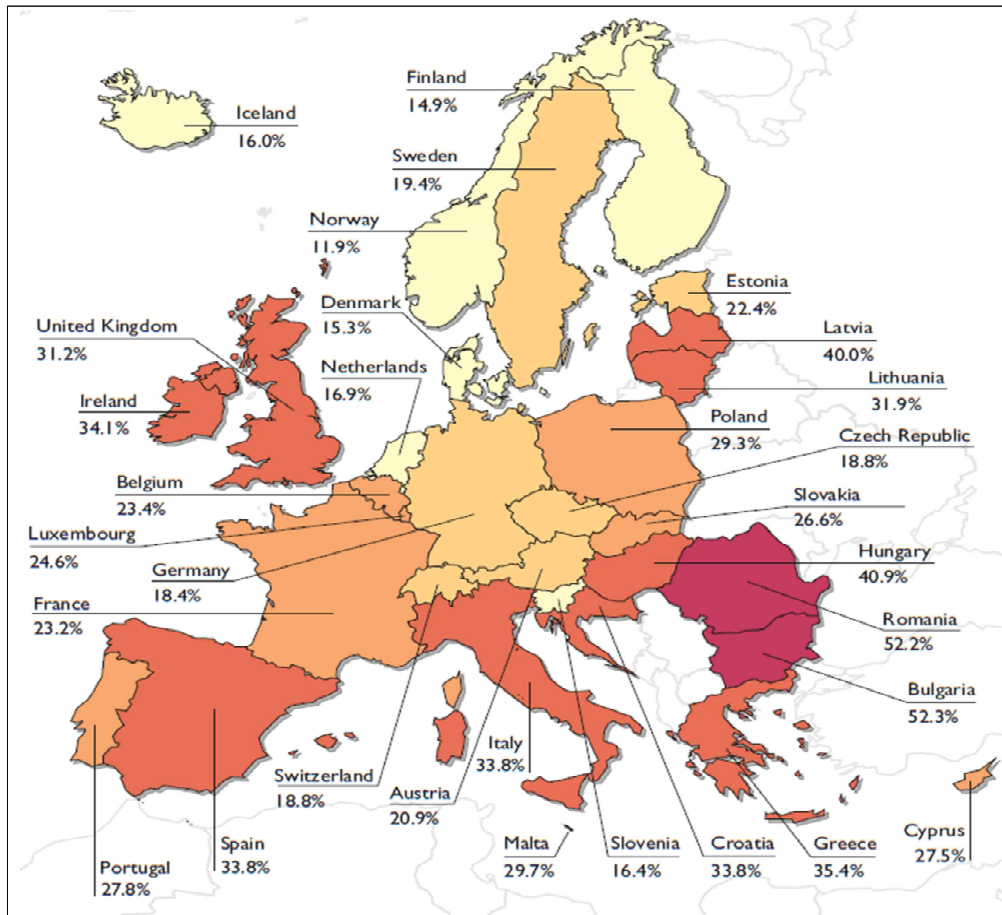
이러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가구 유형으로, 피부양 아동을 가진 한부모(48.3%)와 독신(33.7%), 그리고 셋 이상의 아동을 가진 양부모(32.5%)가 가장 높은 AROPE율을 보였다. 둘째, 피부양 아동을 가진 가구 중 낮은 수준에서 최저 수준의 노동강도를 가진 가구(low to very low work intensity households)의 74.7% 이상이 빈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최종학력이 낮은 아동의 50.5%가 빈곤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부모의 최고 학력이 높은 아동의 빈곤 위험률 8%와 대조적인 결과이다. 넷째, 이민 배경을 가진 아동은 본국 태생 부모를 가진 아동보다 더 큰 빈곤 위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

13) 이하 모든 통계는 EU-SILC(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원자료에 기초하여 산출된 값이다.

났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구의 19.1%가 심각한 박탈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피부양아동을 가진 전체 가구의 9.8%와 대조인 결과이다. 결국, EU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한부모가구나 이미 배경을 가진 가구일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고 노동시장 정착이 낮을수록 아동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결과이다.

[그림 3-1] 유럽 국가들의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 아동의 비율(AROPE, 2012)

(단위: %)



자료: Save the Children(2014, p.4)

〈표 3-1〉 EU 국가들의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 아동 비율(2010년과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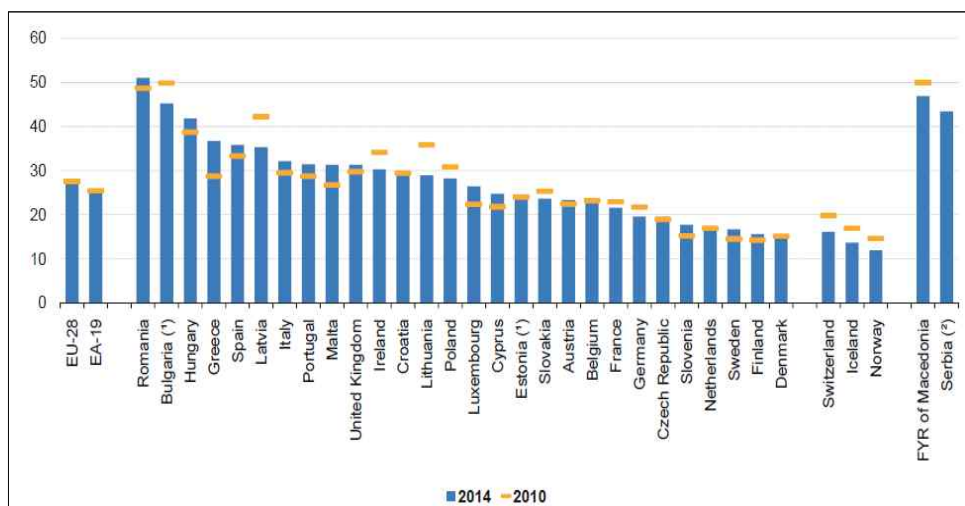
(단위: %)

| | 2010 | 2014 | 변화(%p) |
|----------------|------|------|--------|
| EU-28 | 27.5 | 27.8 | 0.3 |
| EA-19 | 25.4 | 25.7 | 0.3 |
| Romania | 48.7 | 51.0 | 2.3 |
| Bulgaria (¹) | 49.8 | 45.2 | -4.6 |
| Hungary | 38.7 | 41.8 | 3.1 |
| Greece | 28.7 | 36.7 | 8.0 |
| Spain | 33.3 | 35.8 | 2.5 |
| Latvia | 42.2 | 35.3 | -6.9 |
| Italy | 29.5 | 32.1 | 2.6 |
| Portugal | 28.7 | 31.4 | 2.7 |
| Malta | 26.7 | 31.3 | 4.6 |
| United Kingdom | 29.7 | 31.3 | 1.6 |
| Ireland | 34.1 | 30.3 | -3.8 |
| Croatia | 29.4 | 29.0 | -0.4 |
| Lithuania | 35.8 | 28.9 | -6.9 |
| Poland | 30.8 | 28.2 | -2.6 |
| Luxembourg | 22.3 | 26.4 | 4.1 |
| Cyprus | 21.8 | 24.7 | 2.9 |
| Estonia (¹) | 24.0 | 23.8 | -0.2 |
| Slovakia | 25.3 | 23.6 | -1.7 |
| Austria | 22.4 | 23.3 | 0.9 |
| Belgium | 23.2 | 23.2 | 0.0 |
| France | 22.9 | 21.6 | -1.3 |
| Germany | 21.7 | 19.6 | -2.1 |
| Czech Republic | 18.9 | 19.5 | 0.6 |
| Slovenia | 15.2 | 17.7 | 2.5 |
| Netherlands | 16.9 | 17.1 | 0.2 |
| Sweden | 14.5 | 16.7 | 2.2 |
| Finland | 14.2 | 15.6 | 1.4 |
| Denmark | 15.1 | 14.5 | -0.6 |
| Switzerland | 19.8 | 16.1 | -3.7 |
| Iceland | 16.9 | 13.7 | -3.2 |
| Norway | 14.6 | 11.9 | -2.7 |

주: 빈곤하거나(at-risk-of-poverty), 물질적으로 심각하게 박탈되어 있거나, (준)무직가구(동년배집단에 비해 매우 노동을 적게 하는(20% 미만) 가구에 사는 아동(0-17세)의 합계

자료: Eurostat(ec.europa.eu, 2016.9.17. 다운로드)

[그림 3-2] EU 국가들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위험 아동 비율(2010년과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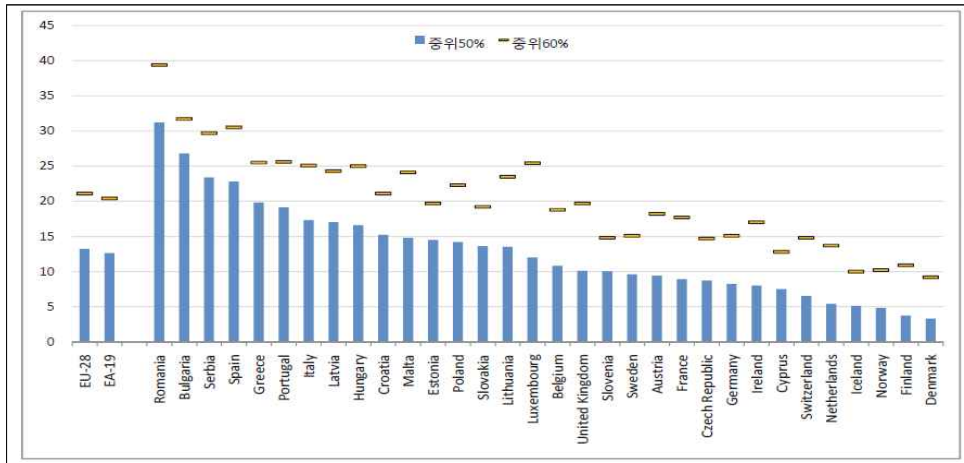
원자료: Eurostat(ec.europa.eu, 2016.9.17. 다운로드)

하지만 EU 국가 내에서도 아동의 AROPE의 격차는 매우 크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기준으로 루마니아의 51.0%에서 덴마크의 14.5%로,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 간의 격차가 36.5%p, 3.5배에 이른다.¹⁴⁾ 특히, 지리적으로 동유럽 국가들(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등)과 남유럽 국가들(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위험 아동 비율이 높고, 대조적으로 북구 유럽(노르딕) 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아동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빈곤지표인 중위소득 50%와 60% 기준 빈곤율 역시 AROPE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르딕 국가들의 빈곤율이 가장 낮다. 빈곤율이 가장 낮은 덴마크(9.2%)와 가장 높은 루마니아(39.4%) 간의 빈곤율 차이는 4.3배에 이를 정도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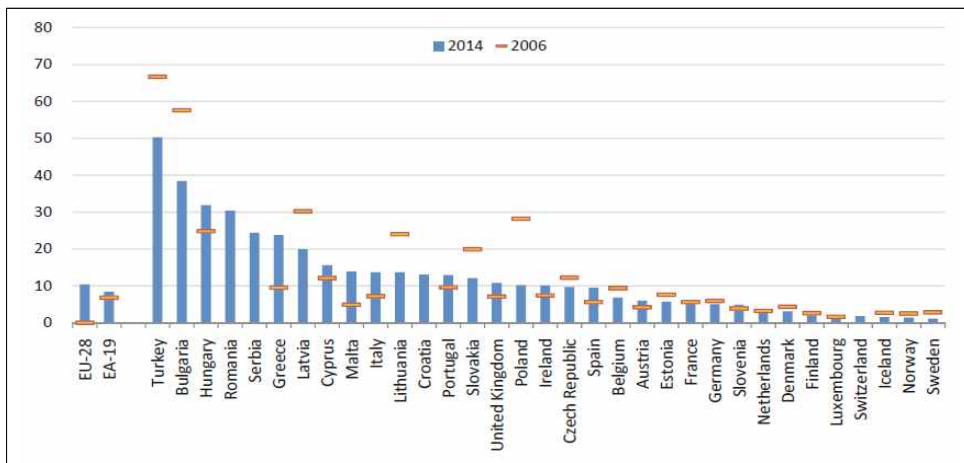
14)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까지를 포함할 경우 노르웨이가 11.9%로 가장 낮은 수준임.

[그림 3-3] EU 국가들의 아동빈곤율(2014년)



원자료: Eurostat(ec.europa.eu, 2016.9.17. 다운로드)

[그림 3-4] EU 국가들의 심각한 박탈 아동 비율(2006년과 2014년)



원자료: Eurostat(ec.europa.eu, 2016.9.17. 다운로드)

특히, 동유럽, 구(舊)공산권 국가들(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서 기초적인 생존(식품과 의복) 영역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불가리아의 경우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육류나 어류 등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외출복이나 신발을 갖추지 못한 아동의 비율이 40%를 넘나들 정도로 심각한 박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 기초생활의 박탈을 경험한 비율이 0~2% 내외로, 심각한 박탈로부터는 거의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3-2〉 EU 회원국들의 박탈된 아동 비율(선택된 항목의 결핍)(1-15세, 2014년)

(단위: %)

| | 식료품 | | 의류 | |
|----------------|--------|------|------|------|
| | 과일과 야채 | 단백질 | 옷 | 신발 |
| EU-28 | 4.0 | 5.1 | 7.4 | 4.7 |
| EA-19 | 2.4 | 3.7 | 6.7 | 3.4 |
| Belgium | 2.3 | 2.7 | 8.2 | 3.6 |
| Bulgaria | 40.0 | 42.4 | 36.2 | 48.6 |
| Czech Republic | 3.0 | 4.7 | 6.4 | 3.1 |
| Denmark | 0.5 | 0.7 | 2.0 | 2.3 |
| Germany | 1.8 | 3.7 | 2.1 | 2.3 |
| Estonia | 6.6 | 6.1 | 2.4 | 1.6 |
| Ireland | 3.0 | 3.4 | 12.1 | 6.5 |
| Greece | 5.4 | 9.0 | 1.8 | 0.6 |
| Spain | 1.7 | 2.8 | 7.7 | 2.9 |
| France | 2.7 | 2.4 | 9.0 | 5.4 |
| Croatia | 4.6 | 6.1 | 5.3 | 3.3 |
| Italy | 2.6 | 5.6 | 8.5 | 2.8 |
| Cyprus | 2.0 | 2.3 | 5.2 | 1.3 |
| Latvia | 10.0 | 8.1 | 24.3 | 11.7 |
| Lithuania | 7.7 | 6.2 | 13.0 | 0.4 |
| Luxembourg | 0.8 | 1.0 | 3.0 | 0.9 |
| Hungary | 22.8 | 22.1 | 27.4 | 7.9 |
| Malta | 2.0 | 6.9 | 6.2 | 5.7 |
| Netherlands | 0.6 | 2.3 | 1.5 | 3.6 |
| Austria | 0.6 | 1.9 | 2.0 | 1.2 |
| Poland | 3.2 | 2.9 | 2.9 | 1.3 |
| Portugal | 3.0 | 1.4 | 14.4 | 3.6 |
| Romania | 14.9 | 21.6 | 26.6 | 28.0 |
| Slovenia | 0.9 | 1.4 | 5.8 | 1.2 |
| Slovakia | 9.8 | 12.7 | 13.8 | 6.5 |
| Finland | 0.3 | 0.2 | 3.4 | 0.8 |
| Sweden | 0.2 | 0.0 | 1.0 | 0.3 |
| United Kingdom | 3.8 | 3.1 | 3.6 | 2.2 |
| Iceland | 0.3 | 2.0 | 1.2 | 1.3 |
| Norway | 1.2 | 3.4 | 2.2 | 0.9 |
| Switzerland | 0.2 | 0.9 | 1.2 | 0.3 |

자료: Eurostat(ec.europa.eu, 2016.9.17. 다운로드)

2. 아동빈곤에 대한 대응전략

가. 근로소득 빈곤율과 사회이전의 빈곤감소 효과

한 나라의 부(wealth)는, 그것이 고용을 통한 소득이나 사회적 이전(직간접적인 아동-가족급여와 제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동적으로 사회의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 주지한 바와 같이, 매우 낮은 근로강도를 가진 부모를 가진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를 가진 아동들에 비해 56.7% 더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 고용조건에서 불평등도가 높고, 가장 열악한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부를 재분배하는 사회이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사회이전은 아동빈곤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하지만 사회이전이 아동의 빈곤위험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주요하게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는데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지출의 수준에 달려있다(Save the Children 2014, p.5-6).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지출 이후 아동빈곤율 감소폭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아일랜드와 영국이 가장 커서 각각 32.0%와 26.1%에 이른다. 반대로 남유럽과 동유럽에서 사회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해서 8%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사회이전 이후 최종적인 빈곤율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르웨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에서 가장 낮는데, 이는 일차적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 북유럽 국가들은 근로소득 빈곤율이 낮고, 사회이전의 효과 역시 중간 이상으로 큰 편이어서 최종적인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아일랜드와 영국 등 영미권에 비해 더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단위: %)

나. EU 아동빈곤 대응의 원칙과 접근 방식

이와 같이, EU 회원국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위험 수준과 사회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상이하지만, EU는 “현명하고(smart), 지속가능하며(sustainable), 포용적인(inclusive) 성장”이라는 “Europe 2020”의 공동 목표를 수립하였다. 2010년 6월에 전략 수립을 시작한 Europe 2020 전략 중 하나는 사회적 포용으로, 이는 “2020년까지 적어도 2,000만명을 빈곤과 배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EC 2010, p.9). Europe 2020 전략에서는 7개의 핵심의안(flagship initiatives)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이 중 하나가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유럽 플랫폼(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이다. 특히, 아동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플랫폼에 의해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명시되었고, 2011년 플랫폼의 첫 연차대회에서 핵심 주제이기도 했다(EC 2010, p.17).

Europe 2020 전략 하에서 각 회원국들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한 국가별 개혁 프로그램(National Reform Programmes; NRPs)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즉,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EU의 역할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개방적 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 for social protection; Social OMC)¹⁵⁾을 통해 회원국들의 정책을 조정하고, 일부 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된다(EU 2013, p.3).

EU는 아동 빈곤에 대한 대응에서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적 투자, 다차원적 접근, 권리기반 접근, 보편적 조치와 선별적 조치 간의 균형(EU 2013, p.3-5).

첫째, EU의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은 아동의 빈곤과 배제가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의 관점에서 사회 투자로 간주된다. 또한 미래 고용전망의 관점에서 조기 학교 이탈자와 불이익 아동의 수를 감소하고자 하는 포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15) 리스본 정상회담은 사회정책을 유럽식 공동운명을 위한 별도의 초점으로 삼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에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를 놓았는데, 이것이 ‘개방적 공동조정(open method of coordination)’이다. OMC는 사회정책, 고용 등 주요 사회통합정책을 EU 수준에서 조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OMC는 “공통의 목표라는 기초에서 각 회원국들의 사회정책 관련 기획, 조사, 비교, 조절을 상호적으로 피드백하는 과정”(Vandenbroucke, 2002)이며, 일반적으로, OMC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위원회 위원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잡은) 정책 목표에 동의함. 둘째, 회원국들은 가이드라인을 국가 수준 혹은 지역 수준의 정책으로 전환. 셋째, 최선의 실천을 측정하기 위한 특정 기준 혹은 지표에 동의. 넷째, 결과가 모니터링되고 평가됨(여유진 외 2014, p.225).

둘째, 주지한 바와 같이 빈곤은 단순히 기초재의 결핍이나 저소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동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은 취약아동의 삶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과밀주택 혹은 난방이 잘 되지 않는 주택에서 위험한 이웃과 살아가는 것; 적절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질 낮은 학교에 다니는 것; 혹은 스포츠나 레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등. 이와 같이, 아동 빈곤과 싸우기 위해서는 주택서비스, 학교, 건강서비스, 사회적 보호 서비스 등과의 조화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UN 아동인권헌장에서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U 권리장전 아동은 그들의 안녕에 필수적인 보호와 케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24조), 특히 사회부조와 주택부조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34조)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 기초하여 아동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독립적인 권리의 담지자이며, 부모나 가족의 상태로부터 분리해서 아동의 욕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조치들은 자격조건을 제시하기 어렵거나 특정 급여로 인해 낙인감을 느낄 수 있는 제도에 적용될 때 관리와 적용이 효율적이다. 이에 비해 표적화된 조치들은 가장 위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예를 들면 한부모, 대가족, 장애아동, 이민배경 아동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 빈곤과 배제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제도와 선별적 제도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다. EU 아동빈곤 대응 전략

주지한 바와 같이, EU 차원에서 아동빈곤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전략(Action Plan)은 회원국 차원에서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회원국들의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의 비율과 이에 대응하는 각 국가의 정책 수단과 효과는 매우 상이하다. 2010년에 EU에 제출된 TARIK & Applica 두 연구소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EU 평균에 비해 3% 이상 빈곤율이 낮은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들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대륙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국가들과 영국은 EU 평균보다

아동 빈곤율이 3% 이상 높았다.

〈표 3-3〉 EU 국가(27개국)의 상대적인 아동빈곤율 비교(2007년)

| 구분 | EU평균보다 3%p 이상 낮은 빈곤율 | EU평균 수준의 빈곤율 | EU평균보다 3%p이상 높은 빈곤율 |
|--------------------------|----------------------------|-------------------------|------------------------|
| 전체인구 평균보다 낮은 빈곤율 | 덴마크, 독일, 키프러스, 슬로베니아, 핀란드 | 에스토니아 | |
| 전체인구 평균보다 0-4%p 더 높은 빈곤율 |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 그리스, 스페인, 영국 |
| 전체인구 평균보다 5%p 이상 높은 빈곤율 |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 몰도바, 헝가리, 몰타 | 이탈리아, 포르투갈, 불가리아, 루마니아 |

자료: TARKI & Applica(2010, p.25)

따라서 이러한 자국의 아동 빈곤 실태와 현황, 그리고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아동빈곤에 대한 상이한 대응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¹⁶⁾ 하지만 본 보고서에는 각 회원국 차원보다는 전체 EU 차원에서 아동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핵심 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¹⁷⁾

1) 전략 1: 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국가전략을 개발하라

아동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고 아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이슈들을 포괄해야 한다. Hoelscher(2004, p.110; EC 2010, p.20 재인용)는 아동빈곤에 대응함에 있어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상이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문제이다. 아동빈곤의 감소는 단순히 일반적인 빈곤대응 전략의 부수물이 아니고, 아동, 가족과 여성 친화적 정책들의 명확하고 통합적인 전략을 요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와 같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복지와 빈곤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수행하기 위한 다차원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해야하며, 영역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벨기에가 EU 의장국으로 재임하는 동안, 세 개의 핵심 기둥—

16) 주요 EU 회원국들의 아동빈곤 특성과 주요 도전들, 그리고 정책적 도전은 부록에서 부표로 제시해 두었다. 정책 대응은 소득지원, 노동시장과 보육에 대한 접근, 그리고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으로 구분하여 정리되어 있다.

17) 본 내용은 Frazer and Marlier(2012)의 보고서 내용을 주로 참조했다.

적절한 자원에의 접근, 양질의 서비스에의 접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아동 참여 기회 부여—에 대한 회원국 간의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 EU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좀 더 광범위한 통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을 개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첫째,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중심적 접근을 채택하라. 둘째, 명확한 근거기반 정책 목표를 수립하라. 셋째,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정책 결정과 전달체계를 향상시키라. 넷째, 아동 주류 영역(children mainstreaming)을 개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과 경감 정책, 보편적 접근과 선별적 접근을 결합하라는 것이다.

2) 전략 2: 긴축경제 시점에도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라.

아동 가구는 특히 경제위기와 긴축 조치의 도입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빈곤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위기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모니터하고, 가장 큰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들을 확인하라. 둘째, 정책영향평가를 더 많이 활용하라. 셋째, 장기적으로 빙적 결과를 초래하는 단기 해결책을 피하라는 것이다.

3) 전략 3: 모든 아동들이 적절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아동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도전은 모든 가족들이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부터 탈출하도록 적절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등의 취약 가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Atkinson(2010)은 “각 회원국이 모든 아동에게 회원국 중위 균등화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본소득으로 모든 아동에게 조건없이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영역에서의 조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적절한 소득지원을 보장하라. 둘째 부모의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라는 것이다.

4) 전략 4: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라.

모든 아동이 그들의 복지와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와 기회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극복함에 있어 핵심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서 다음과 같은 핵심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양질의 조기아동서비스(early childhood services)를 개발하라. 둘째, 교육적 불평등과 불리함을 방지하라. 셋째,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켜라. 넷째,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주택과 환경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5) 전략 5: 고위험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향상시켜라.

경제위기와 침체 시기에 특히 취약한 고위험 아동과 가족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방안이 있다. 첫째, 조기아동서비스, 건강, 교육, 주거 서비스 같은 핵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라. 둘째, 양질의 사회보호 및 아동보호 서비스를 개발하라. 셋째, 로마 국가통합전략을 수행하라. 넷째, 시설입소(institutionalisation)을 줄이고 가능한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6) 전략 6: 아동의 참여 기회를 증가시켜라.

아동의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동 발달과 적극적 포용에 핵심적이며, 아동이 그들의 기술과 자기확신을 구축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감을 증진시키며, 차별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중요하다. 첫째, 사회활동,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문화 활동, 시민활동에 참여를 증진시켜라. 둘째, 아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7) 전략 7: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 아동복지의 진전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포팅을 향상시켜라.

적절한 지표에 기초해서 아동 빈곤과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EU와 국가 차원의 적절한 모니터링 매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은 핵심적인 도전이다. 아동 빈곤과 배제, 그리고 복지는 Europe 2020 전략의 지속적 모니터링 최상단에 자리잡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핵심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달성가능하고 근거 기반적인 사회적 결과 목표치를 설정하라. 둘째, 지속적으로 EU 수준에서 적절한 지표들을 개발하라. 셋째, 정기적인 리포팅 매커니즘을 확립하라. 넷째, 아동 빈곤과 복

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리포팅 메카니즘을 강화하라. 마지막으로, 아동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의 시의성을 향상시키고 연구와 분석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8) 전략 8: 경험으로부터의 교훈과 좋은 선례를 더 많이 교환하라.

과거 10여년간 아동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학습의 교환 가치가 실증되어 왔으며, 이는 미래에도 더 많은 전략을 지속하고 확장하는데 핵심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핵심적 도전들과 관련하여, 회원국들 간의 좋은 선례에 대해 교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과 사회연대를 위한 지역 행동 계획(Community Action Programme for Employment and Social Solidarity; PROGRESS 2007–2013)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지원을 유지하고 개발하라. 둘째, 전문가검토(Peer Reviews)를 더 전략적으로 사용하라. 셋째, 핵심적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시범사업(social experimentation initiatives)을 개발하라. 넷째, 회원국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심화하기 위해 “군집화”(clustering)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9) 전략 9: 아동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맞서기 위해 EU 자원을 증가시켜라.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증진시키는 것은 회원국이 진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는 각국의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며, 경기침체 시기에 아동에 대한 기존 지출을 보호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도전은 현존하는 EU 기금 메카니즘이 아동에 더 많이 초점을 두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소결 및 시사점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EU가 출범한 이래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지속적으로 EU 차원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리스본전략 이후 채택된 Europe 2020 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적어도 2,000만명을 빈곤과 배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EU 차원의 전략 수립과 국가 차원의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은 단연 정책적 우선 순위에 놓여 있다. 유럽의회 역시 ‘아동빈곤과의 전쟁’에 추천순위를 두는데 지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Haapanen 2015).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유럽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높아진 아동빈곤율은 2014년에도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아동빈곤 현황과 대응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파악하기 위한 EU 통계청(Eurostat)의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매년 조사(EU-SILC) 원데이터에 기반하여 EU 통계청은 다양한 빈곤 관련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AROPE) 지표뿐 아니라, 다양한 박탈지표를 포함한 빈곤지표를 메타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관련해서는 2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별도의 박탈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아동 빈곤 및 복지 지표도 개발해 왔다. 빈곤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첫걸음은 체계화된 빈곤과 복지 지표를 개발하고, 대표성 있는 조사를 통해 아동의 빈곤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빈곤에 대한 종합 계획을 계기로 아동빈곤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아동빈곤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EU의 AROPE 지표는 세 가지 항목, 즉 균등화된 중위가처분소득 60% 미만, 물질적으로 심각한 박탈로 간주되는 아동,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낮은 가구의 아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로 계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빈곤을 산정에서 중위소득 50% 기준을 사용하지만, EU에서는 중위소득 60%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아동의 빈곤 계측에서는 고려해 볼만하다. 생애주기 동안 상대적으로 교육비, 주거비, 기타 생활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기간이 가구 내 아동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빈곤선 또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EU 차원에서는 아동빈곤 퇴치를 위한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각 국가들은 이에 조응하는 국가개혁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국가개혁프로그램은 개방적 조정방식으로 EU 차원에서의 모니터링과 조정과 전문가 그룹의 평가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EU와 국가 간의 상호 협력·조정과 피드백체계는 우리

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치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아동빈곤과 관련해서는 소득, 주거, 보육과 교육, 건강, 문화활동 등 다차원적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이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부처 간 조정 메카니즘도 필수적이다. EU의 아동빈곤정책에서 이러한 다차원적 영역 간의 조화와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EU의 아동권리에 대한 강조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보호나 보살핌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아동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진정한 욕구에 기반한 정책이 궁극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빈곤정책 수립에 있어 대상과 욕구에 따라 좀 더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U에서도 보편적 프로그램과 선별적 프로그램의 조화, 현금과 서비스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록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빈곤을 좀 더 근본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대상과 급여 방식을 달리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다. EU 차원에서도 Europe 2020이라는 큰 목표 하에, 각 부문별 세부 목표, 그러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추진과정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향후 아동빈곤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목표, 정책수단, 평가지표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미국의 아동¹⁸⁾빈곤 현황 및 대응전략

1. 미국의 아동빈곤 현황

가. 5명 중 1명이 빈곤한 아동

미국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규모 파악은 1959년¹⁹⁾ 공식적인 빈곤선이 발표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루어졌다.²⁰⁾ [그림 3-6]을 보면 1959년 당시 아동빈곤율은 27.2%로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10년 뒤인 1969년에 아동빈곤율은 14.0%로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린든 존슨 행정부가 1964년 이후부터 실시한 ‘빈곤과의 전쟁’ 프로그램에서 기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Danziger, 2007). 이후 아동빈곤율은 1993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00년에는 16.2%까지 낮아졌고,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U.S. Bureau of the Census, 2016).

2014년 현재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21.1%로 린든 존슨 행정부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기의 23%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 미국 아동 중 1천 5백만 여명의 아동이 빈곤하다는 의미이며, 미국 아동 5명 중 한 명은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U.S. Bureau of the Census, 2016). 아동빈곤율은 다른 어떤 인구 집단보다 높다. 미국의 전체 빈곤율은 14.8%이며, 아동과 노인을 제외한 성인의 경우 13.5%, 여성이 14.7%, 남성이 10.9%이다(Boteach, Vallas and Schultz, 2016). 전체 빈곤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빈곤 아동이 전체 빈곤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한다(DeNavas-Walt and Proctor, 2015).

18) 본문에서 아동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0-17세 사이의 아동을 의미함.

19) 1950년대 후반 몰리 오샨스키(Molly Orshansky)가 미국의 빈곤을 측정하였음. 당시 측정된 방식은 가구내에서 식료품에 소비하는 비용을 세 배 곱하여 절대적 빈곤선을 측정하였음(Lindsey, 2009:68). 이 방식은 물가상승률만을 적용하여 현재까지도 사용하는 미국의 공식적인 빈곤기준선임.

20) 미국에서 발표하는 빈곤 통계는 공식적인 빈곤기준선과 2011년 새롭게 추가된 보충적 빈곤 측정(Supplemental Poverty Measure) 두 가지를 기준으로 빈곤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본 장에서 사용하는 빈곤 관련 통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공식적 빈곤 기준선을 이용한 빈곤 통계임. 공식적 빈곤 측정과 보충적 빈곤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ort(2011) 참조.

[그림 3-6] 18세 미만 아동 빈곤율 및 빈곤 아동 수(1959~2014)



자료: U.S. Bureau of the Census, Current Population Survey, 1959-2014.
<http://census.gov/topics/income-poverty/poverty.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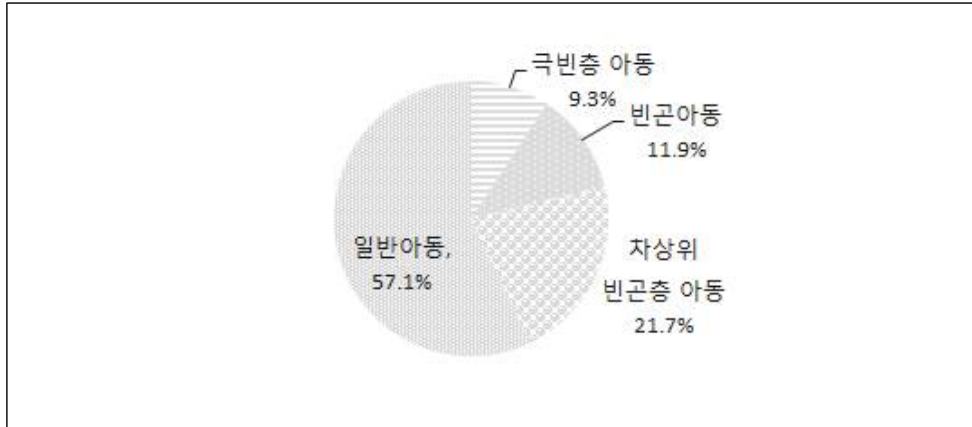
나. 빈곤 아동 2명 중 1명이 극빈층

빈곤층을 빈곤의 정도가 심한 집단(이하 극빈층)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빈곤층 아동의 절반가량이 극빈층이다. 극빈층은 소득이 빈곤선 기준 5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014년 기준으로 극빈층²¹⁾ 아동 빈곤율은 9.3%로 전체 빈곤아동의 4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빈곤선 기준 소득의 100% 이상 200% 미만의 차상위 빈곤층 아동 또한 21.7%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3-7]. 극빈층 아동, 빈곤층 아동, 차상위 빈곤층 아동을 모두 포괄한 이들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보면, 미국은 아동의 약 절반가량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1) 본문에서 사용하는 극빈층 가구와 차상위 빈곤층 가구의 정의는 Jiang, Ekono and Skinner(2016)의 정의에 따름. 극빈층 가구는 미국의 공식적인 빈곤선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5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빈곤층 가구는 일반적으로는 100% 미만 가구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50% 이상 100% 미만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음. 차상위 빈곤층 가구는 빈곤선의 100% 이상 200% 미만인 가구를 의미하며, 빈곤선 200% 이상인 가구를 일반가구로 구분함. 각 계층의 구분이 배타적이지 않고 하위 범주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는 용어와 차상위 빈곤층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음.

[그림 3-7] 빈곤의 정도에 따른 아동 빈곤율(2014)

(단위:%)



주: 차상위 빈곤은 소득이 빈곤선 기준 100% 이상 200% 미만을 의미함.

자료: U.S. Bureau of the Census,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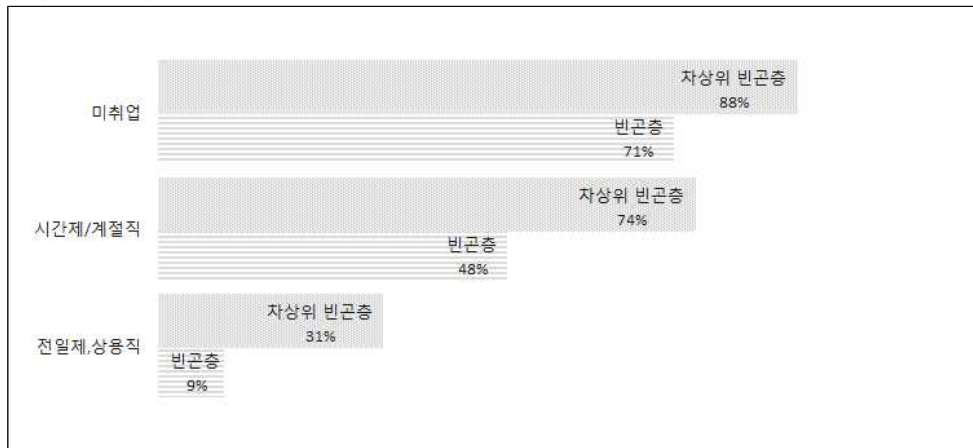
<http://census.gov/topics/income-poverty/poverty.html>

다. 높은 비율의 근로빈곤층

부모의 취업상태와 고용형태는 아동이 빈곤을 경험할 확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아동 빈곤율은 부모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장 높다. 2014년 기준으로 부모 모두 무직일 경우 88%가 차상위 빈곤층이며 71%가 빈곤층이다. 부모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계절제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에 종사할 경우보다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Jiang, Ekono and Skinner, 2016). 부모 중 한명이 시간제 일자리나 계절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74%가 차상위 빈곤층이며, 48%가 빈곤층에 속한다. 반면에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상용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차상위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31%이며,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9%이다[그림 3-8].

아동빈곤율은 부모의 취업유무와 관련이 있지만, 빈곤층 아동의 상당 수 부모는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층의 69.2%가 부모 중 한명은 시간제 일자리나 상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며(Child Trends, 2016) 차상위 빈곤층의 51%는 부모 중 한명이 전일제 근로자이다. 빈곤층의 약 30%는 부모 중 한명이 전일제 상용직 근로자이다(Child Trends, 2016; Jiang, Ekono and Skinner, 2016).

[그림 3-8] 고용상태에 따른 아동가구 빈곤율(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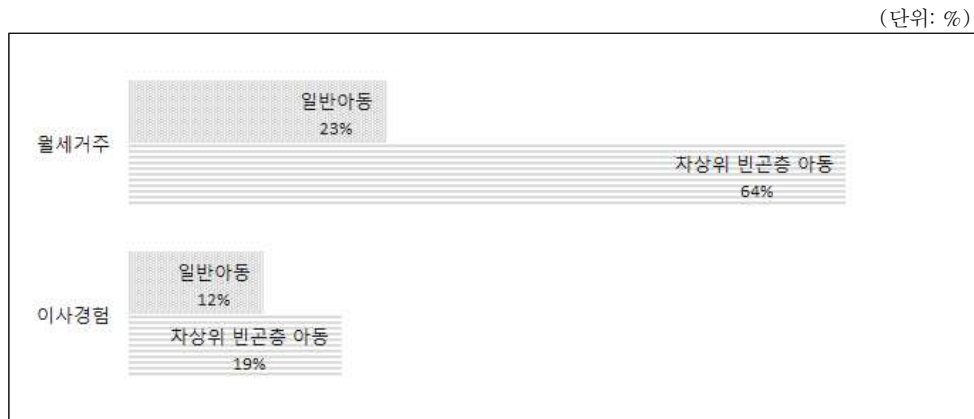
자료: 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Jiang, Ekono, and Skinner(2016) 자료 재구성.

라. 빈곤 아동의 거주 불안정성과 주거지역 불안전성

미국의 아동빈곤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주거와 관련한 영역이다. 미국의 저소득층은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며, 월세비용 또한 매우 높고(진현환, 2013), 거주지역을 이동하게 되는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다(Dohmen, 2005). 주거영역에서의 박탈은 주로 주택소유 형태가 자기 소유인지 월세인지, 이사를 자주 경험하는지와 같은 주거불안정성과 범죄위험이 얼마나 많은지와 같은 주거지역 불안전성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주거지역이 불안전한가는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한 신뢰도 측정과 관련이 있다.

미국 빈곤층 아동의 주거안정성 문제는 심각하다. 빈곤층 아동의 2/3 정도가 월세에 산다. 한 곳에 정착하여 아동기를 보내기보다는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동을 경험하는 비율도 일반아동보다 1.5배 높다. 2014년 기준으로 집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에 거주한 비율은 저소득층 아동가구의 경우 65%이다. 이는 일반 아동가구 23%에 비해 세 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 이전년도 이사경험 비율 또한 일반 아동가구의 경우에는 12%이나 저소득층 아동가구의 경우에는 1.5배 높은 19%이다(Jiang, Ekono, and Skinner, 2016).

[그림 3-9] 주거안정성



자료: 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Jiang, Ekono, and Skinner(2016) 자료 재구성.

마.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보험 사각지대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없다.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민간보험이나 공적 의료보조(Medicaid)²²⁾에 가입되어야 한다.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공적 의료보조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충분히 낮거나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 의료영역에서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 즉, 민간보험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않고, 의료보조제도에서 제시하는 소득기준보다는 높은 경우에는 의료 영역에서 박탈을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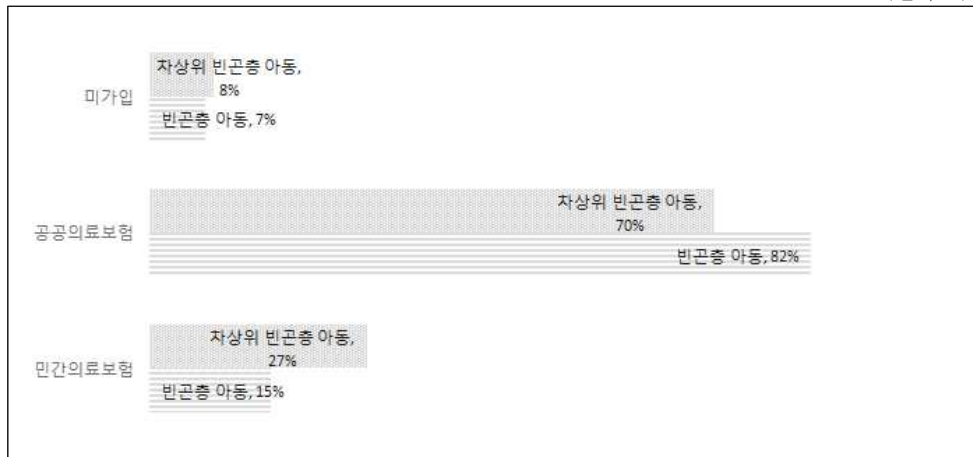
2014년 현재 이러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은 7~8% 정도이다[그림 3-10]. 대부분의 저소득층 아동은 공공의료보험²³⁾에 가입되어 있다. 일부 저소득층 아동이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그 비율은 매우 낮다. 빈곤층 아동의 82%, 차상위 빈곤층 아동의 70%가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빈곤층 아동의 15% 차상위 빈곤층 아동의 27%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Jiang, Ekono, and Skinner, 2016).

22) 의료보호에 해당하는 Medicare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23) 공공의료보험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Medicaid나, 아동대상의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의미함.

[그림 3-10] 소득계층별 아동의 의료보험 유형별 가입률(2014)

(단위:%)



자료: 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Jiang, Ekono, and Skinner(2016) 자료 재구성.

2. 미국의 아동빈곤 대응전략

아동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이후부터 추진되어 왔다. 당시 사회보장법은 크게 두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하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Social Security)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요보호아동 부조이다(Aid to Dependent Children: 이하 ADC). ADC는 가정의 사별이나 실직으로 인해 주소득원을 상실했을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Bank and Blum, 1997; Lindsey, 2009).

이후, 빈곤 아동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은 식료품(1964), 주거(1974), 의료(1965)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은 대빈곤 정책이 빈곤으로부터 탈출, 빈곤 세습 차단, 빈곤의 예방, 빈곤의 영향 최소화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동빈곤과 관련한 정책 또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에서부터, 주택, 의료, 식료품, 교육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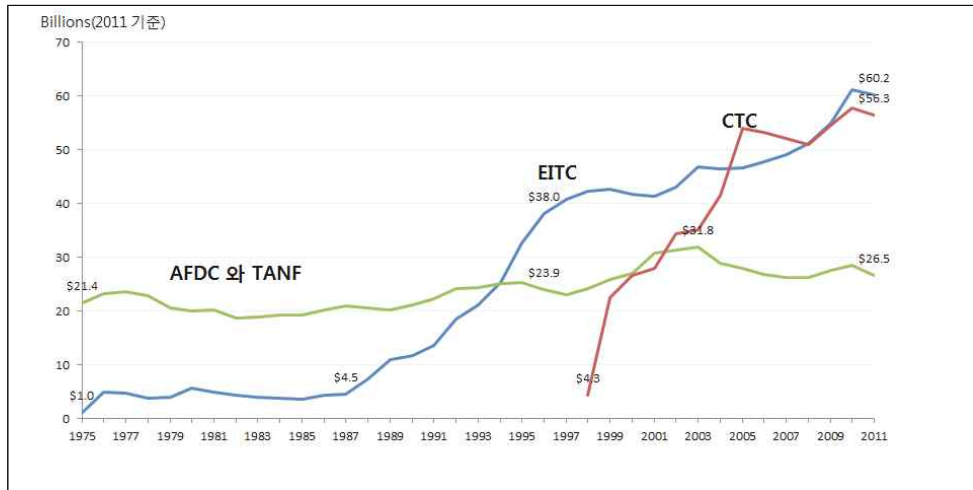
가. 직접 현금지원 정책 축소와 근로조건 강화

ADC 프로그램은 1962년에 커다란 변화없이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이하 AFDC)로 변경되었다. AFDC 프로그램은 결혼유인을 감소시키고 노동유인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1996년에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대체되었다(Bank and Blum, 1997); Lindsey, 2006). TANF 프로그램은 소득조사를 기반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엄격한 근로참여 조건이 부과되어 있고(예: 의무근로 시간 위반시 현금급여 삭감), 급여자격 기간은 생애 전체에 걸쳐서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아동빈곤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판은 TANF의 5년 급여자년 기간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 5년이 지나면 빈곤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복지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많은 빈곤 아동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Lindsey, 2006). 2015년 현재는 아동이 있는 빈곤한 가구 중 25%만이 TANF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Vallas and Boteach, 2016). 또 다른 비판으로는 5년 급여연수 제한이 빠른 시일 내에 저임금 일자리나 낮은 질의 일자리라도 찾아야한다는 압박감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Jeffrey, 2003). 실제 TANF 도입 이후 아동이 있는 한부모 중 미혼 한부모(싱글맘)의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했다(Marr et. al., 2016). 그러나 이러한 고용이 소득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Jeffrey, 2003).

TANF는 미국의 대표적인 빈곤아동 가구를 위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빈곤 탈출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빈곤아동 수 대비 수급율이 낮고(Vallas and Boteach, 2016), 또한 AFDC와 TANF는 과거 수십년 동안 총 지출액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5) 때문이다[그림 3-11]. TANF 프로그램의 총지출 비용은 2011년 기준 265억 달러(약 29조 7억원)로 이후에 살펴볼 EITC, CTC 각각 약 563억 달러, 602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그림 3-11] 미국의 주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총지출 변화: FY1975~2011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2015) Fiscal Year 2016 Historical Tabl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미국에서 TANF와 같은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본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자족(self sufficiency)”에 위배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자족은 자신의 생계는 스스로 꾸려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복지수급자(AFDC 수급자나 TANF를 주로 일컬음)가 복지급여로 ‘여왕’처럼 살아가는 자라는 왜곡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Lindsey, 2009). 1960년대 후반까지는 노동능력만 있으며 일을 통해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했다. 아동 2명이 있는 전일제 근로자 가구주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으면 가구소득이 빈곤선을 넘었으며, 일자리 또한 충분했기 때문이다(Vallas and Boteach,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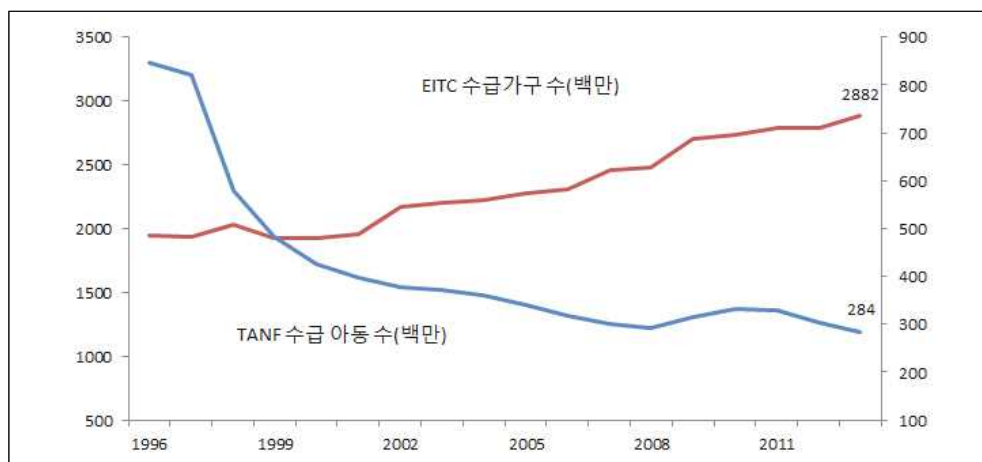
나. 근로연계 세금환급 방식의 소득지원 확대

소득지원 방식 중에서 세금 환급 방식의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TANF와 달리 미국의 가치를 지지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자에게만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1975년부터 시행된 EITC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자격요건에 따라 납입한 세금을

환급하고, 이에 추가하여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EITC는 가족규모(예: 아동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가 주요 대상층이다. 자격이 되면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율이 86%(2009년 기준) 정도로 매우 높다(Jenson and Fraser, 2011).

EITC 수급자 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TANF 수급자수를 넘어서고 있으며([그림 3-12]참조), EITC 급여는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Jenson and Fraser, 2011). 재정지출 규모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3-11]참조). EITC의 빈곤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다. 2013년에는 EITC 와 CTC 로 인해 9백 4십만 여명을 빈곤에서 벗어났고, 아동의 경우, 5백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Marr, Huang, Sherman, and Debot, 2015).

[그림 3-12] 미국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수급자 수 변화: FY1996~2013



자료: TANF 의 경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각 년도 수급자 수, EITC 의 경우 Internal Revenue Service의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각년도 수급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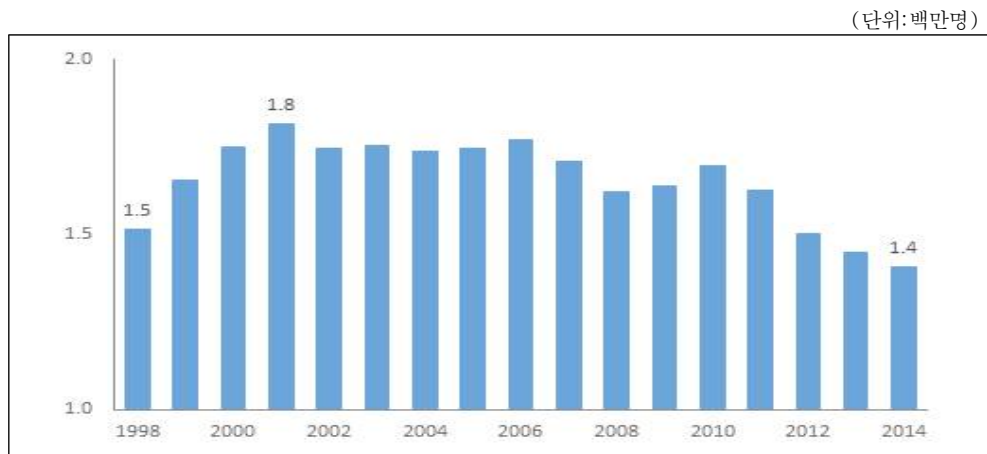
다. 아동양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EITC와 함께 계속해서 확대추세에 있는 다른 세제관련 프로그램은 자녀장려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이다. 1997년에 도입된 CTC는 자녀가 있고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에게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프로그램이다(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2016). CTC는 납부할 세금에서 자녀당 최대 1,000불을 감해준다. 자신이 낸 세금보다 받아야 할 CTC가 더 많을 경우에는 환급을 해준다. 수급자격이 되는 대상자 층 또한 포괄적이다. 자녀가 두 명 있는 싱글맘인 경우, EITC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4만 불 미만이어야 하지만, CTC의 경우에는 년 소득이 3천 불에서 약 16만 불이면 수급자격이 주어진다(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2016). 대상자 층이 매우 넓고 수급자격 또한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에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CTC와 달리 아동을 양육하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는 보육지원 보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이하 CCDBG)이 있다. 바우처 형태이며 주정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나 급여 수준이 다르다. 이용 가능한 범위 또한 이웃, 친인척, 및 보육센터와 방과후 프로그램 등 부모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Schulman and Blank, 2014). 그러나 수혜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Jenson and Fraser, 2011; Matthews et al., 2015). [그림 3-13]을 보면, 2014년 현재 1.4백만명의 아동이 CCDBG를 통한 보육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5), 연방정부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 6명 중 1명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Matthews et al., 2015).

[그림 3-13] 월평균 CCDBG 수급 아동 수: FY 1998~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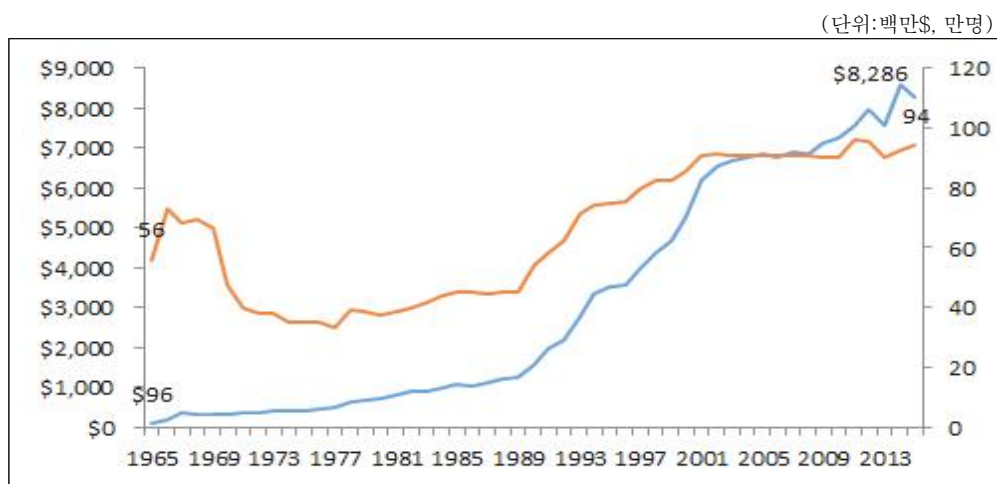
자료: HHS administrative data. FY 2014 data are preliminary.

위의 두 가지 양육지원 정책이 양육비용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헤드스타트(Head Start)와 영유아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 및 건강검진과 영양을 제공하는 아동/영유아 대상의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다. 헤드스타트는 3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헤드스타트는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아동에게 미치는 빈곤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Jenson and Fraser, 2011). 빈곤아동 가구의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규모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와 등록 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6).

헤드스타트는 효과성 유무와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당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의 결론은 빈곤가정의 아동에게 인지영역, 사회영역 및 건강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0; Strauss, 2013).

[그림 3-14] 미국의 헤드스타트 지출 및 수급자 수 변화: FY196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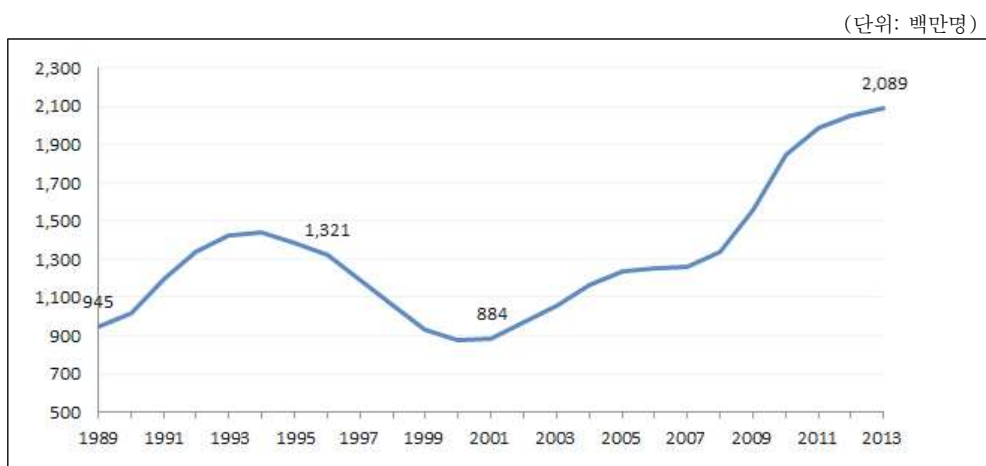


자료: U.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6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5"

라. 기타 현물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SNAP, HOUSING, 의료

지금까지 살펴본 프로그램은 빈곤 가구의 소득을 늘리고 부모의 근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부모의 노동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빈곤에 대한 정책은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들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생활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식료품, 주거, 의료 영역이다. 식품영역의 경우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과거 Food Stamp 프로그램),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NSLP), 여성 및 영유아의 건강 지원 프로그램(Women, Infant and Children: WIC)이 있다. 주거영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주택보조금(Subsidized Housing과 Section 8), 의료영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Medicaid 와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이 있다. 위 프로그램의 수급율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빈곤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축소와도 관련이 있다. TANF의 수급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수급연수가 제한됨에 따라 기타 현물급여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Lindsey, 2009).

[그림 3-15] SNAP 수급아동 수 변화: FY1965~2014



자료:Child Trend, 2016. Receipt of Snap Benefits

<http://www.childtrends.org/indicators/food-stamp-receipt/>(2016.10.31.인출)

3. 소결 및 시사점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Linsey, 2009; UNICEF, 2013). 미국 아동의 1/5이 빈곤하고,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아동 비율이 50% 정도이다. 빈곤 아동 부모의 근로활동이 빈곤 탈출로 바로 연결되기 어려우며, 낮은 가구소득은 다른 영역에서의 소비를 제한하고 이는 곧 생활상의 박탈과 연결된다. 따라서 미국의 빈곤 아동 대응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근로 능력자의 가구 총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부모의 근로활동 참여로 인한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생활상의 박탈을 지원하는 현물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다음은 이러한 특성과 한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빈곤 정책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급여의 수급조건 완화와 현금성 지원 확대이다. 빈곤탈출을 위해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방식은 빈곤 아동 가구에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과거 미국은 AFDC로 대표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방식을 통해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 방식은 노동유인 감소와 미혼 한부모 가구를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근로조건과 연계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으로 수급자격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빈곤 아동 가구의 소득 증대는 무조건적 현금지원이 아니라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기본 조건으로 현금을 지원한다.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EITC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CTC와 TANF와 같은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 또한 근로 조건이 부과되고 있다.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는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동반한다.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정의 돌봄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 아동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CCDBG와 같은 프로그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동 가치는 미국에서 매우 중요하다.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과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빈곤 대응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TANF와 같은 근로 연계 방식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빈곤 탈출이나 빈곤 감퇴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급자 또는 대상자가 매우 한정적이거나 수급조건이 까다롭고, 수급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정은희 외, 2013).

TANF의 또 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는 TANF 비수급 대상자의 지속적인 빈곤 경험 가능성이다.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나, 5년이라는 생애 전체 수급년수 제한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TANF는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외면하며, 그 중에서 아동에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 아동 가구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연수 제한이 없다. 수급자격만 된다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 기준과 같은 급여 자격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격에서 탈락된 비수급 빈곤 아동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미국과 유사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 산정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등 수급자격이 까다롭고 수급 대상자가 한정적인 점은 미국의 TANF와 유사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빈곤 탈출이나 빈곤감퇴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빈곤 가구에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수준이 매우 낮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정은희 외, 2013). 향후에는 빈곤 아동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빈곤 아동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수급자격 조건이 재산이나 소득이 아닌 ‘아동’이 있는 가구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인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의 아동빈곤 감소효과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아동 수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주연·김미숙, 2013). 우리나라는 양육수당 도입으로 인해 보편적인 아동복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아동에 대한 투자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0-5세 대상의 양육수당의 대상을 18세 아동까지 확대하여 아동수당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빈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현물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대상자 확대이다. 빈곤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식은 주로 생활상의 박탈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공형태는 현물지원 방식이 주를 이룬다. 미국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을 지원하기 위해 현물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Haveman, Blank, Moffitt,

Smeeding and Wallace, 2014). TANF와 같은 현금지원은 근로조건 부과와 수급연수 제한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TANF와는 독립적으로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식료품, 건강, 주거 영역의 현물성 급여인 SNAP, NSLP, WIC, Subsidized Housing 등을 받을 수 있다. SNAP이나 Subsidized Housing 등과 같은 현물 프로그램은 수급자격이 TANF 같은 현금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현물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수급자격은 대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과 연동된다. 대부분의 현물지원 프로그램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중첩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현물지원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보다 수급자격을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 수급자격이 까다롭고 대상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급받지 못한 아동빈곤 가구에게 다양한 현물지원은 생활상의 박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효과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확대이다.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미국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개입을 위한 연령이 짧아지고,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비용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Head Start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이다. 대상연령은 3-5세로 빈곤가정의 아동에게 인지능력 향상, 사회성과 정서 발달 등 해당 연령에서 성취해야 하는 발달상의 과업들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빈곤가정의 아동이 학령기에 인적자본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최근에는 Head Start의 개입연령을 0-2까지 확대하는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빈곤아동에 대한 개입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임신 기간 동안 간호사 방문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영유아 양육방식과 건강 식품영역까지 개입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됨으로써, 개입연령이 더욱 더 낮아지고 있다. 특히 방문 간호 프로그램은 비용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되는 등 비용 효과성이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입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아동 빈곤 프로그램의 도입과 확대를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까지는 아동빈곤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수준과 효과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개별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빈곤에 대한 노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근거로 아동빈곤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산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용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적 도입 또는 확대를 고려하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동빈곤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 효과성에 대한 평가시 단기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아동빈곤은 부모의 빈곤이다. 부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3 이상의 아동이 빈곤하다. 따라서 먼저 근로능력자에게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빈곤아동의 부모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 빈곤 아동 부모가 계절제, 임시직 등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약 1/2 정도의 아동이 빈곤하다. 상용직인 경우에도 빈곤한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이 빈곤을 탈출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이 있는 부모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빈곤하지 않아야 한다. 2014년 미국의 최저임금은 \$7.25 이다(Vallas and Boteach, 2016). 한 부모가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상용직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빈곤에 처하게 된다. 이들이 얻는 소득($\$7.25 \times 40 \times 52 = \$15,080$)은 2014년 연방정부 빈곤선 기준소득(\$19,790)에 못 미치는 때문이다. 즉 상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함에도 빈곤하다는 것이다. 계절제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임금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 상용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더 낮다. 따라서 근로활동 참여가 빈곤탈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전병유, 2016; Smeeding & Thévenot, 2016), 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이나 조세정책 또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빈곤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부모의 노동 대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한부모 가구 지원 강화이다. 미국의 아동빈곤은 아동이 속한 가족 구조와 관련이 높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인 경우 아동빈곤율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으며,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아동빈곤율은 일반가정 아동 빈곤율의 두 배가 넘는 57%에 달한다.(U.S. Bureau of the Census, 2016). 여성 가구주의 경우,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종사하고 가구내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소득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모두 아동빈곤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국가의 개입노력에 따라 아동빈곤율이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스웨덴의 경우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미국의 13%보다 3%p 높은 16% 였다. 그러나 스웨덴의 아동빈곤율은 약 4%대를 유지했다. 스웨덴은 남녀 임금 격차가 낮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 미국에 비해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인 양육시스템과 실효성 높은 육아휴직제 시행 등 국가의 적극적인 아동양육 프로그램 또한 발달했기 때문이다(이삼식, 2012; Smeeding and Thévenot, 2016).

그러나 최근 들어 스웨덴의 아동빈곤율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공적부조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감소하였다는데 있다. 다른 하나는 인구 구성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최근 들어 스웨덴은 한부모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민자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2012년 아동빈곤율은 10%대이며, 특히 이민자 아동 빈곤율은 2012년 20%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이들이 아동빈곤율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를 축소하였기 때문이다(Smeeding and Thévenot, 2016).

우리나라 또한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이 일반가구의 아동빈곤율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다(정은희 외, 2015). 한부모 가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16).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동 빈곤율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소득을 증대시킬 수 방안과 함께, 아동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양육지원 또한 보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수준과 대상자 확대가 어려운 경우라면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프로그램 확대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명확한 아동빈곤 계획과 구체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다. 미국의 2015년 현재 아동빈곤율은 공식적인 빈곤규모를 측정하기 시작한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장에서의 소득분배가 가장 불평등하고 재분배를 위한 사회정책 또한 약하며(Sachs, 2016),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국가의 개입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와 시민단체는 연방차원의 아동빈곤 국가 계획 수립과 행동전략 및 구체적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아동빈곤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빈곤에 관한 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가적 차원의 아동빈곤 종합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향후에는 빈곤탈출을 위한 빈곤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정책 및 빈곤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복지, 교육, 문화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빈곤 대응 전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워야 할 것이다.

제 2 부

아동빈곤의 경향 및 다차원적 실태 분석

제4장 아동빈곤의 최근 동향

제5장 아동빈곤 실태의 다차원적 분석

제6장 아동빈곤 실태의 질적 분석

제 4 장

아동빈곤의 최근 동향

제1절 서론

제2절 아동빈곤 추이

제3절 최근 아동빈곤을 감소의 원인

제4절 소결

4

아동빈곤의 최근 동향 <



제1절 서론

본 장에서는 아동빈곤의 최근 변화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은 복지정책의 핵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동빈곤의 실태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2012년 「아동빈곤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아동빈곤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빈곤아동에 대한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실태에 대한 근거기반적(evidence-based) 연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누가 얼마나 빈곤한가”는 빈곤 연구의 출발점이다. 앞서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강조했지만,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빈곤율과 빈곤갭 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심층적인 다차원적 아동빈곤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빈곤아동에 대한 표적화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아동이 빈곤하고, 어느 정도 빈곤하며, 어떠한 욕구가 결핍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1960년 이후 아동인구 수와 인구에서의 상대적 비중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종단 데이터로서 가장 공신력있고 대표성이 높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아동의 규모와 빈곤의 심도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능한 긴 기간 동안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1990년에서 2015년까지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빈곤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좀 더 대표성 있는 빈곤지표 산출을 위하여 1인 가구가 추가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빈곤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소결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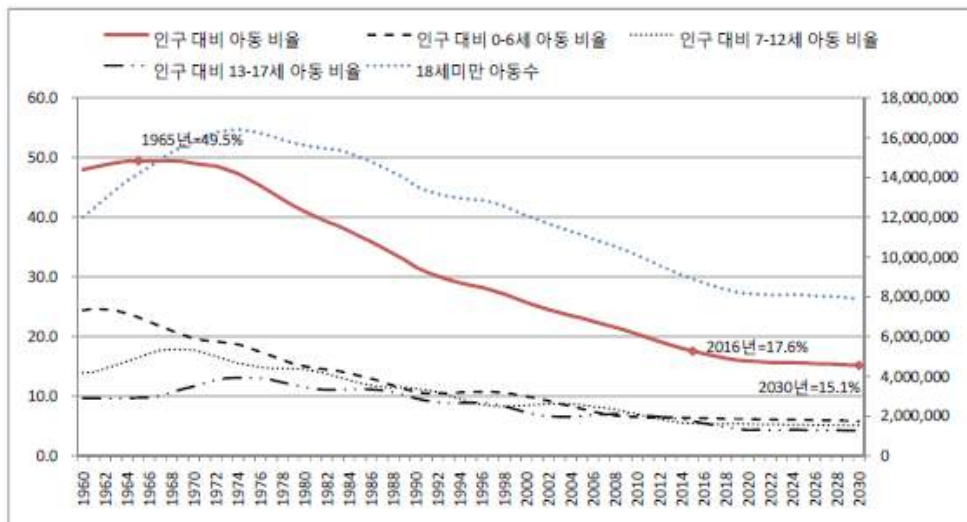
제2절 아동빈곤 추이

1. 아동인구 추이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1974년 1,642만명을 최고점으로 이후²⁴⁾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출산율의 저조로 2016년 현재 약 836만명으로 최고점 대비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인구 추계에 의하면 향후에도 아동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30년에는 79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49.5%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 2016년에는 17.1%에 불과하며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어 2030년에는 15.1%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 18세 미만 아동 수 및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계(중위가정)
(단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www.kosis.kr, 2016.7.14. 다운로드)

24) 6·25전쟁 이후 1955~63년생(生)을 1차 베이비붐세대라 하고, 1968~74년생을 2차 베이비붐세대라 한다.

〈표 4-1〉 아동 인구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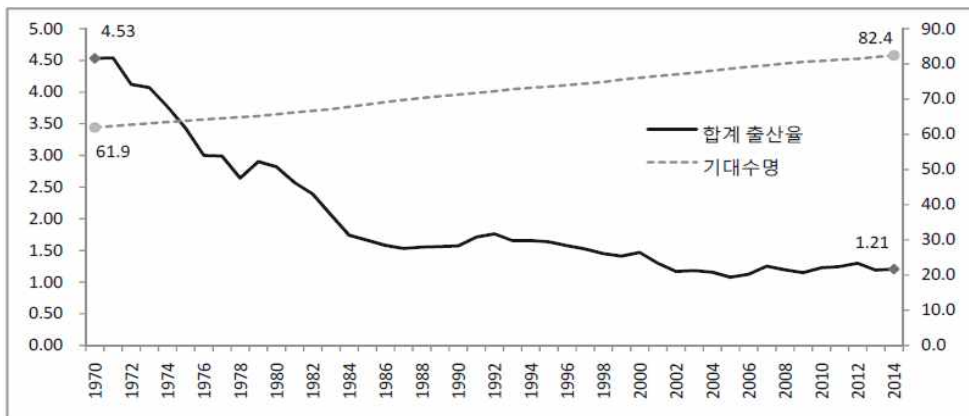
(단위: 천명, %)

| 연령별(전국) | | 1960 | 1980 | 2000 | 2010 | 2015 | 2020 | 2030 |
|---------|-----|--------|--------|--------|--------|-------|-------|-------|
| 전체 아동 | 인구수 | 12,004 | 15,621 | 12,077 | 10,065 | 8,886 | 8,159 | 7,899 |
| | 비율 | 48.0 | 41.0 | 25.7 | 20.4 | 17.6 | 15.9 | 15.1 |
| 0-6세 | 인구수 | 6,106 | 5,721 | 4,685 | 3,202 | 3,191 | 3,161 | 3,023 |
| | 비율 | 24.4 | 15.0 | 10.0 | 6.5 | 6.3 | 6.1 | 5.8 |
| 7-12세 | 인구수 | 3,475 | 5,514 | 3,973 | 3,435 | 2,757 | 2,747 | 2,663 |
| | 비율 | 13.9 | 14.5 | 8.5 | 7.0 | 5.4 | 5.3 | 5.1 |
| 13-17세 | 인구수 | 2,423 | 4,387 | 3,419 | 3,428 | 2,937 | 2,251 | 2,213 |
| | 비율 | 9.7 | 11.5 | 7.3 | 6.9 | 5.8 | 4.4 | 4.2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www.kosis.kr, 2016.7.14. 다운로드)

아동 인구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1974년 2차 베이비붐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합계출산율과, 이에 대비되는 기대수명의 상승에 기인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에 4.53에 이르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의 자연대체 수준이라 할 수 있는 2.1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5년 1.08을 최저점으로 현재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OECD 2016, p.81).²⁵⁾

[그림 4-2]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 2016.9.19. 다운로드)

25)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

인구 구성에 있어 아동의 비율 감소와 절대적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해, 가구당 평균 아동의 수와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아래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10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가구당 아동 수는 0.79명에서 0.6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 역시 45.8%에서 36.9%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가구당 평균 아동 수 및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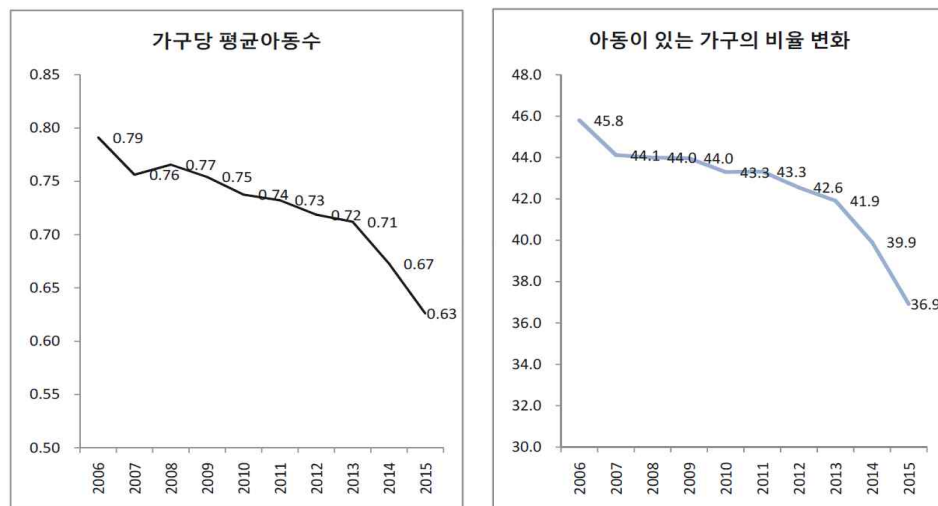
(단위: 명, %)

| | 전체가구 | | 아동이 있는 가구 | | |
|------|--------|-------|-----------|--------|-------|
| | 평균가구원수 | 평균아동수 | 비율 | 평균가구원수 | 평균아동수 |
| 2006 | 2.94 | 0.79 | 45.8 | 3.86 | 1.73 |
| 2007 | 2.88 | 0.76 | 44.1 | 3.83 | 1.71 |
| 2008 | 2.86 | 0.77 | 44.0 | 3.89 | 1.74 |
| 2009 | 2.86 | 0.75 | 44.0 | 3.90 | 1.72 |
| 2010 | 2.84 | 0.74 | 43.3 | 3.88 | 1.70 |
| 2011 | 2.82 | 0.73 | 43.3 | 3.85 | 1.69 |
| 2012 | 2.81 | 0.72 | 42.6 | 3.86 | 1.69 |
| 2013 | 2.79 | 0.71 | 41.9 | 3.85 | 1.70 |
| 2014 | 2.71 | 0.67 | 39.9 | 3.82 | 1.69 |
| 2015 | 2.64 | 0.63 | 36.9 | 3.81 | 1.70 |

주 : 농어가를 제외한 전가구 대상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3] 가구당 평균 아동 수 및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 변화



2. 아동빈곤 추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빈곤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1990년 이후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등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2006년 이전까지 도시 2인 가구에 대해서만 일관된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 부분에서는 좀 더 긴 종단자료를 통해 아동빈곤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 추이를 분석하였다. 뒷 부분에서는 좀 더 대표성 있는 빈곤 지표를 산출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2015년까지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 추이를 살펴보았다.

가.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빈곤 추이

먼저, 1인 균등화된 중위 근로소득 50% 미만을 기준으로 2인 이상 도시가구의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 10% 내외에 불과하던 빈곤율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등하여 1999년 16.6%까지 치솟았다. 이후 14%대를 유지하던 빈곤율은 2003년 신용대란 전후로 다시 급등하였으며 이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6%~18%를 오르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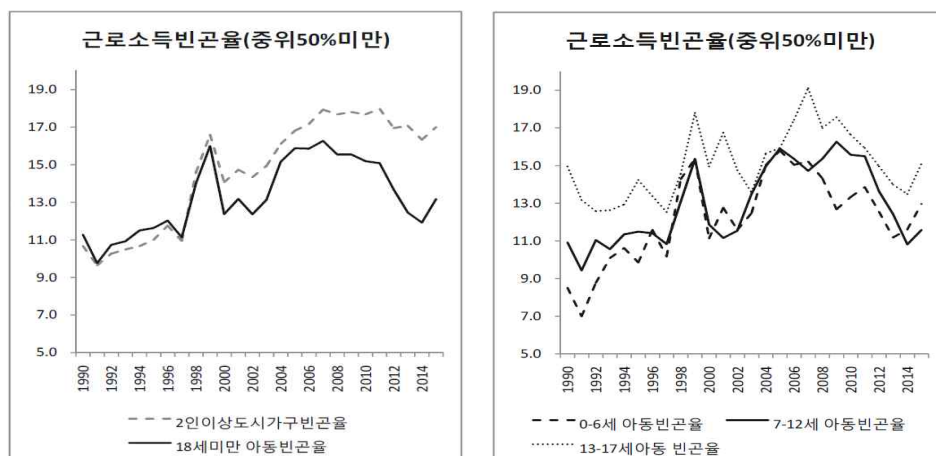
이에 비해 18세 미만의 아동빈곤율은 외환위기까지 도시 2인이상 가구 전체 빈곤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등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2000년 초반 이후 2010년까지 도시 2인 이상 가구 전체와는 2%p 내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빈곤율이 14~17% 내외로 등락하는 동안, 아동빈곤율은 12~15% 내외로 등락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전체 가구와의 격차는 더욱 커져서, 가장 최근 연도인 2015년에 이르면 2인 이상 도시가구 빈곤율은 17.0%인 반면, 아동빈곤율은 13.2%로 그 격차가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7~12세 아동의 빈곤율이 11.6%로 가장 낮고, 이어서 0~6세 아동이 13.0%이며, 13~17세 아동은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도시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데 비해, 아동빈곤율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표 4-3〉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근로소득 중위50% 미만 기준) 추이 (단위: %)

| 연도 | 도시가구(2인이상) | 18세 미만 아동 | 0-6세 아동 | 7-12세 아동 | 13-17세 아동 |
|------|------------|-----------|---------|----------|-----------|
| 1990 | 10.7 | 11.3 | 8.5 | 10.9 | 14.9 |
| 1991 | 9.6 | 9.8 | 7.0 | 9.4 | 13.2 |
| 1992 | 10.3 | 10.7 | 8.8 | 11.0 | 12.6 |
| 1993 | 10.5 | 10.9 | 10.1 | 10.6 | 12.6 |
| 1994 | 10.7 | 11.5 | 10.6 | 11.3 | 12.9 |
| 1995 | 11.0 | 11.6 | 9.9 | 11.5 | 14.2 |
| 1996 | 11.8 | 12.0 | 11.6 | 11.4 | 13.4 |
| 1997 | 10.9 | 11.1 | 10.2 | 10.8 | 12.5 |
| 1998 | 14.6 | 14.0 | 14.3 | 13.1 | 14.6 |
| 1999 | 16.6 | 16.0 | 15.4 | 15.3 | 17.8 |
| 2000 | 14.1 | 12.4 | 11.1 | 11.9 | 15.0 |
| 2001 | 14.7 | 13.2 | 12.8 | 11.2 | 16.7 |
| 2002 | 14.3 | 12.4 | 11.6 | 11.5 | 14.8 |
| 2003 | 14.9 | 13.1 | 12.5 | 13.5 | 13.6 |
| 2004 | 16.1 | 15.2 | 15.0 | 15.0 | 15.6 |
| 2005 | 16.8 | 15.9 | 15.8 | 15.9 | 15.9 |
| 2006 | 17.2 | 15.9 | 15.0 | 15.4 | 17.4 |
| 2007 | 17.9 | 16.3 | 15.2 | 14.7 | 19.1 |
| 2008 | 17.7 | 15.5 | 14.3 | 15.4 | 17.0 |
| 2009 | 17.8 | 15.5 | 12.7 | 16.3 | 17.6 |
| 2010 | 17.7 | 15.2 | 13.3 | 15.6 | 16.6 |
| 2011 | 18.0 | 15.1 | 13.9 | 15.5 | 15.9 |
| 2012 | 16.9 | 13.7 | 12.5 | 13.6 | 15.0 |
| 2013 | 17.1 | 12.5 | 11.2 | 12.4 | 14.0 |
| 2014 | 16.3 | 11.9 | 11.6 | 10.8 | 13.5 |
| 2015 | 17.0 | 13.2 | 13.0 | 11.6 | 15.1 |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4]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근로소득 중위 50% 미만 기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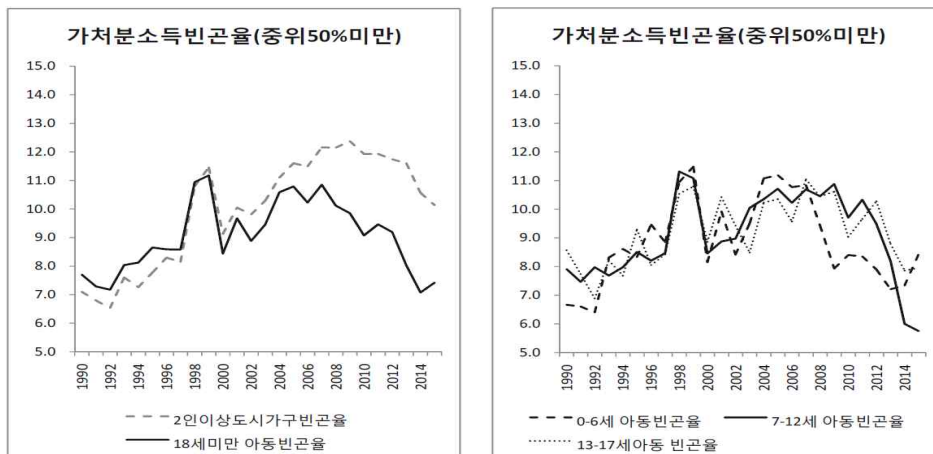
〈표 4-4〉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50% 미만 기준) 추이

(단위: %)

| 연도 | 도시가구(2인이상) | 18세 미만 아동 | 0-6세 아동 | 7-12세 아동 | 13-17세 아동 |
|------|------------|-----------|---------|----------|-----------|
| 1990 | 7.1 | 7.7 | 6.7 | 7.9 | 8.6 |
| 1991 | 6.8 | 7.3 | 6.6 | 7.5 | 7.7 |
| 1992 | 6.5 | 7.2 | 6.4 | 8.0 | 6.9 |
| 1993 | 7.6 | 8.0 | 8.3 | 7.7 | 8.2 |
| 1994 | 7.3 | 8.1 | 8.6 | 8.0 | 7.7 |
| 1995 | 7.8 | 8.7 | 8.3 | 8.5 | 9.3 |
| 1996 | 8.3 | 8.6 | 9.5 | 8.2 | 8.1 |
| 1997 | 8.2 | 8.6 | 8.8 | 8.5 | 8.4 |
| 1998 | 10.8 | 10.9 | 10.9 | 11.3 | 10.5 |
| 1999 | 11.5 | 11.2 | 11.5 | 11.1 | 10.8 |
| 2000 | 9.1 | 8.4 | 8.2 | 8.5 | 8.9 |
| 2001 | 10.0 | 9.7 | 9.9 | 8.9 | 10.4 |
| 2002 | 9.8 | 8.9 | 8.4 | 9.0 | 9.4 |
| 2003 | 10.3 | 9.5 | 9.5 | 10.0 | 8.5 |
| 2004 | 11.1 | 10.6 | 11.1 | 10.4 | 10.2 |
| 2005 | 11.6 | 10.8 | 11.2 | 10.7 | 10.4 |
| 2006 | 11.5 | 10.2 | 10.8 | 10.2 | 9.6 |
| 2007 | 12.2 | 10.9 | 10.8 | 10.7 | 11.0 |
| 2008 | 12.1 | 10.1 | 9.4 | 10.5 | 10.4 |
| 2009 | 12.4 | 9.9 | 7.9 | 10.9 | 10.6 |
| 2010 | 11.9 | 9.1 | 8.4 | 9.7 | 9.0 |
| 2011 | 11.9 | 9.5 | 8.4 | 10.3 | 9.7 |
| 2012 | 11.7 | 9.2 | 7.9 | 9.5 | 10.3 |
| 2013 | 11.6 | 8.0 | 7.2 | 8.2 | 8.8 |
| 2014 | 10.6 | 7.1 | 7.3 | 6.0 | 7.9 |
| 2015 | 10.1 | 7.4 | 8.4 | 5.8 | 8.0 |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5]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 기준) 추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빈곤율의 양상은 근로소득 빈곤율 추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몇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무엇보다도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근로소득 빈곤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빈곤율은 1992년 6.5%로 가장 낮았고, 2009년에 12.4%로 가장 높았지만, 9.6%~18.0%에 이르는 근로소득 빈곤율에 비해서는 3~6%p 내외 낮은 수준이다. 둘째, 근로소득 빈곤율은 최근 몇 년 사이 거의 낮아지지 않은데 비해,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고점 대비 2%p 정도 하락하였다. 이는 사회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커진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셋째, 아동빈곤율의 경우, 가처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근로소득은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데 비해 아동빈곤율은 그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는 점이다. 즉,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2015년 7.4%로 1992년 7.2% 최저점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근로소득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7~12세 아동의 빈곤율이 가장 낮는데, 2015년 이 연령대의 빈곤율은 5.8%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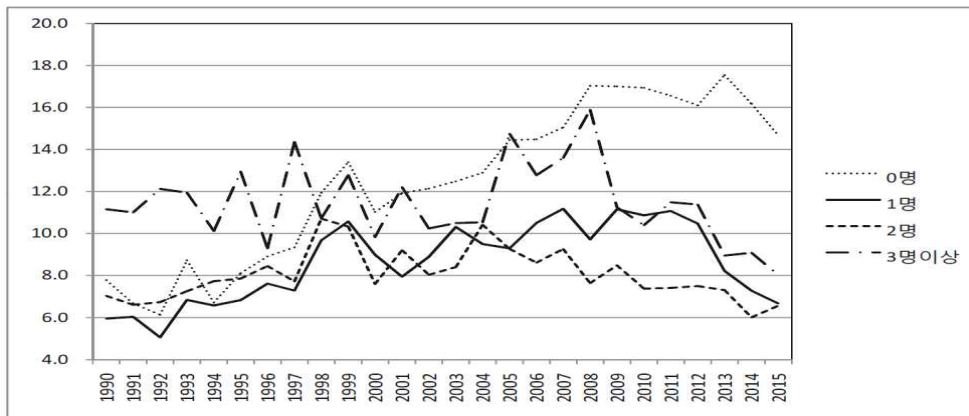
아래 표와 그림은 가구 내 아동의 수에 따른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 가구 내 아동이 없는 가구와 있는 가구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아동이 없는 가구의 경우—비록 2015년에 상당폭 하락하였지만—1990년대 이래 빈곤율이 추세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동이 없는 가구가 주로 고령가구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상승 추세였던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동이 없는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52.4세로, 아동이 없는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 42.5세에 비해 10세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상당한 부침을 보이기는 하지만,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빈곤율이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아동이 한 명 내지 두 명인 가구의 빈곤율은 각각 6.7%와 6.6%로,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가구 내에 아동의 수가 3명 이상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아동이 3명 이상 있는 가구와 1~2명 있는 가구 간의 빈곤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1990년의 경우 아동이 1명인 가구와 아동이 3명인 가구의 빈곤율 차이는 5.2%p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그 차이가 1.3%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관련한 것인지는 좀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4-5〉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수별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50% 미만 기준) 추이
(단위: %)

| 연도 | 아동 수 | | | |
|------|------|------|------|------|
| | 0명 | 1명 | 2명 | 3명이상 |
| 1990 | 7.8 | 6.0 | 7.0 | 11.2 |
| 1991 | 6.7 | 6.0 | 6.6 | 11.0 |
| 1992 | 6.1 | 5.1 | 6.7 | 12.1 |
| 1993 | 8.7 | 6.8 | 7.3 | 11.9 |
| 1994 | 6.7 | 6.6 | 7.7 | 10.1 |
| 1995 | 8.1 | 6.8 | 7.9 | 12.9 |
| 1996 | 8.9 | 7.6 | 8.5 | 9.3 |
| 1997 | 9.3 | 7.3 | 7.7 | 14.4 |
| 1998 | 11.9 | 9.7 | 10.7 | 10.7 |
| 1999 | 13.4 | 10.6 | 10.3 | 12.8 |
| 2000 | 11.0 | 9.0 | 7.6 | 9.8 |
| 2001 | 11.9 | 7.9 | 9.2 | 12.2 |
| 2002 | 12.1 | 8.9 | 8.0 | 10.2 |
| 2003 | 12.5 | 10.3 | 8.4 | 10.5 |
| 2004 | 12.9 | 9.5 | 10.4 | 10.5 |
| 2005 | 14.4 | 9.3 | 9.3 | 14.7 |
| 2006 | 14.5 | 10.5 | 8.6 | 12.8 |
| 2007 | 15.0 | 11.2 | 9.3 | 13.6 |
| 2008 | 17.0 | 9.7 | 7.6 | 15.9 |
| 2009 | 17.0 | 11.2 | 8.5 | 11.2 |
| 2010 | 16.9 | 10.9 | 7.4 | 10.4 |
| 2011 | 16.6 | 11.1 | 7.4 | 11.5 |
| 2012 | 16.1 | 10.5 | 7.5 | 11.4 |
| 2013 | 17.5 | 8.2 | 7.3 | 8.9 |
| 2014 | 16.2 | 7.3 | 6.0 | 9.1 |
| 2015 | 14.7 | 6.7 | 6.6 | 8.0 |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6] 2인이상 도시가구의 아동수별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50% 미만 기준) 추이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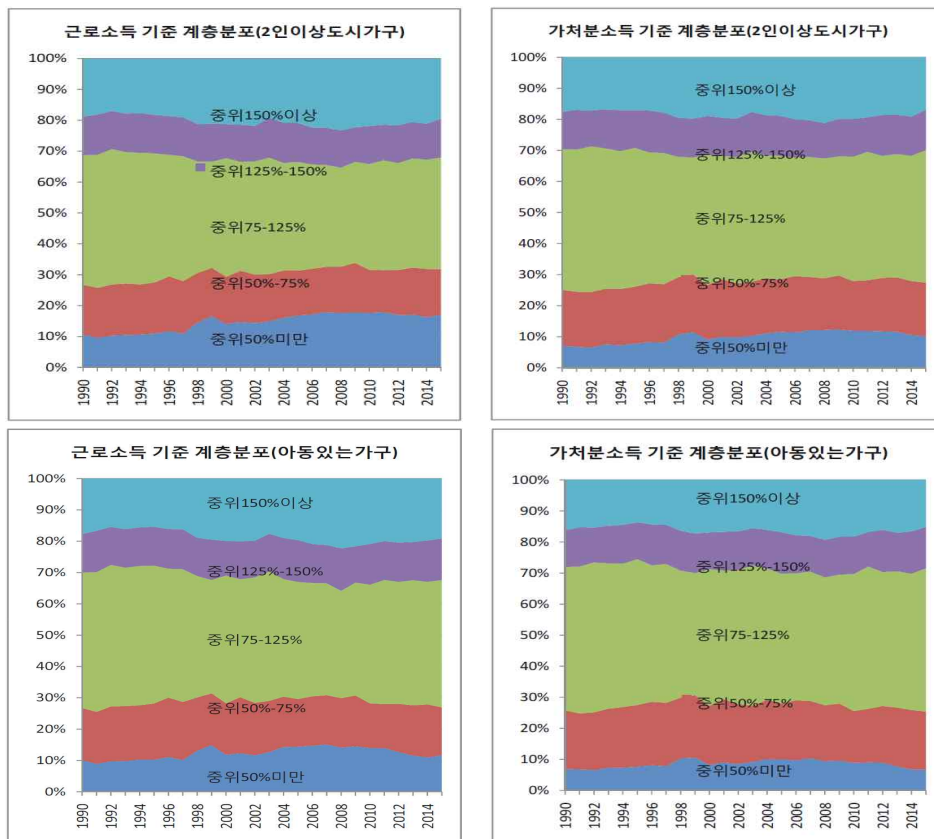
〈표 4-6〉 계층분포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 구분 | 연도 | 중위 50%미만 | 중위 50%-75% | 중위 75-125% | 중위 125%-150% | 중위 150%이상 | 계 |
|----------------------|------|-------------|---------------|---------------|-----------------|--------------|-------|
| 2인 이상 도시 가구 | 1990 | 7.1 | 18.0 | 45.3 | 12.1 | 17.5 | 100.0 |
| | 1995 | 7.8 | 18.4 | 44.8 | 12.2 | 16.9 | 100.0 |
| | 2000 | 9.1 | 17.6 | 42.0 | 12.5 | 18.9 | 100.0 |
| | 2005 | 11.6 | 16.9 | 39.8 | 12.9 | 18.8 | 100.0 |
| | 2010 | 11.9 | 16.0 | 40.1 | 12.2 | 19.8 | 100.0 |
| | 2015 | 10.1 | 17.3 | 42.7 | 12.9 | 16.9 | 100.0 |
| 아동이 있는 가구 | 1990 | 7.0 | 18.8 | 46.2 | 11.8 | 16.2 | 100.0 |
| | 1995 | 7.7 | 19.9 | 46.9 | 11.8 | 13.7 | 100.0 |
| | 2000 | 8.2 | 19.1 | 44.0 | 11.8 | 16.9 | 100.0 |
| | 2005 | 10.1 | 18.0 | 41.8 | 13.3 | 16.9 | 100.0 |
| | 2010 | 8.9 | 16.7 | 44.1 | 12.0 | 18.2 | 100.0 |
| | 2015 | 6.8 | 18.7 | 46.1 | 13.4 | 15.1 | 100.0 |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7] 계층분포 변화 추이



위 표와 그림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계층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아동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층과 중위소득 150%의 고소득층보다는 중간층에 집중되어 있다²⁶⁾. 또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1990년과 2015년 두 해만을 놓고 볼 때, 계층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2인 이상 도시 가구 전체의 경우, 1990년에 비해 2015년에 빈곤층은 증가하고, 핵심 중간층(중위 75~125%)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1990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아동빈곤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을 전후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근로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이 1990년대의 낮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데 비해,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거의 1990년대 수준을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2인 이상 도시가구의 빈곤율 역시 199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결과, 전체 빈곤율과 아동빈곤율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 또한 특징적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연관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판단된다.

나. 전체 가구 기준 아동빈곤 추이

1) 빈곤율

주지한 바와 같이,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대 이후 빈곤 추세를 보는 것은 좀 더 긴 기간 동안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관된 분석을 위해서는 도시 2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 이후에는 농어가를 제외한 전 가구에 대한 대표성 있는 분석이 가능한 2006년 이후 원자료만을 활용하여, 아동가구와 전체가구의 빈곤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6)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과 아동빈곤율은 다르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아동을 포함한 전 가구원이 빈곤율 산정에 포함되지만, 아동빈곤율은 빈곤한 가구의 아동의 수만을 빈곤율 산정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필요에 따라 이 두 빈곤율을 모두 사용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아래 표와 그림은 2006년 이래 10년 동안의 아동빈곤율 추이와 전체 가구 빈곤율과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 뿐 아니라, 중위소득 40%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추세적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한 아동빈곤율의 낙폭은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5.5%p에 이를 정도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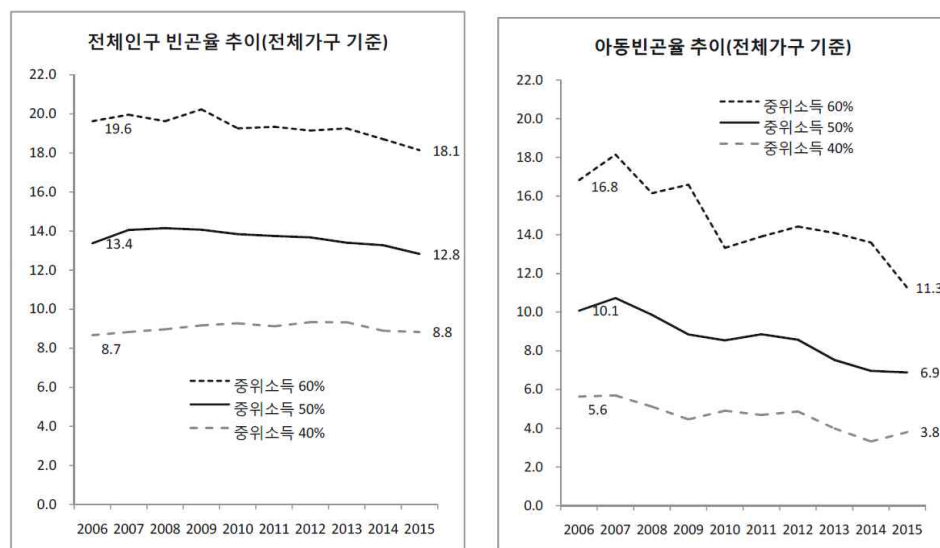
〈표 4-7〉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단위: %)

| 연도 | 중위소득 40%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60% |
|------|----------|----------|----------|
| 2006 | 5.6 | 10.1 | 16.8 |
| 2007 | 5.7 | 10.7 | 18.1 |
| 2008 | 5.1 | 9.9 | 16.1 |
| 2009 | 4.5 | 8.8 | 16.6 |
| 2010 | 4.9 | 8.5 | 13.3 |
| 2011 | 4.7 | 8.9 | 13.9 |
| 2012 | 4.9 | 8.6 | 14.4 |
| 2013 | 4.0 | 7.5 | 14.1 |
| 2014 | 3.3 | 7.0 | 13.6 |
| 2015 | 3.8 | 6.9 | 11.3 |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8]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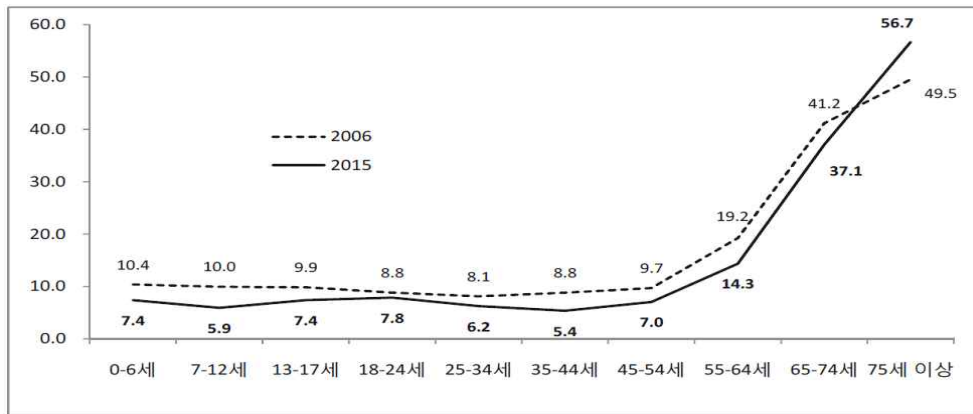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러한 아동빈곤율의 하락²⁷⁾은 전체 가구 빈곤율과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다. 전체 가구의 빈곤율은 2013년과 2014년에 약간 감소했을 뿐, 2006년 이래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빈곤율과 전체가구 빈곤율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아동빈곤율에 비해 전체 가구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은 주로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대비 2015년 연령별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이 기간 동안 7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빈곤율이 상당폭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12세 아동의 빈곤율은 10%에서 5.9%로 4.1%p 하락했고, 55-64세 연령대의 빈곤율 또한 19.2%에서 14.3%로 4.9%p 하락했으며, 65-74세 초기 노령기 빈곤율도 41.2%에서 37.1%로 4.1%p 감소했다. 즉, 아동과 중장년 및 초기 노년기의 빈곤율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반면,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5%에서 56.7%로 7.2%p 증가함으로써 빈곤율의 낙폭을 줄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연령별 빈곤율 변화(2006년과 2015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7) 아동빈곤율의 하락과 더불어 절대적인 아동인구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빈곤아동의 수는 더 급감하였다. 본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추정해 보면,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빈곤아동의 수는 2006년 1,099천명에서 2015년 612천명으로, 중위소득 60% 기준으로는 2006년 1,834천명에서, 2015년 1,000천명으로 감소하였다.

2) 빈곤갭

앞서 2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척도로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빈곤율로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러한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자원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빈곤율의 보조지표로 빈곤의 심도(depth)를 보여주는 빈곤갭이 사용되곤 한다. 여기에서 아동의 빈곤갭을 빈곤율에 대한 보조지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갭의 추이는 빈곤율 추이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동빈곤갭은 전체가구 빈곤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2010년을 전후로 하향하는 추세가 뚜렷히 나타난다. 이는 2014년과 2015년에 약간 낮아졌을 뿐 빈곤갭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전체가구의 패턴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40% 기준 아동빈곤갭은 2015년에 1.1로 전체가구의 3.0에 비해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도 아동빈곤갭은 전체 빈곤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중위소득 60%에 이르면 아동빈곤갭은 전체 가구 빈곤갭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빈곤갭이 낮다는 것은 약간의 자원만으로도 아동(가구)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아동빈곤갭이 전체 가구 빈곤갭의 절반이라는 것은 아동가구 1가구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드는 자원이 평균적인 빈곤가구 1가구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드는 자원의 절반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최근의 아동빈곤갭의 추이가 주는 함의는, 최근으로 올수록 빈곤한 아동가구의 평균소득이 빈곤선에 더욱 근접해졌으며, 부모의 소득이 약간 증가하거나 공적 지원을 조금만 해 주어도 이들 아동가구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있는 가구의 성인은 고실업률이나 장기실업률이 높은 유럽 일부 국가들과는 달리, 근로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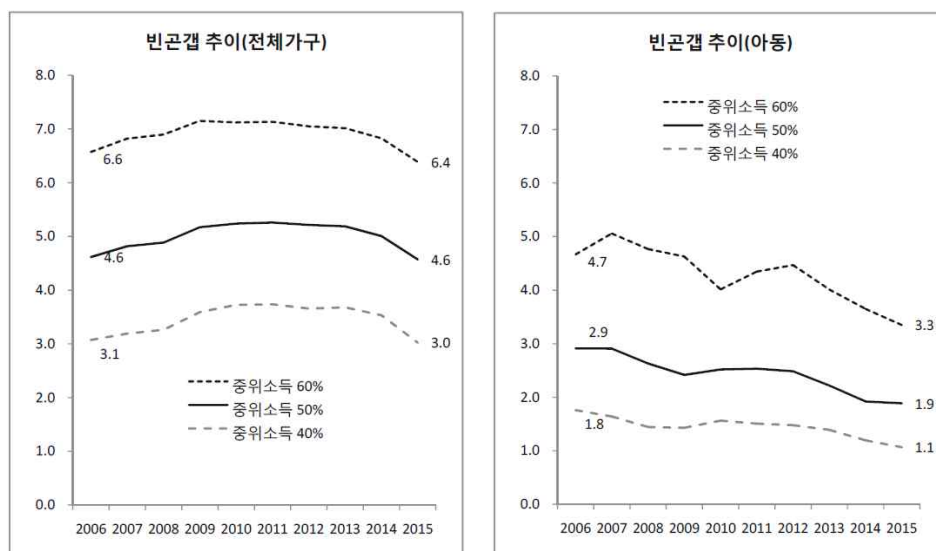
〈표 4-8〉 아동빈곤갭(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단위: %)

| 구분 | 연도 | 중위소득 40%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60% |
|----|------|----------|----------|----------|
| 전체 | 2006 | 3.1 | 4.6 | 6.6 |
| | 2007 | 3.2 | 4.8 | 6.8 |
| | 2008 | 3.3 | 4.9 | 6.9 |
| | 2009 | 3.6 | 5.2 | 7.2 |
| | 2010 | 3.7 | 5.2 | 7.1 |
| | 2011 | 3.7 | 5.3 | 7.1 |
| | 2012 | 3.7 | 5.2 | 7.0 |
| | 2013 | 3.7 | 5.2 | 7.0 |
| | 2014 | 3.5 | 5.0 | 6.8 |
| 아동 | 2015 | 3.0 | 4.6 | 6.4 |
| | 2006 | 1.8 | 2.9 | 4.7 |
| | 2007 | 1.6 | 2.9 | 5.1 |
| | 2008 | 1.4 | 2.6 | 4.8 |
| | 2009 | 1.4 | 2.4 | 4.6 |
| | 2010 | 1.6 | 2.5 | 4.0 |
| | 2011 | 1.5 | 2.5 | 4.3 |
| | 2012 | 1.5 | 2.5 | 4.5 |
| | 2013 | 1.4 | 2.2 | 4.0 |
| | 2014 | 1.2 | 1.9 | 3.6 |
| | 2015 | 1.1 | 1.9 | 3.3 |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10] 아동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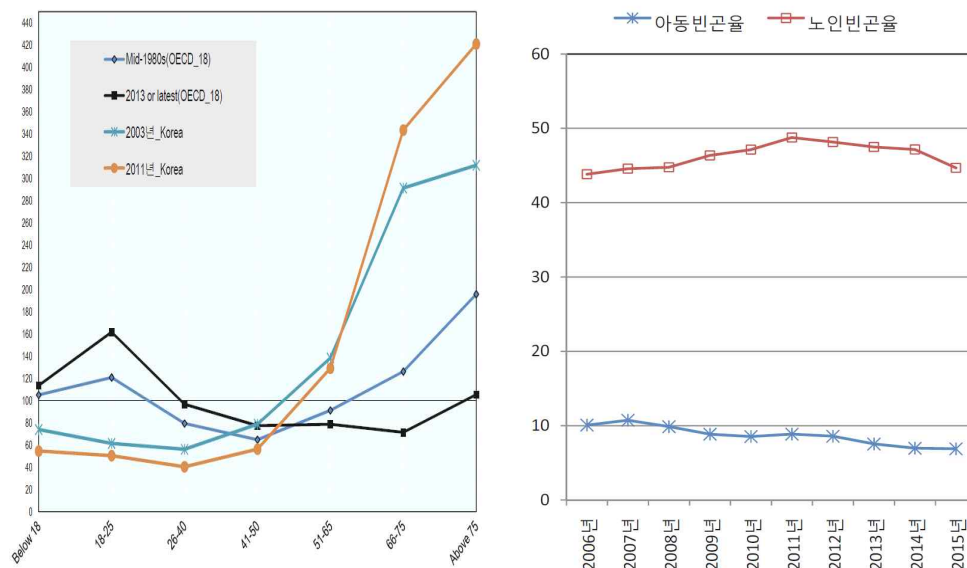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3.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아동 빈곤 수준

우리나라의 연령별 빈곤율, 특히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은 극단적인 대조를 보인다. 이는 아래 그림에서도 확인된다. OECD 평균적으로 볼 때 최근으로 올수록 아동빈곤율은 높아지고 노인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 반대이다. 즉, 아동빈곤율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최근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 간의 편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증액 등의 효과로 인해 최근들어 노인빈곤율도 다소나마 감소하고 있다.

[그림 4-11] 연령별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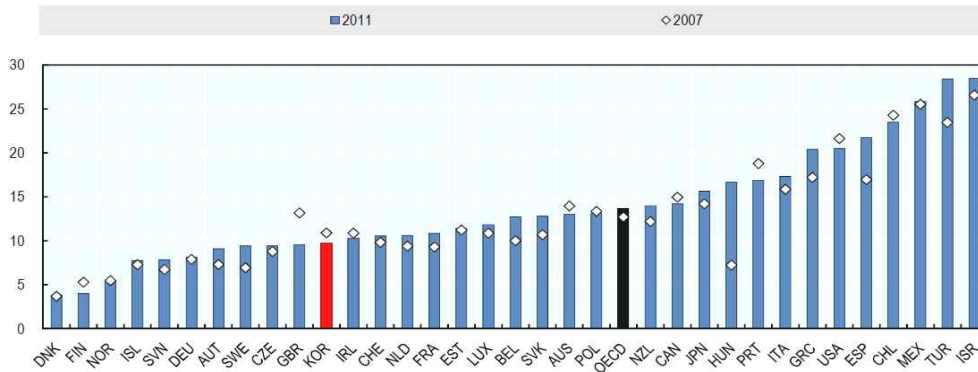


자료: 여유진 외(2015)

원자료: 가계동향조사(농어가 제외)

실제로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하며,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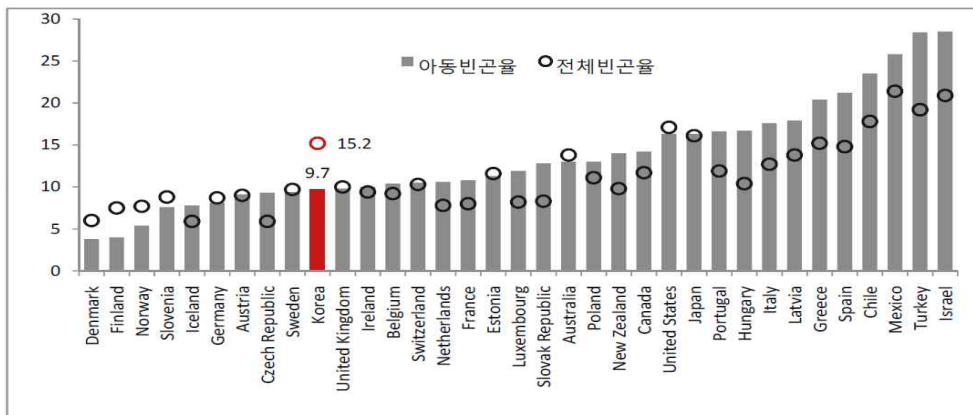
[그림 4-12]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2007년과 2011년)



자료: OECD(2015, p.152, Figure 4.3)

또한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사는 아동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9.7%로, 덴마크(3.8%), 핀란드(4%), 노르웨이(5.4%) 등 노르딕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OECD 국가 평균(13%)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4-13]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2011년)



주: 호주, 일본, 헝가리, 멕시코, 네덜란드는 2012년 기준이며, 영국은 2010년 기준임.

자료: OECD.Stat(2016.8.9. 추출)

제3절 최근 아동빈곤율 감소의 원인

그렇다면 최근 아동 빈곤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크게 보면 아동빈곤율의 하락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상승 혹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공적 현금지원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²⁸⁾. 실제로 2010년을 전후로 근로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인 모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동이 있는 가구의 근로소득 상승

먼저, 가구 내 아동의 수별로 근로소득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몇 가지 점에서 취업 인원수의 추세는 가구 내의 아동 수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아동이 있는 가구의 평균 취업 인원수가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기 동안 아동이 있는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는 1.33명~1.58명인데 비해, 아동이 없는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는 1.19명~1.0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아동이 1~2명인 가구의 취업자 수는 이 기간 동안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 아동이 없는 가구와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의 취업자 수는 동 기간 동안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가구 내에 아동이 없는 가구의 경우, 2006년 가구 내 취업자는 평균 1.19명이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1.08명으로 줄어들었다. 2010년에는 다시 2006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취업자 수는 약간씩 감소하여 2015년 현재 1.15명이다.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 역시—최근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취업자 수가 2006년 1.58명에서 2015년 1.47명으로 0.11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동이 1명인 가구와 2명인 가구는 동 기간 동안 취업자 수가 각각 0.11명과 0.07명 증가하였다. 물론 좀 더 엄밀한 분석을 요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이 기

28)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저소득)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중위소득 감소에 따른 아동빈곤율의 상대적 감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포괄적으로는 아동가구의 상대소득 상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다루기 않기로 한다.

간 동안 아동이 1~2명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빈곤 감소의 폭도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과 부합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셋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아동이 있는 가구의 맞벌이가구의 비율 역시 38.9%에서 42.3%로 3.4%p 증가했다. 이는 아동이 없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정체 상태인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표 4-9〉 아동 수별 가구내 평균 취업인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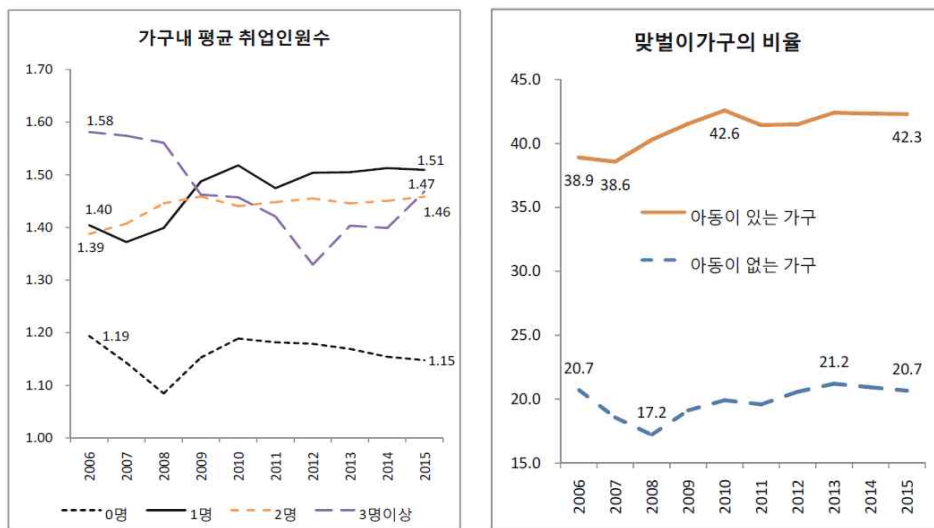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 0명 | 1명 | 2명 | 3명이상 | 전체가구 |
|------|------|------|------|------|------|
| 2006 | 1.19 | 1.40 | 1.39 | 1.58 | 1.29 |
| 2007 | 1.14 | 1.37 | 1.41 | 1.57 | 1.26 |
| 2008 | 1.08 | 1.40 | 1.45 | 1.56 | 1.24 |
| 2009 | 1.15 | 1.49 | 1.46 | 1.46 | 1.29 |
| 2010 | 1.19 | 1.52 | 1.44 | 1.46 | 1.31 |
| 2011 | 1.18 | 1.47 | 1.45 | 1.42 | 1.30 |
| 2012 | 1.18 | 1.50 | 1.46 | 1.33 | 1.30 |
| 2013 | 1.17 | 1.50 | 1.45 | 1.40 | 1.29 |
| 2014 | 1.15 | 1.51 | 1.45 | 1.40 | 1.28 |
| 2015 | 1.15 | 1.51 | 1.46 | 1.47 | 1.27 |

주: 농어가를 제외한 전가구 대상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14] 가구내 평균 취업인원수 및 맞벌이가구의 비율 변화



주: 농어가를 제외한 전가구 대상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4-10〉 아동 수별 중위 실질 근로소득 및 가처분소득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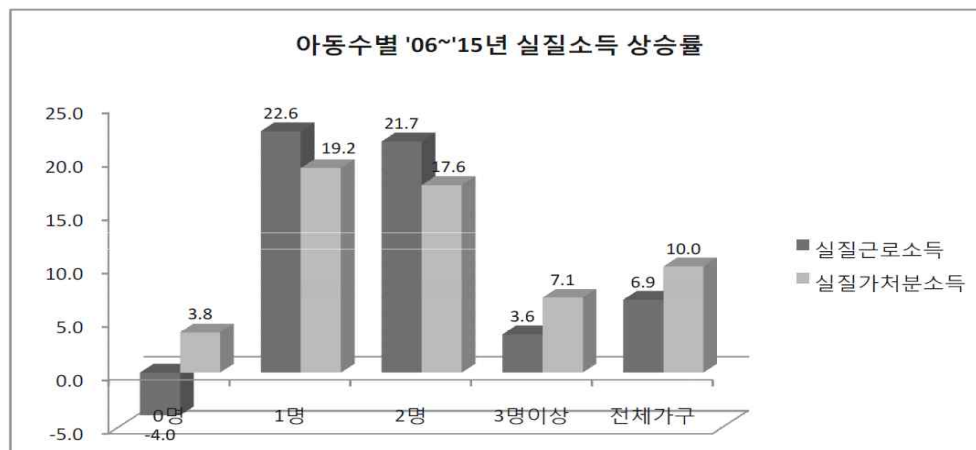
(단위: 천원, %)

| 구분 | 연도 | 0명 | 1명 | 2명 | 3명이상 | 전체가구 |
|-----------------|------------|-------|-------|-------|-------|-------|
| 실질 근로 소득 | 2006 | 1,694 | 2,780 | 3,205 | 3,207 | 2,388 |
| | 2007 | 1,696 | 2,888 | 3,272 | 3,105 | 2,420 |
| | 2008 | 1,529 | 2,913 | 3,364 | 3,137 | 2,339 |
| | 2009 | 1,514 | 2,946 | 3,314 | 3,104 | 2,350 |
| | 2010 | 1,646 | 3,118 | 3,290 | 3,203 | 2,470 |
| | 2011 | 1,611 | 3,175 | 3,473 | 3,236 | 2,508 |
| | 2012 | 1,599 | 3,348 | 3,583 | 3,302 | 2,569 |
| | 2013 | 1,602 | 3,376 | 3,698 | 3,517 | 2,624 |
| | 2014 | 1,636 | 3,399 | 3,750 | 3,529 | 2,607 |
| | 2015 | 1,627 | 3,409 | 3,901 | 3,324 | 2,552 |
| | '06~'15상승률 | -4.0 | 22.6 | 21.7 | 3.6 | 10.0 |
| 실질 가처분 소득 | 2006 | 1,923 | 2,858 | 3,111 | 3,203 | 2,482 |
| | 2007 | 1,990 | 2,947 | 3,190 | 3,134 | 2,533 |
| | 2008 | 1,829 | 2,924 | 3,272 | 3,154 | 2,467 |
| | 2009 | 1,771 | 3,015 | 3,203 | 3,143 | 2,462 |
| | 2010 | 1,848 | 3,107 | 3,237 | 3,306 | 2,559 |
| | 2011 | 1,867 | 3,171 | 3,363 | 3,285 | 2,603 |
| | 2012 | 1,926 | 3,323 | 3,458 | 3,307 | 2,694 |
| | 2013 | 1,921 | 3,315 | 3,514 | 3,524 | 2,716 |
| | 2014 | 1,949 | 3,332 | 3,521 | 3,458 | 2,701 |
| | 2015 | 1,997 | 3,406 | 3,659 | 3,429 | 2,729 |
| | '06~'15상승률 | 3.8 | 19.2 | 17.6 | 7.1 | 10.0 |

주: 실질소득은 각 년도의 소득에 물가상승률을 곱해준 값이다.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15] 아동 수별 실질소득 상승률



주: 농어가를 제외한 전가구 대상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결과적으로, 2006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아동이 1명인 가구와 아동이 2명인 가구의 실질소득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아동이 1명인 가구와 2명인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은 각각 22.6%와 21.7% 상승하였다. 이는 전체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 상승률 6.9%에 비해 3.2배 내외의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아동이 없는 가구의 실질소득 상승률이 -4.0%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요컨대, 최근 들어 아동빈곤율이 크게 감소한 것은 아동이 1~2명인 가구의 상대소득이 상승한 데서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최종적인 소득, 즉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감소에는 이전소득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공적 사회지출의 비율이 20% 이상인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우 이전소득의 공적 빈곤 감소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²⁹⁾ 우리나라도 최근 복지지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³⁰⁾, 이에 따라 이전소득의 재분배효과 또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 이전의 전체 빈곤율 감소 효과는 2006년에 17.1%(2.8%p)에서 2015년 25.9%(4.5%p)로 10년 만에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공적 이전의 아동빈곤율 감소효과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공적 이전의 아동빈곤율 감소효과는 17.3%(1.3%p)로 2006년의 16.5%(1.9%p)에 비해 비율로는 약간 상승하였으나, 절대 감소량은 약간 줄어들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현금이전의 증가가 기초연금 증액 등 주로 노인계층에 집중된 점과, 아동에 대한 이전이 현금보다는 현물(보육서비스 등)에 집중된 점 등에서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 예를 들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를 포함하는 노르딕국가들의 이전 전후 빈곤율 감소 폭은 19.7%p에 이를 정도로 높다. 근로연령(15-65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빈곤 감소효과는 11.3%p, 58.4%에 이른다(OECD.Stat, stats.oecd.org, 2016.7.27. 접속).

30)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지출은 1990년 당시 GDP의 2.7%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현재 10.4로 증가하였다(OECD.Stat, 2016.11.20.접속). 비록 여전히 OECD 평균(2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증가 속도에 있어서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표 4-11〉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추이(중위소득 5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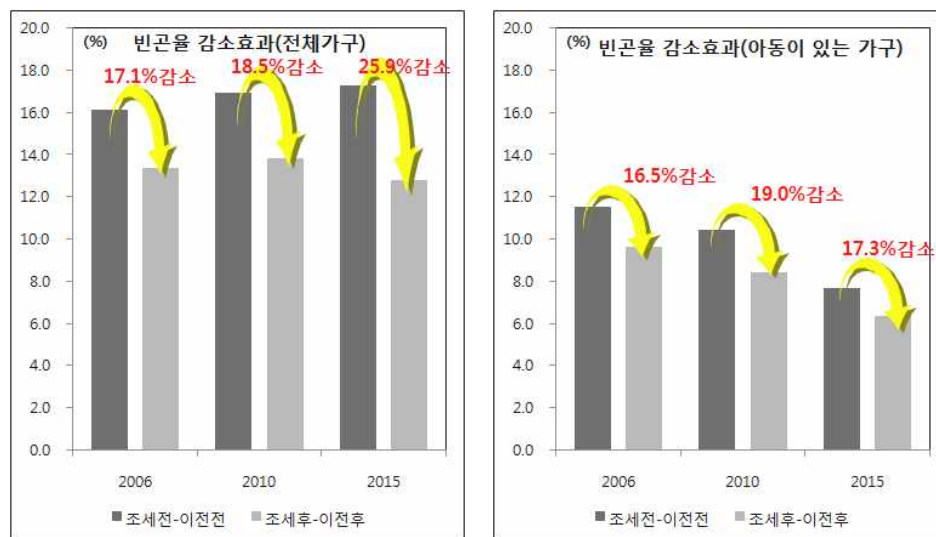
(단위: 천원, %)

| 구분 | 연도 | 조세전-이전전 소득 빈곤율 | 조세후-이전후 소득 빈곤율 | %p 감소 | % 감소 |
|-----------------|------|-------------------|-------------------|-------|------|
| 전체가구 1) | 2006 | 16.1 | 13.4 | 2.8 | 17.1 |
| | 2007 | 16.7 | 14.1 | 2.6 | 15.8 |
| | 2008 | 16.7 | 14.1 | 2.6 | 15.4 |
| | 2009 | 17.3 | 14.1 | 3.2 | 18.7 |
| | 2010 | 17.0 | 13.8 | 3.1 | 18.5 |
| | 2011 | 17.0 | 13.7 | 3.3 | 19.1 |
| | 2012 | 16.3 | 13.7 | 2.7 | 16.4 |
| | 2013 | 16.6 | 13.4 | 3.2 | 19.4 |
| | 2014 | 16.6 | 13.3 | 3.4 | 20.2 |
| | 2015 | 17.3 | 12.8 | 4.5 | 25.9 |
| 아동이 있는 가구 | 2006 | 11.5 | 9.6 | 1.9 | 16.5 |
| | 2007 | 11.8 | 10.4 | 1.4 | 12.2 |
| | 2008 | 10.8 | 9.2 | 1.6 | 15.0 |
| | 2009 | 11.4 | 8.8 | 2.5 | 22.1 |
| | 2010 | 10.4 | 8.5 | 2.0 | 19.0 |
| | 2011 | 10.3 | 8.6 | 1.6 | 16.0 |
| | 2012 | 9.2 | 8.4 | 0.9 | 9.3 |
| | 2013 | 8.2 | 7.4 | 0.8 | 9.5 |
| | 2014 | 7.6 | 6.7 | 0.9 | 11.9 |
| | 2015 | 7.7 | 6.3 | 1.3 | 17.3 |

주 1) 농어가를 제외한 전가구 대상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16] 공적 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표 4-12〉 공적이전의 빈곤갭 감소 효과 추이(중위소득 5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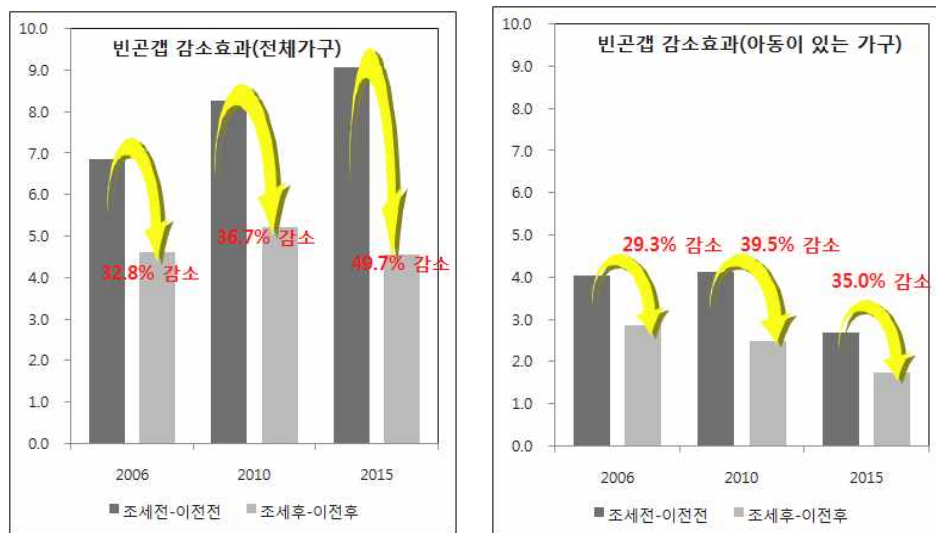
(단위: 천원, %)

| 구분 | 연도 | 조세전-이전전 소득 빈곤갭 | 조세후-이전후 소득 빈곤갭 | %p 감소 | % 감소 |
|-----------------|------|-------------------|-------------------|-------|------|
| 전체가구 1) | 2006 | 6.9 | 4.6 | 2.3 | 32.8 |
| | 2007 | 7.2 | 4.8 | 2.4 | 32.8 |
| | 2008 | 7.5 | 4.9 | 2.6 | 34.7 |
| | 2009 | 8.2 | 5.2 | 3.0 | 36.8 |
| | 2010 | 8.3 | 5.2 | 3.0 | 36.7 |
| | 2011 | 8.3 | 5.3 | 3.1 | 37.0 |
| | 2012 | 8.0 | 5.2 | 2.8 | 35.1 |
| | 2013 | 8.3 | 5.2 | 3.1 | 37.7 |
| | 2014 | 8.7 | 5.0 | 3.7 | 42.7 |
| | 2015 | 9.1 | 4.6 | 4.5 | 49.7 |
| 아동이 있는 가구 | 2006 | 4.1 | 2.9 | 1.2 | 29.3 |
| | 2007 | 4.1 | 2.9 | 1.2 | 29.9 |
| | 2008 | 3.9 | 2.5 | 1.4 | 35.5 |
| | 2009 | 4.1 | 2.4 | 1.7 | 40.9 |
| | 2010 | 4.1 | 2.5 | 1.6 | 39.5 |
| | 2011 | 3.9 | 2.5 | 1.4 | 36.9 |
| | 2012 | 3.4 | 2.4 | 0.9 | 27.9 |
| | 2013 | 2.9 | 2.2 | 0.7 | 24.8 |
| | 2014 | 2.7 | 1.9 | 0.8 | 29.4 |
| | 2015 | 2.7 | 1.7 | 0.9 | 35.0 |

주 1) 농어를 제외한 전가구 대상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17] 공적 이전의 빈곤갭 감소 효과



이러한 경향은 공적 이전의 빈곤갭 감소효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즉, 공적 이전은 전체 가구의 빈곤갭을 2006년 32.8%(2.3%p) 감소시켰으나, 2015년에는 49.7%(4.5%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빈곤갭 감소효과가 이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동 기간 동안 공적 이전의 아동빈곤갭 감소효과는 29.3%(1.2%p)에서 35.0%(0.9%p)로, 비율에서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절대량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아동빈곤의 감소는 공적 이전의 효과보다는 아동가구 근로소득의 상대적인 상승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4절 소결

지금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빈곤의 최근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빈곤율과 빈곤갭 등의 빈곤 지표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전체 가구 빈곤율, 연령별 빈곤율, OECD 국가의 빈곤율 등과의 비교를 통해 아동빈곤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해 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아동빈곤율은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최저점이던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로 전체 가구와의 격차를 벌이며 아동 빈곤율과 빈곤갭 모두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확인된다. 특히,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의 절대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빈곤아동의 절대적인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빈곤아동의 감소는 특히 연령면에서 7-12세 아동, 가구 구성면에서는 아동이 1명 내지 2명 있는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둘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비해, 아동빈곤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노르딕 국가들에 비해서는 약간 높지만,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영미권 국가들이나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특이할 점은 아동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의 경우 전체 빈곤율에 비해 아동빈곤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아동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은 전체 인구 빈곤율에 비해 아동빈곤율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상이할 것으로 추정된

다.

셋째, 최근 아동빈곤율 감소의 원인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근로소득 상승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증가 모두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전자의 영향이 좀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가구 내 아동이 1명 내지 2명 있는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이 아동이 없거나 3명 이상인 가구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동일 기간 동안 공적 이전, 즉 복지급여의 빈곤율과 빈곤갭 감소효과는 오히려 2010년을 전후로 가장 컸고, 2015년에는 2010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최근 아동빈곤 추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더욱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가워만 할 일인지는 좀 더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동빈곤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아동빈곤율이 낮은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한 결과지만, 이러한 결과가 만약 오폐세대와 같이 애초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가 늘고 있거나, 또한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출산할 경우 빈곤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아제한을 한 결과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빈곤아동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출산율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빈곤의 최근 감소에 아동이 있는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가 그 원인이라는 점에서, 가구 내 성인의 경제활동과 근로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EU 국가들이나 미국에서도 아동빈곤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부모의 근로능력 제고를 꼽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숙련이 낮거나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보호와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나 고용서비스(enabling service)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적 사회지출의 상대적 규모 면에서나

그것의 재분배효과는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여유진 외 2016).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다. EU에서는 아동빈곤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강화해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을 정도로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동이 있는 가구, 특히 빈곤아동가구에 대해서 현금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율과 빈곤갭을 감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아동빈곤 실태의 다차원적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소득계층별 아동가구의 기본적 특성

제3절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실태

제4절 소결

5

아동빈곤 실태의 다차원적 분석 <

<

제1절 서론

앞서 아동빈곤에 대한 이론과 계측 방법, 그리고 해외의 사례 등에서 보듯이, 특히 아동빈곤과 관련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기는 신체·인지·정서적으로 성장의 도정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을 둘러싼 환경, 예컨대 가족과 특히 주양육자의 양육태도, 경제적 수준, 주택의 상태와 주변 환경, 학교 생활과 교육 투자 수준, 영양상태와 의료서비스에의 접근 등이 모두 아동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빈곤을 연구함에 있어 이러한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실태와 결핍의 영역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가구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아동가구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계층별 구분을 위해 소득에 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많은 조사 가운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실태조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사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함께 수행한 「복지욕구조사」(구 복지욕구실태조사)를 주로 활용하였다.³¹⁾

「복지욕구조사」(구 복지욕구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3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가 진행된 이후 2006년, 2010년, 2014년의 네 차례에 걸쳐 소득 및 자산, 주거, 자산, 부채, 생활여건 등 관련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조

31) 아동 관련 대표조사로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아동종합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저소득 아동가구를 과대표집하여 적정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아동 관련 문항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득의 정확성과 대표성이 중요한 본 연구의 특성상 「아동종합조사」는 한계가 있다. 즉, 빈곤율을 산출할 때 소득은 전체 인구의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조사는 아동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조사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에 대한 변수가 「복지욕구조사」에 비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등에 대한 변수가 좀 더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전국 대표성이 높은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되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4년 조사의 경우 횡단면 자료이기는 하지만 전국의 약 14,4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약 4,800여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 의료, 주거, 아동양육 및 교육, 여가 및 문화 등에 대한 심층조사가 실시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아동가구 총 4,169가구를 선별하였다. 소득계층별 구분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균등화(가구원수 제곱근으로 나눔)하여 중위소득³²⁾을 산출한 뒤, 수급가구, 수급가구를 제외한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중위소득 50~100% 미만 가구, 중위소득 100~150% 미만 가구,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5가지 유형의 가구로 구분하였다.

다차원적 분석의 영역은 아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활동과 경제수준, 주택 및 주거환경, 교육 및 양육, 건강, 문화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영역별 분석 지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1〉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실태 분석 영역

| 영역 | 세부 영역 | 지표 |
|------------|---------------|---|
| 경제활동과 경제수준 | 가구 내 성인의 경제활동 | 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 상태(실업 및 비경활 비율) 가구내 취업자 수 |
| | 가계수지 균형 | 적자가구 비율 비목별 소비지출 비율 부채보유 및 과부채가구 비율 |
| | 기초생활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 비율 미래대비의 결여 |
| 주택 및 주거환경 | 주거점유형태 | 월세거주 비율 |
| | 주거빈곤 | 임대료 과부담가구 비율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 교육 및 양육 | 교육빈곤 | 교육비 과부담가구 비율 교육영역의 결핍가구 비율 |
| | 보육과 돌봄 | 돌봄 형태 방과 후 시간활용 실태 및 유형 |
|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부싸움 횟수 아동양육의 어려움 아동양육 태도 |
| 건강 | 영양섭취 | 식생활영역에서의 결핍 비율 식사해결 방법(결식 비율) |
| | 의료서비스 접근성 |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결핍 비율 |
| 문화 | 문화생활 | 1인당 문화생활비 문화생활영역에서의 결핍 비율 |

32) 계층 구분을 위한 중위소득은 아동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가구 즉, 1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중위소득이다.

제2절 소득계층별 아동가구의 기본적 특성

먼저, 분석 대상 가구의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소득계층별 아동가구의 분포는 기초 조사 대상 가구의 약 30% 정도(약 4,169가구)로 이 중 수급가구가 1.7%,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4.1%, 중위소득 50~100% 미만 가구 40.4%, 중위소득 100~150% 미만 가구 33.3%,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20.5%로 나타났다. 아동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86명이며, 평균 아동수는 1.62명이었다.

〈표 5-2〉 분석 대상 아동가구의 분포

(단위: 가구, %, 명)

| 구분 |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기본 (1차) | 빈도 | 72 | 171 | 1,683 | 1,387 | 855 | 4,169 |
| | 비율 | 1.7 | 4.1 | 40.4 | 33.3 | 20.5 | 100.0 |
| | 평균 가구원수 | 3.39 | 3.35 | 3.86 | 3.93 | 3.88 | 3.86 |
| | 평균 아동수 | 1.53 | 1.56 | 1.65 | 1.64 | 1.54 | 1.62 |
| 심층 (2차) | 빈도 | 27 | 64 | 598 | 485 | 288 | 1,463 |
| | 비율 | 1.8 | 4.4 | 40.9 | 33.2 | 19.7 | 100.0 |
| | 평균 가구원수 | 3.12 | 3.16 | 3.79 | 3.89 | 3.85 | 3.79 |
| | 평균 아동수 | 1.43 | 1.50 | 1.63 | 1.60 | 1.55 | 1.59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아동이 있는 가구(이하, 아동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모자가구, 부자가구³³⁾, 소년소녀가장가구와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는 저소득 가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모자가구의 44.8%, 부

33) OECD Family Database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의 한부모가구 출현율은 9.2%(모자 7.19%, 부자 2.01%)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그러나 이러한 높은 출현율은 한부모가구의 산정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관계없이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를 한부모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지욕구조사」 자료에서는 한부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단, 취학시 22세미만)로 구성된 가구만을 한부모가구로 정의하였으며, 이 정의에 따라 산정된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4.9%(모자 3.8%, 부자 1.1%)이다.

자가구의 27.7%,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가구와 조손가구의 53.6%가 수급가구와 비수급빈곤가구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에 속해 있다. 이는 이외의 가구들의 빈곤율 3.5%에 비해 극히 높은 수치이다. 취약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150%의 중간계층이 74.8%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중위소득 50% 이상의 고소득층도 21.9%에 이른다.

〈표 5-3〉 아동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유형¹⁾

(단위: %)

| 구분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모자가구 | 16.5 | 28.4 | 47.0 | 8.2 | 0.0 | 100.0 |
| | 35.6 | 26.0 | 4.4 | 0.9 | 0.0 | 3.8 |
| 부자가구 | 5.6 | 22.1 | 61.2 | 6.8 | 4.3 | 100.0 |
| | 3.6 | 6.0 | 1.7 | 0.2 | 0.2 | 1.1 |
| 조손가구 ²⁾ (소년소녀가장가구 포함) | 4.8 | 48.8 | 43.3 | 3.2 | 0.0 | 100.0 |
| | 3.0 | 13.0 | 1.2 | 0.1 | 0.0 | 1.1 |
| 기타가구 | 1.1 | 2.4 | 39.8 | 34.9 | 21.8 | 100.0 |
| | 57.7 | 55.0 | 92.8 | 98.7 | 99.8 | 94.0 |
| 합계 | 1.7 | 4.1 | 40.4 | 33.3 | 20.5 | 100.0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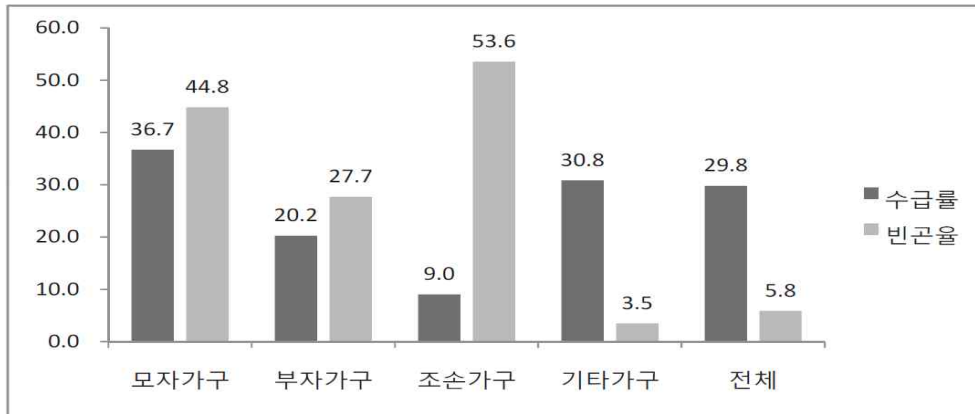
주: 1) 모자가구의 경우, 모와 만18세미만 자녀(단,취학(휴학)시 만22세미만인 경우 포함), 부자가구의 경우, 부와 만18세미만 자녀(단,취학(휴학)시 만22세미만인 경우 포함)를 뜻함.

2) 연령이 17세인 단독가구가 1가구 포함되어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이와 같이,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 등의 취약가구들이 저소득계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함으로써, 이들 취약 가구(부자+모자+조손)가 아동이 있는 수급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9%에 이른다. 이들 가구의 출현율(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인 것에 비해 수급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빈곤한 아동가구 중 기초보장 수급을 받는 수급가구의 비율(수급률)은 가구유형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수급률이 가장 높은 가구는 모자가구로 36.7%에 이르며, 다음으로 기타가구(30.8%), 부자가구(20.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의외로 조손가구의 수급률이 9.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조부모의 재산 수준이 높거나, 아동의 생존한 부 혹은 모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5-1] 아동가구의 가구유형별 수급률과 가구빈곤율



주: 수급률은 [수급가구/(수급가구+중위소득 50%미만가구)*100]으로 계산됨. 빈곤율은 수급가구와 중위소득 50% 미만가구의 비율을 합산한 값임.

아동가구의 가구주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수급가구의 경우 49.5세,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경우 48.1세로 고소득층 아동가구(약 42~43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4〉 아동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주 특성

(단위: 세, %)

| 구분 |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평균연령 | | 49.5 | 48.1 | 43.1 | 42.2 | 43.4 | 43.1 |
| 성별 | 남성 | 49.9 | 62.7 | 90.9 | 97.4 | 99.5 | 93.0 |
| | 여성 | 50.1 | 37.3 | 9.1 | 2.6 | 0.5 | 7.0 |
| 학력 수준 | 무학/초등학교 | 26.7 | 13.0 | 4.0 | 0.9 | 0.8 | 3.0 |
| | 중학교 | 14.6 | 14.1 | 4.4 | 1.9 | 1.8 | 3.6 |
| | 고등학교 | 52.4 | 50.5 | 46.5 | 28.6 | 15.1 | 34.4 |
| | 전문대 | 0.6 | 7.1 | 11.8 | 10.3 | 7.4 | 10.0 |
| | 대학교/대학원 | 5.8 | 15.3 | 33.4 | 58.4 | 75.0 | 49.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가구주 성별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가구일수록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급가구의 50.0%가 여성가구주임은 주목할 만하다. 앞서 수급 및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모자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모자가구의 비율이 35.6%인 것을 보았을 때, 저소득층 가구 중 모자가구가 아닌 일반 기타가구 유형에서도 가구주는 여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학력수준을 비교해보면, 수급가구의 경우 무학 및 초등학교 26.7% 등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이 93.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도 75% 이상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상반된 결과로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에서는 약 70% 정도가 전문대 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빈곤 아동가구의 가구주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저학력의 여성일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3절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실태

1. 경제활동과 경제적 수준

가. 가구주의 경제활동과 가구 내 취업자 수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빈곤의 일차적 원인은 가구 내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 있다 하더라도 저(低)노동활동—노동시간이 짧거나, 비규칙적인 경우—에 종사하는 것이다. 이는 아래 표에서도 확인된다.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실업 상태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인 비율이 각각 3.8%와 50.0%에 이른다. 즉, 수급아동의 가구주 중 절반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여타 가구를 포함한, 수급가구 내 평균 취업자 수는 0.61명으로 전체 아동가구 취업자 수 평균인 1.34명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다. 취업을 하고 있는 가구주도 33.1%가 임시·일용직, 5.1%가 자영자로 비정형적 근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수급 빈곤가구의 경우 상황이 이보다는 좀 더 낮지만, 역시 평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가구 내 평균 취업자 수는 0.80명으로 전체 평균 취업자 수의 약 60% 수준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26.2%로 전체 평균(4.1%)의 6.4배에 이른다. 특히, 가구주의 실업률이 8.5%로 수급가구의 3.8%나, 전체 평균 1.2%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취업하고 있다 하더라도, 17.6%만이 안정적인 상용직 일 자리에 종사할 뿐, 나머지는 임시·일용(31.0%), 자영업(16.7%)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아동가구의 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상태 및 평균 취업자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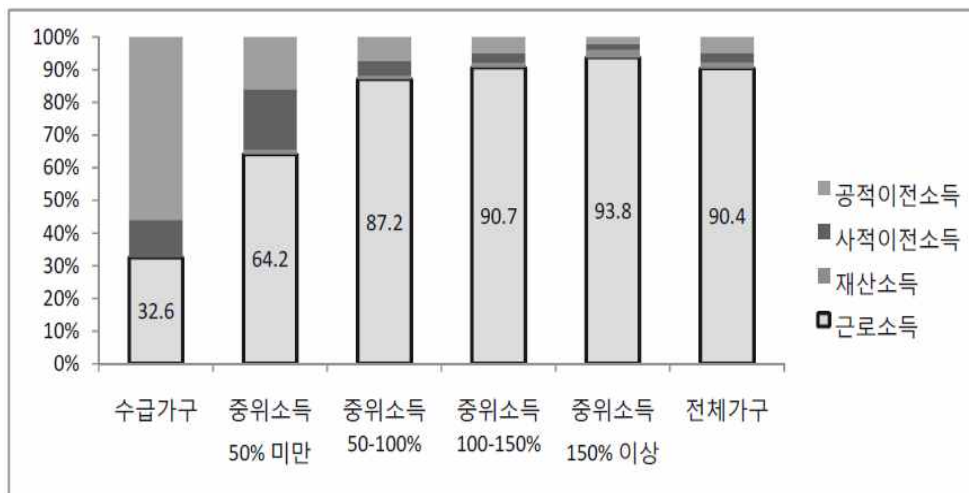
| 구분 | 항목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가구주 경제활 동참여 형태 | 상용 | 8.0 | 17.6 | 58.1 | 73.7 | 76.9 | 64.6 |
| | 임시·일용 | 33.1 | 31.0 | 21.8 | 8.2 | 3.1 | 14.0 |
| | 자영자 | 5.1 | 16.7 | 15.1 | 16.0 | 18.8 | 16.1 |
| | 실업 | 3.8 | 8.5 | 1.5 | 0.5 | 0.0 | 1.2 |
| | 비경제활동 | 50.0 | 26.2 | 3.5 | 1.7 | 1.1 | 4.1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취업자 수 ¹⁾ | 아동가구 내 | 0.61 | 0.80 | 1.23 | 1.42 | 1.60 | 1.34 |
| | 전체가구 내 | 0.16 | 0.43 | 1.12 | 1.44 | 1.67 | 1.15 |

주: 1) 취업은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자 및 고용인 경우를 말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그림 5-2〕 아동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주: 균등화되지 않은 가구소득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그 결과 수급가구와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가구의 경우, 가구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6%와 64.2%로 전체 아동가구 근로소득 비중인 90.4%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앞서 지적한 아동 빈곤가구의 가구유형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빈곤 아동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고령, 한부모(주로 여성), 저학력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육아 부담 등 가족 내 부담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가구의 무직과 저노동활동은 아동 빈곤의 일차적으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6〉 아동가구의 가구주 경제활동참여상태

(단위: %)

| 구분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상용 | 8.0 | 17.6 | 58.1 | 73.7 | 76.9 | 64.6 |
| 임시·일용 | 33.1 | 31.0 | 21.8 | 8.2 | 3.1 | 14.0 |
| 자영자 | 5.1 | 16.7 | 15.1 | 16.0 | 18.8 | 16.1 |
| 실업 | 3.8 | 8.5 | 1.5 | 0.5 | 0.0 | 1.2 |
| 비경활 | 50.0 | 26.2 | 3.5 | 1.7 | 1.1 | 4.1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나. 가계수지 균형과 부채

저소득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저소득가구의 경우 소득에 비해 소비해야 할 내역이 많아, 가계수지가 적자 상태일 확률이 높고, 이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저축하기보다는 지출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가구의 중 적자가구의 비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가구에서 가장 높고, 이어서 수급가구, 중위소득 50~100% 미만가구의 순이다.³⁴⁾ 특히,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아동 빈곤가구 2가구 중 1가구 이상(57.6%)이 적자가구로 나타나, 모든 계층과 아동, 비아동 가

34) 본 분석에서는 가구의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 보다 많은 경우로 적자가구를 정의하였다.

구를 통틀어 적자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원 중 취업자 수가 적고, 경제활동이 불안정하거나 무직이면서, 상대적으로 공적 이전 소득의 혜택도 수급가구에 비해 적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⁵⁾

〈표 5-7〉 아동가구의 적자가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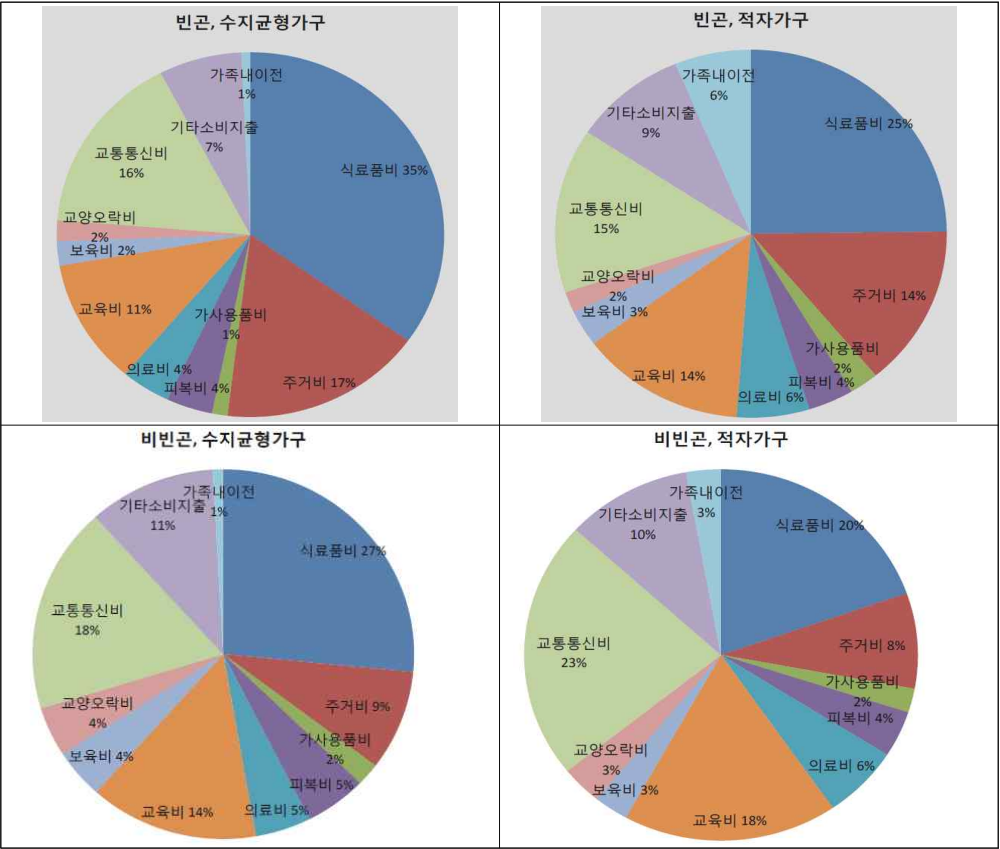
| 구분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적자가구 비율 (가처분소득<소비지출) | 25.9 | 57.6 | 9.6 | 5.1 | 2.3 | 8.8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아래 그림은 아동가구 중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 수지균형가구와 적자 가구의 소비지출 비목별 비중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하면서도 수지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동가구는 필수품 이외의 항목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료품과 주거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로 절반을 초과하였으며, 여기에 교육비와 보육비를 포함하면 65%에 이른다. 즉, 소득 내에서 지출함으로써 필수재 위주의 억제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하면서 적자인 아동가구는 수지균형가구에 비해 식료품비와 주거비 비중이 낮은 대신 교육비, 의료비, 가족내 이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이들 가구의 경우 학업 등의 이유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빈곤하면서 적자인 가구 역시 기호재나 문화비 지출 등이 많아서라기보다 필수재 위주의 소비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구의 불가피한 사정—한창 교육비가 많이 드는 연령대 자녀가 있거나,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있거나, 가족 중 질환자가 있는 등—으로 인하여 특정 필수재의 지출이 더 높아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35) 본 보고서에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1인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은 수급가구에 비해 낮았다.

[그림 5-3] 아동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거나, 주택 등과 같은 고가의 내구재를 구입하거나, 기타 긴급한 자금용처가 생기는 경우 가계 부채가 발생한다. 다른 한편, 부채는 신용(credit)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가구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존재하는 아동 가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래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부채보유 가구 비율은 58.9%로 아동이 없는 가구의 38.4%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비아동가구의 경우 빈곤가구—상당수가 근로무능력가구로 추정되는—의 경우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20%대로 상대적으로 낮는데 비해, 아동가구의 경우 소득계층과 비교적 무관하게 50~60%대의 부채보유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8〉 아동가구의 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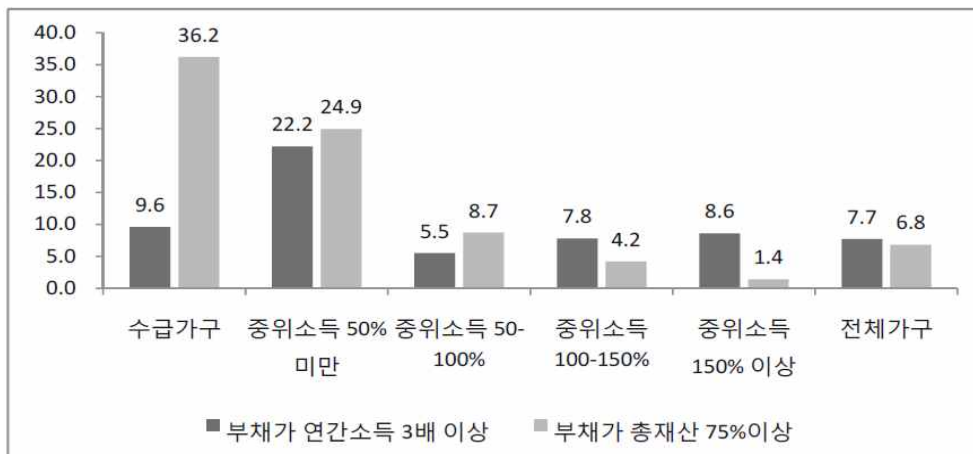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 |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부채보유 가구비율 | 전체가구 | | 27.1 | 27.4 | 44.6 | 50.3 | 54.1 | 44.3 |
| | 아동가구 | | 60.7 | 52.9 | 56.9 | 60.5 | 61.5 | 58.9 |
| | 비아동가구 | | 22.8 | 25.2 | 38.8 | 44.6 | 50.1 | 38.4 |
| 과부채 부담 가구비율 | 부채가 연간소득 3배 이상 | 전체 가구 | 4.5 | 12.4 | 7.6 | 6.1 | 7.3 | 7.7 |
| | | 아동 가구 | 9.6 | 22.2 | 5.5 | 7.8 | 8.6 | 7.7 |
| | | 비아동 가구 | 3.8 | 11.5 | 8.5 | 5.1 | 6.6 | 7.7 |
| | 부채가 총재산 75%이상 | 전체 가구 | 16.9 | 8.3 | 7.7 | 4.8 | 1.7 | 6.4 |
| | | 아동 가구 | 36.2 | 24.9 | 8.7 | 4.2 | 1.4 | 6.8 |
| | | 비아동 가구 | 14.4 | 6.9 | 7.2 | 5.2 | 1.9 | 6.2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그림 5-4] 아동가구의 과부채가구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부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가구가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감당 가능한 부채는 때로 불가피하기도 하려니와 필요할 때도 있다. 문제는 가계가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부채가 존재할 때 주로 발생한다. OECD에서는 과부채가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한다. 하나는 소득 기준 과부채가구로 총부채가 가구의 연간소득의 3배를 이상인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재산 기준으로 부채가 총재산의 75% 이상인 경우이다(여유진 외 2015).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부채가 연소득의 3배를 넘는 가구는 7.7%, 부채가 총재산의 75%를 넘는 가구는 6.8% 수준이다. 이 중, 특히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재산 기준 과부채가구가 약 3가구 중 1가구(36.2%)로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여타의 아동 빈곤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기준 과부채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과부채는 비록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자부담과 원금 상환 등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가구의 과부채 문제에 대해 좀 더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기초생활상의 결핍

대부분의 경우 소득의 빈곤은 기초생활 영역에서의 결핍과 박탈로 이어지지만, 이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2장에서는 아동의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가구의 소득계층별로 결핍과 박탈의 경험 빈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는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7가지 기초적인 생활 영역에서의 박탈 경험은 사실상 빈곤을 벗어난 계층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아동가구에서는 적어도 기초생활 영역에서의 박탈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비해,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가구에서는 기초 생활 영역의 박탈을 상당히 빈번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전적 어려움으로 공과금을 미납한 가구의 비율은 수급가구 24.0%, 기타 빈곤아동가구에서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들 중 각각 5.4%와 6.5%의 가구는 공과금 미납으로 인해 전기나, 전화, 수도 등이 끊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거나, 집세가 밀려 이사한 경험을 가진 아동가구의 비율은 비수급 빈곤 아동가구에서 각각 8.9%, 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급가구의 경우 대부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비수급 빈곤가구에 비해 이러한 박탈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9〉 아동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 비율

(단위: %)

| 구분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 중위소득 150%이상 |
|-------------------------------------|------|---------------|-----------------|----------------------|----------------|
|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 3.0 | 2.6 | 0.5 | 0.3 | 0.3 |
| 공과금 기한 내 미납한 경험이 있다. | 24.0 | 19.4 | 4.6 | 0.8 | 0.0 |
|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이상 미납하여 끊긴 적이 있다. | 5.4 | 6.5 | 0.5 | 0.1 | 0.2 |
| 추운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5.8 | 6.9 | 0.8 | 0.3 | 0.0 |
|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3.6 | 8.9 | 1.2 | 0.4 | 0.0 |
| 집세 밀렸거나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3.1 | 5.9 | 0.9 | 0.1 | 0.0 |
| 자녀의 공교육비 한 달 이상 못 준적 있다. | 2.3 | 2.6 | 0.5 | 0.5 | 0.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위 곳은(for the rainy day) 일에 대비하는 것은 가구의 안정, 특히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아래 표는 주관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 중 저축에 관련된 문항으로 재정적인 지출을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과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 가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가구에서 이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한 결과이다.

〈표 5-10〉 아동가구의 저축 영역 비자발적 결핍¹⁾

(단위: %)

| 구분 | 항목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
| 저축 | 긴급 대비 저축 | 29.7 | 42.3 | 25.1 | 13.6 | 5.4 |
| | 노후 대비 저축 | 32.1 | 24.4 | 7.9 | 2.4 | 0.7 |
| | 사적보험 가입 | 11.1 | 20.2 | 4.0 | 1.7 | 1.9 |

주: 1) 비자발적 결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갖고(하고)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미래에 대비하고 있지 못한 경우를 비자발적 결핍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 앞서 다른 기초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빈곤한 아동가구에서 저축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으나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40% 이상의 가구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저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주택 및 주거실태

가. 월세 거주 비율

주택은 지속적인 효용을 발생시키는 고가의 내구소비재라는 점에서 다른 소비지출 비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주택과 주거환경은 아동의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가구의 주택 및 주거실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아동가구의 소득계층별 주택의 점유형태를 분석하였다. 두드러진 결과는 전체 아동가구에 비해, 빈곤 아동가구의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 거주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수급가구와 여타의 빈곤 아동가구의 월세 비율은 각각 62.3%와 41.5%로, 이는 전체 아동가구 평균(17.3%)의 각각 3.6배와 2.4배에 이르는 것이다. 일정 정도 목돈이 소요되지만 매달 생활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매달 정기적인 지출을 요한다는 점에서 월세 형태의 점유 방식은 가계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11〉 아동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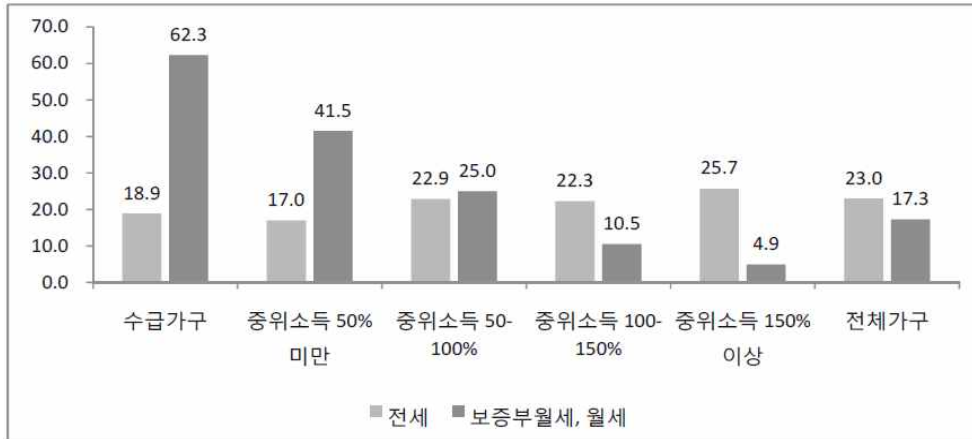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자가 | 14.9 | 34.2 | 46.9 | 62.1 | 66.5 | 54.9 |
| 전세 | 18.9 | 17.0 | 22.9 | 22.3 | 25.7 | 23.0 |
| 보증부월세, 월세 | 62.3 | 41.5 | 25.0 | 10.5 | 4.9 | 17.3 |
| 기타 | 4.0 | 7.3 | 5.2 | 5.2 | 2.9 | 4.8 |
| 전체 | 100.0 | 100.1 | 100.0 | 100.1 | 100.0 | 100.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그림 5-5] 아동가구 주거점유형태의 전세 및 월세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 빈곤가구의 주거비 및 난방비 지출이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17%로, 비빈곤가구의 지출 비율(8~9%)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빈곤가구의 높은 월세 비중으로 일부 설명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저소득층 아동가구의 경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 주거빈곤: 경제적 과부담과 주택의 질

하지만 주거 빈곤은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적정한 면적과 시설을 갖춘 주택에 거주하는지의 측면, 즉 물리적인 주거 질의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동가구의 주거빈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인 측면인 임대료과부담 가구 비율과, 물리적인 측면인 국토해양부 공고(제2011-490호)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 측면에서의 주거빈곤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 아동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의 주거빈곤은 기초보장 수급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아동가구의 주거빈곤 실태

(단위: %)

| 구분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임대료과부담 ¹⁾ | 19.9 | 36.4 | 20.5 | 22.7 | 31.6 | 23.7 |
| 월세과부담 ²⁾ | 12.5 | 20.2 | 2.5 | 0.6 | 0.1 | 2.3 |
| 최저주거기준 미달 ³⁾ | 40.6 | 31.7 | 20.5 | 9.8 | 6.3 | 15.0 |
| 방수기준 미달 | 21.4 | 14.7 | 16.5 | 7.3 | 4.7 | 11.1 |
| 면적기준 미달 | 15.8 | 11.5 | 7.9 | 1.7 | 0.0 | 4.6 |
| 시설기준 미달 ⁴⁾ | 22.0 | 9.7 | 3.4 | 2.1 | 1.6 | 3.2 |
| 10분내 대중교통 이용시설 | 0.5 | 1.5 | 0.7 | 0.6 | 0.6 | — |
|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 거주 | 3.8 | 4.1 | 1.4 | 0.6 | 0.0 | — |

주: 1) 임대료 과부담은 가처분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또한 전세금 및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은 2014년 월세 전환율 9.36%(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를 적용하여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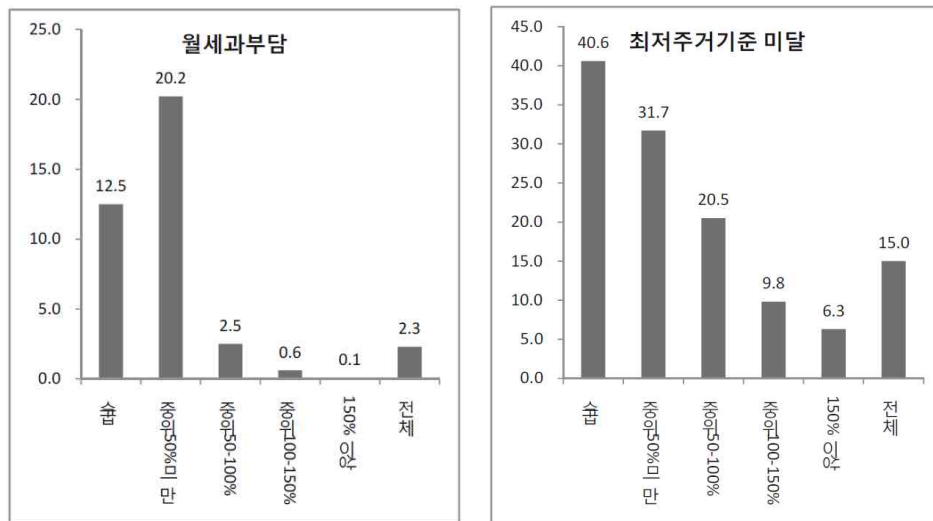
2) 월세과부담 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보증부) 월세 임대료(지대포함)의 비율이 20%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방수, 면적, 시설기준 하나라도 미달인 가구를 의미하며, 국토해양부 공고(제 2011-490호)의 최저주거기준에는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이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명확하게 파악이 어려워 위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함. 또한 방수기준은 가구원수만 반영되고 가구구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기준이 6인까지 마련되어 7인 이상은 분석에서 제외함.

4)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으로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임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그림 5-6] 아동가구의 월세과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경제적 측면에서, 임차가구의 임대료과부담 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로, 전체 아동가구의 23.7%가 임대료과부담 가구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 중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주거비 부담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임대료과부담 가구의 비율은 소득계층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특징이 있다. 이는 임대료과부담 산정시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여 임대료에 포함한 결과로 보인다.³⁶⁾ 이보다 더 현실적인 과부담 산정방식은 월세과부담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월세과부담 기준 주거빈곤 가구는 소득 빈곤가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가구(12.5%)보다는 여타의 빈곤 아동가구(20.2%)에서 월세과부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거의 질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기초보장 수급가구에서 더 높아서 40.6%에 달했다. 특히, 상하수도, 입식부엌, 수세식 전용화장실과 목욕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수급 아동가구의 비율은 22%로, 이는 전체 시설기준 미달 6.9배에 달하는 것이다. 여타의 빈곤 아동가구 역시 31.7%가 방수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설이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빈곤가구의 주거 빈곤 역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수급 빈곤가구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더 지고 시설이 조금 더 나은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다면, 수급 빈곤가구의 경우 시설이 조금 더 열악하더라도 저렴한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거빈곤의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주거환경의 주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주거의 위치와 관련해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은 빈곤 여부와 거의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수급가구 3.8%, 여타 빈곤 아동가구 4.1%로 비빈곤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6) 하지만 실제 전세는 목돈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대하지만, 이전시 그 돈을 다시 상환받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그대로 환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않고 본인의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제 임대액은 전세에 해당하는 은행이자 정도에 지나지 않고 현재 시중금리는 전세의 월세 환산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매달 이자를 임대료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을 구입하면서 모기지론을 비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전세자금만을 임대료로 보는 것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

3. 교육 및 양육

가. 교육비 과부담

아동빈곤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모으는 주제 중 하나는 ‘아동기의 빈곤이 성인기의 빈곤, 나아가 자식대의 빈곤으로 대물림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아동기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빈곤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기회의 양적·질적 평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동빈곤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빈곤한 아동가구의 다차원적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실태파악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역시 교육과 양육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 및 양육실태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비에 대한 지출과 가계부담 정도, 양육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교육비 부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 아동가구에서 교육비 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에 이르며, 이중 3.3%가 공교육비, 11.2%가 사교육비였다. 교육비 지출 비중은 오히려 중위소득 150%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17.5%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가구가 사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65.8만원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평균 사교육비의 4.5배에 달하는 금액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소득계층별 차이가 매우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육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은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비지출의 20%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교육비과부담 가구의 비율은 중위소득 50% 미만 4가구 중 1가구 이상(26.7%) 이상이었다. 특히, 소비지출의 30%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 아동가구의 16.5%에 달한다. 이는 전체 평균 5.4%의 3.1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하지만 교육비 지출이 소비지출의 20%를 초과하는 과부담가구의 비율은 여타의 가구에서도 13~18% 내외로 상당히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비빈곤층의 경우 과부담가구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소비지출의 30% 이상을 교육비에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 역시 비빈곤가구들 내에서는 5% 내외로 유사하다.

〈표 5-13〉 아동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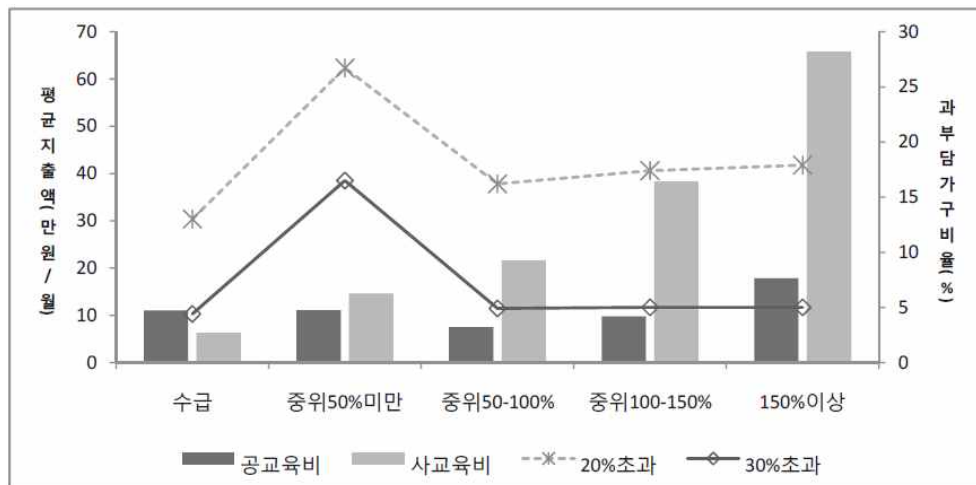
(단위: %, 만원/월)

| 구분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총소비지출 중 비중 | | | | | | |
| 공교육비 | 6.7 | 5.8 | 3.1 | 2.9 | 3.7 | 3.3 |
| 사교육비 | 3.8 | 7.6 | 9.0 | 11.4 | 13.8 | 11.2 |
| 평균 지출액 | | | | | | |
| 공교육비 | 11.0 | 11.1 | 7.5 | 9.8 | 17.8 | 10.6 |
| 사교육비 | 6.3 | 14.6 | 21.6 | 38.3 | 65.8 | 35.6 |
| 교육비 과부담 | | | | | | |
| 20% | 13.0 | 26.7 | 16.2 | 17.4 | 17.9 | 17.3 |
| 30% | 4.4 | 16.5 | 4.9 | 5.0 | 5.0 | 5.4 |

주 1) 교육비가 가구 소비지출의 20%와 30%를 초과하는 가구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그림 5-7] 아동가구의 월평균 교육비와 교육비 과부담가구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계층별로 가구당 평균 아동 수에 있어 차이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를 부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가구 내 아동의 수로 나눈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계층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수급가구 중에서는 가구 내에 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52.6%로 여타의 가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인당 사교육비는 수급가구 4.8만원에서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45.5만원에 이르기까지 그 격차가 9.5배에 이른다. 특히 사교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초·중·고생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인당 사교육비의 계층간 격차는 1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아동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

(단위: %, 만원/월)

| 구분 |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비중 | 사교육비=0 | 52.6 | 37.0 | 34.0 | 25.3 | 21.8 | 29.0 |
| | 사교육비>0 | 47.5 | 63.0 | 66.1 | 74.7 | 78.2 | 71.0 |
| 금액 | 전체 아동가구 | 4.8 | 10.2 | 13.2 | 23.9 | 45.5 | 23.1 |
| | 초중고생만 있는 가구 | 6.3 | 14.6 | 21.6 | 38.3 | 65.8 | 35.6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이러한 결과는 자녀교육 영역에서의 비자발적 결핍 수준에서도 확인된다. 자녀교육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자녀 고등교육, 학원수강이나 과외,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는 것,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대해 하고 있는지를 응답한 결과이다. 자녀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저소득 아동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급가구의 경우 자녀의 학원수강이나 과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비자발적 결핍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 21.7%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실제 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교육에 대한 박탈감과 결핍 인식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표 5-15〉 아동가구의 자녀교육 영역 비자발적 결핍¹⁾

(단위: %)

| 구분 | 항목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
| 자녀 교육 | 자녀 고등교육 | 11.8 | 10.3 | 2.5 | 1.5 | 1.2 |
| | 자녀 학원수강, 과외 | 21.7 | 7.5 | 5.4 | 2.4 | 1.4 |
| | 자녀 도서 구입 | 2.8 | 5.1 | 0.9 | 0.2 | 0.5 |
| | 자녀 고졸까지 양육 책임 | 0.0 | 0.0 | 0.1 | 0.0 | 0.1 |

주: 1) 비자발적 결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갖고(하고)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요컨대, 교육 투자에 있어서는 계층 내 경쟁이 치열해서, 소득에 비례해서 교육투자를 늘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지출이 가구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즉 대체로 가구 소득의 일정비율을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 교육에 대한 투자의 절대액에 있어 계층 간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적자본에의 투자의 차이는 학업 성취, 상급학교로의 진학,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다른 한편, 특히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에서 교육비 과부담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또한 정책적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 보육과 돌봄

아동가구의 주 양육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아동의 어머니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비빈곤가구의 경우 절대 다수의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데 비해, 빈곤가구의 경우 3가구 중 약 2가구 정도만 주 양육자가 어머니였다. 나머지는 아동의 아버지(20~24% 내외),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었다. 특히,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경우 조부모가 주 부양자인 비율이 14.6%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가구에 모부자 가구와 조손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소득 여성의 경우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16〉 아동가구원 주 양육자

(단위: %)

| 구분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아동가구 전체 |
|---------------|-------|---------------|-----------------|------------------|----------------|------------|
| 아동가구원의 어머니 | 67.0 | 62.7 | 84.2 | 91.5 | 88.7 | 86.2 |
| 아동가구원의 아버지 | 24.2 | 20.7 | 7.2 | 5.6 | 3.8 | 6.9 |
| 아동가구원의 형제·자매 | 2.9 | 2.1 | 2.0 | 0.3 | 0.8 | 1.2 |
| 아동가구원의 외(조)모부 | 5.9 | 14.6 | 5.9 | 2.4 | 6.5 | 5.3 |
| 아동가구원의 기타친인척 | 0.0 | 0.0 | 0.7 | 0.3 | 0.3 | 0.4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심층)

다음은 미취학 아동(영유아 아동)이 있는 가구에 관련된 내용으로 돌봄 형태,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실태, 보육문제와 관련한 취업(직장생활)에 어려움 여부에 대한 분석결

과이다. 미취학 아동가구의 돌봄 형태는 전반적으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약 70% 정도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육시설 이용실태를 보면, 전체 아동가구의 55.9%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저소득층일 경우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7〉 미취학 아동가구의 돌봄 형태

(단위: %)

|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보육시설, 유치원 | 70.6 | 70.6 | 67.8 | 77.1 | 67.4 | 71.3 |
| 부모가 돌봄 | 29.4 | 29.4 | 29.9 | 21.8 | 23.8 | 25.8 |
| 조부모가 돌봄 | 0.0 | 0.0 | 2.3 | 1.1 | 6.3 | 2.5 |
| 친인척 또는 이웃이 돌봄 | 0.0 | 0.0 | 0.0 | 0.0 | 0.7 | 0.1 |
| 개인탁아모나 가정부가 돌봄 | 0.0 | 0.0 | 0.0 | 0.0 | 1.8 | 0.3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십층)

〈표 5-18〉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실태

(단위: %)

|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미만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국공립어린이집 | 0.0 | 0.0 | 11.3 | 11.9 | 11.1 | 11.2 |
| 민간어린이집 | 75.4 | 80.5 | 59.5 | 53.8 | 48.0 | 55.9 |
| 직장보육시설 | 0.0 | 0.0 | 0.0 | 0.2 | 2.1 | 0.5 |
| 유치원 | 24.6 | 19.5 | 29.2 | 34.1 | 38.9 | 32.5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십층)

자녀의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취업(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가구에서 지장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47.2%는 매우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들이 가정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으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한 보육지원에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5-19〉 아동가구의 자녀(아동) 보육문제와 관련한 취업(직장생활)에 어려움 여부
(단위: %)

|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매우 많았다 | 17.4 | 47.2 | 27.5 | 26.3 | 32.8 | 28.5 |
| 지장이 있는 편이었다 | 29.4 | 51.5 | 28.2 | 29.2 | 26.6 | 28.9 |
| 별로 지장 없었다 | 53.2 | 0.0 | 12.1 | 10.3 | 8.8 | 10.6 |
| 전혀 지장 없었다 | 0.0 | 0.0 | 8.0 | 10.1 | 21.6 | 11.0 |
| 취업의사가 없었다 | 0.0 | 1.3 | 24.3 | 24.1 | 10.2 | 21.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심층)

아동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시 장애요인은 전체 아동가구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찾을 수 없다는 응답이 42.1%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소득계층에 따라 응답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위소득 50% 이상의 가구에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요인을 약 40% 정도가 응답한 것이 비해 저소득 아동가구의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며, 이들의 경우 비용지불의 경제적 부담 또는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불편함,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 보육시설이 없는 점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20〉 아동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시 장애요인
(단위: %)

|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비용지불의 경제적 부담 | 17.4 | 2.2 | 25.4 | 17.3 | 10.5 | 19.1 |
|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불편함 | 0.0 | 31.3 | 18.2 | 12.4 | 12.5 | 15.3 |
| 집이나 직장가까이 보육시설이 없음 | 53.2 | 34.9 | 8.1 | 7.8 | 18.5 | 10.7 |
| 아동돌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음 | 0.0 | 15.1 | 9.0 | 9.6 | 13.9 | 10.2 |
| 양질의 서비스를 찾을 수 없음 | 29.4 | 11.5 | 37.7 | 49.7 | 41.7 | 42.1 |
| 기타 | 0.0 | 4.9 | 1.6 | 3.2 | 3.0 | 2.5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심층)

다음은 초중고생 학령기 자녀가 있는 아동가구에 대해 조사한 내용으로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시간활용 실태, 시간활용 유형 등 이다. 먼저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시간에 혼자 지내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전체 아동가구의 31.1% 가구에서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40.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령기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경우 그 시간 정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대한 분석결과 수급가구 아동이 일주일 중 3

일 정도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보호자)의 부재일수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성인의 부재시간은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아동의 경우 하루 중 150분, 약 3시간 정도 보호자 없이 혼자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시간활용 실태

(단위: %, 일, 분)

| |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아동가구 전체 |
|-----------------------|-----------|-------|---------------|-----------------|------------------|----------------|------------|
|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음 | | 27.8 | 40.8 | 34.5 | 25.9 | 29.5 | 31.1 |
| 혼자 지내는 시간이 없음 | | 72.2 | 59.2 | 65.5 | 74.1 | 70.5 | 68.9 |
| 보호자 없이 홀로 있는 시간 | 일주일 중 몇 일 | 3.02 | 2.26 | 2.86 | 2.70 | 2.92 | 2.79 |
| | 하루 중 몇 분 | 130.3 | 150.2 | 117.8 | 135.7 | 110.6 | 123.5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심층)

〈표 5-22〉 학령기 아동의 평일 방과후 시간활용 유형

(단위: %)

|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아동가구 전체 |
|--------------------|------|---------------|-----------------|------------------|----------------|------------|
| 학원이나 과외받기 | 27.9 | 17.6 | 48.3 | 69.3 | 73.1 | 57.5 |
| 집에서 공부 | 24.1 | 36.7 | 19.0 | 4.8 | 1.2 | 12.2 |
| 예체능 특기학원(음악, 미술 등) | 1.4 | 2.3 | 4.6 | 6.7 | 8.9 | 5.9 |
|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참여 | 16.9 | 21.6 | 14.3 | 8.8 | 8.1 | 11.9 |
| 학교자유학습참여 | 7.6 | 1.8 | 2.7 | 3.8 | 4.0 | 3.4 |
|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프로그램 참여 | 1.9 | 0.4 | 1.0 | 0.0 | 0.0 | 0.5 |
| 집에서 컴퓨터게임 | 2.6 | 0.8 | 4.2 | 3.0 | 2.3 | 3.2 |
| 청소 등 집안일 돕기 | 0.0 | 0.0 | 0.1 | 0.0 | 0.0 | 0.0 |
| 별 할 일 없이 빈둥거리기 | 0.0 | 1.1 | 0.5 | 0.9 | 0.0 | 0.5 |
| TV시청, 라디오청취 | 9.5 | 10.7 | 3.3 | 2.3 | 0.6 | 3.0 |
| 집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 1.6 | 0.9 | 1.9 | 0.4 | 0.0 | 1.0 |
| 기타 | 6.7 | 6.2 | 0.0 | 0.1 | 1.9 | 0.9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심층)

방과후 홀로지내는 시간의 정도와 마찬가지로 학령기 아동의 평일 방과후 활동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의 아동들 70% 정도가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등 보호자(성인)의 부재를 대체해줄 수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아동들은 집에서 공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오롯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인 여건과 아동들의

방과후 시간 행태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다. 부모의 양육 태도

아동가구의 양육의사결정권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계층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에서는 70% 이상이 아동가구의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수급가구의 19.4% 만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60%가 아동가구의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23〉 아동가구의 양육의사결정

(단위: %)

| 구분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아동가구 전체 |
|-------------------|-------|---------------|-----------------|------------------|----------------|------------|
| 아동가구원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 | 19.4 | 46.8 | 71.8 | 73.4 | 71.8 | 70.9 |
| 아동가구원의 아버지 | 20.3 | 12.3 | 5.0 | 3.7 | 1.3 | 4.2 |
| 아동가구원의 어머니 | 60.3 | 41.0 | 23.2 | 22.9 | 26.9 | 25.0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가구만 해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또한 아동가구의 부부간 양육의견 일치 정도를 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70% 이상이 대체로 일치 또는 항상 일치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항상 불일치 또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26.8%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24〉 아동가구의 부부간 양육의견 일치 정도

(단위: %)

| 구분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항상 불일치 | 7.2 | 9.7 | 1.4 | 0.9 | 0.2 | 1.2 |
| 대체로 일치하지 않음 | 7.2 | 17.1 | 13.8 | 14.6 | 12.2 | 13.8 |
| 대체로 일치 | 85.7 | 59.7 | 78.0 | 75.1 | 75.3 | 75.9 |
| 항상 일치 | 0.0 | 13.6 | 6.8 | 9.3 | 12.4 | 9.1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가구만 해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심층)

아동가구의 부부간 양육의견 일치 정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부부싸움 횟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 아동가구일수록 부부싸움의 횟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싸운다는 가구 비율은 4.5%, 일주일에 한두번 6.6%, 한달에 한두번 18.7%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부싸움의 횟수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5〉 아동가구의 부부싸움 횟수

(단위: %)

| 구분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거의매일 또는 일주일에 3회 이상 | 7.2 | 4.5 | 0.3 | 0.3 | 0.9 | 0.6 |
| 일주일에 한두번 | 0.0 | 6.6 | 2.2 | 2.2 | 3.5 | 2.6 |
| 한달에 한두번 | 0.0 | 18.7 | 10.9 | 5.9 | 6.1 | 8.2 |
| 2개월에 한두번 | 0.0 | 0.0 | 5.4 | 2.8 | 1.6 | 3.5 |
| 3개월에 한두번 | 0.0 | 2.6 | 6.4 | 4.9 | 6.1 | 5.6 |
| 6개월에 한두번 | 0.0 | 2.9 | 6.8 | 8.1 | 8.5 | 7.5 |
| 1년동안 한두번 | 4.6 | 7.0 | 22.8 | 21.3 | 17.2 | 20.5 |
| 거의 싸우지 않음 | 88.2 | 57.8 | 45.3 | 54.5 | 56.0 | 51.6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가구만 해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십층)

자녀양육 과정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예상 가능한 결과로 저소득 아동가구일수록 경제적 부담이 양육에 있어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수급가구의 경우 68.4%,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경우 80%에 육박하는 비율이 경제적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대다수가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이 자녀양육에 있어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신적, 심리적 부담 또한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를 제외하고는 20~3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위소득 150%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경우 정신적, 심리적 부담이 자녀양육 과정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았고, 20.5%는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5-26〉 아동가구의 자녀양육과정에서 어려운 점

(단위: %)

| 구분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경제적 부담 | 68.4 | 79.1 | 47.3 | 30.6 | 16.1 | 37.5 |
| 정신적, 심리적 부담 | 23.0 | 9.9 | 22.3 | 29.9 | 37.9 | 27.3 |
| 신체적 부담(건강상문제) | 3.3 | 4.9 | 4.2 | 5.8 | 4.9 | 4.9 |
| 가사노동의 부담 | 0.0 | 1.8 | 7.1 | 11.9 | 12.1 | 9.3 |
| 사회적 부담(취업, 사회활동등) | 1.9 | 1.1 | 6.0 | 6.3 | 8.2 | 6.3 |
| 기타 ¹⁾ | 0.0 | 0.0 | 0.6 | 0.0 | 0.4 | 0.3 |
| 없음 | 3.5 | 3.3 | 12.6 | 15.5 | 20.5 | 14.5 |

주: 1) 기타 의견으로 배우자의 양육관련 무관심, 양육지식 부족,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엄마의 부재) 등의 응답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심층)

마지막으로,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빈곤 아동가구의 경우 자녀양육 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빈곤 아동가구의 경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자녀를 잘 키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와 그 이상인 가구 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여,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7〉 아동가구의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

(단위: 점)

|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현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함 | 2.7 | 2.5 | 2.9 | 3.0 | 3.0 | 2.9 |
| 앞으로 자녀들을 잘 키울 것이라고 생각함 | 2.8 | 2.6 | 3.0 | 3.1 | 3.1 | 3.1 |
| 자녀들과 관계에 만족함 | 3.1 | 3.0 | 3.2 | 3.3 | 3.3 | 3.2 |
| 자녀양육이 어려운 일임 | 3.0 | 3.1 | 3.3 | 3.3 | 3.3 | 3.3 |
| 자녀를 생각하면 화가 남 | 1.7 | 1.6 | 1.4 | 1.4 | 1.4 | 1.4 |
|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대보다 많이 나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고 느낌 | 2.2 | 2.7 | 2.6 | 2.5 | 2.4 | 2.5 |

주: 각 항목에 대하여 점수화하여 평균값을 제시함. 즉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심층)

4. 건강

아동기의 건강은 아동의 성장·발달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동의 건강과 관련해서 먼저, 식생활과 의료 및 건강 서비스에서 결핍이 발생하는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고기 및 생선,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위소득 50% 미만 아동 가구에서 11~18%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라나는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의 섭취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발달에 특히 중요하다. 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금전적 문제로 인하여 하고 있지 못한” 가구만을 결핍가구로 분류한 만큼,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의 주요 공급원인 육류·생선이나 과일의 섭취에서 결핍이 발생하는 빈곤 아동 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주목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다.

〈표 5-28〉 아동가구의 식생활 영역의 비자발적 결핍¹⁾

(단위: %)

| 구분 | 항목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
| 식생활 | 주 1회 고기 생선 구입 | 16.1 | 12.9 | 2.2 | 0.4 | 0.0 |
| | 주 1회 과일 구입 | 18.6 | 11.8 | 2.7 | 0.2 | 0.2 |
| | 가끔 기호 식품 구입 | 2.9 | 4.7 | 0.3 | 0.0 | 0.4 |

주: 1) 비자발적 결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갖고(하고)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빈곤한 아동가구의 식생활상의 결핍은 아동가구의 식사해결 방법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의 경우 80~90% 이상이 아동의 식사를 챙겨주는 다른 가족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가구의 경우 70% 내외만이 그러한 가족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한 가구 약 4가구 중 1가구에서 아동이 직접 식사를 챙겨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1.4% 가량은 굶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5% 정도만이 아동은 후원인(봉사자)나 기관에서 아동의 식사를 챙겨주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저

소득층 아동가구의 아동의 영양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정부 및 민간기관의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5-29〉 아동가구의 식사해결 방법

(단위: %)

| 구분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굶는 경우가 많음 ¹⁾ | 0.0 | 1.4 | 0.0 | 0.0 | 0.0 | 0.1 |
| 아동이 직접 챙겨먹음 | 26.3 | 23.3 | 13.3 | 8.2 | 4.4 | 10.6 |
| 다른 가족원이 챙겨줌 | 70.3 | 66.1 | 84.4 | 88.7 | 91.0 | 86.0 |
| 후원인(봉사자)이나 기관에서 챙겨줌 | 0.0 | 4.9 | 1.1 | 0.5 | 1.1 | 1.1 |
| 기타 ²⁾ | 3.4 | 4.3 | 1.2 | 2.6 | 3.5 | 2.3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1) 굶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 끼니를 거르는 주된 이유로는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함.

2) 기타의 경우 학교급식, 기숙사에서 해결한다는 응답이 있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심층)

마지막으로, 앞선 영역들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관련 항목 중 치과치료와 관련한 비자발적 결핍률이 특히 저소득 아동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의 치아관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저소득 아동의 치아 관리에 대한 보건정책적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30〉 아동가구의 의료서비스 영역의 비자발적 결핍¹⁾

(단위: %)

| 구분 | 항목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
| 의료 및 건강 | 만성질환의 경우 정기적 진료 | 5.2 | 6.1 | 7.0 | 4.6 | 5.7 |
| | 가족 중 치과 치료 | 12.6 | 15.9 | 7.1 | 2.7 | 2.5 |
| | 의약품 구입 | 0.0 | 0.5 | 0.3 | 0.2 | 0.6 |

주: 1) 비자발적 결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갖고(하고)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5. 문화생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면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금전적 자원, 교육과 더불어 문화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아동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1인당 문화생활비 지출액은 소득계층별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인다. 저소득 아동가구의 경우 1인당 1만원 이하의 낮은 문화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비해, 중위소득 150% 이상의 고소득층은 1인당 7.6만원의 문화생활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경우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필수적인 지출을 하고 난 후에는 지출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가, 레저, 문화 활동 등을 향유할 자원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생활의 희망금액 역시 자신의 제한된 자원 내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득계층별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는 실제 지출금액보다 2배 정도 더 높은 문화생활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 아동가구의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월평균 1인당 지출(희망)금액

(단위: 만원)

|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지출금액 | 1.0 | 0.7 | 1.6 | 3.7 | 7.6 | 3.4 |
| 희망금액 | 2.8 | 4.7 | 4.5 | 7.5 | 11.9 | 6.9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심층)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과 관련된 결핍률도 저소득 아동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연 1회 정도 여행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아동가구는 저소득 가구에서 20% 내외로,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 비해 2배 내외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 역시 빈곤 아동가구의 결핍률이 10% 내외로 이 이상 소득계층에 비해 3~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아동가구의 기본적인 문화생활의 결핍이 상당히 큰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5-32〉 아동가구의 문화생활 및 사회생활 영역 비자발적 결핍¹⁾

(단위: %)

| 구분 | 항목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
|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 연 1회 여행 | 19.3 | 22.8 | 13.0 | 11.1 | 8.1 |
| | 가족생일 등 특별한 날 기념(외식 등) | 11.3 | 8.7 | 2.7 | 1.9 | 0.8 |
| | 취미, 여가활동 | 8.2 | 7.9 | 8.7 | 6.7 | 3.7 |

주: 1) 비자발적 결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갖고(하고)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좀 더 구체적으로, 가족이 함께 했던 문화(여가) 활동 유형과 희망하는 문화(여가) 활동 유형을 비교해 봄으로써 소득계층별 문화생활에 대한 차이를 짐작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가족이 함께 했던 문화 활동으로 중위소득 100% 이상 아동가구에서는 옥내 취미활동 뿐만 아니라 영화관람, 여행관광 등이 비교적 고루 분포하고 있는 반면, 수급 가구와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는 옥내취미활동이 80~9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와는 대조적으로 저소득 아동가구의 경우 희망하는 문화(여가) 활동으로 여행관광을 30% 이상 꼽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생활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3〉 아동가구의 문화(여가)생활 실태

(단위: %)

| 가족이 함께 했던 문화(여가) 활동 유형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옥내취미활동 | 89.9 | 84.6 | 58.8 | 47.1 | 28.5 | 50.7 |
| 영화관람 | 7.5 | 7.3 | 18.7 | 17.2 | 20.9 | 17.9 |
| 공연관람 | 0.0 | 0.0 | 1.6 | 3.2 | 6.0 | 2.9 |
| 문화예술활동 | 0.0 | 0.0 | 0.7 | 1.2 | 0.3 | 0.7 |
| 동호회활동 | 0.0 | 0.0 | 0.5 | 0.5 | 1.0 | 0.6 |
| 놀이공원 | 0.0 | 0.0 | 2.9 | 4.0 | 2.7 | 3.0 |
| 여행관광 | 0.0 | 3.4 | 8.7 | 15.6 | 27.7 | 14.3 |
| 스포츠활동 | 0.0 | 4.7 | 6.8 | 9.6 | 12.1 | 8.6 |
| 스포츠관람 | 0.0 | 0.0 | 0.4 | 0.6 | 0.7 | 0.5 |
| 지역축제관람 | 0.0 | 0.0 | 0.5 | 0.9 | 0.1 | 0.5 |
| 기타 | 2.6 | 0.0 | 0.4 | 0.2 | 0.0 | 0.3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희망하는 문화(여가) 활동 유형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옥내취미활동 | 37.7 | 20.9 | 9.8 | 6.3 | 6.7 | 9.0 |
| 영화관람 | 13.9 | 12.0 | 10.3 | 6.8 | 2.9 | 7.8 |
| 공연관람 | 0.0 | 9.0 | 14.7 | 18.7 | 15.2 | 15.6 |
| 문화예술활동 | 0.7 | 5.9 | 2.0 | 3.4 | 1.2 | 2.4 |
| 동호회활동 | 0.0 | 0.0 | 1.3 | 1.4 | 1.7 | 1.3 |
| 놀이공원 | 4.8 | 3.7 | 4.7 | 3.3 | 1.2 | 3.5 |
| 여행관광 | 37.9 | 32.9 | 44.4 | 48.1 | 53.9 | 46.9 |
| 스포츠활동 | 5.0 | 12.2 | 9.0 | 8.7 | 14.9 | 10.2 |
| 스포츠관람 | 0.0 | 3.0 | 2.1 | 2.5 | 2.1 | 2.2 |
| 지역축제관람 | 0.0 | 0.4 | 1.8 | 0.8 | 0.1 | 1.0 |
| 기타 | 0.0 | 0.0 | 0.0 | 0.1 | 0.0 | 0.0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심층)

또한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위소득 50~100%, 100~150%, 150% 이상 가구에서 각각 59.7%, 65.9%, 69.7%가 조금 또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수급가구의 32.7%만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급가구의 33.3%는 문화(여가) 생활에 별로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문화생활에 대한 태도 또한 경제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는만큼 보인다’는 문화학자의 말처럼 문화생활과 활동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을수록 관심을 더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34〉 아동가구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관심

(단위: %)

| | 수급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150% | 중위소득 150%이상 | 전체 |
|-----------|-------|------------|--------------|---------------|-------------|-------|
| 전혀 관심이 없다 | 9.6 | 2.3 | 1.7 | 0.2 | 0.0 | 1.0 |
| 별로 관심이 없다 | 24.7 | 12.0 | 7.5 | 4.0 | 5.3 | 6.4 |
| 보통이다 | 33.0 | 29.7 | 31.1 | 30.0 | 25.0 | 29.5 |
| 조금 관심이 있다 | 25.7 | 46.1 | 40.4 | 42.6 | 36.9 | 40.4 |
| 매우 관심이 있다 | 7.0 | 9.9 | 19.3 | 23.3 | 32.8 | 22.7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4년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심층)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빈곤아동의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가구를 기초보장 수급가구,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중위소득 50~100% 가구, 중위소득 100~150% 가구,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5개로 구분하여 가구의 경제활동과 경제적 수준, 주택 및 주거환경, 교육과 양육, 건강, 문화활동 영역에서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의 이유는 명확하다. 오늘날 빈곤은 절대적 결핍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의 차원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석의 결과, 먼저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 등의 가구유형에서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구가 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상당히 컸다.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있는 가구 중 특히 모자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또한 빈곤가구 가구주는 저학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저소득과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둘째,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빈곤한 아동가구의 저소득은 일차적으로 가구주의 비경제활동이나 실업, 혹은 불안정 일자리 등 근로활동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1/3~2/3 정도만을 설명하고 있어,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산층 이상 아동가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적자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특히 비수급 빈곤아동가구 중 적자가구가 절반을 훨씬 넘었다. 하지만 수지균형을 이루고 있는 빈곤가구의 경우 식료품비와 주거비 등 필수품지출이 전체 지출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출을 극도로 자제한 결과로 적자를 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급가구의 경우 부채 기준 과부채가구의 비율이 1/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빈곤 아동가구의 월세 비율은 40~60%에 이를 정도로 높고, 이로 인해 이들 가구의 월세 과부담 가구 가구 비율 또한 12~20%로 비빈곤 가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빈곤 아동가구의 비율 또한 30~40%에 이르렀다. 월세 과부담가구는 상대적으로 비수급 빈곤 아동가구에서,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수급 아동가구에서 더욱 두

드러졌다.

넷째, 교육비는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의 지출에서 15%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데 이는 빈곤가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비율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은 절대액 측면에서의 큰 차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 간의 교육투자 면에서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비가 소비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비 과부담 가구는 비수급 빈곤아동가구에서 가장 출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급가구의 경우 아예 자녀 사교육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비해, 비수급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비율이 높은 결과로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다섯째, 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의 이용율은 계층간 큰 차이가 없지만, 빈곤 아동가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매우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양육자의 양육태도와 관련해서 빈곤아동 가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부부싸움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자녀 양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섯째, 건강과 관련하여 빈곤 아동가구의 경우 단백질과 비타민의 주 공급원인 육류와 과일 등의 섭취가 확연히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곤아동의 결식비율은 매우 낮았고, 대신 직접 끼니를 챙겨먹는 아동의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마지막으로, 문화활동의 경우 계층 간 문화활동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으며, 특히 가족과의 여행이나 기념일 외식 등을 하지 못하는 빈곤 아동의 비율이 비빈곤 아동에 비해 매우 높았고, 취미활동 역시 대부분 옥내 취미활동으로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이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구의 저소득은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본 연구 결과는 이를 재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결핍이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초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아동과 수급을 받지 않는 비수급 빈곤 아동 간에는 결핍의 영역과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수급가구의 경우 적어도 의료, 교육 등의 영역에서 현물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의 결핍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재산기준 부채, 열악한

주거 환경, 식생활, 사교육 수강 등의 영역에서 더 큰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급 빈곤아동의 경우 적자, 월세와 교육비 과부담, 의료서비스 등에서 결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욕구별 개별급여 형태로 해당 부처별로 선정과 급여 기준을 달리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결핍된 욕구의 영역을 좀 더 엄밀히 사정함으로써 욕구별 급여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에 대한 영역별 선정과 급여 기준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영역에서 욕구의 결핍률이 계층에 따라 비례적이라기보다는 승수적으로 발생한다. 즉, 중위소득 50% 미만 아동가구와 그 이상 아동가구 간에 상당한 분절이 존재한다. 이는 중위소득 50% 내지 60% 주변에서 절대적 수준의 박탈 기준선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기초보장 기준선은 교육급여만이 중위소득 50% 이고 나머지는 40% 내외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급여에 따라 빈곤아동가구의 급여 기준선을 중위소득의 50% 내지 60%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빈곤 아동가구의 가구주는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더불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성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서비스(enabling service)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한부모) 가구주 비율이 높은 만큼 고용의 장벽을 제거해 주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과 주거환경의 안정과 안정을 강화하는 조치와 더불어, 저소득 거주지역에 질 높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 6 장

아동빈곤 실태의 질적 분석

- 제1절 서론
- 제2절 연구방법
- 제3절 연구 참여자 특성
- 제4절 분석결과
- 제5절 소결

6

아동빈곤 실태의 질적 분석 <

<

제1절 서론

에스핑앤더슨은 아동기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낳는 핵심이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성인기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므로,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야 말로 불평등을 약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한다(신광영, 2016a:62-63). 이는 결국 “아동기의 질은 이후 생활기회에 더 중요해진다” (Esping-Andersen, 2002, 신광영 (2016a:61) 재인용)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일컬어지며 대두된 금수저 흡수저 논란 역시, 빈곤가구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현재적 궁핍이 곧 기회의 결핍을 가져오고, 이는 곧 미래의 불평등으로 고착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연구들이 빈곤과 불평등이 세대간 전승되는 현상을 분석하여, 수저계급론의 논리를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김낙년, 2015; 김연아, 정원오, 2016; 방하남, 김기남, 2002; 신광영, 2016b; 여유진 외, 2007; 여유진 외, 2015; 최은영, 홍장표, 2014; 최필선, 민인식, 2015).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빈곤가구(기초보장 수급 및 비수급 포함) 내의 성인(아동의 보호자로서 부모나 조부모)과 아동들에 대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빈곤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 경험을 다차원적으로 기술하고, 다차원적인 빈곤현상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빈곤가구 내 성인과 아동이 겪는 빈곤경험을 결핍과 박탈감에 초점을 두고, 빈곤과정과 경험, 주거, 건강, 교육, 양육, 문화, 가족관계, 아동의 꿈과 전망, 사회정책 체감 차원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 빈곤의 경험을 내부자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아동빈곤의 다차원성을 빈곤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빈곤 경험을 보다 발견적이고 해석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질적연구는 양적연구가 미치지 못하는 빈곤아동가구의 삶의 경험과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양적연구 결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례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빈곤가구의 경험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현장 밀착형 정책수요를 도출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언할 수 있어, 정책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빈곤아동이 있는 빈곤가구를 방문하여, 성인과 아동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구의 빈곤 경험과 그에 따른 아동빈곤 경험에 대한 다차원적인 범주 분석 및 관련 진술 제시, 둘째, 아동빈곤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주제 제시 및 정책 수요 발굴.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은 빈곤가구에 거주하는 성인과 아동이며, 빈곤 경험과 실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론적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복지패널에 연계된 질적패널 중 빈곤아동이 있는 17가구를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선정하였고, 이중 4가구가 거부하여 총 13가구(성인 13명, 아동 14명)³⁷⁾가 연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기존 패널조사를 통해 오랜 기간 조사관계가 형성되어, 짧은 시간에 관계형성이 이루어지고 거부감 없이 개방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하는 성인이 있는 빈곤아동의 전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활참가 가구에 대한 의도적 표집을 실시하여, 강원지역에서 3가구(성인 3명, 아동 3명)를 연구 대상에 더하였고, 서울의 한 지역아동 센터를 통해 3가구(성인 3명, 아동 3명)를 추가

37) 이중 #13 가구의 경우 두 명의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고로 4가구의 거부 사유는 아래와 같다.

#2: 자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루다 거부

#6: 응답자인 조모가 기억력이 안좋다는 이유로 거부

#10: 짧은 설문인줄 알았는데 인터뷰라는 사실에 대해 거부

#15: 연락하기로 하고 차일 피일 미루며 연락을 꺼려 거부의사로 판단

표집하였다. 이에 총 19가구(성인 19, 아동 20)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 6-1>은 연구대상의 구성 및 일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1> 연구대상의 일반 현황

| 구분 | 성인 (N=19) | 아동 (N=20) |
|-----------|---|--------------------------------|
| 지역 | 서울:7, 경기:6, 강원:6 | 서울:7, 경기:6, 강원:7 |
| 성별 | 남:4, 여:15 | 남:12, 여:8 |
| 나이 (평균) | 33-72세 (46.4세) | 7-18세 (14.35세) |
| 학력 |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8 대재:1, 전문대졸:1, 대졸:2, 대학원:1 | 초:6, 중:6, 고:8 |
| 가구유형 | 한부모:7, 양부모:11, 조손:1 | 한부모:7, 양부모:12, 조손:1 |
| 수급여부 | 수급:9, 차상위:3, 기타 일반:7 | 수급:9, 차상위:3, 기타 일반:8 |
| 소득 (평균) | 158.8만 | <10만: 1, 30-40만: 2, 40-50만: 2> |
| 가구주 여부 | 가구주: 11, 비가구주: 8 | |
| 아동과의 관계 | 부:4, 모:14, 조모:1 | |
| 가구원수 (평균) | (4.2명) | |
| 자녀수 (평균) | (2.5명) | |

2. 조사표의 구성

심층면접을 위해 본 연구는 질문 문항을 조사표로 사전에 구성하되, 캐묻거나, 질문 순서를 바꾸거나,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문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표의 내용은 빈곤의 경험과 실태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및 성인 각각에 대한 질문내용은 아래 <표 6-2>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6-2〉 조사표의 구성

| 구분 | 성인 | 아동 |
|----------------|--|---|
| 질문 문항 분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 주거환경 ○ 문화생활 ○ 건강 ○ 빈곤 경험 ○ 사회정책 체감 ○ 탈빈곤 전망 ○ 자녀양육 및 자녀와의 관계 ○ 자녀의 꿈과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및 고민 ○ 건강 ○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 ○ 학교 생활, 학업 ○ 문화생활 ○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 주거환경 ○ 진로 및 꿈 |

3. 자료수집

2016년 7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위해 4명의 조사원이 조사표를 들고 각 가구를 방문하여, 참여자 개인별로 1-2회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³⁸⁾, 회당 면접시간은 성인의 경우 평균 81분, 아동의 경우 평균 57분이었다. 면접내용은 IRB에서 승인을 받은 절차에 따라 참여자의 동의 후 녹취되었고, 각 조사원들은 가구의 물리적 환경이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이나 느낀 감정 등을 현장노트로 작성하여, 면접 종료 후 사례요약과 함께 제출하였다.

4. 자료분석

면접이 끝남과 동시에 조사원들은 현장노트를 포함한 각 사례들에 대한 요약본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녹취된 면접내용을 전사(transcription)하고, 동시에 질문 단위별로 면접 내용을 코딩하였다. 이후 2차례에 걸친 조사원간의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원들은 연구자의 시각으로 아동빈곤의 다차원성과 박탈지표와 관련된 유의미한 발견을 서로 나누고, 동시에 의미 있는 코딩의 단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 조사원이 진행한 심층 면접 내용에 대해, 최종 분석자가 현장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질적분석과 해석에 대한 엄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38) 2회 이상의 면접을 실시한 경우는 총 6사례이며, 사유는 녹취불량 (n=1) 및 추가조사 필요성(n=5)에 의한 것이었다.

과정은 또한 각 사례 간에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아동빈곤의 경험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상이한 상황에 따른 차별적인 대응방식에 대한 통찰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분석과정은 아동빈곤의 다차원성과 결핍의 경험에 집중하여, 빈곤의 경험에 대한 가구내 성인과 아동의 인식을 범주화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빈곤과정과 경험, 주거, 건강, 교육, 양육, 문화, 가족관계, 아동의 꿈과 전망, 사회정책 체감 차원에서 발견된 아동빈곤의 경험과 인식을 범주화하고, 이후 여기서 도출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빈곤가구의 성인 및 아동의 내부자 관점이 정책수요의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 참여자 특성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성인과 아동으로 나누어, 사례번호, 나이, 성별, 지역, 가구유형, 학력, 소득 등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구 빈곤 경험이나 인식을 사례별로 요약하여 도표로 제시하였다.

1. 성인 참여자 (N=19)

성인 참여자의 경우 연령대는 33세에서 72세에 이르며, 평균 나이는 46.4세였다. 아동의 부친이 4명, 모친은 14명, 조모가 1명이었고, 거주 지역은 서울(7), 경기(6), 강원(6) 이었다. 이들의 자녀수는 1명에서 4명에 이르며, 평균 자녀수는 2.5명이었다. 가구유형의 경우 한부모 가구(7), 양부모(11), 조손가구(1)로 나뉘어지며, 수급지위에 따르면 수급가구(9), 차상위 가구(3), 일반 빈곤가구(7)로 구분되었다. 학력은 고졸이 제일 많으며(8명),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의 경우가 그 다음(5), 중졸(3), 초졸(2), 무학(1)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가구 소득은 없음에서 270만원 사이로 보고되었고, 소득 평균은 158.8만원이었다. <표 6-3>은 성인 참여자의 특성을 사례번호와 함께 요약해놓은 것이다.

〈표 6-3〉 성인 참여자 요약(N=19)

| 성인 사례 # | 나이 (만) | 성별 | 지역 | 자녀 수 | 가구 유형 | 최종 학력 | 가구 소득 (만원) | 가구 빈곤 특성 |
|---------------|-----------|----|----|---------|-----------|------------------|------------------|--|
| 1 | 45 | 남 | 서울 | 4 | 수급 | 초졸 | 178 | 父의 뇌전증, 母의 조현병, 생활여건 제약, 부모 건강이 아동양육에 영향, |
| 3 | 41 | 여 | 서울 | 4 | 비수급 | 고졸 | 270 | 父의 음주 및 가정폭력, 신용불량, 아들이 경제적 이유로 특성화고. 굶은 아이들 마음 |
| 4 | 50 | 여 | 서울 | 2 | 수급 한부모 | 중졸 | 100 | 이혼 후 빈곤, 식당일, 수급자라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는 느낌, 사교육 못해줌. |
| 5 | 44 | 여 | 서울 | 2 | 차상위 | 고졸 | 200 | 가장이 집안 경제 돌보지 않음. 빚 때문에 아이들 잘 못해줌. 자녀 양육에 주도권 없음. 딸의 꿈이 패스트푸드 매니저라. 걱정 |
| 7 | 39 | 여 | 경기 | 3 | 비수급 | 고중 퇴 | 150 | 근로빈곤. 사채빚. 우울. 3만원 없어 아이 과외활동 못시킴. 주거빈곤. 부정수급과 출출하지 못한 안전망 비판. |
| 8 | 56 | 여 | 경기 | 3 | 비수급 | 고졸 | 200 | 상대적빈곤, 큰딸이 장애, 늦둥이 아들을 사립고에 보낸 후 교우들과 가정환경 비교를 하며, 부모를 비난하고, 벗어나는 모습 보임. |
| 9 | 43 | 남 | 경기 | 4 | 수급 한부모 | 중졸 | 130 | 이혼. 건강나쁨. 저학력. 큰딸 비행. 아동 4명이나 양육 및 훈육 기술 없음. 일상 생활 하루 하루 자체가 힘든 경험임. 주거빈곤 |
| 11 | 52 | 여 | 경기 | 2 | 수급 한부모 | 전문 대졸 | 140 |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였으나 폐암 걸린 남편 병원 수발. 큰아들 장애. 부모의 경제력이 아동 교육에 영향 미친다고 생각함. |
| 12 | 52 | 여 | 경기 | 2 | 수급 | 고졸 | 120 | 재혼. 남편과 나이차 큼. 본인 심신의 건강나쁨. 수급자인 것과 반지하 집이 창피함. |
| 13 | 46 | 여 | 강원 | 2 | 비수급 | 대졸 | 100 | 남편이 목회활동. 본인 우동집 경영.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 학원 못보내 곤란함. 아동이 원하는 일을 하길 바람. |
| 14 | 72 | 여 | 강원 | 3 | 비수급 조손 | 초중 퇴 | 0 | 아들 이혼. 조손가구. 공공근로 쉬게되어 딸의 도움 받고 있음. 손자 치킨 못사주고, 부모 없는 것이 마음 아픔. 열악한 주거환경. |
| 16 | 42 | 남 | 강원 | 2 | 비수급 | 고졸 | 160 | 건강상태 나쁨. 음악/농사일. 온가족이 방한칸. 생계급여 절실하나 수급신청 탈락. 자녀는 컴퓨터하며 시간 보냄. 자녀에게 결혼하지 말라 얘기함. |
| 17 | 55 | 여 | 경기 | 2 | 수급 한부모 | 초졸 | 100 | 이혼. 우울. 화상. 건강상태 나쁘나 충분한 치료 못받음. 공부잘하는 아동이 견디는 힘이 됨. 고교생 석식비 지원을 희망함. |
| 18 | 33 | 남 | 강원 | 3 | 수급 | 고졸 (검정 고시) | 200 | 본인이 고아로 자랐고, 동생에게 부모같은 존재였음. 건강상태 나쁨. 바닥치는 경험을 해봄. 임대주택 상태 열악. 가족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활하나 자신의 꿈은 생각해보본 적 없음. |
| 19 | 40 | 여 | 강원 | 2 | 수급 한부모 | 대재 | 110 | 이혼. 어려울 때 아이가 도벽, 배아픔 발생. 큰애가 둘째에 부모역할하여, 둘째의 정신적 성장 늦음. 주거환경 나빠 집에 가면 짜증. 사이버대. 내일키움통장 탈수급 희망 |

| 성인 사례 # | 나이 (만) | 성별 | 지역 | 자녀 수 | 가구 유형 | 최종 학력 | 가구 소득 (만원) | 가구 빈곤 특성 |
|---------|--------|----|----|------|---------|-----------|------------|--|
| 20 | 40 | 여 | 강원 | 2 | 수급 한부모 | 대졸 | 135 | 자영업 실패. 이혼. 빚. 아들에게 가장 역할하라 애기한 것이 부담 준 것 같음. 아들 꿈이 오직 공무원이고 제한적이어서 안타까움. 주거빈곤. |
| 21 | 48 | 여 | 서울 | 1 | 차상위 | 대학원졸 | 270 | 사기를 당해 빈곤해짐. 부모가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아동이 욕구를 접는 모습을 보임. 아동이 지하방으로 오면서 북한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함. |
| 22 | 45 | 여 | 서울 | 2 | 비수급 | 고졸 (검정고시) | 275 | 옷, 음식 절대 빈곤 경험, 남편의 무능, 별거상태. 힘들 때 아이에게 매질했었음. 돈 걱정으로 치료 미룸. 나이와 재산기준으로 수급 못받음. 아이들이 자신의 상태를 민감히 체크하고 집안일 등을 스스로 함 |
| 23 | 39 | 여 | 서울 | 3 | 차상위 한부모 | 대졸 | 180 | 사업 망하며 남편과 별거. 근로빈곤. 혼자 일하며 아이 돌보는 것이 힘들. |

2. 아동 참여자 (N=20)

아동의 경우 나이가 7세에서 18세에 이르며 평균 나이는 14.3세였다. 초등학교 6명, 중학생 6명, 고등학교 8명이고, 남아가 12명, 여아가 8명이었다. 이들이 받는 용돈은 없는 경우부터 20만원에 이르렀고, 이들이 직접 근로를 해서 버는 소득도 없는 경우부터 최대 50만원에 달했다. <표 6-4>은 아동 참여자의 특성을 사례번호와 함께 요약해놓은 것이다.

<표 6-4> 아동 참여자 요약(N=20)

| 아동 사례 # | 나이 (만) | 학력 | 성별 | 한달 용돈 (만원) | 아동 근로 소득 | 꿈 / 미래전망 | 일상생활, 빈곤 경험, 인식 |
|---------|--------|----|----|------------|----------|-----------|--|
| 1 | 12 | 초 | 남 | 3 | 0 | 선택안함 | 지역아동센터가 관계의 장, 부모의 불화시 조정자, 스마트폰 (중독 증세), 인스턴트 음식, 주거환경이 무서움 |
| 3 | 18 | 고 | 여 | 5 | 0 | 간호사 | 경제환경 고려하여 특성화고 진학. 가난은 교육투자가 안되어서라 인식. |
| 4 | 17 | 고 | 여 | 0 | 30~40 | 간호 조무사 | 형편이 어려워 취업하고 싶어함. 알바. 집안 형편을 안 변한다, 안보인다고 인식함. |
| 5 | 18 | 고 | 여 | 0 | 40~50 | 패스트푸드 매니저 | 대학교육 필요성을 못느낌. 알바. 패스트푸드 매니저가 꿈임. |
| 7 | 18 | 고 | 남 | 0 | 약40 | 태권도 사범 | 알바. 자기 때문에 빚졌다고 생각함. 집안 빚 갚기 위해 취업계 내고 취업예정.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

| 아동 사례 # | 나이 (만) | 학력 | 성별 | 한달 용돈 (만원) | 아동 근로 소득 | 꿈 / 미래전망 | 일상생활, 빈곤 경험, 인식 |
|---------|--------|----|----|------------|----------|--------------------|--|
| 8 | 17 | 고 | 남 | 20 | 0 | 경찰 | 상대적 빈곤감을 느낌. 일탈적 사고를 함. 자신이 부자라면 학교 안하고 학교를 부숨. |
| 9 | 15 | 중 | 남 | 10 | 0 | 노래만드는 사람 | 허리디스크. 공부 소질 없고, 대학 생각 없음. 음악 만들고 싶어함. 발달수준 낮음. |
| 11 | 15 | 중 | 남 | 0 | 3 | 기타리스트 | 가족 대화보다는 게임. 중독증세 있음. 어머니 대신 신문배달. 돈 때문에 학원 못다니는 경험. |
| 12 | 17 | 고 | 여 | 0 | 약50 | 아직 없음 | 여러가지 알바로 시간 다 보냄. 돈이 제일 중요함. 공부는 '포기' 배우 꿈이었으나 지금은 꿈이 없어지고 꿈 "휴전" 상태임. 반지하, 집주위 범죄걱정. |
| 13A | 16 | 고 | 남 | 2 | 0 | 방송PD | 가난을 불행으로 인식함. 본인이 흡수자라면 슬프겠다고 생각함. 가족을 '친구'로 표현. 본인이 성공하면 가정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
| 13B | 13 | 중 | 남 | 1.2 | 0 | 잘모름 |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좋은 옷과 음식 희망 |
| 14 | 13 | 중 | 남 | 3 | 0 | 설계사 |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냄. 스마트폰. 게임. 역대 연봉 받기 위해 설계사 꿈. |
| 16 | 12 | 초 | 여 | 3 | 0 | 초등학교 선생님 | 학원 안다니고, 다닐 생각 없음. 친구들을 놀리고 다님. 다운받은 영화보고 화장품, 옷 즐김 |
| 17 | 14 | 중 | 여 | 6 | 0 | 일러스트레이터, 댄서, 사회복지사 | 본인이 돈을 벌어 보탬이 되고픈. 집이 낡아 위험하게 느낌. 행복한 기억은 평범한 기억. 자신이 걱정할까 아픈 티 안내는 엄마를 걱정. |
| 18 | 13 | 중 | 여 | 1 | 0 | 사회복지사 | 유행 처지면 빈곤한 것. 부모님과 놀이동산 갔던 것 행복. 남동생들과 한방. 주변 환경 무서움. 동생들에게 부모같은 누나로서 양가감정. |
| 19 | 12 | 초 | 여 | 0.1~0.2 | 0 | 의사, 간호사 | 동생때문에 스트레스, 어른화. 배우자 역할. 꿈을 이뤄도 엄마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 |
| 20 | 16 | 고 | 남 | 2 | 0 | 9급공무원 | 가족에 대한 책임감 큼. 가족은 버팀목. 동생을 돌보는 아빠역할 해야겠다 생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 크고, 꿈이 작다는 얘기 듣기 싫음. |
| 21 | 12 | 초 | 남 | 0.5 | 0 | 컴퓨터강사 | 돈에 대한 강박관념-무조건 아껴야함. 독립성 강함. 가족은 각자 혼자 알아서 다 하는 "스파르타 가족"이라 생각 |
| 22 | 12 | 초 | 남 | 0.6 | 0 | 로봇공학자 요리사 | 초등학생이 노력보다 출생운이 좋아야 성공한다 생각. 노력이 별로 필요없다 생각. 부모가 바쁘거나 힘들어보여 얘기 못한다함. 먹고 싶은 것 폐기될까 얘기 못함. |
| 23 | 7 | 초 | 남 | 0.1 이하 | 0 | 요리사 | 지역아동센터에 다님. 부자는 집 넓은 사람. 독립된 방에 대한 욕구를 표출함. |

제4절 분석결과

본 연구의 질적분석 결과는 아동빈곤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경험을, 가구내 성인 보호자(부모, 조부모)와 아동의 내부자 관점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토대로, 빈곤과정과 경험, 주거, 건강, 교육, 양육, 문화, 가족관계, 아동의 꿈과 전망, 사회정책 체감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범주화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발견들을 바탕으로, 아동빈곤 경험의 핵심 주제를 제시하였다.

1. 다차원적 빈곤 경험에 대한 범주 분석

가. 빈곤과정과 경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빈곤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빈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사건에 대한 범주화를 통해 빈곤의 원인을 정리하였다. 일단 여성 한부모 가구주의 경우, 이혼 이후 급격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하나의 패턴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은 아동에게 더 이상 부모갈등을 보여주지 않게 되어 ‘아이에게 가장 잘한 일’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아빠가 필요할 때 옆에 없는 것이기도 해서 ‘가장 미안한 일’이 되기도 한다.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해서는 자녀가 아빠를 닮았다는 이유로 미운 감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험한 경험을 함께해서 미안한 감정도 있으며, 때로는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느낌도 드는 등 복합적인 감정을 동반하기도 하였다(성인 #19).

이혼 이외에도 건강/사업실패/배우자의 무능/빚 등의 사유 역시 빈곤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견되었는데, 주변에서 옷을 얻어 입히고, 음식을 못먹이며(성인 #22), 월세를 못내 길거리로 쫓겨나거나(성인 #18), 공과금을 못내 신용불량(성인 #20)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사기를 당해 갑작스런 빈곤을 경험한 경우,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께서 부터 아동이 급격한 경제적 변화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성인 #21). 이경우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던 아동이 갑작스런 빈곤을 이유로 이전보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지역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등

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후천적인 빈곤의 경험이 아동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 쪽 □□동 쪽에 많으니까 (이사를 오다 보니), 애네들 하고 사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도 사귀자니 그렇게 또 옛날 친구도 생각도 나고 막 이러니까 정체성이 없다 이런 이야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되게 안타까웠어요,” (성인 #21)

이처럼 빈곤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었던 급작스러운 변화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체화된 일상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나 만성화되어버린 빈곤 일상의 고통, 가족해체와 같은 사건이 그런 경우이다. 간혹 부모가 아동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달리 빈곤 스트레스가 직접 아동에게 매질 등의 모진 언행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성인 #22).

“어렸을 때 많이 혼내고 화냈던 거, 개한테 스트레스 많이 부렸던 거... 너네를 봐 두고 가면 내가 얼마나 보고 싶고, 이게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려고 있는 거 같애~ 이러면서 애를 매질 했던 거...” (성인 #22).

사실 빈곤한 환경에서 부모들은 어떤 특정한 어려움을 꼽기보다, 일상생활 모든 것, 즉 돈 걱정, 애들 재우고, 학교 보내고, 밥해주는 것과 같은 매일의 일상의 연속 그 자체가 힘든 일이며, 이러한 어려움이 만성화되어가며 점차 무기력해지기도 하였다(성인 #18).

한편 빈곤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부부의 불화와 가출, 별거와 같은 가족해체의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성인 #1, 성인 #22), 이와 반대로 부모가 아파서 못하게 된 신문 배달을 아동이 대신하며 가족의 일을 서로 돕는 등 가족이 더욱 뭉쳐지는 경우도 있었다(아동 #11). 또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쓸 용돈을 벌기 위해 시간제 근로(알바)를 하는 아동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소득은 월 30-50만원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 중 한 고등학생은 공부보다 알바에 더 열심이며, 대학을 가기보다는 알바를 열심히 해서 패스트푸드점 점장이 되는 것이 꿈이 되어버리기도 하였다(아동 #5). 그러나 다수의

빈곤가구의 부모들은, 하루 하루 버거운 삶을 밀고 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일상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좌절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생활 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죠 뭐 하루하루, 우리는 나이 먹고, 아이는 공부 하고 그러다 보면 벌써 50대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60, 70에 요양원에 안 가고 우리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못 버는 거죠," (성인 #8).

사실 아동들에게는, 빈곤이란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기회가 결핍된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더 강했다. 생필품이나 영양이 부족하다는 절대적인 차원의 빈곤에 대한 인식보다는 친구들처럼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남들 다니는 학원을 학원비 때문에 나와야 했다던가, 대학이나 진로를 생각할 때 집안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점 등은, 빈곤을 다분히 상대적 개념이나, 기회박탈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었고, 또한 아동 발달의 차원에서의 접근을 요하는 것이었다. 간혹 상대적으로 빈곤감에서 느끼는 좌절이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일탈적 사고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아동들이 내면에는 빈곤으로 인한 불행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친구들은 아파트에 사는데 거지 같이 산다고 막 덤비고, 아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인 #8).

"어릴 때 막 오죽하면 어릴 때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말 생각하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걸 아니니까, 되게 트라우마가 많다 보니까..." (아동 #12).

이처럼 빈곤 환경에서 아동이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는 사고는 거꾸로 부모가 아동을 바라보며 왜 낳았을까 후회하는 모습이나, 아동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도 일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빈곤의 경험은 자칫 가족의 형성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져올 위험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였다.

"늦게 (아이를) 낳은 게 지금 저는 정말 후회해요, 왜 낳았을까, 떼어내 버릴 걸..." (성인 #8).

“아 결혼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차피 힘드니까,,, 결혼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성인 #16).

〈표 6-5〉 빈곤과정과 경험의 범주화

| 영역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
|------------------|-------------------------------|-------------------------------------|--|
| 빈곤 과정 | 이혼 | 빈곤의 여성화 복합적인 감정 | 잘한일도 이혼, (아이에게) 미안한 일도 이혼, 아이 에게 무섭게, 험한 경험 함께 한 미안함. |
| | 건강/사업실패/배 우자의 무능 /빚 /사기 | 절대적 빈곤 경험 갑작스런 빈곤 | 받아 입고, 못먹이고, 길거리로 내몰림, 신용불량, 아동의 정체성의 혼란 |
| 빈곤 경험 (일상) | 스트레스 일상의 고통 | 아동을 향한 투사 특정할 수 없는 어려 움, 가족해체 | 매질, 내가 너 때문에, 무기력, 분노, 부부의 불화, 가출, 삶의 고단함, 하루하루가 힘들 |
| | 극복의 노력 | 일찍 시작하는 일 함께 일하기, 버티 기, 좌절 | 하다보니 꿈이 되어버린 알바, 엄마 대신 신문배달, 밀고 나가기, 하루하루 버티기, 벌써 50대, 노후 생 활 준비가 안돼 |
| | 상대적 빈곤 | 비교하기, 기회와 아 동 발달, 원망과 수 용 | 유행 처지면 빈곤, 학원비, 집안 형편 생각하기, 거 지같이 산다, 불행, 아빠가 죽었으면, |

나. 주거

빈곤한 주거 환경은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된 원인이 된다. 특히
집이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의 생활과 소통의 공간이자, 동시에
학령기의 성장하는 아동에게 공부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빈곤가구의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집이 좁고 불결하기도 하고,
반지하에 살면서 집주위에 도둑들의 범죄가 걱정되기도 하며(성인 #9, 성인 #12, 아동
#12, 아동 #17), 비가 새거나 냉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성인 #14), 성범죄자들이
주변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성인 #4, 아동 #18), 술먹고 소리지르는 이웃, 집으로 오
는 길에 가로등도 없어 음산한 길(아동 #1, 아동 #10, 아동 #19) 등은, 주거 환경이 가
족 간에 짜증을 내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됨을 잘 보여준다. 이들에게는 주거 안정이야
말로 가장 큰 탈빈곤의 목표가 된다.

“일단은 주거가 되면은 모든 게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렇고, 지금 집에 들어가면 짜증먼저 나오,,, 옆집도 맨날 욕하고 싸우는 소리가,,, 아이들이 집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더워요, 지금도,,, 옆에서는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공부하라 공부하라 해도, 조건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집중을,,, 빨리 하루라도 이사 가는 게 먼저니까,,,” (성인 #19),

특히 아동들에게 독립적인 공간이나 공부방을 마련해주는 커녕 성(性)구분 없이 함께 방을 쓰거나 온 가족이 한방을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성인#3, 성인 #9, 성인 #18, 성인 #20), 이러한 배치는 아동에게 공간을 제공할 여력이 없기도 하지만, 때로는 청소나 관리가 너무도 힘들어 한 방에 몰아서 살게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간배치에 있어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 차원을 고려하기 보다는 관리의 수월성 중심으로 공간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어려운 사정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처음엔 거실에다가 남자애 둘을 재웠어요, 그리고 여자 애 둘을 작은 방을 따로 주고, 그런데 이 치우질 없으니까 이 치우는 게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층 침대 놓고 한 방으로 넣었어요,,, 침대가 거실에 있으니까 들어오자마자 딱 그게 보이니깐 더 지저분한 거예요,” (성인 #3),

그런데, 이러한 주거의 문제는 단순히 공부방이 없다거나 성구분 없는 방사용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주거환경에서 아동들은 부모들의 걱정을 비롯해서 어린 나이에 감내하기 어려운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민, 부부싸움 등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아동들은 이후 살펴볼 소위 ‘애어른’이 되는 경로를 겪게될 수도 있다.

“어느 날에 엄마, 아빠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잠자는 척 하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무슨 이야기 들려오는 거예요,,, 이자 이번 주까지 다 갚았다고 이런 소리 들은 거예요, 이자가 있다면 당연히 빚도 있을 테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아~ 빚이 있었구나? 그 때가 8살이었나? 그 때 딱 알았어요,” (아동 #22),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 성장하는 아동들에 대해 부모들은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해 마음 아파하고, 특히 급작스런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처음 집한 반지하 집을 “북한으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동이 입은 마음의 상처만큼 부모의 미안함도 크다.

"그치, 그러니까는 〇〇이도 맨날 뭐 아파트에서 살다가 맨날 거기서 애들이랑 놀다가 어느날 순간에 지하인 거기에 왔지...뭐라고 하나면 엄마 꼭 있잖아, 내가 나는 북한으로 오고 ..."(성인 #21)

〈표 6-6〉 주거 환경의 범주화

| 영역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
|-------|------------|------------------------------|---|
| 주거 환경 | 집안 환경의 열악함 | 스트레스, 집안 환경, | 좁고 불결함, 반지하, 도둑 걱정, 비가 샘, 냉난방, 성범죄자 두려움, 짜증의 근원, 이사가고 싶음 |
| | 불안한 집주위 환경 | 이웃 집에 오는 길 | 소란한 이웃, 차고 소리지르고, 성범죄자가 주위에, 무서운 귀갓길, 뛰어서 집에 가기 |
| | 부족한 공간 | 비독립적 공간 관리중심의 공간배치 애어른 | 남녀 아동 한방 쓰기, 온가족이 한방쓰기, 공부방 없음, 관리가 편하도록, 치우기 편한 배치, 어른 애기에 고스란히 노출된 아동, 싸우는 것 몰래 듣기, 저절로 들려오는 돈걱정, 어른처럼 생각하기 |
| | 갑작스런 변화 | 나쁘게 변한 주거 | 반지하, 북한 가는 기분, 상처와 미안한 마음 |

다. 건강

빈곤한 환경에서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와 양육의 부담을 겪으며, 신체적/심리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근로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와 아동 양육까지 하다보면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없고(성인 #5),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생기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우울감과 자살 충동이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한없이 낮아지는 자신의 모습에 숨쉬는 것조차 싫은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선, 주위의 가족들이 도움을 주려해도 큰 효과가 없기도 하다.

"제일 어려운 게, 내 병하고 금전적인 거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자살충동을 너무 많이 느끼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요." (성인 #17).

"제가 농약을 샀었어요, 조그만 병을 하나 사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애들도 이제 커가고, 저희 집사람도 있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저희 집사람도 있고, 조언을 해주고, 응원을 해 주고, 뭘 해도, 별

써 제 머리 속에는 아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람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이 숨쉬는 것 자체도 너무 싫었던 거예요," (성인 #18).

더 큰 문제는, 가구 내 아동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주체인 부모가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게 되면, 바로 아동의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위축되는 자녀들은 가정에서 눈치껏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또한, 부모의 고민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아동들에게 공유될 때, 아동들이 간혹 문제행동이나 때로는 신체화 장애(somatization disorder)로 불리는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동에게서 발생했던 도벽과 원인 모를 복통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했던 아동의 부모는, 자신이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에 아동에게 증상이 나타났던 것이라고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다(성인 #19). 또한 부모가 조현병과 뇌전증을 가지고 있던 사례의 경우, 가족 내에서 부모 아동 간에 적절한 의사소통과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등 부모의 건강이 아동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아동 #1).

이처럼 부모의 영향 이외에도 경제적 여건에 대한 아동의 불만이 과식과 비만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또한 주의력 결핍 현상이나, 양극성 장애, 도벽 등의 이유로 아동이 입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부모나 아동 모두에게 있어서 정신적 건강의 이슈가 전문적인 치료까지 이어지기까지, 즉 발견되는 시기부터 상담이나 치료를 위한 내원까지의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부모는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을 꾸려야하므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렵고, 또 아동의 치료를 요하는 증상에 대해서는 아예 인지를 못했거나, 혹은 치료를 너무 늦게 한다는 것이다.

"아침에 눈떠서 바로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잠깐 있는 사이에 (우울)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내 몸이 힘들고 뭐 하니까 그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거기 가서... 정신과 갈 생각을 못 하죠," (성인 #5)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오라고 하더라고 선생이,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애 이상하니까 염색체가 모자란지 뭔지 가서 검사 해보라고, 그때까지는 정상인이었으니까...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장남이고 큰 아이고 하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기대감이 더 많았어요," (성인 #11).

〈표 6-7〉 건강의 범주화

| 영역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
|----|----------------|-------------------------|--|
| 건강 | 부모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 병, 우울과 자살(충동), 자존감, 고통의 | 자살충동을 너무 많이 느끼니까, 순간적인 충동, 농약 사기, 내가 죽는게 나아, 숨쉬는 것 자체도 싫음 |
| | 고통의 아동 전이 | 아동 행동과 발달 의사소통과 양육 | 눈치보는 자녀, 자녀의 이상행동, 도벽, 복통, 신체화 장애, 부모의 조현병, 말이 안통하고 듣지 않음,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
| | 치료의 어려움 | 늦은 발견 치료받기 쉽지 않은 환경 | 정상이어서 이해를 못함, 무슨말을 해도 들리지 않음 치료 위한 시간 내기 어려움. |
|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 불만감, 아동건강, 뒤늦은 치료 | 경제 여건에 대한 불만, 과식, 비만, 주의력 결핍장애, 양극성 장애, 인지하지 못한 부모 |

라. 교육

빈곤가구의 아동들이 경험하는 결핍 중 교육에서의 경험은 크게 빈곤이 아동의 인적 자본 형성의 기회에 미친 영향과, 이것이 향후 빈곤의 대물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나타났다. 빈곤아동을 둔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의 기회의 박탈은 압도적으로 학원비의 부담이었다. 인터뷰에 참가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교육을 당연하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보내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교육은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선택하게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성인 #7)이기도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다니는 학원이니까 교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성인 #21).

그러나 부담스런 교육비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쉽지 않다. 실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다니던 학원을 중단하기도 하고, 방과후교실도 근근이 보낼 정도이며, 대안으로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엇갈리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부모에게는 안타깝고 속상한 경험으로 남게 되고, 자녀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교육 때문에 부모가 빚졌다는 죄책감을 주기도 하였다(아동 #7).

"쉽게 말해서 막내 같은 경우는 방과후 수업에 뭐 이렇게 쿡클클래스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저는 수학 하고 다른 걸 같이 하고 싶은데 딱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미안

한데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인 #3),

또한 경제적 이유를 들어 아예 아동에게 특성화고를 선택하게 하거나(성인 #3), 대학보다 취업을 선택(아동 #4)하기도 한다. 부모의 경제 형편을 드러내놓고 그 안에서 맞추어 할 수 있는 만큼만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후 아동의 꿈과 전망 영역에서 다루겠지만, 이러한 경우, 눈앞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꿈을 미루거나, 가두거나, 혹은 의지를 꺾기까지도 한다. 실제, 공부를 잘하는 아동에 대해, 부모로서 느끼는 대견함도 있지만 앞으로 지원해주지 못할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치과 의사가 되겠다는 큰 아이가 공부 잘할까봐 겁나는 부모(성인 #19), 검사가 되려는 딸의 로스쿨 비용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서, 딸이 크면 꿈이 바뀌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부모(성인 #20)가 그런 예이다.

“딸은...가슴이 아픈 게...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검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제도가 로스쿨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차마...(웃음) 보낼 수가... 로스쿨 얘기는 못하고, 옛날처럼 사범고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그래 열심히 공부해...그냥 그러고 있어요, 크면 바뀌겠죠 뭐.” (성인 #20),

“애가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오니까, 치과 의사...” (성인 #19)

아동에게서도 교육투자에 대한 박탈감이 발견되고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교육투자가 안되면 빈곤으로 연결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집안의 경제적 형편을 생각하면 그냥 앞이 안보일 뿐이고, 향후 이어지는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표출되기도 하였다(아동 #3, 아동 #4). 또한 이들에게 빈곤이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 보였는데, 이는 어쩔 수 없이 빈약한 인적자본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인정과, 그렇다고 아동들에게 적극적인 멘토가 되어주지 못하는 본인 능력의 한계에 대한 체념이 동반되는 것이었다. 부모의 지원이 힘든 상황에서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결론은 아동이 습관을 형성하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고, 나는 왜 이러냐라고 말하면 할 말 없고 미안하긴 한데..." (성인 #20),

"나도 그냥 상고를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한 거였고 저도 야간에 공부를 했었던 거는 있는데 그래서 대학교에 대한 그 캠퍼스 그런 저기는 없어요...나처럼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니까, 나보단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본인이 안 한다는데 내가 굳이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인 #5)

"인정해요, 나도 우리 아이 키워봤는데 엄마가 노력해주면 아이가 와요, 나도 애를 노력시켜봤잖아...엄마의 점수도 있지만, 엄마가 했는데 아이가 안 하는 애는 안 해요," (성인 #22),

"영향을 미치죠, 그니까 여유가...공부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학원이 사실 중요하긴 한데...만약에 근데 경제력이 더 되면 더 좋은 걸 해주고 싶기는 하죠," (성인 #23),

〈표 6-8〉 교육의 범주화

| 영역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
|----|-------------|---------------------------|---|
| 교육 | 인적자본의 기회 결핍 | 사교육 두려운 꿈 | 부담스런 학원비, 교류를 위해서라도, 돈 때문에 못간 학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공부잘할까 겁남, 이러다 말겠지, 로스쿨 보낼 형편, |
| | 대물림 | 부모의 경험 금수저/흙수저 | 내가 뭘 해라 해서 할 것도 아니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나도 그냥 상고를 나와서, 대학은 별로 와닿지가 않고, 본인이 안한다는데, 가난은 불행, 흙수저는 슬픔, 그냥 앞이 안보임 |
| | 문제의 해결 | 형편을 드러내기 꿈을 가두기 아동 본인의 노력 | 특성화고, 대학보다 취업, 학원비 보조, 크면 바뀌겠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기, 습관이 중요, 자기가 해야 |

마. 양육

일을 하는 한부모 가구에서 아동의 양육은, 부모가 경험하는 빈곤의 일상 중 가장 힘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출근해야하는 아침에 제대로 케어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매일 매일 실랑이를 하는 등, 힘들고 불안한 일상을 지속하게 된다. 사실 밥 먹이는 것부터 케어하는 것 까지, 아동 양육과 결부된 빈곤의 일상은 부

모에게 가장 힘든 경험이다(성인 #9, 성인 #23). 이렇게 힘든 양육환경은 종종 아동들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아동이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가 다시금 미안한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아들에게 가장 역할과 동생들에 대해 부모 역할을 전가했다가도, 아들이 투정을 부리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아침에 몇 번 저는 회사에 있고 아이는 집에서 울고 이렇게 실랑이를 몇 번 하면서 그렇게 3~4월이 자주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케어할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성인 #23)

아동은 연령에 맞는 자연스런 발달을 경험하여야 하며,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반항도 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가정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동들은, 종종 자신의 꿈을 접어가면서까지 현실에 순응하고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며, 모든 것을 가족중심으로 생각한다. 또한 적은 돈으로 실현 가능한 꿈을 꾸며,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너무 모범적으로만 보이고 착해 보이는 아동에 대해 부모는 아동이 너무 참고 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고, 사실 아이 속이 끓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제가...캠프를 갔었잖아요...거기서 좀 무슨 일이 있었어요...엄마한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했어요.” (아동 #22).

“그니까 지금 큰 아이 같은 경우도 속으로 많이 끓었을 거예요.” (성인 #3).

“그 나이에 있어야 할 약간의 객기라든지, 막 허황된 꿈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성인 #20).

이처럼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린 아이는 부모 입장에서는 키우기 수월한 점도 있겠지만 아동의 성장 자체만을 본다면 우려스럽다. 또 아동이 과하게 부모나 가족을 걱정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을 통해 자기 주장을 펴기보다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모습은, 이후 자신의 꿈을 설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애어른’이 되어가는 아동은 부모입장에서 양육하기가 쉽다는 것이지, 그것이 부모를 완전히 이해해서인 것도 아니며, 오히려 부모를 폐끼치면 안되는 외부인처럼 생각하거나, 자신의 조

언을 듣는 상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아동 입장에서 바람직한 성장과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양육은 아동들에게 성장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인지되고 있기도 하다. 자신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아동은 자신이 취업할 때까지 만이라도 부모님이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근데 사고 싶은 걸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사고 싶은 거 말해서 괜히 폐 끼치기 싫어가지고..." (아동 #22),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 그거 비싸니까 사먹지 말자, 무조건 싼 거만..." (성인 #17),

"그냥 빨리 저 취업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해서 그 정도까지만 어떻게 좀 있으면 만약에 제가 돈 버니까..." (아동 #3),

한편, 양육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부모로서의 에너지가 고갈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도, 아동은 자연스럽게 애어른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아이가 착하지만, 만일 아이가 어긋나게 되면 자신은 자살한다는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가 함께 있어도 자신을 돌봐주지 못한다고 아동이 인식하는 경우, 아동은 애어른을 강요당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재는 되게 예뻐요...엄마랑 살아도 아이들이 진짜 공부 잘하지 말썽 부리지도 않지...아이들이 어디서 진짜 길거리에 나가서 나쁜 짓이나 하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속삭이며) 진짜 나는 죽어버려 진짜 자살해야지 못써버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정신연령이 40대야," (성인 #17), .

"스파르타 가족...다 자기 할 거 하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혼자서 힘으로 다 알아서 하니깐요, 힘들 때도 있는데 어머니가 직접...이제는 지혜가 딸리시니까... 이제 제 힘으로 혼자 해야 하죠," (아동 #21),

간혹,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부모의 권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한 아동들은 부모에 대해 나이 먹도록 뒤흔다는 등의 일탈적 언행을 하기도 하며, 그

럴수록 부모의 무력감과 죄책감은 더욱 커진다. 또한 부모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나 혹은 훈련되지 못한 부적절한 양육방식으로 인해, 훈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보호관찰 큰딸의 가출에도 어떠한 훈육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한 부모(성인 #9)는, 결국 학교 가기 싫어하는 막내 아이가 자신을 가정폭력 아빠로 오인 신고하는 봉변을 당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아무런 훈육을 하지 못하였다. 또,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는 아동에게 속앓이만 하는 경우(성인 #1), 자녀가 알바로 번 용돈을 경제 관념 없이 다 쓰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만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성인 #4), 알바하고 대학에 뜻이 없는 아이의 꿈에 대해 제대로 충고하지 못하고 돌려 말하기만 하는 경우(성인 #5, 아동 #5) 역시 위와 비슷한 사례로 사료되었다.

〈표 6-9〉 양육의 범주화

| 영역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
|----|--------|----------------------------|---|
| 양육 | 부모 역량 | 일상생활의 힘든 경험, 에너지의 고갈, 양가감정 | 매일 매일 실랑이, 케어하기 어려움, 화풀이 대상, 미안한 마음, 부모역할 전가, 투정 안부리는 것 걱정, |
| | 아동의 성장 | 애어른으로 크기 독립적인 사고 마지막 성장보루 | 현실에 순응, 부모 위로, 가족 중심 사고, 제 힘으로 혼자 해야죠, 스파르타 가족, 너무 참고 사는 것이 아닐까, 사실 맘이 굼았을 것, 폐끼치면 안돼, 엄마에게 조언하기, 정신연령이 40대, 취업할 때 까지만, |
| | 문제 행동 | 떨어진 부모 권위, 일탈적 언행 | 어떻게 할지 모름, 보호관찰 아동, 가정 폭력 아빠, 속앓이만 하기, 경제관념 없는 아동, 충고하지 못하는 엄마 |

바. 문화

빈곤가구에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은 종종 아동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고 있다. 영화, 가족사진찍기, 부모님과 함께 한 졸업식이나 태권도 대회, 시골, 집앞 공원, 해수욕장, 놀이공원, 혹은 목욕간 것이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일상은,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들에게는 손꼽아 기다렸던 선물같은 경험이자 여가 및 문화생활이었다. 함께 하는 횟수가 적었던 것도 있겠지만, 아동들에게 가족과 함께 평범한 여가를 보낸 것이 큰 기억으로 남는 다는 것은 가족 간의 일상의 기쁨이 중요함을 잘 보여준다. 그만큼 평범한 일상이 허락되지 않게 되면, 아동들은 부모

넌과의 시간이 간절하다.

"행복했던 건 그냥 초등학교 때 엄마랑 같이 목욕탕 간 거...그냥 엄마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목욕 끝나면 우유 같이 마시고 계란도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했던 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아동 #17).

"그래서 빗 좀 하루 빨리 갠고 좀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동 #22).

물론 아동의 경우 이처럼 가족 간의 여가 및 문화생활 이외에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 여가활동과 비슷한 경험들이 존재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아동들은 스마트폰이나 PC 게임 등을 주된 문화생활로 꼽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게임 활동을 제어하거나 조인하지 못하는 경우, 즉 '부모가 없는 동안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네 돈으로 게임 깔아', '나뉘야지 어떻게' 라고 방임하는 태도를 가진 경우, 아동들이 쉽게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중독 증세는 종종 가족 갈등을 낳기도 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아동이 게임 회사에 결제를 해서 부모가 경찰서에 출두를 하고 아동은 가출을 했다 돌아오기도 한 예도 있었다.

"저는 그냥...게임에 많이 아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게임에 많이 집착 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스스로 용돈을 모아서 게임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컴퓨터 에다 설치를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제대로 안 될 때는 막 그 격분을 못 참아 내더라구요, 그런데 요새는 맨날마다 게임 얘기해요...그 게임을 까는 거...그게 갈등 이었어, 니 돈으로 사서 깔거면 깔아라, 응...근데 그게 지금 잘 못 된 거지, 아예," (성인 #21).

"내가 경찰서 갔더니 게임회사 전화해갔고 뭐가 어떻게 물어봐라, 내가 뭐 게임에 대해 알아야지...처음에 가서 뭐 아이템 뭐 저거 물어보더라고, 아 난 난 모른다고, 모른대니까 경찰이 게임회사 전화해갔고 물어보래서...뭐 그것 땀에 모르고, 집나 가, 가출했다가 한달 있다 오고..." (성인 #9)

한편, 부모들의 경우 대부분의 문화생활은 아동과 함께 가는 영화관이나 독서 등을 꼽고 있으며, 문화카드의 혜택을 누린 경험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인으로서 친구들과 함께 누리는 여가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거의 진술되지 않고 있는

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들로 하여금 대인관계에서 이질감을 가지게 하거나, 시간 낭비라는 느낌을 갖게 한 측면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겠다 싶어서 한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시간이 더 좋아진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봤자, 애네들은 자기 집안, 너무 쓸데 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나하고 별개의 사람들 같은 거예요, 다, 그 때부터는 애네들 만나는 시간에 허비되는 시간으로 느껴지고, 친구들을 끊고, 모든 모임 다 끊어 버리고,,,아이들하고 다니던 모임도 끊었어요, 아이들도 그것을 많이 피곤해 하고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성인 #19)

〈표 6-10〉 문화의 범주화

| 영역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
|----|----------|---------------------|---|
| 문화 | 아동 문화 생활 |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게임 | 일상의 행복, 사진찍기, 부모님과 함께, 졸업식, 태권도, 시골, 공원, 해수욕장, 놀이공원, 목욕, 평범한 것이 행복, 빛 갓고 같이 놀았으면. |
| | 게임 중독 | 부모의 태도, 중독의 결과 | 부모가 없는 동안, 네 돈으로, 나뉘야지 어떻게, 게임 결제, 갈등, 경찰서 연락, 가출 |
| | 부모 문화 생활 | 가족과 함께, 사회 생활 피하기 | 영화, 독서, 문화카드, 친구들 만나봤자, 쓸데 없는 이야기, 별개의 사람들, 시간이 허비되는 느낌, 모임도 끊고 |

사. 가족관계

앞서 양육 경험의 범주화에서 보았듯이 빈곤가구의 부모들은 종종 에너지의 고갈을 경험하고, 가족 갈등 과정에서 부모 기능의 약화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곧 가족기능의 틈새를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 빛 때문에 아동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죄책감에 자녀 양육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편의점 알바를 통해 버는 돈을 규모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조언할 힘조차 없는 사례(성인 #5)는, 가족관계에서 무기력해지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또한, 배우자의 부재 혹은 무능 등의 사유로 기댈 곳 없는 엄마들은, 종종 아동에 의지하고 기대는 모습을 여과없이 표현하며, 때로는 큰아이에게 동생 돌보는 책임을 공공연하게 전가하기도 하는데(성인 #20), 이러한 사례들은 아동의 존재가 엄마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뎌내는 힘이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동은, 경제적 문제로 아빠와 싸우고 가출한 엄마를 돌아오게 하

기 위해 누나가 왕따를 당한다고 거짓 연락하여 가족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아동 #1), 부부 갈등을 부인하는 부모에게 다툼을 알고서도 모르는 척 해주기도 한다(아동 #21). 또한 엄마가 아파도 자신이 걱정할까봐 아픈 내색도 안한다고 생각하는 아동이나(아동 #17), 투정부릴 상황에도 참고 있는 아동의 모습이 오히려 더 걱정스럽다는 부모(성인 #20)에게서 나타나는 아동의 눈높이는, 아동이 나이에 비해 성숙한 정도를 지나친 ‘에어른’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걱정스러운 건...그러니까, 그 나이에 다른 아이들처럼 오히려 투정부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애...참고, 생각이 많아 하는 표정을 볼 때가 있어요, 생각이 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이 다음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 잘못 터지느니 차라리 미성년일 때 차라리 터지는 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한 번 터져야 한다면, 그래서 너무 참고 산 게 아닐까..." (성인 #20)

"여기 이사 오고, 엄마가 일하실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그 때까지 저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그 때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아동 #20)

이러한 에어른의 모습은 어려운 경제활동으로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집안일과 동생을 돌보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의 모습에서도 보이는데, 이 경우 가장 흔한 유형은 부모의 물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구적인 부모화’로 범주화 될 수 있다(아동 #3, 아동 #18, 아동 #20). 한편, 아동이 이러한 도구적인 부모화에서 더 나아가, 가족 관계에서 어른처럼 정서적 관여를 하게 되면, 머지 않아 아동은 자신이 해 온 부모 역할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역할을 하면서 돌보던 동생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자신을 따르지 않고, 또한 본인도 더 이상 동생을 부모입장에서 받아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동생을 지극히 아끼면서 동시에 동생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아동 #18, 아동 #19, 아동 #20)과 같은 양가감정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동생이 뭐가 제일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안 도와 줄 때, 제가 혼자 하라고 밀쳐낼 때 제가 알 수 있는 걸로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동 #20)

이런 경우, 형제/자매의 돌봄을 받고 성장하는 동생 역시 정신적 성장이 늦어지고 의존적으로 변하기도 하여, 아동의 부모화 현상은 본인이나 동생 모두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아동 #19, 성인 #19). 실제 본인이 어린 시절 부모없이 여동생을 키웠다는 한 아빠의 경우(성인, #18), 어른 역할을 위한 자율성을 추구하여, 자퇴와 가출, 자장면 배달 등 보호막 없는 사회생활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황과 비행, 교도소 수감 등의 극심한 성장통을 동시에 경험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자연스런 성장 속도를 뛰어넘는 부모화가 아동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때로는, 특히 한부모 가구 아동의 경우, 아동이 아빠의 책임과 역할을 짊어질 뿐 아니라, 마치 부모의 배우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배우자화’라는 개념으로 범주화되었다. 이 경우, 아동은 아빠 입장에서 자신의 엄마를 바라보며 오히려 엄마를 애처럼 대하기도 하고, ‘엄마 힘들까봐’ 등의 사고를 통해 부모의 보호하에 자신의 주도적인 행위를 하기보다 부모를 자신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고를 하게 된다.

이처럼 빈곤가구의 아동들이 가족 내에서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성장의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아동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이며 아픔을 치유하는 ‘약’이자,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함께 하는 ‘친구’이며, 궁극적으로 ‘행복’의 근원이었다.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관계가 좋은 경우, 구성원들은 가구의 전형적인 경제적 빈곤에 대한 인식보다 가족이 유지되는 것이 갖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경제 환경과 고단한 삶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함께 있는 아동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빈곤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족이야말로 삶을 유지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근원이며,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것이 탈빈곤 과정에서 중요함을 보여준다.

〈표 6-11〉 가족관계의 범주화

| 영역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
|----------|------------|----------------------------|---|
| 가족 관계 | 가족기능 틈새 | 무기력한 부모 아동에 의지하기 | 말해주고 싶어도 말 못하는, 아동의 독립적인 경제활동, 동생 돌보는 책임 전가, 부모가 건디는 힘 |
| | 애어른 | 조정자 부모와 같은 높이 부모 돌보기 | 가출한 엄마를 찾는 방법 숙아 넘어가주는 아동, 서로 걱정해주기, 아동기와 맞바꾼 어른스러움, 터지려면 차라리 미성년일 때 |
| | 부모화 |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 스스로 하는 집안일, 동생 돌보기, 가장되기, 아동의 감당 못할 관여, 돌봄과 분노의 양가감정, 무기력한 애어른, 의 존적으로 변하는 동생, 이탈 가능성 |
| | 배우자화 | 파트너십 배우자의 눈높이 | 남편같은 자식되기, 엄마를 애처럼 대하기, 엄마(당신)힘 들까봐 |
| | 버팀목 | 삶의 지지 행복의 근원 | 삶을 건디는 유일한 힘, 가족은 약, 친구같은 가족, 가족 간 소소한 일상의 행복 |

아. 아동의 꿈과 전망

빈곤가구의 아동들이 비슷한 유형의 경험을 보이는 것 중의 하나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설정하는 기준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빈곤아동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도록 꿈과 욕구를 조정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꿈이 부모에게 부담을 줄까 아예 꿈을 접기도 하였다(성인 #3, 성인 21, 아동 #21). 대신 매우 구체적이고 당장 실현 가능한 돈벌이를 통해 가족에 보탬이 되고 싶은 것을 꿈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진짜 꿈을 가두기도 하였다(아동 #17). 집안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특성화고를 다니게 되었다는 아동(#3)이나, 간호사가 되고 싶으나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간호사가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 아동(#4), 이들은 모두 집안을 돕고자 대학보다는 차라리 빨리 취업하고 싶어하였다. 또한 앞서 교육 영역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꿈을 지원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부모는(성인 #19, 성인 #20), 사실 아동의 꿈이 벽차기 까지도 하다. 또 다른 부모는 아예 대학교육이나 꿈보다는 취업에 대한 암시를 주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엄마는 재수하고 그런 건 못해, 그건 힘들어, 그랬어요, 그냥 취업해, 취업해서 좀 벌어, 그렇게 해서 다시 해 갖고 가, 나중에라도 이제 니가 돈 벌어서.." (성인 #3)

아동이 꿈을 타협하거나 제한하게 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다. 부모의 마음은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꿈을 키워가며 선택하도록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따라주지 않아 미안하며(성인 #7), 아동이 자신의 꿈을 지극히 안정적인 직업으로 국한하고, 능력에 비해 더 큰 꿈을 꾸지 않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다(성인 #20). 꿈을 정확히 "9급" 공무원이라고 답한 아동(#20)의 경우, 안정적인 공무원 직장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를 위해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아동은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어느 정도의 성공이라도 할 수 있는 판단이 서는 것을 꿈으로 삼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부모나 주위 사람들은 9급 공무원 이외의 다른 꿈과 도전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 속상해하며, 아동은 본인의 현실적인 꿈에 대해 주위에서 꿈이 작다고 말하는 것이 듣기 싫다.

"일단 완전히 실패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실수 때문에 자책하는 것 보다는 성공했다는 사실... 주위에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는 그런 말 안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조금 현실적이지..." (아동 #20)

한편 연기를 잘한다는 칭찬에 연기자의 꿈을 꾸었던 한 아동은 돈벌이가 안된다는 생각에 갈등하며 자신의 꿈이 휴전상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아동 #12).

"막 연기력이 좋다고 극찬해주시니까, 되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아 난 이게 맞나 보다, 잘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고 하니까...근데 이게 돈 벌어도 잘 안 되는 것도 알고...저는 돈이 중요한데...처음으로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때였는데...하고 싶기는 한데 돈 때문에 생각하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고 그냥 휴전인 상태...그냥 짬금짬금 저절로 포기가 됐는데, 생각에서 없어져서 ..."(아동 #12)

또한 앞서 범주로 제시한 '에어른'을 경험했던 성인의 경우(성인 #18), 가족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집착하나 정작 본인 스스로의 꿈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의 빈곤아동의 미래의 모습 역시, 자칫 자신의

꿈의 실현보다 가족 부양자로서의 역할에 머물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 한 초등학교생 아동(#19)은 어렵게 사는 환경에서 자신이 돌봐야 할 부모가 자신의 꿈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제가 꿈을 이뤄도 엄마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아동 #19)

〈표 6-12〉 아동의 꿈과 전망의 범주화

| 영역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
|-----------------|------------------|---|---|
| 아동의 꿈과 전망 | 꿈을 설정하는 기준 | 집안의 경제력 부모의 부담 덜기 빠른 돈벌이 실현가능성 | 특성화고, 자녀 꿈이 벅찬 부모, 내 꿈은 패스트 푸드 매니저, 경제적으로 따라주지 않는 미안함, 재수는 못해, 그냥 취업해, 실패한 자책보다는 작은 성공. |
| | 꿈을 막는 것들 | 체념 가족 챙기기 | 자기 꿈보다 소중한 엄마, 생각해본 적 없는 꿈 |
| | 내 꿈의 상태 | 포기 지연 스스로 가둠 | 내 꿈은 휴전 상태 나중에 니가 돈벌어서 9급 공무원, 실패하기 싫음 |

자. 사회정책 체감

앞서 다루었듯이 빈곤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표출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주된 수요는 결국 아동 교육과 관련된 세심한 지원과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였다. 특히 이들에게 사교육은, 단순 생계비 위주의 지원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아동 발달과 기회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부모 세대에서 이루지 못한 인적자본 향상을 통한 탈빈곤이라는 측면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거는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이라고 답할 정도로, 아동 양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주거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왜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로는 진짜 특출나게 그거한 애들 빼고는 안 되더라구요, 그게, 내냐야 애들한테 내가 그랬거든, 영어를 잘 하려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고,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고 하니깐 단어 아니야! 요즘엔 문장으로 해, 그러더라고...” (성인 #1).

“제가 여유가 생기면요? 지금 상황으로는 주거문제는 어차피 그것은 큰 문제가 해

결 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소하게 해결 되어야 할 것은 아이들 교육..." (성인 #19).

또한 수학여행비 중 제외된 일부 교통비, 고교 석식비 지원, 사교육에 대한 욕구 등은 아동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세심한 고려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자랑 카드는 유용하게 쓰이긴 하는데, 스포츠강좌 같은 거는 아이들이 꼭 운동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카드보다도 우리 작은 아이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어해요, 옛날부터. 큰 아이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싶어하고, 저는 일반 사교육비 학원들, 그런 학원들 조금이나마, 반이라도 50%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인 #19)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수급 스티그마, 빈곤의 탓, 사각지대나 남용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과, 의료급여의 든든함이나 탈빈곤을 통한 탈수급 전망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수급자라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는 느낌(성인 #4), 돈을 벌어서 수급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오히려 일해서 돈을 모으면 안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제도(성인 #4), 진짜 도움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한다는 생각(성인 #7), 건강이 나빠도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안되는 안타까움(성인 #16), 고교생 석식비 지원이 안돼 몇 달씩 밀린 경험(성인 #16) 등의 빈곤층 내부자의 인식은 해가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혜자와 정책간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급여가 든든함을 얘기하거나(성인 #20), 내일키움통장과 사이버대학 공부를 병행하며 탈수급 계획을 계획하는 사례(성인 #19)의 경우, 제도의 보장성과 탈빈곤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예였다. 그렇지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서 함부로 탈수급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특히 아동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수급자 부모는 스티그마도 감내하면서라도 수급권을 유지하려 한다.

"(수급신청) 해봤는데, 우리 신랑이 깡당깡당 거리더라구요, 그래서 안 된대...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 ...타먹을 사람은 알아서 잘 타먹더라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나라에서 그걸 잘 캐치를 못하는 거 같더라고, 문제가 참 심각해." (성인 #7)

"(수급은) 쟁쟁한 거지, 어~ 쪽팔리고, 어디 뭐 아픈 사람이나 노인들이나 하는 거지 누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나 이거지," (성인 #21).

"저만 봤으면 수급자라는거 떼고 싶는데, 아이를 위해서는 유지를 하고 싶어요,, 저처럼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가장 큰 걱정은 대학등록금이거든요,,적어도 큰 애 졸업까지는 수급을 유지하고 싶고요..." (성인 #20).

이 외에도 빈곤가구에 노령의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키우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이나 장애 관련 복지 혜택을 받고 있었다.

〈표 6-13〉 사회정책 체감의 범주화

| 영역 | 범주 | 하위범주 | 개념 |
|---------|---------|---------------------------------------|--|
| 사회정책 체감 | 아동발달 관련 | 사교육, 주거 환경 | 학교에서 배우는 거, 특출난 애들 빼고 안돼, 수학 여행비, 석식비, 사교육비 지원, 주거문제는 큰 문제 |
| | 수급의 측면들 | 스티그마, 빈곤의 덧, 사각지대, 남용 든든함, 탈수급 전망, | 쪽팔리고, 누가 젊은 사람들이 그런걸, 타먹을 사람은, 아무리 재산 많아도, 떼고 싶는데, 아이를 위해서, 대학등록금, 의료급여, 내일키움통장, 탈수급 계획, |

2. 주제 분석

여기서는 앞서 개념의 범주화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발견들을 바탕으로, 빈곤경험의 핵심 주제를 전쟁과 같은 빈곤의 경험, 주거환경, 교육과 수저계급론, 애어른, 꿈꾸는 방법, 그래도 역시 가족이라는 여섯 가지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가. 전쟁과 같은 빈곤의 경험: 트라우마, 그리고 상대적 빈곤

다양한 빈곤 경로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경험은 빈곤이란 단순히 경제적 궁핍함을 넘어, 다양한 사건들과 환경이 최악으로 맞물려 떨어진, 그래서 바닥을 치는 경험에 이르는 심리적 트라우마(trauma)와 같은 것이라는 점이다. 부모에게 빈곤은 삶의 고단함과 무력감, 아동에 대한 죄책감을 수반하는 경험이었고, 때로는 아동이나 주어진 처지

에 대한 다양한 양가감정이 동반된 혼란스러운 경험이었다. 아동에게도 빈곤은 간헐적인 것, 정체성의 혼란, 북한으로 온 기분, 스스로의 꿈이 휴전상태가 되는 것과 같은 전쟁같은 경험이었고, 억지로라도 애어른이 되어서야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외상(外傷)과 같은 경험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경험이 의식주가 불가능한 절대적인 빈곤 상태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아동들은 용돈을 벌거나 타 쓰면서, 스스로가 절대적 빈곤에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친구나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박탈감, 즉 상대적 빈곤감이었다. 유행에 뒤처지는 자신, 학원이나 배우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경제적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들은 자신의 꿈과 진로를 수정하거나, 일탈적 사고나 행동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는 결국 꿈의 선택 기회의 박탈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나. 주거환경: 관리로서의 주거와 권리로서의 주거

아동빈곤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주요한 주제는 바로 주거환경이었다.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주거는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소통하고, 아동이 성장하는 터전이었다. 그러나 빈곤아동들은 대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성인의 실용적이고 관리적 사고 중심으로 이루어진 방배치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동들은 독립된 공간이 없이 거의 모든 가족 갈등과 걱정애 노출되어 있었고, 부모의 심리적 고통이 아동에게 전이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관리라는 개념으로 배치된 주거 환경은 자연스레 아동을 애어른을 만드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빈곤가구의 부모들에게도 잘 인지되고 있어, 가장 절실한 변화가 필요한 것을 물으면 주거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아동이 좋은 환경에서 나이에 맞는 발달과 성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리공간으로서의 주거가 아동의 권리중심으로서의 주거로서, 공간에 대한 사고가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 교육과 수저계급론: 금수저, 흙수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아동들이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수저계급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수저

계급론을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관련된 경험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흡수저 계급론을 설명할 수 있는 빈곤층의 경험들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이나 꿈의 선택과 같은 기회의 결핍을 가져오게 되어, 미래의 삶의 어려움과 연결될 수 있는 경험들이었다. 또한 경제력 이외에도 부모의 건강이나 교육 수준에 따른 지원 수준도 차이가 나고 있어,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과 고착화의 가능성 역시 드러나고 있었다. 부모 역시 지금의 환경에서 아동들이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아동 역시 ‘그냥(앞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인정하며, 가난이란 ‘자식에게 빗박에 물려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절규하기도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계층 고착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경험적으로 진술되고 있다는 점은, 다시금 이들 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접근을 요하고 있다.

라. 애어른: 어른스런 아이도 그저 아이일 뿐

양육과 가족관계에서 범주화되어 나타난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빈곤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경험들은, 빈곤가구 내에서 약화된 가족기능이나 부모의 역할의 틈새를 초래한다. 이때, 이러한 틈새를 메우고 가족의 체계를 유지하려는 아동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부모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거나 가사일을 돌보는 등의 부모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때로는 가구내의 어려움을 부모와 함께 나누고 고민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가족해체와 빈곤의 과정을 함께 겪은 아동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기둥이 되어주는 어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모화³⁹⁾나 배우자화 같은 형태로 ‘애어른’의 모습을 띠고 있는 아동들은, 자신의 삶이 가족가치의 실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자신을 가족의 욕구를 위해 희생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자신의 발달과정이 지연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석미정, 2016). 궁극적으로 부모나 형제로부터 충족시켜야 할 자신의 관심이나 욕구, 보살핌을 희생시키면서 세대 간의 경계가 침범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Hooper, 2007, 석미정(2016:55)에서 재인용)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사례들은 기능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

39) 정의에 따라서는 자녀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요구와 행위를 억압하면서 부모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부모, 친구, 배우자, 동반자, 위로자, 해결사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면화 되는 것 전체를 부모화(parentification)로 보기도 한다(Chase, 1999; Jurkovic, 1997; 석미정(2016:55)에서 재인용).

서도 가구 내에서 감당 못할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부부관계의 조정자의 역할이나, 동생과 엄마를 돌보는 가장의 역할, 남편처럼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모습이나 자신의 꿈보다는 엄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 등을 통해 ‘애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어른’은 실제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들은 무력감을 느끼는 등 오히려 자연스런 발달을 저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장하면서 부모의 권위나 양육을 벗어나며, 때로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족을 대하게 되기도 하였다.

엄마가 없으면 자신의 꿈도 소용이 없으며, 모든 것을 엄마를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아동이나, 어린시절 애어른으로 크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꿈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성인의 예는, 빈곤 환경에서 애어른화 되어가는 것은 대견하기보다 아동 발달 측면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성장기 아동에게 빈곤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른스런 아이는 그저 투정이 없을 뿐이다. 어른스레 보여야 할 환경에 적응했을 뿐이고, 착각어린 시선에 익숙해졌을 뿐이다. 어른스러운 아이도 그저 아이일 뿐이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2화, 덕선 나레이션 중에서).

마. 꿈꾸는 방법: 하면 되는 것보다는 되면 한다

상대적으로 결핍된 기회와 경제적 어려움, 그 안에서 애어른으로 자라나는 아동들은 주어진 경제형편의 경계 내에서 꿈을 제한하거나 보류하며, 보다 현실적인 탈빈곤을 목표로 꿈을 수정한다. 큰 꿈을 가지는 것은 부모에게 미안한 일이고, 부모 역시 지원하지 못하는 꿈에 대해서 아동에게 미안한, 즉 꿈이 서로가 미안한 일이 되기도 하였다. 연령대가 높은 아동들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실패하여 자책하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바란다. 부모들은 아동의 꿈이 좁아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부를 너무 잘하여 비싼 등록금(의대, 로스쿨)을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도 앞선다. 가능하고 안전한 꿈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험은 좋아하는 꿈을 찾아 시도해보겠다는 모험을 허락하기보다, 될 것 같은 꿈을 찾아 시도해보는, 안전한 꿈을 꾸게 만들고 있었다.

엄마, 꿈꿔서 미안해... 가난의 무게에 꿈마저도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아이들. 소중한 희망을 지켜주세요... 엄마와 딸은 서로에게 미안합니다.
(월드비전 국내아동 비전지원 캠페인: <http://www.worldvision.or.kr> 에서)

바. 그래도 역시 가족: 소소한 일상의 행복의 근원

아동빈곤은 부모가 아동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움을 가져오는 경험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모들이 힘든 경험을 견뎌내는 원천 역시 바로 아동들이었다. 부모들은 은연중에 아동들에게 부모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과 같은 어른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며, 아동들 역시 이러한 어른의 역할을 내면화하며 가족체계의 틈새를 메우고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부모님의 케어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가족이란, 스스로 홀로서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때로는 아동으로서 감당 못할 어른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에게 가족은, 그야말로 자신의 버팀목이며, 가족과의 소소한 일상의 기억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이었다. 이는 삶을 견디는 유일한 힘이 가족이라는 부모의 인식과 함께, 가족체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지를 통한 아동빈곤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5절 소결

본 연구는 빈곤가구(기초보장 수급 및 비수급 포함) 내의 성인(아동의 보호자로서 부모나 조부모)과 아동들에 대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빈곤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경험을 다차원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빈곤과정과 경험, 주거, 건강, 교육, 양육, 문화, 가족관계, 아동의 꿈과 전망, 사회정책 체감 차원에서 드러나는 빈곤의 경험을 내부자 관점에서 다루어, 아동빈곤을 보다 발견적이고 해석적으로 기술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빈곤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성인과 아동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범주분석과 주제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이 아홉가지 발견을 제

시하였다.

첫째, 빈곤과정과 경험은 빈곤이 단순한 경제적 궁핍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경험을 동반하는 것이며, 절대적 수준보다 상대적 수준의 빈곤, 즉 박탈감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열악한 주거 환경은 그 자체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스트레스가 된다. 더 나아가, 아동 인권과 발달 측면에서 보면, 관리 중심의 공간 배치는 아이답게 성장할 기회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건강은 곧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심리적 건강은 아동에게 전이될 수 있었다. 빈곤한 경제 여건은 아동들에게도 신체적, 심리적 위험을 야기하고 있었으나, 치료에 대한 부모의 접근성이 높지 않아 보였다.

넷째, 교육은 기회균등 차원에서 빈곤아동에게 더욱 중요한 탈빈곤 수단이 되어야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사교육이나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은 교육을 매개로 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우려하게 하였고, 이는 수저계급론을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로 보여진다.

다섯째, 양육에 있어서 빈곤가구의 부모들은 종종 주도권을 잃으며, 아동들은 어른 역할을 기대받기도 하지만, 감당 못할 어른 역할을 하며 성장하는 아동들은 자연스러운 성장 속도를 뛰어넘으며 이내 부정적인 발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는 애어른이란 주제로 도출되었다.

여섯째, 아동들의 문화와 여가의 활용은 가족 내에서 소소한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친구들과, 혹은 혼자하는 게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의 관여가 느슨해지면 게임중독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빈곤 경험은 부모들을 사회활동에서 수동적으로 변하게 만들거나 위축시키기도 하였다.

일곱째, 가족관계는 크게 가족기능의 틈새와 이를 메우는 부모화된 아동, 배우자화된 아동의 모습으로 요약되었다.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아동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 앞서 문화활동과 결부되어 가족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였다.

여덟째, 아동의 꿈과 전망은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스스로 꿈을 접거나 제한하는 모습,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요약되며, 이는 ‘하면 된다보다는 되면 한다’라는 주제로 도출되었다.

아홉째, 사회정책에 대한 체감은 아동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나 제도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교육과 주거에 대한 욕구를 세심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자 시각을 드러낸다.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스티그마, 근로유인의 뒤틀림, 사각지대, 남용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탈수급 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내부자의 목소리와 인식에 기반한 본 연구에서 아동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함의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미래세대를 키우는 빈곤가정을 위한 보다 세심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빈곤 및 양육스트레스로 에너지가 고갈된 부모에 대한 코칭, 부모교육, 심리지원의 확대를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 빈곤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적절한 주거기준과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거가 아동발달과 성장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공간 배치나 관리가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적절 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빈곤이 아동들의 인적자본 형성의 기회와 꿈의 선택을 가로막지 않도록, 보다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빈곤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교육 지원책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가능하도록 하고,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꿈을 접할 수 있도록, 꿈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끝으로, 빈곤아동들의 꿈을 지원하고, 동시에 경제관념을 키워주고 싶은 부모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아동발달계좌형(CDAs)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빈곤아동이 자신의 꿈을 목표로 계좌를 설립하고, 부모 혹은 고등학교 이상 아동 본인이 저축하도록 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아동 세대의 탈빈곤에 대한 기대와 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3 부

가구유형별 아동빈곤의 실태와 특성 분석

제7장 한부모 빈곤가구의 실태와 특성

제8장 다문화 빈곤가구의 실태와 특성

제9장 시설 빈곤아동의 실태와 특성

제 7 장

한부모 빈곤가구의 실태와 특성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제3절 한부모 빈곤가구의 실태 및 특성

제4절 소결

제1절 서론

이 장에서는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빈곤 특성을 살펴본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양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형태의 가족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아동들이 양부모가 아닌 가족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빈곤위험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대표적인 ‘근로빈곤층’이다.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김은지 외, 2015)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3년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의 절반수준의 소득, 1/4수준의 자산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부모가족은 ‘평균적으로’ 상대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빈곤특성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한부모가족’의 개념적 모호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는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성인자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대상으로서 미성년자녀인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가족’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조사하지 않아, 이 조사를 바탕으로 집계되는 각종 빈곤통계들은 ‘한부모가구’ 내에 주말부부 등의 분거가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빈곤과 관련된 각종 개념을 검토하고,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한부모가족 중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특성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한부모가구에는 빈곤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한부모가구의 특성과 빈곤가구의 특성이 혼재되어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본절에서는 한부모가구 내에서 빈곤 정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한부모가구의 특성 위에 중첩된 빈곤가구의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제2절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1. ‘한부모가구’와 ‘한부모가족’의 개념 검토⁴⁰⁾

가.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구’: 정책대상과 통계적 측정단위의 차이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가 실질적으로 배우자 없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많은 경우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구’는 통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중 상당수는 ‘한부모가구’의 형태로 살고 있지 않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예컨대 성인자녀와 노부모로 구성된 가구는 세대적 의미에서는 ‘한부모가구’이지만 정책적 의미에서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거지만 분리되는 주말부부도 조사시점의 가구형태는 ‘한부모가구’로 분류될 수 있으나, 정책적인 의미에서 ‘한부모가족’으로 보기 어렵다. 반대로, 한부모와 자녀 외에 다른 가구원(아동의 조부, 조모 등)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세대적 의미의 ‘한부모가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책적 관심대상으로서 한부모가족에는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인구통계적 의미에서 ‘한부모가구’ 수와 정책적 의미에서 ‘한부모가족’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은지 외(2013)의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재분석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이 집계한 세대적 의미에서의 ‘한부모가구’ 중 상당수는 미혼미성년을 키우지 않는, 즉 성인자녀와 노부모로 구성된 가구이다. 또한 18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62만 가구 중에서도 상당수가 주말부부와 같은 유배우 가구로서, ‘한부모가구’형태의 한부모가족은 38만 가구 수준이다. 반대로, ‘한부모가구’가 아닌 3세대 가구 등 기타가구 중에서도 미혼미성년 자녀와 그 부 또는 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1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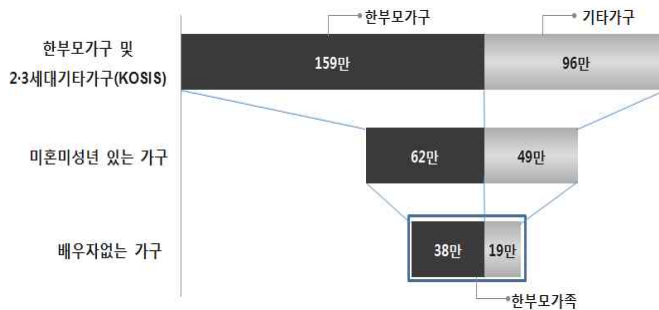
40) 2절은 2016년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2016.5.27.)에서 본 연구자가 발표한 「한부모가족의 빈곤추이와 결정요인」의 일부를 발췌,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표 7-1〉 한부모가구와 한부모가족 개념 비교

| 구분 | 한부모-자녀 외 다른가구원 유무 | 성인자녀 포함여부 | 한부모 혼인상태 유배우 포함 |
|------------------------------------|----------------------|----------------------------------|-----------------------------------|
| 한부모가구 (KOSIS) | 한부모-자녀로만 구성된가구 | 포함 | 포함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가구선정기준) | 기타가구원이 있는 경우 포함 | 비포함 (만18세미만 자녀, 취학시만22세미만) | 제외 (※ 유배우 중 실질부양 없는 경우는 포함) |

주: 김은지 외(2013: 11)에서 부분 발췌·수정

[그림 7-1]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 숫자 추정



자료: 김은지 외(2013),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표본추출을 위한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재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의미에서 ‘한부모가구’가 아닌, 정책적 의미로서 ‘한부모가족’ 개념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빈곤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 빈곤통계에 활용된 ‘한부모가구’ 개념

한편, 정책적 고려대상으로서 ‘한부모가족’과 인구통계적 의미의 ‘한부모가구’가 불일치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집계치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각종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한부모가족 빈곤을 추이자료가 상이한 경향을 보임에 주목하고, 각 통계의 ‘한부모가족/가구’ 범주를 검토하였다.

빈곤율에 대한 대표적인 국가통계를 제공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정은화·이주미, 2015)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재분석하여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빈곤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모두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한부모가구의 절대빈곤율은 전가구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한부모가구의 7.8%만이 절대빈곤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서 ‘한부모가구’는 0~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성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제외하였으나, ‘가계동향조사’가 가구주의 혼인지위를 조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말부부 등 분거가족이 한부모가구 내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부모가족이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보다 소득수준이 높음을 감안할 때,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이 과소추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한부모가구의 빈곤율 추이는 분거가족의 증가감소추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림 7-2] 한부모가구 절대적 빈곤율 추이
(정부 최저생계비 기준, 1인가구 포함, 농어가제외)



[그림 7-3] 한부모가구 상대적 빈곤율 추이
(중위소득 50%기준, 1인가구 포함, 농어가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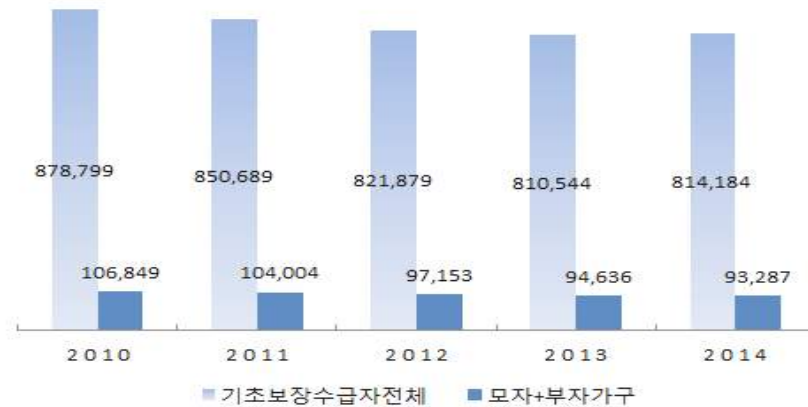
자료: 정은화·이주미(2015), 「빈곤통계연보」,
(통계청(2010~2014)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자료: 정은화·이주미(2015), 「빈곤통계연보」,
(통계청(2010~2014)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한편, 한부모가족의 빈곤율 추이를 보여줄 수 있는 행정집계자료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2010~2014)’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모자세대와 부자세대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생활보장 가구 분류체계 상에서 모자부자세대는 인구통계적인 의미가 강한 개념이다. 유배우가족은 모자부자세대에서 제외되지만, 자녀연령 제한은 따로 있지 않아 아동을 키우지 않는 가구(성인자녀와 노부모로 구성된 가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초보장수급을 받는 한부모가구의 감소추이는 성인만으로 구

성된 모자부자세대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4] 한부모가구 기초보장수급자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2014.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행정통계자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 자료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부모’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의미에서 아동을 배우자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대체로 외연이 일치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기초보장수급자 한부모의 숫자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의 숫자는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7-5] 한부모가족 기초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자 추이



자료: 여성가족부(2016),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서 재계산

이상 빈곤통계에서 활용된 ‘한부모가구’에 대한 정의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빈곤 통계에 활용된 각종 자료들은 성인자녀를 포함하거나, 주말부부 등 유배우가족을 포함하는 등 개념정의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이한 ‘한부모가구’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즉 정책적 의미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 생산에서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은 많은 OECD 국가들이 아동을 중심으로 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아동중심이 아닌 세대 중심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혜영 외, 2015).

〈표 7-2〉 한부모가구 빈곤통계에 사용된 한부모가족 개념 비교

| 구분 | 한부모-자녀 외 다른가구원 유무 | 성인자녀 포함여부 | 한부모 혼인상태 유배우 포함 |
|--------------------------------|----------------------|----------------------------------|-----------------------------------|
| 빈곤통계연보 (‘가계동향조사’ 재분석) | 한부모-자녀로만 구성된가구 | 비포함 (만18세미만 자녀) | 포함 |
| 보건복지 통계연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통계) | 한부모-자녀로만 구성된가구 | 포함 | 제외 |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행정통계 | 기타가구원이 있는 경우 포함 | 비포함 (만18세미만 자녀, 취학시만22세미만) | 제외 (※ 유배우 중 실질부양 없는 경우는 포함) |

주: 김은지 외(2013: 11)의 틀에 기반하여 제작성: 보건복지통계연보 및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행정통계는 담당자 통화내용 반영

본 연구는 보다 명확하게 아동을 ‘실질적으로’ 배우자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빈곤현황에 따른 생활실태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단, 원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와 자녀 만으로 구성된 가구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른 가구원이 없이 한부모가구 형태로 살고 있는 한부모 가족만을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자료와 빈곤정의 방식은 다음 장에서 설명된다.

2. 분석자료: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법정 조사통계인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이다. 이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기반한 통계로서, 정책적 대상으로서 ‘한부모가족’의 범주와 대체로 일치하는 정책대상을 조사하고 있다. 즉 ‘부 또는 모가 실질적으로 배우자 없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아동이 없는 가구, 한부모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가구를 제외하였고, 한부모와 자녀 외의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⁴¹⁾.

〈표 7-3〉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 개념 비교

| 구분 | 한부모-자녀 외 다른가구원 유무 | 성인자녀 포함여부 | 한부모 혼인상태 유배우 포함 |
|-------------------------------|----------------------|----------------------------------|-----------------------------------|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가구선정기준 | 기타가구원이 있는 경우 포함 | 비포함 (만18세미만 자녀, 취학시만22세미만) | 제외 (※ 유배우 중 실질부양 없는 경우는 포함) |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2, 2015) | 기타가구원이 있는 경우 포함 | 만18세미만, 취학시 만19세미만 | 유배우 제외 |

주: 김은지 외(2013: 11)에서 부분 발췌·수정

해당 조사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분포에 따라 비례층화표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저소득층 과대표집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 행정통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

41)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자녀연령은 만18세 미만으로 설정하였으며, 취학중인 경우에는 만 18세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만 19세 이상 자녀를 취학중인 자녀만 포함할 경우, 대학생 자녀가구를 주로 포함하게 되어 계층지위 등에서 대표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취학중인 아동은 18세까지만 포함되도록 하여 고등학생 자녀는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김은지외, 2013: 25). 또한 유배우 중 실질적인 부양이 없는 경우는 상당한 증빙이 있어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배우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숫자에 따른 할당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2012년, 2015년 두차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료인 2015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아동 가구와 비빈곤아동 가구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타가구원이 없이 한부모가구만으로 구성된 가구만을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대한 기존 논의가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부모와 자녀가 기타가구원 없이 생활할 때 더욱 분명하게 한부모가족으로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한부모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 분석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
 - * 기타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 * 미성년자녀는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19세 미만
 - * 유배우 제외
- 분석자료: 여성가족부(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3. 분석변수: 빈곤정의 방법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변수인 빈곤여부 변수는 한부모가구 지원정책의 성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기타 비빈곤 한부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단계로 구분된다. 즉, 가장 빈곤한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있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차상위·차차상위 계층을 대상(중위소득 52%, 청소년인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0%)으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물론 2015년 기초생활보장정책이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이전의 명확한 구분은 다소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빈곤한 계층과 그보다는 다소 나은 차상위·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단계적 지원구분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7-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실종신고,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소득인정액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기준>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3, 40-43.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해서는 성인한부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표 7-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내용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 만 12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중위소득 52%)이하인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만 5세 이하의 아동
- 지원내용: 1인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1인당 연 5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가구 아동 1인당 지원액: 월 150,000원(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1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5만원만 지급)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촉진수당>

- 지원대상
 -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시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100,000원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3

이러한 구분에 따라 본 절에서는 가장 빈곤한 한부모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 한부모가구를, 중간 수준의 한부모가구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또는 차상위급여를 지원 받는 가구를, 그 외 빈곤하지 않은 가구로 일반 한부모가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지원가구는 정책적 지원에 따른 분류이기는 하지만, 정의상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중위소득 50%’의 수준보다는 소득수준이나 포괄범위가 다소 넓다. 이후 분석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한부모가족은 ‘수급 한부모’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또는 차상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로, 그 외 지원을 받지 않는 한부모가족은 ‘비빈곤 한부모’로 서술하였다.

〈표 7-6〉 본 절의 빈곤층 정의

| 개념 | 정의 |
|---------|--|
| 수급 한부모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이상 수급한 가구) |
| 저소득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또는 차상위지원 가구 |
| 비빈곤 한부모 | 기초생활보장이나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대상이 아닌 가구 |

제3절 한부모 빈곤가구의 실태 및 특성

1. 일반적 특성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한부모의 기본적인 분포를 보면, 수급 한부모는 전체 한부모가구의 15.2%, 저소득 한부모는 29.0%, 비빈곤 한부모는 55.8%로 약 절반 정도의 한부모가구가 기초생활보장지원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7〉 지원 종류에 따른 한부모가구 비율

(단위: %, 가구)

| 구분 | 비율 (사례수) |
|---------|----------------|
| 수급 한부모 | 15.2 (260) |
| 저소득 한부모 | 29.0 (496) |
| 비빈곤 한부모 | 55.8 (956) |
| 합계 | 100.00 (1,712)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에 따른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자가구일수록 수급 한부모가 많고, 부자가구일수록 비빈곤 한부모가 많아서 명확한 성별 대비를 보여준다.

〈표 7-8〉 한부모 성별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모자 | 83.8 | 77.0 | 63.6 | 70.5 |
| 부자 | 16.2 | 23.0 | 36.4 | 29.5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에 따른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0대가 가장 많은 가운데,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30대 이하가 가장 많고, 수급 한부모와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상대적

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을 받는 차상위·차차상위 계층에 젊은 한부모가구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연령 분포는 자녀 연령 분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많고, 수급 한부모와 비빈곤 한부모에 상대적으로 중학생 이상 자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7-9〉 한부모 연령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30대 이하 | 19.0 | 24.6 | 18.0 | 20.1 |
| 40대 | 63.7 | 60.7 | 64.9 | 63.5 |
| 50대 이상 | 17.3 | 14.7 | 17.1 | 16.4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표 7-10〉 가장 어린 자녀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미취학 | 13.0 | 13.7 | 10.5 | 11.8 |
| 초등학생 | 25.5 | 36.7 | 27.7 | 30.0 |
| 중학생이상 | 61.5 | 49.6 | 61.8 | 58.2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한부모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혼이 가장 많은 가운데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수급 한부모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기타’가 많은 것을 나타나고 있다. ‘기타’에는 미혼, 배우자의 실종,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이 포함된다.

〈표 7-11〉 한부모 혼인상태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이혼 | 73.9 | 79.8 | 75.3 | 76.4 |
| 사별 | 15.3 | 14.2 | 17.8 | 16.4 |
| 기타 | 10.8 | 6.0 | 7.0 | 7.3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과 한부모의 학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졸이하가 가장 많은 가운데, 수급 한부모에 상대적으로 중졸이하 저학력이 많고, 비빈곤 한부모에 상대적으로 대학이상 고학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비빈곤 집단일수록 고학력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분명한 경향이 발견된다.

〈표 7-12〉 한부모 학력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중졸이하 | 13.8 | 6.9 | 6.4 | 7.7 |
| 고졸이하 | 67.6 | 68.0 | 62.6 | 64.9 |
| 대학이상 | 18.6 | 25.0 | 31.0 | 27.4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별로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가구원수는 2.6명으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지만 빈곤할수록 가구원수는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3〉 가구원 수

(단위: 명)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가구원 수 평균 | 2.7 | 2.7 | 2.6 | 2.6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빈곤특성별로 한부모가 된 기간을 살펴보면, 수급 한부모의 경우 10년 이상이 가장 많은 반면, 저소득 한부모나 비빈곤 한부모는 5~10년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은 한부모가구가 분포하고 있었고,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5년 미만인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즉, 더 빈곤층일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4〉 한부모가 된 기간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5년 미만 | 22.4 | 29.3 | 33.1 | 30.4 |
| 5~10년 미만 | 36.5 | 41.7 | 41.7 | 40.9 |
| 10년 이상 | 41.1 | 29.1 | 25.3 | 28.7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2. 소득 및 경제활동

빈곤특성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빈곤층일수록 소득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수급 한부모의 경우 평균 소득은 약 118만원,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평균소득은 약 137만원,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평균 소득은 약 20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수급 한부모에 비해 비빈곤 한부모의 소득수준은 약 2배(173.1%) 수준이다⁴²⁾.

〈표 7-15〉 소득수준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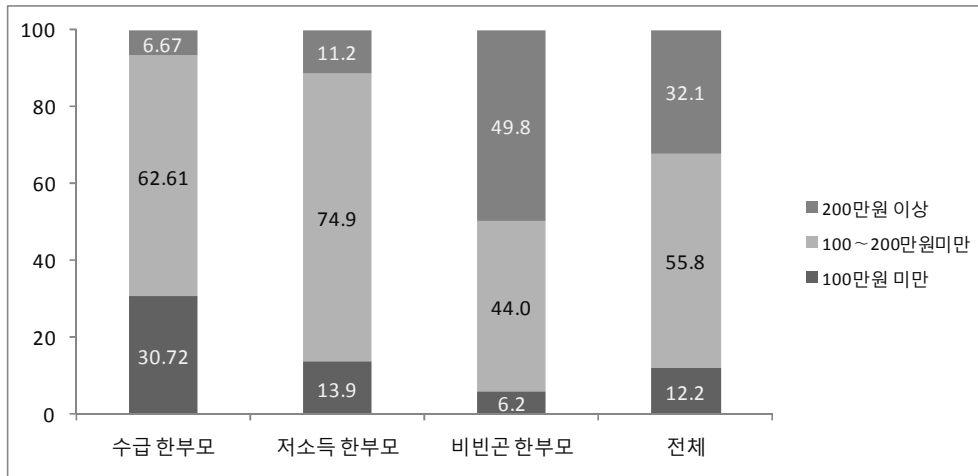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평균 | 117.8 | 136.5 | 203.9 | 171.3 |
| 100만원 미만 | 30.7 | 13.9 | 6.2 | 12.2 |
| 100~200만원미만 | 62.6 | 74.9 | 44.0 | 55.8 |
| 200만원 이상 | 6.7 | 11.2 | 49.8 | 32.1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42) 실제로,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들은 소득을 과소보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Edin & Lein, 1997; 김은지, 2016에서 재인용).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가구소득은 단일문항으로 묻고, 지출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물어 총합을 구한 후 가구소득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소득문항의 신뢰성을 한 번 더 점검하여 조사하고 있으나(김은지, 2016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이 다소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7-6] 한부모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빈곤특성에 따라 주 소득원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본인 근로소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수급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1/3 이상인 36.0%로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저소득 한부모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주 소득원이라는 응답은 6.0%에 불과하여 낮은 수준의 차상위·차차상위 지원으로는 주소득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6〉 주 소득원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본인 근로소득 | 58.4 | 87.0 | 92.6 | 85.8 |
| 전 배우자의 양육비 | 1.9 | 2.9 | 2.0 | 2.2 |
| 같이사는 가구원근로 | 0.8 | 0.8 | 0.6 | 0.7 |
| 가족, 친지 도움 | 1.9 | 2.0 | 1.9 | 1.9 |
| 정부지원 | 36.0 | 6.0 | 0.9 | 7.7 |
| 저축, 보험 해약 | 0.6 | 1.4 | 1.0 | 1.1 |
| 금융기관대출 | 0.4 | 0.0 | 0.1 | 0.1 |
| 사채 등 개인적 빚 | 0.0 | 0.0 | 0.1 | 0.1 |
| 기타 | 0.0 | 0.0 | 0.8 | 0.4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빈곤특성에 따른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 소득수준과 마찬가지로 지출수준도 빈곤 할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보다는 수급 한부모와 비빈곤 한부모의 지출수준 격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빈곤 한부모의 월평균 총지출은 약 160만원으로, 수급 한부모의 월평균 총지출인 약 109만원의 140.0% 수준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비빈곤 한부모의 지출액이 높은 가운데, 특히 자녀교육비에서 빈곤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비빈곤 한부모의 지출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녀를 위한 투자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전반적인 지출액의 경향과는 달리 ‘주거관리비’는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월세 등 불안정하며 단기비용이 소요되는 주거형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7-17〉 월평균 지출

(단위: 만원)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식료품비 | 37.2 | 37.0 | 49.2 | 43.9 |
| 의류/신발/가정용품 | 8.9 | 9.3 | 12.9 | 11.2 |
| 자녀 교육비 | 12.7 | 18.7 | 29.8 | 24.0 |
| 자녀 외 가족 교육비 | 1.9 | 1.7 | 3.5 | 2.8 |
| 주거관리비 | 22.8 | 24.8 | 23.1 | 23.6 |
| 의료비 및 보험료 | 4.5 | 3.7 | 4.9 | 4.5 |
| 교통 통신비 | 14.5 | 16.0 | 19.8 | 17.9 |
| 문화 생활비 | 3.8 | 4.3 | 6.6 | 5.5 |
| 기타 | 3.2 | 6.3 | 9.9 | 7.8 |
| 총액 | 109.4 | 121.7 | 159.8 | 141.1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이와 같은 경향은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에 대한 응답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수급 한부모는 ‘식료품비’, ‘주거관리비’라는 응답이 절대수준으로도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저소득 한부모나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자녀교육비’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7-18〉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식료품비 | 51.1 | 41.4 | 47.8 | 46.5 |
| 의류/신발/가정용품 | 0.6 | 2.5 | 1.2 | 1.5 |
| 자녀 교육비 | 15.2 | 22.5 | 28.8 | 24.9 |
| 자녀 외 가족 교육비 | 2.8 | 1.6 | 2.4 | 2.2 |
| 주거관리비 | 22.9 | 26.4 | 12.7 | 18.2 |
| 의료비 및 보험료 | 1.8 | 0.9 | 0.7 | 1.0 |
| 교통 통신비 | 5.5 | 2.9 | 4.3 | 4.1 |
| 문화 생활비 | 0.0 | 0.0 | 0.1 | 0.1 |
| 기타 | 0.2 | 1.8 | 1.9 | 1.6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평균 자산액과 부채액 응답을 살펴보면,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빈곤층일수록 확연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빈곤 한부모의 금융자산은 1,444만원으로 수급 한부모의 금융자산 310만원의 약 7배, 비빈곤 한부모의 부동산은 8,476만원으로 수급 한부모의 부동산 1,324만원의 약 6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자산에서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채의 경우 오히려 차상위·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가구가 가장 높아, 가계부채의 위험부담이 가장 높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9〉 평균 자산액 및 부채액

(단위: 만원)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금융자산 | 310.2 | 404.6 | 1,443.6 | 970.5 |
| 부동산 | 1,324.0 | 2,632.4 | 8,476.1 | 5,696.2 |
| 부채 | 1,168.5 | 1,709.8 | 1,388.2 | 1,447.6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부채가 있는 가구 중 빚을 지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수급 한부모의 경우 ‘생활비’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반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주거비 마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다.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생활비’와 ‘주거비 마련’이라는 응답이 유사하였고, ‘사업실패’라는 응답도 세 번째로 많아 상대적으로 다른 집

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7-20〉 빚을 지게 된 이유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주거비 마련 | 25.3 | 34.1 | 45.7 | 38.7 |
| 자녀 교육비 | 6.3 | 6.2 | 5.1 | 5.6 |
| 가족 의료비 | 3.4 | 0.8 | 2.1 | 1.9 |
| 생활비 | 48.9 | 35.8 | 32.5 | 36.1 |
| 사업실패 | 12.9 | 19.4 | 12.4 | 14.7 |
| 직장을 그만 두어서 | 1.7 | 0.4 | 0.7 | 0.8 |
| 기타 | 1.7 | 3.3 | 1.6 | 2.2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들의 전체 취업률은 86.7%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수급 한부모의 경우 61.1%만이 취업하고 있었고,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87.7%,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93.2%였다. 한부모가 된 당시에 한부모가 되기 1년 전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현재의 취업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한부모가 된 이후에 취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21〉 취업률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현재 | 61.1 | 87.7 | 93.2 | 86.7 |
| 한부모가 된 당시 | 46.8 | 53.4 | 65.5 | 59.1 |
| 한부모가 되기 1년전 | 43.4 | 46.9 | 61.0 | 54.2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절반 이상이 상용근로자인 반면, 수급 한부모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미우 낮고,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가 된 당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고용지위가 안정적이며, 특히 수급 한부모와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수급 한부모와 저소

득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 된 당시에는 고용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었으나, 한부모가 된 이후 임시·일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진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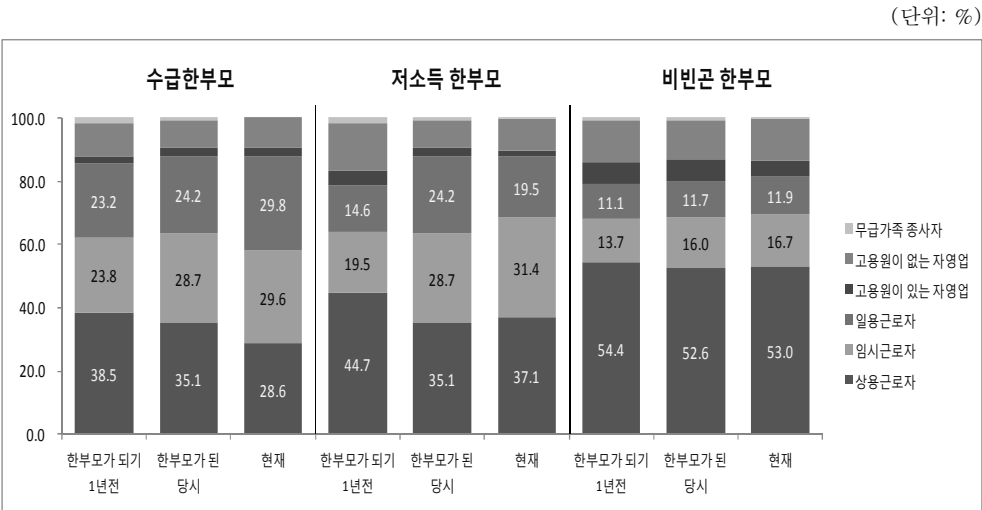
〈표 7-22〉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현재 | 상용근로자 | 28.6 | 37.1 | 53.0 | 45.7 |
| | 임시근로자 | 29.6 | 31.4 | 16.7 | 22.4 |
| | 일용근로자 | 29.8 | 19.5 | 11.9 | 16.0 |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 2.7 | 1.6 | 5.1 | 3.8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 9.3 | 10.3 | 13.3 | 12.0 |
| | 무급가족 종사자 | 0.0 | 0.1 | 0.1 | 0.1 |
| 한부모가 된 당시 | 상용근로자 | 35.1 | 45.9 | 52.6 | 48.7 |
| | 임시근로자 | 28.7 | 22.8 | 16.0 | 19.3 |
| | 일용근로자 | 24.2 | 14.6 | 11.7 | 14.0 |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 2.7 | 3.2 | 6.8 | 5.4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 8.6 | 12.3 | 12.4 | 11.9 |
| | 무급가족 종사자 | 0.7 | 1.2 | 0.6 | 0.8 |
| 한부모가 되기 1년전 | 상용근로자 | 38.5 | 44.7 | 54.4 | 50.0 |
| | 임시근로자 | 23.8 | 19.5 | 13.7 | 16.4 |
| | 일용근로자 | 23.2 | 14.6 | 11.1 | 13.5 |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 2.5 | 4.4 | 6.7 | 5.6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 10.2 | 15.4 | 13.2 | 13.4 |
| | 무급가족 종사자 | 1.8 | 1.4 | 0.9 | 1.1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7-7] 한부모가구의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한부모 취업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수급 한부모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에 다수 분포되어 있는 반면, 비빈곤 한부모는 서비스 종사자,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23〉 취업자의 직업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관리자 | 3.9 | 3.4 | 3.3 | 3.4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2.0 | 2.9 | 1.8 | 2.1 |
| 사무종사자 | 8.3 | 13.8 | 20.2 | 17.1 |
| 서비스종사자 | 40.5 | 33.3 | 29.1 | 31.6 |
| 판매종사자 | 13.4 | 16.0 | 19.3 | 17.7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0.0 | 0.3 | 0.4 | 0.3 |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6.8 | 9.8 | 10.6 | 10.0 |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 2.1 | 1.6 | 3.3 | 2.7 |
| 단순노무종사자 | 23.2 | 18.9 | 12.1 | 15.3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빈곤특성별로 취업자의 부업여부를 살펴보면, 수급 한부모일수록 부업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즉 수급 한부모일수록 안정적이거나 충분한 임금수준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업 비율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24〉 취업자의 부업 여부

| (단위: %) | | | | |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그렇다 | 8.8 | 7.3 | 4.8 | 6.0 |
| 아니다 | 91.2 | 92.7 | 95.2 | 94.1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취업자의 근로소득 수준은 앞서 가구소득 수준과 마찬가지로 빈곤층일수록 낮고, 비빈곤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급 한부모 중 취업자의 근로소득은 약 106만원, 비빈곤 한부모 중 취업자의 근로소득은 약 196만원으로, 비빈곤 한부모의 근로소득은 수급 한부모 근로소득의 약 2배(185.3%) 수준이다.

〈표 7-25〉 취업자의 근로소득 수준

| (단위: 만원, %) | | | | |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근로소득 평균 | 105.6 | 125.4 | 195.8 | 165.5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취업자의 현재 어려운 점을 질문한 결과, 수급 한부모들은 ‘낮은 임금’과 ‘불투명한 직업전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비빈곤 한부모들은 ‘일가족병행으로 육체적 피로’, ‘자녀양육시간 부족’, ‘장시간 근로’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즉 수급 한부모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 소득부족 문제가 가장 큰 반면, 비빈곤 한부모들은 시간부족과 육체적 피로 등 시간부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26〉 취업자의 현재 어려운 점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자녀양육시간부족 | 14.3 | 19.1 | 20.3 | 19.3 |
| 일하는 시간대비 낮은 임금 | 39.7 | 31.6 | 25.0 | 28.6 |
| 장시간근로 | 8.2 | 7.3 | 12.2 | 10.3 |
| 불투명한 직업전망 | 18.0 | 17.5 | 13.5 | 15.2 |
| 일가족 병행으로 육체적 피로 | 16.0 | 20.5 | 22.1 | 21.0 |
| 자녀를 돌봐줄 사람 구하기 어려움 | 3.2 | 2.9 | 4.7 | 4.0 |
|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 0.0 | 1.1 | 2.2 | 1.6 |
| 기타 | 0.6 | 0.0 | 0.0 | 0.1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3. 주거

한부모가족의 빈곤특성별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특성에 따라 주거 안정성은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자기집’과 ‘전세’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비하여, 수급 한부모와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보증부 월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공공임대’가 다음 순이었다. 즉 비수급 한부모일수록 안정적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27〉 거주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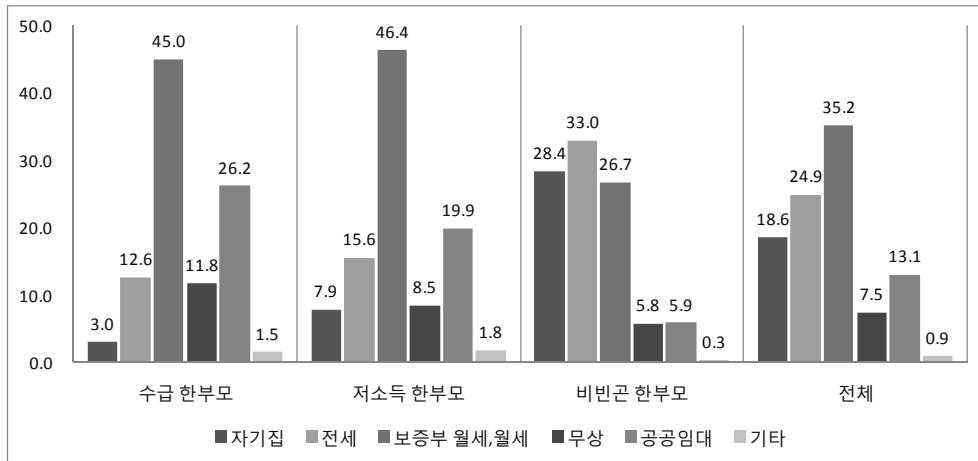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자기집 | 3.0 | 7.9 | 28.4 | 18.6 |
| 전세 | 12.6 | 15.6 | 33.0 | 24.9 |
| 보증부 월세 | 42.5 | 43.0 | 24.6 | 32.6 |
|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2.5 | 3.4 | 2.1 | 2.6 |
| 무상으로 가족/친지집 | 11.3 | 7.8 | 4.9 | 6.7 |
| 무상으로 친구집 | 0.5 | 0.7 | 0.9 | 0.8 |
| 공공임대 | 26.2 | 19.9 | 5.9 | 13.1 |
| 기타 | 1.5 | 1.8 | 0.3 | 0.9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7-8]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별 주거 현황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거주하고 있는 주택형태로는,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차상위·차차상위계층인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28〉 주택형태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단독주택 | 22.9 | 27.1 | 19.7 | 22.3 |
| 아파트 | 47.3 | 37.9 | 49.6 | 45.9 |
| 연립/다세대 주택 | 27.6 | 32.0 | 27.9 | 29.1 |
| 기타 | 2.2 | 3.1 | 2.8 | 2.8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주택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한부모가구가 지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한부모의 경우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거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7-29〉 주택위치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지상 | 91.9 | 94.5 | 94.2 | 93.9 |
| 반지하 | 3.6 | 3.5 | 3.5 | 3.5 |
| 지하 | 4.2 | 1.8 | 2.2 | 2.4 |
| 옥상(옥탑) | 0.5 | 0.2 | 0.1 | 0.2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더 빈곤할수록 주거면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급 한부모와 저소득 한부모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비빈곤 한부모는 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7-30〉 주거면적

(단위: m²)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평균 주거면적 | 55.3 | 57.0 | 66.1 | 61.8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4. 교육과 양육

한부모가족의 교육 및 양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돌봄 방법을 살펴보면, 수급 한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확연히 높고, 상대적으로 직접 돌본다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유치원 이용확률도 상당히 높으며, 학원이나 친인척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조적인 돌봄 방법을 살펴보면, 수급 한부모의 경우 대부분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 학원, 친인척, 민간베이비시터 등 다양한 인적자원과 경제적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확인된 것처럼 빈곤 한부모는 소득부족의 문제, 비빈곤 한부모는 시간부족의 문제가 더 큰 것과 연

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표 7-31〉 미취학 자녀 돌봄 방법(1순위)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보육시설(어린이집) | 73.7 | 67.6 | 67.2 | 68.4 |
| 유치원 | 6.7 | 16.5 | 23.4 | 18.3 |
| 학원 | 1.3 | 0.0 | 1.1 | 0.8 |
| 조부모 | 1.5 | 0.0 | 0.7 | 0.6 |
| 친인척 | 0.0 | 0.0 | 1.6 | 0.8 |
| 본인 직접 돌봄 | 16.9 | 16.0 | 6.1 | 11.2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표 7-32〉 미취학 자녀 돌봄 방법(2순위)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보육시설(어린이집) | 3.4 | 4.4 | 0.6 | 2.3 |
| 유치원 | 3.8 | 4.3 | 3.3 | 3.7 |
| 학원 | 0.0 | 5.6 | 8.7 | 6.4 |
| 조부모 | 6.5 | 15.1 | 24.9 | 18.9 |
| 친인척 | 5.4 | 3.9 | 8.4 | 6.5 |
| 아이돌봄서비스 | 0.0 | 6.3 | 11.0 | 7.8 |
| 민간베이비시터 | 0.0 | 0.0 | 2.0 | 1.0 |
| 학습지/방문과외 | 1.9 | 5.8 | 0.7 | 2.6 |
| 본인 직접 돌봄 | 76.6 | 53.1 | 40.3 | 50.1 |
| 기타 | 2.4 | 1.5 | 0.0 | 0.8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 일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수급 한부모의 경우에는 혼자보내는 시간이 없는 반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28%에 해당하는 한부모가 미취학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당한 돌봄공백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표 7-33〉 일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미취학)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있다 | 2.9 | 12.4 | 28.1 | 18.6 |
| 없다 | 97.1 | 87.6 | 72.0 | 81.4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초등자녀가 있는 경우 돌봄 방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초등 돌봄/방과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수급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에는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조적인 돌봄 방법에 대해서도 수급 한부모의 경우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비빈곤 한부모들은 학원이용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34〉 초등자녀 돌봄 방법(1순위)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초등돌봄/방과후 교실 | 47.8 | 53.0 | 49.9 | 50.7 |
| 지역 아동센터 | 15.6 | 13.2 | 6.5 | 10.2 |
| 학원 | 13.7 | 13.6 | 25.7 | 19.7 |
| 조부모 | 3.7 | 1.7 | 5.4 | 3.9 |
| 친인척 | 0.0 | 0.8 | 1.4 | 1.0 |
| 아이돌봄서비스 | 0.0 | 0.4 | 0.0 | 0.2 |
| 민간베이비시터 | 0.5 | 0.0 | 0.0 | 0.1 |
| 학습지/방문과외 | 0.6 | 0.9 | 2.1 | 1.5 |
| 본인 직접 돌봄 | 18.2 | 15.5 | 8.1 | 12.2 |
| 기타 | 0.0 | 0.8 | 0.8 | 0.7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표 7-35〉 초등자녀 돌봄 방법(2순위)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초등돌봄/방과후 교실 | 10.5 | 8.2 | 10.6 | 9.8 |
| 지역 아동센터 | 9.5 | 6.9 | 5.1 | 6.3 |
| 학원 | 21.4 | 25.8 | 33.3 | 29.2 |
| 조부모 | 0.8 | 4.6 | 7.0 | 5.4 |
| 친인척 | 3.2 | 3.7 | 3.7 | 3.7 |
|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 2.0 | 0.9 | 2.3 | 1.8 |
| 학습지/방문과외 | 6.7 | 10.9 | 9.9 | 9.8 |
| 본인 직접 돌봄 | 43.7 | 38.7 | 27.9 | 33.5 |
| 기타 | 2.3 | 0.3 | 0.3 | 0.6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초등자녀가 일과 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앞서 미취학아동과 마찬가지로 더 빈곤할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는 비율이 낮고, 빈곤하지 않을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아동이 있는 비빈곤 한부모가구의 약 71%가 초등아동이 일과후 혼자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7-36〉 일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초등)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있다 | 46.0 | 63.4 | 71.3 | 65.0 |
| 없다 | 54.0 | 36.6 | 28.7 | 35.0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중고등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중고등자녀가 일과 후에 보내는 활동을 질문한 결과, 수급 한부모가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들은 TV 등 미디어시청, 게임·컴퓨터, 숙제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비빈곤 한부모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원’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2순위에 대해서도 수급 한부모 가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중고등 자녀들은 ‘쉬거나 잠’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보다 빈곤한 한부모가구의 중고등자녀들은 집에서 스스로

하는 활동 중심으로 일과를 보내는 반면, 비빈곤 한부모가구의 중고등자녀들은 비용이 소요되는 조직화된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37〉 일과후 활동(중고등, 1순위)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TV/라디오/음악/책 | 33.7 | 33.1 | 28.3 | 30.5 |
| 게임/컴퓨터 | 20.3 | 22.0 | 18.2 | 19.6 |
| 형제/친구와 놀기 | 6.7 | 6.4 | 5.4 | 5.9 |
| 가사돕기/가족돌봄 | 0.8 | 2.9 | 0.5 | 1.2 |
| 쉬거나 잠 | 5.8 | 2.4 | 4.2 | 4.0 |
| 숙제 등 공부 | 21.4 | 17.3 | 18.7 | 18.7 |
| 학원/과외 | 8.9 | 15.2 | 22.8 | 18.5 |
| 프로그램참여(청소년시설 등) | 1.4 | 0.3 | 0.2 | 0.4 |
| 아르바이트 | 0.7 | 0.5 | 1.4 | 1.0 |
| 기타 | 0.3 | 0.0 | 0.4 | 0.3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표 7-38〉 일과후 활동(중고등, 2순위)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TV/라디오/음악/책 | 28.5 | 27.4 | 25.1 | 26.3 |
| 게임/컴퓨터 | 20.0 | 28.5 | 24.8 | 25.1 |
| 형제/친구와 놀기 | 8.7 | 11.0 | 8.8 | 9.4 |
| 가사돕기/가족돌봄 | 3.1 | 1.3 | 2.8 | 2.4 |
| 쉬거나 잠 | 13.2 | 11.1 | 7.8 | 9.6 |
| 숙제 등 공부 | 22.3 | 18.1 | 22.6 | 21.3 |
| 학원/과외 | 3.0 | 0.8 | 6.2 | 4.2 |
| 프로그램참여(청소년시설 등) | 0.4 | 0.4 | 0.2 | 0.3 |
| 아르바이트 | 0.3 | 0.9 | 1.1 | 0.9 |
| 봉사활동/종교활동 | 0.4 | 0.4 | 0.5 | 0.5 |
| 기타 | 0.3 | 0.0 | 0.0 | 0.0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중고등 자녀들이 일과 후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앞서 더 어린 자

녀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빈곤할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9〉 일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중고등)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있다 | 44.8 | 58.5 | 59.7 | 57.0 |
| 없다 | 55.2 | 41.5 | 40.3 | 43.0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5. 건강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별로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수급 한부모일수록 나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저소득 한부모의 건강이 나쁘다는 비율이 높고, 비빈곤 한부모가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정도를 질문한 ‘활동 제한율’의 경우에도, 빈곤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 즉 ‘우울증상 경험률’도 빈곤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40〉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매우 좋다 | 5.0 | 7.3 | 6.8 | 6.7 |
| 좋은 편이다 | 40.1 | 56.4 | 68.9 | 60.9 |
| 나쁜 편이다 | 43.9 | 33.0 | 22.0 | 28.5 |
| 매우 나쁘다 | 11.0 | 3.3 | 2.4 | 3.9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표 7-41〉 활동 제한율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그렇다 | 23.7 | 8.9 | 6.9 | 10.0 |
| 아니다 | 76.3 | 91.1 | 93.1 | 90.0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표 7-42〉 우울증상 경험율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있다 | 32.0 | 19.8 | 17.8 | 20.5 |
| 없다 | 68.0 | 80.2 | 82.2 | 79.5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특히, 우울증상을 경험한 한부모들에게 우울시 해결방법을 질문한 결과, 수급 한부모들은 혼자서 참는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저소득 한부모나 비빈곤 한부모들의 경우 술을 마신다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빈곤 한부모들의 경우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긍정적으로 우울함을 발산하는 비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3〉 우울시 해결방법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혼자서 참는다 | 63.5 | 49.5 | 53.7 | 54.8 |
|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 9.5 | 16.4 | 12.2 | 12.7 |
| 술을 마신다 | 12.2 | 22.7 | 20.7 | 19.2 |
|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한다 | 2.5 | 1.5 | 6.6 | 4.2 |
|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다 | 9.1 | 7.1 | 6.2 | 7.1 |
| 지역사회전문가와 상담한다 | 0.7 | 0.0 | 0.6 | 0.5 |
| 기타 | 2.6 | 2.8 | 0.0 | 1.4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건강검진의 종류별로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을 살펴보면, 비빈곤 한부모들은 본인부담 건강검진이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높은 반면, 수급 한부모들은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표 7-44〉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건강검진 종류별)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 8.1 | 9.3 | 12.5 | 10.9 |
|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 4.1 | 8.3 | 13.3 | 10.5 |
|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 39.2 | 45.1 | 56.7 | 50.7 |
| 무료 건강검진 | 31.6 | 25.7 | 23.5 | 25.4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병원이용을 하지 못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 저소득 한부모일수록 가지 못 한 비율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또는 수급 한부모의 70% 이상이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하여, 경제적 빈곤이 병원이용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에는 ‘진료시간이 일하는 시간과 겹쳐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시간부족의 문제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7-45〉 1년간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있음 | 26.6 | 25.1 | 18.1 | 21.4 |
| 없음 | 73.4 | 74.9 | 81.9 | 78.6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표 7-46〉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경제적 이유 | 70.5 | 55.2 | 45.3 | 53.4 |
| 병의원 등에 예약하기 힘들어서 | 0.2 | 1.2 | 2.0 | 1.4 |
| 교통편이 불편해서 | 0.7 | 0.0 | 0.4 | 0.3 |
| 진료시간이 일하는 시간과 겹쳐서 | 15.7 | 29.2 | 36.4 | 30.1 |
| 병의원 등에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 0.6 | 2.1 | 4.0 | 2.7 |
| 증상이 가벼워서 | 5.5 | 8.4 | 6.2 | 6.8 |
| 큰병이 있을까 겁이 나서 | 5.4 | 2.8 | 3.8 | 3.7 |
| 기타 | 1.4 | 1.0 | 2.1 | 1.6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한편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는 가운데, 수급 한부모는 67%가, 비빈곤 한부모는 55%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아 빈곤한 한부모일수록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47〉 규칙적인 운동 빈도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전혀 하지 않는다 | 67.4 | 66.3 | 54.8 | 60.1 |
| 한달에 2~3번 정도 | 7.9 | 9.2 | 13.1 | 11.2 |
| 일주일에 1번 | 7.6 | 7.9 | 12.5 | 10.5 |
| 일주일에 2번 | 5.6 | 5.9 | 5.9 | 5.8 |
| 일주일에 3번 | 3.4 | 4.1 | 5.1 | 4.6 |
| 일주일에 4번 | 2.0 | 1.2 | 3.2 | 2.4 |
| 일주일에 5번 | 0.3 | 1.6 | 1.9 | 1.6 |
| 일주일에 6번 | 0.3 | 0.3 | 0.4 | 0.4 |
| 매일 | 5.4 | 3.5 | 3.2 | 3.6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6. 사회적 지지망과 차별

한부모가구의 사회적 지지망을 살펴본 결과, 빈곤수준이 높을수록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망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있는 경우, 아이가 아픈 경우, 정보나 조언을 얻고 싶은 경우 등 모든 경우에서 수급 한부모가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부모 및 친인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았다. 부모 및 친인척을 제외한 ‘친구’, ‘공공기관’ 등 기타 항목의 경우에는 ‘정보나 조언을 얻고 싶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중 자체가 낮고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한국의 한부모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48〉 한부모가구의 사회적 지지망(상황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기관)

(단위: %)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 | 부모 및 친인척 | 39.6 | 49.4 | 57.0 | 52.1 |
| | 기타(친구, 공공기관 등) | 11.1 | 12.0 | 10.3 | 10.9 |
| | 없다 | 49.3 | 38.7 | 32.7 | 37.0 |
|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 부모 및 친인척 | 47.6 | 47.7 | 58.8 | 53.9 |
| | 기타(친구, 공공기관 등) | 11.5 | 16.2 | 15.4 | 15.0 |
| | 없다 | 41.0 | 36.1 | 25.8 | 31.1 |
|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있는 경우 | 부모 및 친인척 | 51.5 | 58.0 | 64.6 | 60.6 |
| | 기타(친구, 공공기관 등) | 18.1 | 16.9 | 17.1 | 17.2 |
| | 없다 | 30.4 | 25.1 | 18.4 | 22.2 |
|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긴급한 일이 있는 경우 | 부모 및 친인척 | 51.1 | 58.9 | 65.1 | 61.2 |
| | 기타(친구, 공공기관 등) | 16.8 | 15.1 | 17.4 | 16.7 |
| | 없다 | 32.1 | 26.0 | 17.5 | 22.2 |
| 정보나 조언을 얻고 싶은 경우 | 부모 및 친인척 | 37.4 | 38.7 | 46.0 | 42.6 |
| | 기타(친구, 공공기관 등) | 36.8 | 41.5 | 39.1 | 39.4 |
| | 없다 | 25.8 | 19.9 | 14.9 | 18.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한부모가구가 경험한 차별을 살펴보면, 본인이 느끼는 차별과 자녀가 느끼는 차별, 차별의 장소를 막론하고 수급 한부모의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저소득 한부모와 비빈곤 한부모의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있다. 즉 수급 한부모들이 느끼는 차별 인식은 한부모로서의 차별 뿐 아니라 수급자로서의 차별 인식이 더해져 보다 큰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저소득 한부모 지원 여부는 차별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7-49〉 한부모가구의 차별경험

| | | (단위: %) | | | |
|-----------|----------------|---------|---------|---------|------|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본인, 동네 | 차별을 받지 않았다 | 69.6 | 74.1 | 71.4 | 71.9 |
| | 차별을 받았다 | 19.0 | 13.5 | 16.1 | 15.8 |
| | 한부모가족임을 밝히지 않음 | 11.4 | 12.5 | 12.5 | 12.3 |
| 본인, 학교 | 차별을 받지 않았다 | 76.8 | 79.3 | 77.0 | 77.6 |
| | 차별을 받았다 | 20.2 | 15.5 | 17.1 | 17.1 |
| | 한부모가족임을 밝히지 않음 | 3.0 | 5.3 | 6.0 | 5.3 |
| 본인, 가족 | 차별을 받지 않았다 | 73.9 | 80.9 | 79.8 | 79.2 |
| | 차별을 받았다 | 24.0 | 16.0 | 16.3 | 17.4 |
| | 한부모가족임을 밝히지 않음 | 2.0 | 3.1 | 4.0 | 3.4 |
| 본인, 직장 | 차별을 받지 않았다 | 72.2 | 78.1 | 78.7 | 77.6 |
| | 차별을 받았다 | 16.3 | 14.0 | 12.9 | 13.7 |
| | 한부모가족임을 밝히지 않음 | 11.5 | 7.9 | 8.4 | 8.7 |
| 본인, 공공 기관 | 차별을 받지 않았다 | 78.1 | 81.2 | 81.5 | 80.9 |
| | 차별을 받았다 | 18.6 | 15.2 | 12.3 | 14.1 |
| | 한부모가족임을 밝히지 않음 | 3.3 | 3.7 | 6.3 | 5.1 |
| 자녀, 동네 | 차별을 받지 않았다 | 70.9 | 76.1 | 73.4 | 73.8 |
| | 차별을 받았다 | 16.7 | 12.4 | 15.6 | 14.8 |
| | 한부모가족임을 밝히지 않음 | 12.4 | 11.5 | 11.0 | 11.4 |
| 자녀, 학교 | 차별을 받지 않았다 | 71.6 | 78.4 | 75.3 | 75.6 |
| | 차별을 받았다 | 23.5 | 16.3 | 18.8 | 18.8 |
| | 한부모가족임을 밝히지 않음 | 4.9 | 5.4 | 5.9 | 5.6 |
| 자녀, 가족 | 차별을 받지 않았다 | 79.2 | 82.3 | 83.4 | 82.4 |
| | 차별을 받았다 | 16.7 | 13.8 | 11.8 | 13.1 |
| | 한부모가족임을 밝히지 않음 | 4.1 | 3.9 | 4.8 | 4.5 |

주: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의 합, '차별을 받았다'는 '차별을 받은 편이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의 합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7. 양육비와 전 배우자와의 관계

한편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가구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와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생활영역이 될 수 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우선, 현재 한부모들이 양육비 정기지급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수급 한부모일수록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의 비율이 높았고, 저소득 한부모와 비빈곤 한부모들은 ‘정기지급’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7-50〉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 형태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정기지급 | 17.1 | 22.3 | 22.5 | 21.6 |
| 일시+정기지급 | 0.7 | 0.2 | 0.3 | 0.3 |
| 일시지급 | 0.7 | 1.7 | 2.2 | 1.8 |
| 주고받지않기로함 | 45.5 | 41.7 | 47.0 | 45.1 |
|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 36.1 | 34.2 | 28.0 | 31.2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법적으로 양육비를 정기지급받기로 한 한부모 중 실제로 최근 1년간 양육비를 받은 형태를 살펴보면, 수급 한부모의 경우 정기지급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비율 자체도 낮지만,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과반에 가까운 44.1%가 실제로 양육비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51〉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자 중 최근 1년간 양육비를 받은 형태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정기 지급 | 50.3 | 58.3 | 61.4 | 59.0 |
| 부정기 지급 | 5.6 | 13.6 | 15.2 | 13.5 |
| 받은 적 없음 | 44.1 | 28.2 | 23.4 | 27.5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한 빈곤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수급 한부모가구의 경우,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비빈곤 한부모가구의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 ‘미이행자 처벌 강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수급 한부모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주는 비율도 매우 낮고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인 대지급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이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는 것을 보다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5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 60.1 | 53.3 | 51.0 | 53.1 |
|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역할강화 | 19.0 | 21.9 | 24.1 | 22.6 |
| 미이행자 처벌강화 | 20.9 | 24.5 | 24.9 | 24.2 |
| 기타 | 0.0 | 0.4 | 0.0 | 0.1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전 배우자와의 연락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급 한부모의 경우,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전체의 1/3을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나타나고 있다. 즉 수급 한부모의 경우 전 배우자와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반면, 비빈곤 한부모들은 전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7-53〉 자녀와 전 배우자 연락 방식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 7.0 | 12.7 | 14.5 | 12.8 |
|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 22.7 | 27.4 | 29.3 | 27.7 |
| 편지, 이메일, 전화 연락만 하고 있다 | 7.3 | 8.1 | 7.0 | 7.4 |
|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듣는다 | 3.2 | 2.8 | 4.7 | 3.9 |
| 연락을 원하지 않아 연락하지 않는다 | 23.3 | 24.0 | 22.2 | 22.9 |
|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 36.5 | 25.0 | 22.3 | 25.3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표 7-54〉 한부모와 전 배우자 연락 방식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 1.9 | 3.4 | 5.2 | 4.1 |
|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다 | 13.1 | 17.1 | 21.8 | 19.0 |
| 편지, 이메일, 전화 연락만 하고 있다 | 6.6 | 9.6 | 8.4 | 8.5 |
| 양가 친척 등을 통해 소식만 전해듣는다 | 3.4 | 3.4 | 5.7 | 4.6 |
| 연락을 원하지 않아 연락하지 않는다 | 40.0 | 42.1 | 37.2 | 39.2 |
|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 35.1 | 24.4 | 21.7 | 24.6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8. 전반적 어려움과 지원 욕구

한부모가족이 된 후 변화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 한부모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부모 역할을 혼자 감당해야 함’, ‘자녀양육 등 집안일의 부담 증가’ 등에서 수급 한부모와 저소득 한부모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건강상태가 나빠짐’, ‘미래에 대한 부담이 커짐’ 등에서는 수급 한부모의 ‘그렇다’ 응답이 확연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부모가 족이 된 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오히려 수급 한부모와 저소득 한부모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녀와 긴밀해짐’에 대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 ‘일가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 짐’에 대해서는 수급 한부모가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7-55〉 한부모가족이 된 후 변화

(단위: %)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부모 역할을 혼자 감당해야 함 | 그렇지 않다 | 3.6 | 4.3 | 6.4 | 5.4 |
| | 보통이다 | 7.9 | 9.0 | 13.7 | 11.5 |
| | 그렇다 | 88.4 | 86.7 | 79.9 | 83.2 |
| 자녀양육 등 집안일의 부담 증가 | 그렇지 않다 | 7.3 | 7.4 | 8.5 | 8.0 |
| | 보통이다 | 13.3 | 12.1 | 15.0 | 13.9 |
| | 그렇다 | 79.4 | 80.5 | 76.6 | 78.2 |
|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 그렇지 않다 | 39.5 | 47.2 | 47.7 | 46.3 |
| | 보통이다 | 30.3 | 29.0 | 28.9 | 29.1 |
| | 그렇다 | 30.3 | 23.8 | 23.4 | 24.6 |
| 건강상태가 나빠짐 | 그렇지 않다 | 24.5 | 39.6 | 36.5 | 35.6 |
| | 보통이다 | 30.0 | 28.8 | 35.5 | 32.7 |
| | 그렇다 | 45.6 | 31.6 | 28.0 | 31.7 |
| 미래에 대한 부담이 커짐 | 그렇지 않다 | 5.6 | 7.4 | 10.9 | 9.1 |
| | 보통이다 | 12.0 | 14.8 | 17.1 | 15.7 |
| | 그렇다 | 82.3 | 77.8 | 72.0 | 75.3 |
| 자녀와 긴밀해짐 | 그렇지 않다 | 11.3 | 10.2 | 12.1 | 11.4 |
| | 보통이다 | 39.4 | 34.5 | 40.5 | 38.6 |
| | 그렇다 | 49.3 | 55.4 | 47.5 | 50.1 |
| 일가친척으로부터 자유로워 짐 | 그렇지 않다 | 24.5 | 23.6 | 25.5 | 24.8 |
| | 보통이다 | 48.2 | 51.5 | 48.8 | 49.5 |
| | 그렇다 | 27.3 | 24.9 | 25.7 | 25.7 |

주: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의 합, ‘그렇다’는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합.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전반적으로 필요한 지원 영역을 질문한 결과, 수급 한부모의 경우 압도적으로 ‘현금 지원’의 비율이 높았고,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현금지원’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주거

지원'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에는 '의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인식개선' 등 다양한 영역의 응답도 나타나고 있었다. 2순위 지원에 대해서는 수급 한부모의 경우 '주거지원', '의료지원'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56〉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 79.2 | 68.9 | 59.5 | 65.2 |
|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 2.6 | 2.7 | 8.1 | 5.7 |
|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 2.1 | 2.4 | 7.6 | 5.3 |
|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 9.1 | 19.2 | 13.3 | 14.4 |
| 직업훈련/취업/학업 계속 지원 | 3.4 | 2.6 | 4.7 | 3.9 |
|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등 법률지원 | 1.6 | 2.6 | 1.3 | 1.7 |
| 사회적인식/차별개선 | 0.7 | 0.6 | 4.4 | 2.8 |
| 부모교육/상담지원 | 0.9 | 0.4 | 1.0 | 0.8 |
| 자조모임 | 0.0 | 0.0 | 0.1 | 0.1 |
| 기타 | 0.4 | 0.7 | 0.0 | 0.2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표 7-57〉 필요한 지원(2순위)

(단위: %)

| 구분 | 수급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 | 비빈곤 한부모 | 전체 |
|--------------------|--------|---------|---------|-------|
|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 | 13.4 | 18.5 | 17.2 | 17.0 |
|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 22.1 | 16.8 | 20.9 | 19.9 |
|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 7.6 | 11.2 | 11.8 | 11.0 |
|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 32.9 | 32.3 | 23.2 | 27.3 |
| 직업훈련/취업/학업 계속 지원 | 11.9 | 12.3 | 10.3 | 11.1 |
|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등 법률지원 | 5.7 | 3.8 | 4.0 | 4.2 |
| 사회적인식/차별개선 | 4.2 | 3.4 | 7.3 | 5.7 |
| 부모교육/상담지원 | 1.7 | 1.4 | 4.4 | 3.1 |
| 자조모임 | 0.5 | 0.0 | 0.8 | 0.5 |
| 기타 | 0.0 | 0.4 | 0.1 | 0.2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빈곤특성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본 장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빈곤과 관련된 각종 개념을 검토하고, 한부모가족 중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특성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빈곤통계에 활용된 각종 자료들은 성인자녀를 포함하거나, 주말부부 등 유배우가족을 포함하는 등 개념정의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이한 ‘한부모가구’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즉 정책적 의미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 생산에서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다 명확하게 아동을 ‘실질적으로’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조사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한부모가구는 빈곤수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지원 한부모(‘수급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저소득 한부모’), 기타 지원받지 않는 한부모(‘비빈곤 한부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특성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모자가구일수록 수급 한부모가 많고, 부자가구일수록 비빈곤 한부모가 많아서 명확한 성별 대비를 보이고 있다. 연령 분포로는 전반적으로 40대가 가장 많은 가운데, 저소득 한부모에 상대적으로 30대가 많고,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젊은 한부모가구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로는 전반적으로 이혼이 가장 많고 평균 가구원수는 2.6명으로 혼인상태와 평균가구원수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수준으로는 전반적으로 고졸이 가장 많은 가운데, 비빈곤 집단일수록 고학력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분명한 경향이 발견된다. 한부모가 된 기간을 살펴보면, 더 빈곤층일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이다. 소득수준은,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빈곤층일수록 소득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빈곤특성에 따라 주 소득원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본인 근로소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수급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1/3 이상이였다. 월평균 지출액 또한 빈곤할수록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비빈곤 한부모의 지출액이 높은 가운데, 특히 자녀교육비에서 빈곤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비빈곤 한부모의 지출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녀를 위한 투자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평균 자산액과 부채액 응답을 살펴보면,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빈곤층일수록 확산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채의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구가 가장 높았다. 부채가 있는 가구 중 빚을 지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수급 한부모의 경우 ‘생활비’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반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주거비 마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다.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들의 전체 취업률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수급 한부모의 경우 약 61%만 취업하고 있었다. 한부모가 된 당시와 한부모가 되기 1년전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현재의 취업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한부모가 된 이후에 취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절반 이상이 상용근로자인 반면, 수급 한부모의 경우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급 한부모와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 된 당시에는 고용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었으나, 한부모가 된 이후 임시·일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진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수급 한부모일수록 안정적이거나 충분한 임금수준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업 비율도 높았다. 취업자의 근로소득 수준은 앞서 가구소득 수준과 마찬가지로 빈곤층일수록 낮고, 비빈곤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의 현재 어려운 점으로는, 수급 한부모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 소득부족 문제가 가장 큰 반면, 비빈곤 한부모들은 시간부족과 육체적 피로 등 시간부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별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특성에 따라 주거안정성은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자기집’과 ‘전세’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비하여, 수급 한부모와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보증부 월세’와 ‘공공임대’가 많아 주거가 불안정하였다. 또한 수급 한부모의 경우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주거면적도 작아 주거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교육과 양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를 돌보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수급 한부모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직접 돌보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 유치원 이용확률도 상당히 높고, 학원이나 친인척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 학원, 민간베이비시터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확인된 것처럼 빈곤 한부모는 소득부족의 문제, 비빈곤 한부모는 시간부족의 문제가 더 큰 것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초등자녀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등돌봄/방과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수급 또는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빈곤 한부모는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 자녀에 대해서는 일과 후에 보내는 활동을 질문한 결과, 수급 한부모가 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들은 TV등 미디어시청, 게임·컴퓨터, 숙제, ‘쉬거나 잠’ 등 집에서 스스로 하는 활동 중심으로 일과를 보내는 반면, 비빈곤 한부모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원’이라는 응답이 높아 비용이 소요되는 조직화된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과 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미취학, 초등, 중고등 모두 수급 한부모일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비빈곤 한부모일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비빈곤 한부모가구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는 28%, 초등 아동은 71%, 중고등 아동은 60%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다섯째, 한부모가구의 빈곤특성별로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강상태, 활동 제한율, 우울증상 경험률 등 모든 영역에서 수급 한부모일수록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이나 활동도 빈곤한 한부모일수록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우울증상을 경험한 한부모 중 수급 한부모일수록 혼자 참는 비율이 높았고,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수급 한부모들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보다는 무료건강검진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높았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병원이용을 하지 못한 경험

이 높았고, 특히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수급 한부모의 70%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빈곤이 병원이용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에는 ‘진료시간이 일하는 시간과 겹쳐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시간부족의 문제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망과 차별에 대한 분석이다. 한부모가구의 사회적 지지망을 살펴본 결과, 빈곤수준이 높을수록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망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있는 경우, 아이가 아픈 경우, 정보나 조언을 얻고 싶은 경우 등 모든 경우에서 수급 한부모가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한부모가구가 경험한 차별을 살펴보면, 본인이 느끼는 차별과 자녀가 느끼는 차별, 차별의 장소를 막론하고 수급 한부모의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부모로서의 차별 뿐 아니라 수급자로서의 차별 인식이 더해 보다 큰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저소득 한부모 지원 여부는 차별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이혼 또는 미혼한부모가구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와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생활영역이 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권리와 관련해서, 수급 한부모일수록 법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는 비율이 높았으며,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절반 정도가 실제로 양육비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한 빈곤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수급 한부모는 정부가 실질적인 대지급을 해주기를 바라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비빈곤 한부모는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는 것을 보다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배우자와의 연락여부를 살펴보면 수급 한부모의 경우 전 배우자와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반면, 비빈곤 한부모들은 전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어려움과 지원 욕구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이 된 후 변화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 한부모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부모 역할을 혼자 감당해야 함’, ‘자녀양육 등 집안일의 부담 증가’, ‘형

제·자매·친척과 멀어짐’, ‘건강상태가 나빠짐’, ‘미래에 대한 부담이 커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수급 한부모의 ‘그렇다’ 응답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지원 영역을 질문한 결과, 수급 한부모의 경우 압도적으로 ‘현금 지원’의 비율이 높았고,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현금지원’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주거 지원’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빈곤 한부모의 경우에는 ‘의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인식개선’ 등 다양한 영역의 응답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한부모 빈곤가구의 아동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빈곤 한부모가구의 아동은 비빈곤 한부모가구 아동에 비해 교육적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할수록 한부모의 학력자본도 이미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빈곤한 가구의 자녀교육비 지출수준은 비빈곤 가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빈곤한 가구의 아동들은 미취학의 경우 어린이집, 초등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기능이 강한 곳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아동들은 미취학의 경우 어린이집, 초등의 경우 학원 등 교육기능이 보다 강한 곳을 많이 이용하였다. 중고등자녀의 경우에도 빈곤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집에서 스스로 하는 활동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빈곤하지 않은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학원 등 비용이 소요되는 조직화된 활동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았다. 즉 빈곤한 한부모가구의 자녀들은 미취학시기부터 중고등학생 시기까지 교육활동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는 아동기 전반에 걸쳐 누적되어 성인이 된 후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산층 이상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교육활동 몰입 또한 사회문제가지만, 한쪽에서는 이와 같은 집중된 교육투자를 받고 있는데 비해 빈곤 한부모가족 아동들은 생애 전반에서 교육투자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적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지나친 사교육 경쟁이 규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부모가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빈곤 수준에 따라 가장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건강영역이었다. 빈곤 한부모일수록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이용도 제한이 많았으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도 높았다.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여 수급 한부모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나, 역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한부모는 혼자서 일

과 가족생활을 모두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강수준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부모의 건강수준은 자녀의 복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빈곤 한부모에 대한 의료적 지원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수급 한부모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등의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으나,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자녀에게는 차상위 지원으로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지지만 한부모에게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김은지, 황정임, 최인희, 2013).

셋째, 빈곤차이에 따른 소득수준, 자산수준, 주거상황의 차이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빈곤할수록 현재 소득수준은 낮고, 저축액이 작아 자산수준도 낮으며, 자산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거상황도 열악하였다. 빈곤하지 않은 한부모들의 경우에는 부채가 있더라도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가 많은 반면, 빈곤한 한부모들은 생활비를 위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의 격차는 더욱 누적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나 주거지원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부모들은 전형적인 근로빈곤층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높이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중 저축 등 자산형성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부모가족은 아동을 키우는 가족으로서, 주거환경이 성인들만으로 구성된 가구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아 안전한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기는 쉽지 않고,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 내에 포함은 되지만 순위자 내의 가점 경쟁에서 가구원수 점수로 인해 선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인과 아동의 가구원 수는 배점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순위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넷째,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차별수준이 높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망도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빈곤한 한부모들은 더 차별을 많이 느끼고 사회적 지지망도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와 친인척 외의 사회적 지지망은 적절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발굴하는 한편, 사회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인식개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하지 않은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빈곤한 한부모가구보다 어려움을 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부족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아동이 일과 후에 혼자 보내는 시간은 아동의 나이를 불문하고 빈곤 가구보다 비빈곤 가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간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돌봄의 틈새를 메워주는 정책이 꼼꼼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지원에는 소득수준보다 한부모가족 여부가 더 중요한 지원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

제 8 장

다문화 빈곤가구의 실태와 특성

제1절 서론

제2절 다문화가구와 아동: 개념과 분석 방법

제3절 다문화가구 및 아동: 인구 추이

제4절 다문화가구 아동의 현황 분석

제5절 다문화가구 자녀(9~17세)의 사회적 배제

제6절 소결

제1절 서론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외국인의 증가는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인구 변화 중의 하나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체류외국인은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1,899,519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한다⁴³⁾. 또한 행자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의 3.4%에 해당하는 1,741,919명의 외국인 주민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⁴⁴⁾. 이처럼 우리 사회 안에서 생활을 공유하는 주민 100명 중 3~4명이 이주민 또는 이주배경을 지닌 주민이라는 점은 아동지원 정책 차원에서도 주목해야 할 현실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주민과 체류외국인의 인권과 사회권, 그리고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더불어 이주 배경을 지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김이선 외, 2009; 신현옥 외, 2012; 이해원 외, 2010; 양경은, 함승완, 2015).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저수준의 낮은 출산율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과 이주민은 경제성장을 지탱해줄 생산인력으로써, 그리고 사회의 재생산을 담보해줄 새로운 시민이자 사회구성원으로써 정책의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 예로, 설동훈 외(2009)는 2020년이 되면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의 수는 35만 명, 자녀는 30여 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결혼이민자 외에 다른 외국인 이주민,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를 모두 합하면 270여 만 명으로 증가, 2020년에는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이주민 비율이 5.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주민은 국경을 넘는 이동이 증가하는 지구화 시대에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minority) 집단이다. 그 중에서도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은 이중적 의미에서 사회적

43) “2015년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사상최고”, 법무부 참고자료 (2016. 1. 22) (www.immigration.go.kr)

44) 행자부, 외국인주민 통계. (출처) ‘외국인 주민’ 통계에는 귀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약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출입국 정책은 미숙련 노동자의 장기거주나 정착,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주배경 아동 중에서도 합법적인 정책 수요층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국제결혼 가족, 즉 ‘다문화가족’에서 양육하는 아동으로 국한된다. ‘아동빈곤예방법’ 상의 지원대상 아동에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포함된 것은 이주배경의 아동이 처해있는 중첩된 어려움과 취약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복지 교육 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떠한 사회적 배제 내지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실태 파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들을 경제적 취약층으로 표상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이민자와 한국인 남성 배우자로 구성된 가족은 농촌과 도시의 저소득층에 많으며, 이들의 안정적 가족생활 및 자녀 양육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은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이민배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배제 내지 박탈을 경험할 수 있는데, 문화적 차이가 경제적 빈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김안나(2014)는 가구 유형에 따라 빈곤과 배제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손가구, 한부모 가구, 그리고 다문화가구의 빈곤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영역을 소득 배제, 완전노동 배제, 부분노동 배제, 의료 배제, 주거 배제, 교육 배제, 관계망 배제, 정보/사회서비스 배제 등 8가지로 구분하고, 가구 유형별로 배제의 범위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 가구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배제위험이 높지만 특히 노동에서의 배제가 높게 나타난 반면, 다문화가구의 경우 관계망에서의 배제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다문화가구의 배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지지 연결망의 형성이 중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다문화가구의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 문제는 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아동에 대한 관심은 주로 공교육 접근성과 학교 적응, 기초교육역량 지원, 한국어 교육 등 학교에서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실 학교 교육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인권과 사회권은 학교생활이나 학업 성취로 결코 환원될 수 없으며, 보다 포괄적이고 다

차원적인 접근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은 다문화 아동이 처한 빈곤과 박탈의 위험,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들을 과도하게 단순화 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족과 아동의 일상생활은 이주배경 부모의 출신국에 따라, 결혼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결혼 이후의 가족관계에 따라, 아동의 연령에 따라, 그리고 부모의 경제생활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다문화가족, 그리고 이주배경 아동에 내재한 다양성을 간과한 채 국제결혼 가족과 그 아동 전체를 하나의 취약 집단으로 스테레오타입화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을 대상화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입시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교육현실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진로 설계를 어렵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중 45.2%는 자신의 모국으로 자녀를 유학시킬 의사를 갖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한국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들은 자녀를 국제적 인재로 키우기 위해 이민자 모국으로의 유학 및 모국 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김이선, 이아름, 황정미, 2014). 이처럼 한국의 학교생활에서 약점으로 작용하는 이주 배경이 역으로 이 아동들의 유학 계획이나 국제적 진로 모색에서는 강점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빈곤과 사회적 박탈을 예방하고 아동의 다양한 삶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의 실태 및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다문화가족(다문화가구)과 아동의 개념 및 범위, 이들에 대한 기존 지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다문화가구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먼저 인구 센서스와 외국인주민 통계에 나타나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구 추이 및 연령구성별 특징 등을 고찰한다. 또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 원자료를 재분석 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특성, 다문화가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특성, 그리고 이민 배경을 지닌 부모의 특성, 그리고 다문화가구 자녀들의 다양한 인식 및 차별 경험 등을 분석한다.

제2절 다문화가구와 아동: 개념과 분석 방법

1. 다문화가족/ 다문화가구 아동의 개념

“다문화가족”은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사실상 한국 최초의 정주형 이주자로 유입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용어로 도입되었다. 서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표현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다르다. 즉,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며, 그 범위가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개정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제정될 당시 다문화가족은 출생시부터 한국국적을 지니고 있었던 한국인과 외국인(결혼이민자)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였다. 이후 법 개정과정에서 출생 및 귀화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도 포함하게 되었다(황정미 2012).

이처럼 다문화가족은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준으로 마련된 개념이다. 그런데 실태조사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은 생계를 공유하는 동거 가구원으로 구성된다면 면에서 ‘다문화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15년부터 다문화가구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다문화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주로 다문화가구라는 용어를 쓰되 문맥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구를 혼용하여 사용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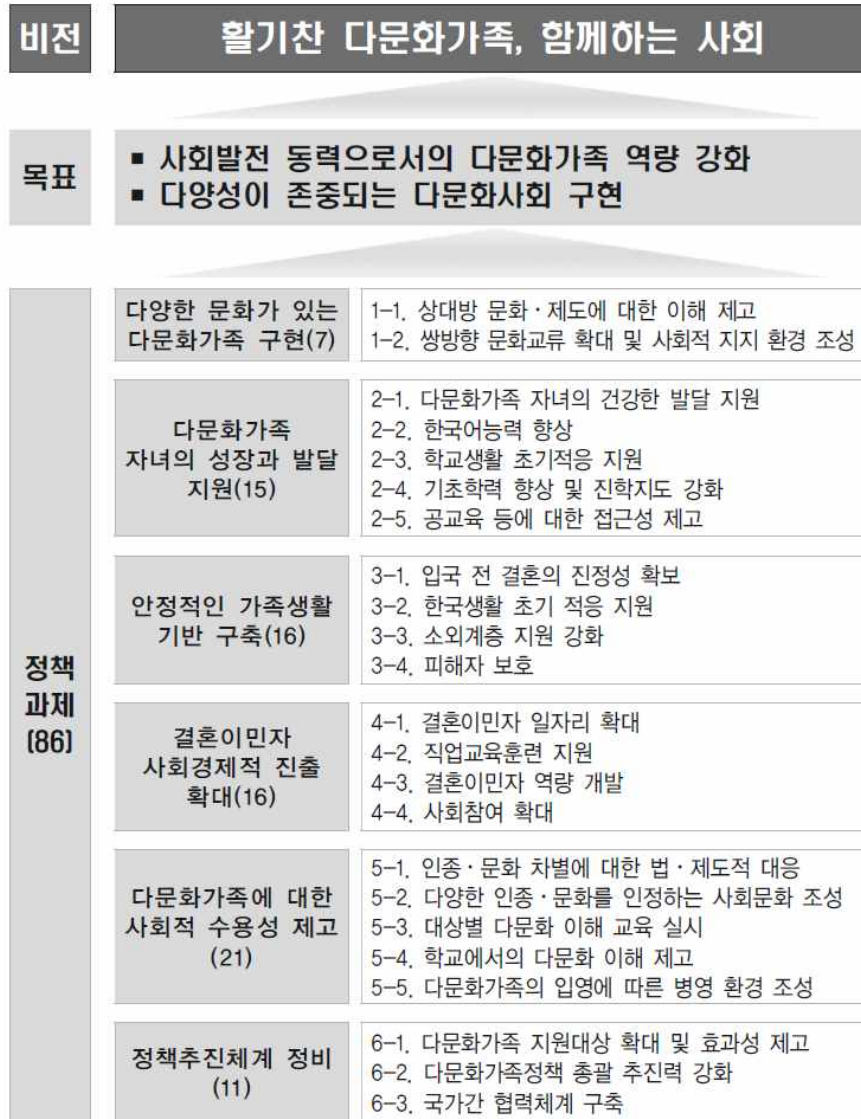
다문화가구의 아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 안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된다. 현실적으로 다문화가구 아동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조금씩 상이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개념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인구센서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통계, 행자부 외국인주민통계,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 각 자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자녀”, “다문화가구” 등으로 상이하며, 자료수집 및 분류 기준에서도 부분적인 차이가 있어 자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문화가구 아동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느 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차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자료별로 다문화가구 아동의 정의를 소개하고,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실태를 분석한다.

2. 다문화가구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 현황

다문화가구 아동에 대한 기존의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정책의 범위 안에서 전개되어 왔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의 초기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서비스, 긴급전화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삶의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가령 다문화가정의 고령화와 은퇴 등 생애주기 변화, 그리고 자녀 세대의 성장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학교생활 적응, 학교 다문화 교육의 도입, 진로지도와 사회진출 지원, 군 입대 다문화 자녀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다문화가구 아동 관련 정책의 중장기적인 흐름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잘 드러난다. 「제2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건강, 공교육 접근성, 한국어 교육,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 진학지도 강화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관련해서도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가구 아동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이 모색되어 왔다. 한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17)」에서도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이라는 항목 하에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8-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그림 8-2]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



〈표 8-1〉 중앙정부의 다문화 아동 관련 정책: 부처별 주요 정책 현황(2015년)

(단위: 백만원)

| 담당부처 | 정책 항목 | 내용 | |
|-------------|--|---|---------|
| | | 세부 내용 | 예산('15) |
| 교육부 | 이민배경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 다문화 학생을 위한 KSL 학급 운영 | 150 |
| |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강화 | 정규학교 배치 전에 예비학교 운영('15년 100교) | 3,150 |
| | 이민배경 청소년 직업교육 강화 | 진로상담 및 진로컨설팅 | 비예산 |
|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글로벌 브릿지 사업(특성화대학과 연계) | 2,430 |
| |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다문화 강사의 배치·양성 | 415 |
| | 이민배경 아동의 인권 보호 | 이민배경 아동의 공교육 진입 지원 (학력심의위원회 설치, 전담 코디네이터) | 비예산 |
| 법무부 |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강화/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지원 | 중도입국 청소년 체류환경 개선,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안내 및 상담) | 비예산 |
| 문화체육 관광부 | 이민배경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Rainbow School) | - 다문화가정 유아, 학생용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 125 |
| | 이민배경 아동의 인권 보호 | 문화다양성 교육 연수/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 | 260 |
| 노동부 | 이민배경 청소년 직업교육 강화 | 다솜학교 운영(이민배경 청소년 직업교육) | 1,900 |
| 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자에 자녀양육 정보제공 |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 6,815 |
| | 이주배경 청소년 'Rainbow School' 운영 | 이주배경 청소년(북한이탈, 다문화) 사회적응 및 문화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600 |
| | 이주배경 청소년 참여·교류 비율 가이 드라인 마련 |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설 운영, 교류사업 등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에 참여기회 제공 | 비예산 |
| | 지역사회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복지 확대 |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서적지지, 상담 서비스 제공 | 비예산 |

자료: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종합함.

보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 및 예산 내역은 2015년 다문화 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중앙행정기관(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여성가족부)의 부처별 정책 현황(표)에 잘 나타난다. 여기에서 아동 관련 정책 항목은 주로 학교적응 및 한국어 교육, 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다. ‘아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자녀’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 상담 및 직업교육 등은 최근 들어 새로 도입된 정책이다. 예산 면에서도 이주배경 아동 관련 정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중앙정부의 이주배경 아동관련 정책 예산은 약 158억 4천 5백 만 원이며 이는 전체 외국인정책 예산(4,077억 4천 만 원)의 3.9%에 불과하다.

다문화가구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한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정책은 ‘아동’ 보다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즉 아동의 권리 보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부모나 양육자(즉 성인)의 입장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그리고 공교육에 접근성을 높이고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아동빈곤예방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정책의 범위가 포괄적이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 편중된 측면이 있다. ‘자녀’가 아니라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 모든 아동이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하게끔 다문화가구 아동에 대한 정책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기존의 정책은 사회 적응과 학교 적응, 교육적 성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주배경 아동의 입장에서는 (소수자의)문화적 다양성을 존중받기 보다는 다수자 문화가 제시한 기준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일방향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중 언어 교육이나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정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 자원은 한국사회의 기준에 맞는 적응과 훈련 및 준비 작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만으로 다문화가구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과 소외, 다차원적인 배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셋째, ‘다문화가족’ 중심의 아동 지원은 현실적으로 이주배경 아동 중 다수를 배제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이주 배경의 아동은 다

문화가족 자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기선(2014)의 연구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동반 또는 초청하여 가족생활이 가능한 외국인 규모를 보면, 결혼이민자 이외에도 합법적으로 가족생활이 가능한 외국인이 약 44만 명 정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즉, 전문인력 약 5만 명, 사업 또는 공무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약 1만 8천, 정주형 이민자로서 거주(F-2) 또는 영주(F-5)를 가진 외국인 14만 명, 그리고 재외동포(F-4)비자를 가진 외국국적동포 23만명 등이 배우자나 자녀 동반이 가능하다. 최근 방문취업(H-2) 동포도 미성년 자녀 초청이 가능해진 점을 감안하면 가족생활을 하는 외국인 수는 더 많을 것이며,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기선, 2014, pp.3). 현재로서는 이민자의 체류자격별, 출신국적별로 외국인 등록아동의 추이가 매우 다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가족이나 자녀를 동반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반면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일정하게 나타나며 출신국적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인다. 몽골출신 이주노동자의 64%, 중국출신자의 50%가 현재 국내에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 또한 중국과 몽골이 각각 20%, 9%로 가장 높다(정기선, 2014, pp.11-12).

3. 국제 정책 동향: 이민배경의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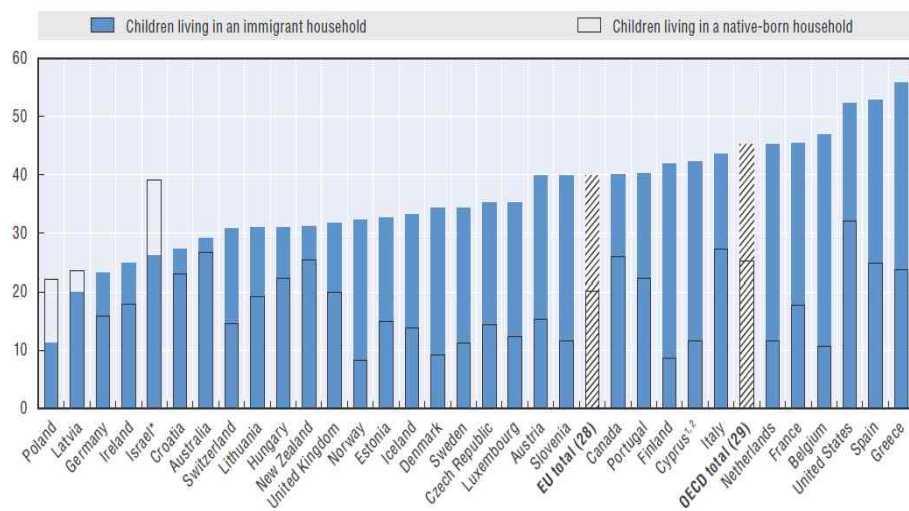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이주가 증대함에 따라, 국제기구에서도 이민자와 이민자가 포함된 가구, 그리고 이민 배경을 지닌 아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민자 및 이민 배경의 아동에 대한 국제적 비교 통계, 사회통합 지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민자 관련 정책의 용어나 정책수요자 범위가 한국과 다른 점이 많이 직접적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본질적으로 이민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OECD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보고서(2015)⁴⁵⁾에서는 “이민자 가구(immigrant household)”의 실태를 국제 비교하는 지표들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민자 가구는 광의로 정의할 때 “가구를 책임지는 성인 중 최소한 1인 이상이 외국 출신인 가

45) OECD/European Union,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 OECD Publishing, Paris.

구”이다. 보다 엄밀한 협의의 정의로는 “가구를 책임지는 성인(2명) 모두가 이민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민자 가구의 정의는 특정한 가족관계(국제결혼, 부모자녀 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적 국적이 아닌 출생지를 기준으로 이민자를 정의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가족”(또는 다문화가구)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림 8-3] 16세 미만 아동의 상대 빈곤율: 이민자 가구 내 아동과 선주민 가구 아동(2012)



자료: OECD/European Union,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 OECD Publishing, Paris.

OECD 이민자 사회통합 보고서에서는 이민자 가구에서 생활하는 16세 미만 아동의 상대빈곤율(해당 국가 가처분소득 중앙값의 60% 기준)이 선주민(비이민자) 가구 내 아동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2012년 OECD 회원국 전반에서 이민자 가구 아동이 빈곤에 노출될 위험은 선주민 가구 아동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딕 국가와 베네룩스 국가에서 이민자 가구 아동의 빈곤 위험은 4배나 높았다. 그리스와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이민자 가구 아동의 45% 내지 55%가 상대적 빈곤 상황에 있으며, 선주민 가구 아동에 비해 빈곤율이 거의 2배에 가깝다. 미국의 경우 이주민 가구 아동의 빈곤율은 높은 편이었지만 선주민 가구와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빈곤율이 낮으면서 이주민-선주민 가구 아동간의 격차도 비교적 적은 국가는 호주,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독일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문제에서 이민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정주형 이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이주배경 아동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지표를 산출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유엔아동인권협약을 이미 비준한 바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민배경이 있는 아동 전체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실태조사, 지표 생산, 그리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제3절 다문화가구 및 아동: 인구 추이

다문화가구와 아동의 인구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행정등록통계에 근거한 다문화가구 자료(인구센서스 일부로 발표), 그리고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가 있다. 전체 국내 인구규모 대비 다문화가구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센서스 자료를 참조한다. 그런데 다문화가구의 범위와 개념은 행정통계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 자료의 특성에 따라 포함되는 가구와 아동의 특성 및 범위가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행자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 주민현황에는 ‘외국인 주민 자녀’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인+외국인 부모의 자녀 뿐 외국인+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다(즉, 광의의 다문화가구 아동). 반면, 뒤에서 살펴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에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즉 출생 및 귀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구의 아동(협의의 다문화가구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

1. 인구총조사: 다문화가구 규모 및 추이

2015년 인구센서스(인구총조사)는 종래의 전수조사 방식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조사방법을 변경하였다. 통계청에서는 인구센서스의 일환으로 다문화가구와 그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는 모두 299,241 가구, 가구원은 887,804명이다. 다문화가구 구성원⁴⁶⁾은 전체 내국인 인구 대비 1.8%를 차지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연령별 구성이 내국인 일반의 연령별 구성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전체 내국인 인구에 비해 0~9세 아동의 비중이 4.1%로 매우 높은 반면, 10대, 20대 인구는 1.1%, 1.4%로 매우 낮다. 법률상 ‘다문화 가족’의 대다수가 국제결혼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결혼이민자와의 국제결혼 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 정점에 이르렀고 최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 효과로 인해 0~9세 아동 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청소년기, 청년기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다문화 가구 아동들이 점차 늘고 있어, 생애주기 측면에서도 이들의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차원에서 정책적 관심이 요청된다.

〈표 8-2〉 다문화가구 구성원 - 연령별(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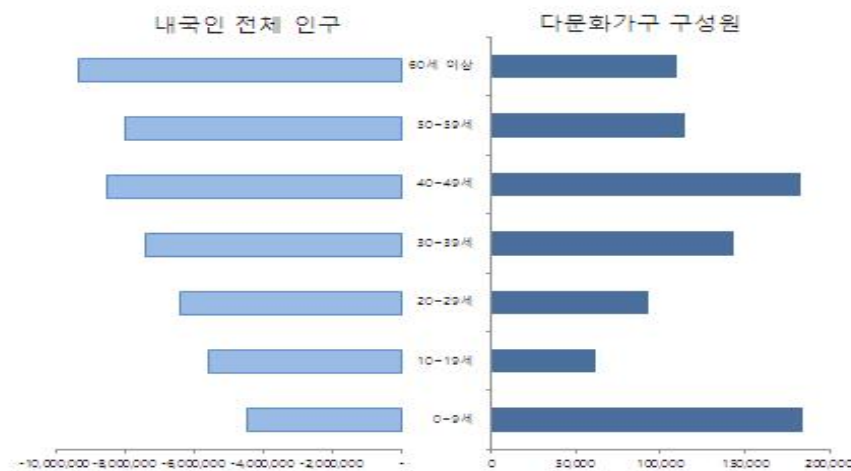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내국인 인구 (A) | 다문화가구 구성원 (B) | |
|--------|------------------|---------------|----------------|
| | | 명 | 구성비(B/A * 100) |
| 합계 | 49,705,663 | 887,804 | 1.8% |
| 0~9세 | 4,488,347 | 184,064 | 4.1% |
| 10~19세 | 5,588,905 | 61,473 | 1.1% |
| 20~29세 | 6,413,832 | 92,933 | 1.4% |
| 30~39세 | 7,394,623 | 142,963 | 1.9% |
| 40~49세 | 8,482,862 | 182,974 | 2.2% |
| 50~59세 | 8,009,071 | 114,021 | 1.4% |
| 60세 이상 | 9,328,023 | 109,376 | 1.2% |

자료: 2015년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 kosis.kr, 2016. 10. 7 다운로드)

46) 다문화가구 구성원 중에는 ‘내국인’과 ‘비’내국인 (즉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및 자녀)가 포함될 수 있음.

[그림 8-4] 다문화가구원 연령별 인구구조(2015, 내국인인구와 비교)

(단위: 인)



다문화가구원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내국인 전체 인구의 구조와 비교해 보면, 0~9세의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더불어 40~49세 인구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인구구성은 다문화가구의 아동이 청소년기, 성년기로 점차 진입함과 동시에 부모 세대인 40대 연령층이 점차 은퇴 및 노년기로 접어드는 결과를 함축하고 있다.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 전체 수준에서는 다문화가구 아동의 증가가 저출산의 부작용을 완회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다문화가구의 입장에서는 부모세대의 고령화가 아동의 성장 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등록 등 행정자료에 근거한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외국인 주민 자녀”⁴⁷⁾의 연령별 통계가 포함되어 있어 이주배경의 아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외국인 주민’의 의미는 이 연구의

47) 외국인주민 현황에서 자녀의 기준을 만 18세 까지 포함하여 집계한다. 그런데 아동빈곤예방법 상의 아동 범위는 만 18세 미만이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맞추어 통계를 재구성하였다.

분석 대상인 ‘다문화가구’보다는 훨씬 폭넓은 개념임에 유의해야 한다. 즉,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기타 체류자격의 외국인, 그리고 혼인귀화자와 기타 귀화자 등이 외국인 주민에 포함된다.

외국인주민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0~6세 영유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영유아가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 7~12세 연령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13~17세 청소년층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아동인구의 연령구성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가구 아동지원 정책도 영유아 대상 정책에서 점차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8-3〉 외국인 주민 자녀: 연령별 추이(200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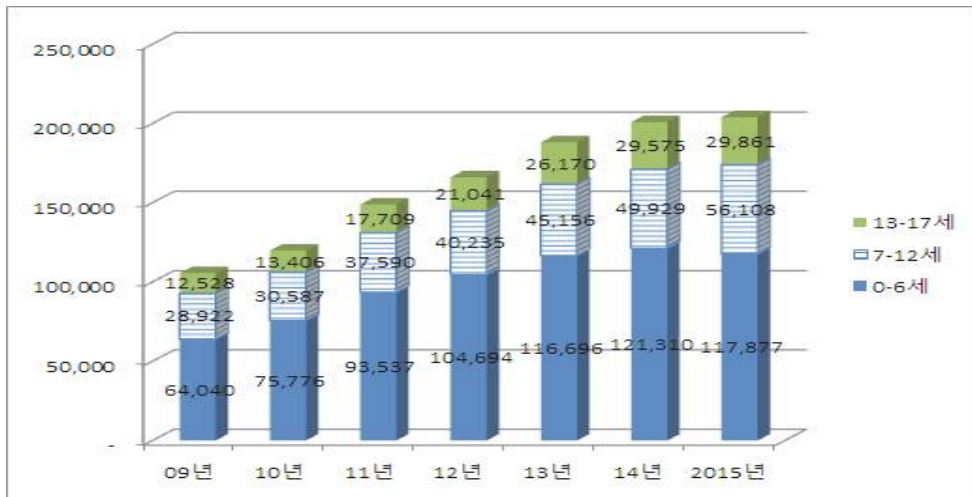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0-6세 | 64,040 | 75,776 | 93,537 | 104,694 | 116,696 | 121,310 | 117,877 |
| 7-12세 | 28,922 | 30,587 | 37,590 | 40,235 | 45,156 | 49,929 | 56,108 |
| 13-17세 | 12,528 | 13,406 | 17,709 | 21,041 | 26,170 | 29,575 | 29,861 |
| 계 | 105,490 | 119,769 | 148,836 | 165,970 | 188,022 | 200,814 | 203,846 |

자료: 행정자치부(각년도),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8-5]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추이(200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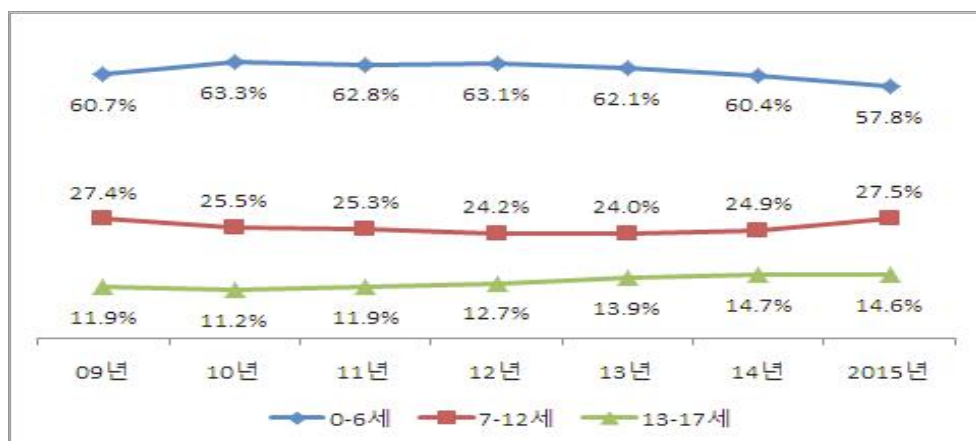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행정자치부(각년도),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8-6]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9~2015)

(단위: %)



자료: 행정자치부(각년도), 외국인주민 현황.

제4절 다문화가구 아동의 현황 분석

1. 자료 특성: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

이 장에서는 2015년에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다문화가구 아동의 생활 실태를 다각적으로 고찰한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 4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국가승인통계로써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이 조사의 대상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 즉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포함한 가구이다⁴⁸⁾. 2015년 7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최신 행정등록자료(외국인 등록 등)에 근거하여 표집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에서 17,849 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또한 이 조사는 전체 가구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하는 가구 구

48) 이 조사에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 그리고 혼인귀화자를 의미한다. 혼인관계에는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된다. 일반 귀화자는 혼인 이외의 사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며, 1인 미혼 귀화자도 이번 조사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 결혼이민자 등과 이혼·사별한 한국인이 결혼이민자 등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사에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8).

성표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자·귀화자(17,109명), 배우자(15,540명), 청소년 자녀(만 9~24세 6,079명) 조사 등 모두 4종의 설문지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에는 가구소득수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빈곤 가구를 따로 추출하거나 정확한 아동빈곤율을 제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가구를 세 집단(기초생활 수급가구, 저소득 가구, 비빈곤가구)로 구분⁴⁹⁾하고,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 유형이나 아동의 생활 경험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재분석은 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가구 단위의 분석이다. 전체 다문화가구(17,849 가구) 중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구의 특성(가구소득 수준, 가구 유형 등)을 전반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가구조사표에서 파악된 다문화가구의 아동(18,451명, 다자녀 가구가 있어 가구 수보다 많음)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다문화가구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연령, 출생지 등 인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 실태 등을 살펴본다.

셋째, 이민배경이 있는 부모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다. 아동의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는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특히 다문화가구의 경우 이민배경이 있는 부모(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에 참여한 이민자·귀화자 중 아동이 있는 응답자(11,137명)를 추출하여 이들의 교육수준, 경제활동 실태 등을 살펴 본다.

넷째, 청소년 자녀조사 응답자 중 9세~18세 미만의 아동(5,185명)을 추출하여, 이들의 교육, 부모관계, 차별 경험 등을 분석한다. 아동의 입장에서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장래 계획이나 희망, 자아 존중감, 그리고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등을 분석하고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이러한 재분석의 한계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데, 원자료의 표본설계에서 설정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에 유의해야 한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수 추정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장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끔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전체 원자료 중 일부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

49) 세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가구는 '수급 가구'로 분류하였다. 둘째, '저소득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을 참조하여 조사표 상의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원 수를 감안하여 기준을 정하였다. 1-2인 가구는 100만원 미만, 3-4인 가구는 200만원 미만, 5인 이상 가구는 300만원 미만인 경우 저소득 가구로 분류하였다. 셋째, 그 외 가구는 '비빈곤 가구'로 구분하였다.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분석 결과는 전체 다문화가구 또는 전체 다문화 아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모든 결과표는 표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2. 가구특성: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구

가. 아동 수와 가구소득 수준

전체 다문화가구의 가구소득 수준별 분포를 보면, 수급가구는 5.0%, 저소득 가구는 28.5%, 그리고 비빈곤가구는 67.2%이다. 다문화가구 중 약 1/3 정도는 저소득 가구 이하에 속하며 빈곤 위험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구 중에서도 아동의 수가 많은 가구 일수록 수급가구나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 즉, 아동이 없는 가구는 수급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더한 비율이 16.8%에 불과했지만, 아동이 1명인 가구는 이러한 비율이 29.5%, 아동이 2명인 가구는 33.4%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는 수급가구가 8.5%, 저소득 가구가 54.5%로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구: 아동가구원 수와 가구소득 수준

(단위: %, 명)

| 구분 | | 가구소득수준 | | | 전체 |
|-------------------------|----|--------|--------|--------|-------|
| | | 수급 가구 | 저소득 가구 | 비빈곤 가구 | |
| 전체 가구(N=17,849) | | 5.0 | 28.5 | 67.2 | 100.0 |
| 아동이 없는 가구(n=6,182) | | 6.8 | 12.0 | 81.1 | 100.0 |
| 아동이 있는 가구 (n=11,667) | 1명 | 3.4 | 26.1 | 70.5 | 100.0 |
| | 2명 | 3.8 | 29.6 | 66.6 | 100.0 |
| | 3명 | 8.5 | 54.5 | 37.0 | 100.0 |
| 평균 아동 수 (아동이 있는 가구만) | | 1.81 | 1.74 | 1.5 | 1.58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가구별 평균 아동 수를 보면 기초수급가구가 1.8명으로 저소득 가구(1.7명), 비빈곤 가구(1.50)보다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 유형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구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민자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중 수급가구 비율은 16.8%로 높았으며,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도 15.9%가 수급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중 수급가구 비율은 3.1%로 이보다 훨씬 낮다. 이는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이 확연히 낮은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배우자+자녀 가구보다 이민자+자녀 가구의 소득 수준이 더 낮은 점은 이민 배경을 지닌 부모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더욱 불리한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8-5〉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구: 가구유형별

(단위: %)

| 구분 | 수급 가구 | 저소득 가구 | 비빈곤 가구 | 계 |
|--------------------|-------|--------|--------|-------|
| 이민자+자녀 | 16.8 | 31.8 | 51.4 | 100.0 |
| 배우자+자녀 | 15.9 | 23.2 | 60.9 | 100.0 |
| 부부+자녀 | 3.1 | 23.3 | 73.6 | 100.0 |
| 부부+자녀+본인및 배우자의부모형제 | 2.7 | 48.4 | 48.9 | 100.0 |
| 기타 가구 | 9.8 | 52.4 | 37.8 | 100.0 |
| 전체 | 4.0 | 29.9 | 66.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부부와 자녀 이외의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그리고 기타 가구의 경우는 한 부모 가구에 비해 수급가구 비율은 낮지만 저소득 가구 비율은 더 높다는 점도 주목된다. 가구원의 수가 많아 피부양자가 많은 가구, 주된 부양책임자가 없는 가구에서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다문화가구의 아동(0~18세 미만): 가구소득 수준 및 생활 실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전체 가구구성원 중 아동은 18,451명이다. 다문화 가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연령별 분포는 0~6세의 영유아가 57.6%로 가장 많으며, 초등학교령인 7~12세 아동은 28.8%, 청소년기인 13~17세 아동은 13.5%이다. 아동의 61.9%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거주아동은 38.1%이다. 또한 대다수의 아동(94.4%)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출생 시 국적이 한국이며, 5.4%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외국 국적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 중도입국 자녀 등이다. 출생시 국적이 외국인 아동은 한국 사회 적응, 차별이나 사회적 배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출생 시 외국 국적은 중국·대만 등 중화권 국가, 일본, 필리핀·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가 다수를 차지한다.

〈표 8-6〉 다문화가구의 아동

| 구분 | | 아동 수 | 구성비 (%) |
|--------------|-------------|--------|---------|
| 연령 | 0-6세 | 10,631 | 57.6 |
| | 7-12세 | 5,321 | 28.8 |
| | 13-17세 | 2,499 | 13.5 |
| 성별 | 여성 | 9,018 | 51.1 |
| | 남성 | 9,433 | 48.9 |
| 결혼이민자와 관계 | 자녀 | 18,337 | 99.4 |
| | 손자녀 | 114 | 0.6 |
| 거주지역 | 동부 | 11,429 | 61.9 |
| | 읍면부 | 7,022 | 38.1 |
| 출생시 국적 | 한국 | 17,413 | 94.4 |
| | 중국/ 대만 | 394 | 2.1 |
| | 일본 | 263 | 1.4 |
| | 미국 | 78 | 0.4 |
| | 필리핀/베트남/태국 | 102 | 0.6 |
| | 러시아/우즈베크/몽골 | 88 | 0.5 |
| | 기타 | 113 | 0.6 |
| 계 | | 18,451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가. 다문화가구 아동·가구소득 수준

아동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수준을 분류해 보면, 전체 아동 중 4.6%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32.8%는 저소득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구 아동 중 1/3 이상(37.4%)이 빈곤 또는 저소득 가구에서 양육되고 있다. 다문화가구 아동의 빈곤율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빈곤위험에 노출된 아동이 10명 중 4명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구 아동의 분포를 살펴보면, 0-6세인 아동은 57.6%, 7-12세인 아동은 28.8%, 13-17세인 아동은 13.5%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수급 가구의 경우는 0-6세 아동이 38.3%, 7-12세는 37.1%, 13-17세는 24.6%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0-6세 아동이 57.7%, 7-12세 아동이 28.5%, 13-17세 아동이 13.7%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는 0-6세 아동의 비율이 높지만, 수급 가구의 경우는 청소년,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영유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표 8-7〉 다문화가구 아동: 연령별 가구소득 분포

(단위: %)

| 구분 | | 가구소득 구분 | | | 전체 |
|----|--------|---------|--------|--------|-------|
| | | 수급 가구 | 저소득 가구 | 비빈곤 가구 | |
| 연령 | 0-6세 | 38.3 | 57.7 | 59.0 | 57.6 |
| | 7-12세 | 37.1 | 28.5 | 28.4 | 28.8 |
| | 13-17세 | 24.6 | 13.7 | 12.6 | 13.5 |
| 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출생시 국적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5.6%는 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출생시 국적을 살펴보면, 수급 가구는 6.8%, 저소득 가구는 4.5%, 비빈곤 가구는 6.1%가 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시 한국인이 아닌 아동에는 이른바 중도입국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빈곤위험이나 취약한 가구배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8-8〉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구소득 수준-출생시 국적별

(단위: %)

| 출생시 국적 \ 가구소득 | 수급 가구 | 저소득 가구 | 비빈곤 가구 | 전체 |
|---------------|-------|--------|--------|-------|
| 한국 | 93.2 | 95.5 | 93.9 | 94.4 |
| 외국 | 6.8 | 4.5 | 6.1 | 5.6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나. 주거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 및 주택점유 형태에서도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수급가구와 저소득 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비빈곤 가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급가구의 경우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28.9%에 그친 반면, 월세나 사글세 거주자가 4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수급가구의 경우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자기 집인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농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빈곤 가구의 경우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다소 낮고 전세 거주자가 많았다. 이는 비빈곤 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8-9〉 다문화가족 아동: 가구소득 수준별 주택 유형

(단위: %)

| 구분 | | 주택 유형 | | | | | 계 |
|----------|--------|-------|------|------|--------|-----|-------|
| |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 주택 | 기타 | |
| 가구 소득 수준 | 수급 가구 | 46.0 | 29.9 | 7.3 | 14.1 | 2.7 | 100.0 |
| | 저소득 가구 | 50.4 | 29.5 | 6.8 | 12.1 | 1.1 | 100.0 |
| | 비빈곤 가구 | 26.1 | 52.2 | 7.3 | 13.3 | 1.1 | 100.0 |
| 전체 | | 35.0 | 43.7 | 7.1 | 13.0 | 1.2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표 8-10〉 다문화가족 아동: 가구소득 수준별 주택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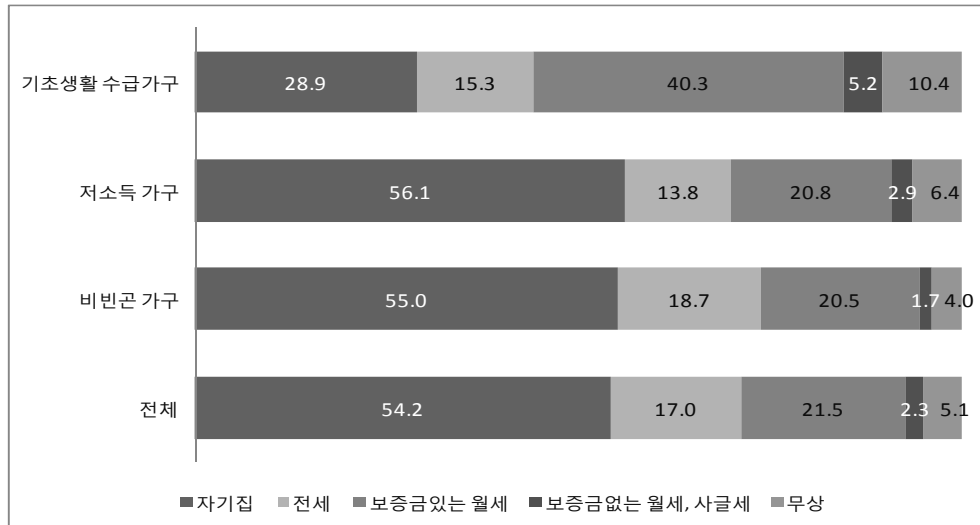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 | 주택점유 형태 | | | | | 계 |
|----------|--------|---------|------|----------|---------------|------|-------|
| | | 자기집 | 전세 | 보증금있는 월세 | 보증금없는 월세, 사글세 | 무상 | |
| 가구 소득 수준 | 수급 가구 | 28.9 | 15.3 | 40.3 | 5.2 | 10.4 | 100.0 |
| | 저소득 가구 | 56.1 | 13.8 | 20.8 | 2.9 | 6.4 | 100.0 |
| | 비빈곤 가구 | 55.0 | 18.7 | 20.5 | 1.7 | 4.0 | 100.0 |
| 전체 | | 54.2 | 17.0 | 21.5 | 2.3 | 5.1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8-7] 다문화가족 아동: 가구소득 수준별 주택점유 형태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4. 이민배경 부모의 특성: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가. 이민배경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다문화가구 아동은 부모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이 이민자 혹은 귀화자인 가정에서 생활한다. 이민 배경이 있는 부모의 개인적 특성이나 경제활동 여부는 가구소득 수준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먼저 이민자·귀화자 부모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이민자의 가구소득 수준이 남성 이민자의 경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혼이민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고, 이들이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저소득층 한국 남성과 만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이민배경 부모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수급가구 또는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경우가 더 많다. 수급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이민배경 부모의 학력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인 경우가 30% 이상인 반면, 비빈곤 가구의 경우 23.4%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학졸업 이상 학력자의 경우 비빈곤가구의 이민·귀화자 부모가 수급가구와 저소득 가구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36.2%)을 보였다.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주한 후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검정고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등으로 추가적인 교육을 받는 사례도 많다. 이민 배경이 있는 부모의 역량과 인적 자본의 강화는 다문화 아동의 빈곤 위험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표 8-11〉 이민자·귀화자 부모의 특성

(단위: 세, %)

| 구분 | | 수급가구 | 저소득 가구 | 비빈곤 가구 | 전체 (N=11,137) |
|------|------------|-------|--------|--------|------------------|
| 평균연령 | | 39 | 34.8 | 34.9 | 35 |
| 성별 | 남성 | 7.7 | 7.3 | 12.6 | 10.8 |
| | 여성 | 92.3 | 92.7 | 87.4 | 89.2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학력수준 | 초등학교(무학포함) | 13.8 | 10.4 | 6.6 | 8.0 |
| | 중학교 | 21.8 | 22.8 | 16.8 | 18.7 |
| | 고등학교 | 42.4 | 43.7 | 40.4 | 41.5 |
| | 대학졸업 이상 | 22.0 | 23.1 | 36.2 | 31.8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나. 이민배경 부모의 경제활동과 가구소득

이민배경 부모의 경제활동은 가구소득 수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아래의 표에서는 성별에 따라 이민자·귀화자의 취업여부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가구

소득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여성 이민자·귀화자(이민배경 어머니)의 취업 또는 비취업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빈곤 지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 이민자·귀화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의 경우 가구소득 수준과 상당한 관련성이 발견된다. 상용직 종사자의 비율이 각각 수급 가구에서 12.2%, 저소득가구에서 11.1%인데 비해 비빈곤 가구에서는 21.7%였다. 반대로 임시·일용직에 취업한 여성 이민자·귀화자의 비율은 수급가구에서 34.5%, 저소득가구에서 22.4%로 나타나 비빈곤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로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은 이주배경 어머니들의 고용지위는 가구소득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8-12〉 여성 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수준

(단위: %)

| 구분 | | 수급 가구 | 저소득 가구 | 비빈곤 가구 | 전체 |
|-----|--------------|-------|--------|--------|-------|
| 비취업 | | 46.4 | 55.3 | 41.9 | 46.3 |
| 취업 | 상용 | 12.2 | 11.1 | 21.7 | 18.0 |
| | 임시 | 22.1 | 14.5 | 19.4 | 18.0 |
| | 일용 | 12.4 | 7.9 | 7.7 | 7.9 |
|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0.5 | 0.3 | 1.3 | 1.0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1.3 | 2.1 | 3.6 | 3.1 |
| | 무급가족 종사자 | 5.1 | 8.7 | 4.3 | 5.7 |
| 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남성 이민자·귀화자(이민배경 아버지)의 경제활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남성 이민자·귀화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가구소득 수준이 확연히 달라진다. 남성 이민자·귀화자 중 비취업의 비율은 수급가구에서는 42.4%, 저소득 가구에서는 21.6%인 반면, 비빈곤 가구에서는 3.9%에 불과하여 가구소득에 따라 남성 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한 경우에도 종사상별 해당 비율의 차이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났으며, 특히 비빈곤 가구의 경우 남성 이민자·귀화자의 49.4% 즉, 1/2은 상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수급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남성 이민자·귀화자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각각

39.4%, 38.6%로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된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남성(이주배경 아버지)의 취업 여부에 따라 가구소득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건설 일용직 등 외국인 과 이주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 종사자들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성 등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8-13〉 남성 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수준

(단위: %)

| 구분 | | 수급 가구 | 저소득 가구 | 비빈곤 가구 | 전체 |
|-----|--------------|-------|--------|--------|-------|
| 비취업 | | 42.4 | 21.6 | 3.9 | 8.5 |
| 취업 | 상용 | 15.2 | 22.0 | 49.4 | 43.0 |
| | 임시 | 9.1 | 17.4 | 13.0 | 13.8 |
| | 일용 | 30.3 | 21.2 | 9.5 | 12.4 |
|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0.0 | 3.3 | 9.9 | 8.3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3.0 | 13.3 | 13.2 | 12.9 |
| | 무급가족 종사자 | 0.0 | 1.2 | 1.2 | 1.2 |
| 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성별에 따라 경제활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다소간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민 배경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은 가구소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달리 표현하면, 이민배경의 부모가 인적자본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것, 즉 이민배경 부모의 역량 강화가 아동의 빈곤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제5절 다문화가구 자녀(9~17세)의 사회적 배제

이 절에서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 중 자녀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자녀대상 설문조사는 9세~24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학교폭력과 차별경험,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 우울감 등 다양한 항목을 조사하여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박탈 및 배제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아동의 연령기준에 맞추어 9세~17세 자녀의 응답을 분석한다.

1. 교육 및 양육

다문화가구 자녀들의 사교육 경험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기초보장 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45.9%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54.3%, 비빈곤 가구는 70.9%로 확연히 높아진다. 사교육 경험은 가구소득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저소득 가구의 아동은 사교육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1주일간 받는 사교육 시간은 가구소득 수준 및 아동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수급 가구가 7.35시간, 저소득 가구 7.2시간, 비빈곤 가구 8.26 시간으로 나타난다.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수급가구 아동보다 오히려 사교육 시간이 더 적은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수급가구 아동의 사교육 시간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9~12세 아동(7.93시간)보다 13~17세 아동(6.24시간)의 사교육 시간이 더 줄어들었다.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중고등 학령기에 오히려 사교육 시간이 줄어드는 현실은 수급가구 아동들이 학습 기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8-14〉 다문화가족 자녀: 1주일 사교육 시간

(단위: 시간)

| 구분 | | 일주일간 사교육시간(평균) | | 계 |
|----------|--------|----------------|--------|------|
| | | 9-12세 | 13-17세 | |
| 가구 소득 수준 | 수급 가구 | 7.93 | 6.24 | 7.25 |
| | 저소득 가구 | 7.06 | 7.43 | 7.2 |
| | 비빈곤 가구 | 8.02 | 8.65 | 8.26 |
| 전체 | | 7.74 | 8.19 | 7.91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양육과 관련한 항목으로는, 다문화가구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측정한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가구소득 수준은 부모관계에 대한 만족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부모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다.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특히 수급가구나 저소득 가구 아동이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은 점이 주목된다.

부모님이 외국출신이라는 점이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알려지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 응답에서는 가구소득수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싫다”는 부정적 응답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게서 더 높은 편이었다. 다시 말해, 빈곤 가구의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고, 또한 자신의 부모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적 빈곤과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첩될 때 아동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8-15〉 다문화가족 자녀: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5점 척도 평균)

| 구분 | | 부모관계 만족도 | |
|----------|--------|-----------|-----------|
| | | 아버지와의 관계 | 어머니와의 관계 |
| 가구 소득 수준 | 수급 가구 | 3.58 | 4.24 |
| | 저소득 가구 | 3.97 | 4.3 |
| | 비빈곤 가구 | 4.15 | 4.41 |
| 전체 | | 4.05 | 4.36 |
| F | | 54.263*** | 11.104*** |

주: ***: $p < .000$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표 8-16〉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출신 부모님을 주위사람들이 아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 구분 | | 외국출신부모님에 대해 주위사람들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 | | 계 |
|----------|--------|---|------|------|-----|------|-------|
| | | 매우좋다 | 좋다 | 보통이다 | 싫다 | 매우싫다 | |
| 가구 소득 수준 | 수급가구 | 16.3 | 22.8 | 50.0 | 7.5 | 3.4 | 100.0 |
| | 저소득 가구 | 15.4 | 24.1 | 53.0 | 5.8 | 1.8 | 100.0 |
| | 비빈곤 가구 | 16.0 | 24.9 | 50.4 | 6.5 | 2.2 | 100.0 |
| 전체 | | 15.8 | 24.5 | 51.2 | 6.3 | 2.2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 차별 경험

다문화가구 자녀들은 부모님이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외모나 언어의 차이로 인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해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경험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

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수급가구(12.2%) 아동의 경우 저소득 가구(8.6%), 비빈곤 가구(8.9%) 아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빈곤이 다른 문화적 차별과 중첩됨으로써 다문화가구 아동의 사회적 배제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1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에서도 수급가구 아동(7.0%)이 저소득 가구(4.9%)나 비빈곤 가구(5.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에 따른 폭력피해 경험률의 차이는 차별경험률의 차이보다는 그 폭이 적은 편이었다.

〈표 8-17〉 다문화가족 자녀: 차별/무시당한 경험

(단위: %)

| 구분 | |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 | | 계 |
|----------------|--------|---------------------------|------|-------|
| | | 있다 | 없다 | |
| 가구 소득 수준 | 수급 가구 | 12.2 | 87.8 | 100.0 |
| | 저소득 가구 | 8.6 | 91.4 | 100.0 |
| | 비빈곤 가구 | 8.9 | 91.1 | 100.0 |
| 전체 | | 9.0 | 91.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표 8-18〉 다문화가족 자녀: 학교폭력 경험

(단위: %)

| 구분 | | 지난 1년간 학교폭력 경험 | | | 계 |
|----------------|--------|----------------|------|----------|-------|
| | | 있다 | 없다 | 무응답(비해당) | |
| 가구 소득 수준 | 수급 가구 | 7.0 | 92.7 | 0.3 | 100.0 |
| | 저소득 가구 | 4.9 | 94.0 | 1.0 | 100.0 |
| | 비빈곤 가구 | 5.1 | 93.9 | 1.0 | 100.0 |
| 전체 | | 5.2 | 93.9 | 1.0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3.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다문화가구의 자녀들의 우울감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우울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우울감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우울감을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는 응답에는 가구소득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우울감을 “가끔 느꼈다”는 응답률은 수급가구 아동(20.7%)이 저소득가

구(14.6%), 비빈곤 가구(13.5%) 아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을 느낀 적이 없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수급가구(76.7%)나 저소득 가구(82.9%)에 비해 비빈곤 가구(84.5%)에서 가장 높았다.

〈표 8-19〉 다문화가족 자녀: 지난 1년간 우울감 경험

(단위: %)

| 구분 | | 지난1년우울감을느낀경험 | | | | 계 |
|----------------|--------|--------------|--------|--------|-----------|-------|
| | | 그런적없다 | 가끔 느꼈다 | 자주 느꼈다 | 매우 자주 느꼈다 | |
| 가구 소득 수준 | 수급 가구 | 76.7 | 20.7 | 2.1 | 0.5 | 100.0 |
| | 저소득 가구 | 82.9 | 14.6 | 2.1 | 0.4 | 100.0 |
| | 비빈곤 가구 | 84.5 | 13.5 | 1.5 | 0.5 | 100.0 |
| 전체 | | 83.4 | 14.4 | 1.7 | 0.5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표 8-20〉 다문화가족 자녀: 자아존중감 평균 비교

(단위: 5점 척도 평균)

| 구분 | | 자아존중감 | | |
|----------------|--------|------------------------|---------------------------|------------------|
| | | 나는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다른 사람들 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
| 가구 소득 수준 | 수급 가구 | 3.6373 | 3.6736 | 3.842 |
| | 저소득 가구 | 3.6927 | 3.7207 | 3.9345 |
| | 비빈곤 가구 | 3.8029 | 3.8413 | 4.0292 |
| 전체 | | 3.7549 | 3.7898 | 3.9846 |
| F | | 11.100*** | 13.482*** | 11.021*** |

주: ***: $p < .000$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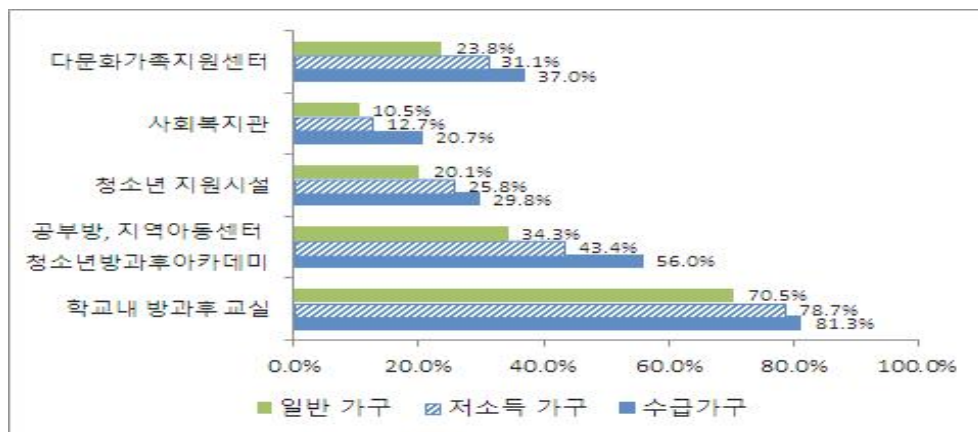
다문화가구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세 가지 항목으로 측정(5점 척도)하여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수급가구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반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척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가구소득은 단지 경제적 취약성에 그치지 않으며, 아동의 우울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지원서비스 이용 및 진로 계획

다문화가구 아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 지원시설, 공부방·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내 방과후 교실 등 지원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들의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을 가구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수급가구 아동이 복지시설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학교 내 방과후 교실이고, 그 다음으로 공부방·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학교 밖에서 방과 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이용률이 높았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청소년 지원시설(청소년 수련원,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이용에서도 수급가구 아동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교육청과 학교 등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최근 활발하게 확대되어 왔고, 특히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의 지원서비스 접근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8]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다문화가구 자녀들이 장래 진로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디까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조사하였다. 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교육 및 학력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14.2%는 고등학교 이하, 그리고 30.1%는 4년제 미만의 대학까지 진학하기를 희망하

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고려할 때, 저소득 다문화가구 아동들은 진학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 부담, 대학입시의 높은 장벽 등 한국의 교육환경이 다문화가구 자녀들의 진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과도한 교육 경쟁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대안으로 외국출신 부모님의 이민 배경을 통해 유학이나 해외에서의 진로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싶은지 그 의향을 조사한 결과, 유학 의향은 가구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32.2%의 아동이 부모님 출신국인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수급가구(32.4%)나 저소득 가구(30.9%)의 자녀들도 부모님 출신국에서 유학하고 싶다는 희망은 결코 낮지 않았다. 교육 경쟁이 심하고 교육비 부담도 큰 한국 보다는 부모님 출신국에서 유학하는 것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유망한 대안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8-21〉 다문화가족 자녀: 희망 교육수준

(단위: %)

| 구분 | | 어디까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 | | | | 계 |
|----------|--------|-----------------|-------------|-------------|-----|----------|-------|
| | | 고등학교 이하 | 대학교 (4년제미만) | 대학교 (4년제이상) | 대학원 | 대학원 (박사) | |
| 가구 소득 수준 | 수급 가구 | 14.2 | 30.1 | 47.2 | 2.3 | 6.2 | 100.0 |
| | 저소득 가구 | 11.0 | 26.5 | 53.4 | 3.9 | 5.2 | 100.0 |
| | 비빈곤 가구 | 7.5 | 24.3 | 54.6 | 5.3 | 8.4 | 100.0 |
| 전체 | | 9.1 | 25.5 | 53.6 | 4.6 | 7.2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표 8-22〉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로의 유학 의향

(단위: %)

| 구분 | |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에서 공부할 의향 | | 계 |
|----------|--------|----------------------|------|-------|
| | | 있다 | 없다 | |
| 가구 소득 수준 | 수급 가구 | 32.4 | 67.6 | 100.0 |
| | 저소득 가구 | 30.9 | 69.1 | 100.0 |
| | 비빈곤 가구 | 32.9 | 67.1 | 100.0 |
| 전체 | | 32.2 | 67.8 | 100.0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제6절 소결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아동의 빈곤과 사회적 박탈을 예방하고 아동의 다양한 삶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의 실태 및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 원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특성, 다문화가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특성, 그리고 이민 배경을 지닌 부모의 특성, 그리고 다문화가구 자녀들의 다양한 인식 및 차별 경험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 아동의 인구 추이를 보면, 2009년 이후 다문화가구 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5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0세~19세 다문화가구 아동은 245,537명으로 나타났다. 행자부의 외국인인 주민 자녀 현황에 따르면 0세~17세 외국인 주민 자녀는 203,846명으로 집계되었다.

다문화가구 아동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연령구성 변화가 주목된다.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면 0~9세 아동의 비중이 높은 반면 10대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인구센서스). 그런데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013년 이후 0~6세 영유아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반면 7~12세와 13~17세 아동들의 구성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학령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아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다문화가구 아동들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경험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먼저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구의 경우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수급가구나 저소득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기초수급 가구의 평균 아동수는 1.81명, 저소득 가구는 1.74명, 그리고 비빈곤 가구는 1.50명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문화가구의 아동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급 가구나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13~17세 청소년들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0~6세 영유아에 비해 훨씬 높다. 다문화가족 중 청소년들은 영유아에 비해 수는 적지만, 빈곤 가구에 속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빈곤

위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주거와 관련해서는, 수급가구와 저소득 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비빈곤 가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수급가구의 경우 자기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28.9%에 그친 반면, 월세나 사글세 거주자가 4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수급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중 자녀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여 9세~17세 아동의 교육 및 생활실태, 차별 경험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구 자녀들의 사교육 경험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수급 가구 아동의 경우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45.9%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54.3%, 비빈곤 가구는 70.9%로 확연히 높아졌다. 또한 사교육 시간은 가구소득 수준 및 아동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1주일 평균 사교육시간은 수급 가구 아동이 7.35시간, 저소득 가구 7.2시간, 비빈곤 가구 8.26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급가구 아동의 사교육 시간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9~12세 아동(7.93시간)보다 13~17세 아동(6.24시간)의 사교육 시간이 더 적는데, 이는 사교육 수요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중고등 학령기 아동이 오히려 학습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다섯째, 가구소득 수준은 아동들이 느끼는 부모관계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부모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다.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는데, 특히 수급가구나 저소득 가구 아동이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수급가구(12.2%) 아동의 경우 저소득 가구(8.6%), 비빈곤 가구(8.9%) 아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에서는 수급가구 아동(7.0%)이 저소득 가구(4.9%)나 비빈곤 가구(5.1%)보다 다소 높았음. 그러나 가구소득에 따른 폭력피해 경험률의 차이는 차별 경험률의 차이보다는 그 폭이 적었다.

일곱째, 지난 1년간 우울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는 응답에는 가구소득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끔 느꼈다”는 응답률은 수급가구 아동(20.7%)이 저소득가구(14.6%), 비빈곤 가구(13.5%) 아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수급가구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반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존중감이 높아졌다. 경제적 빈곤이 아동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덟째, 다문화가구 아동들의 장래 진로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디까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교육 및 학력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14.2%는 고등학교 이하, 그리고 30.1%는 4년제 미만의 대학까지 진학하기를 희망하였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고려할 때, 빈곤 다문화가구 아동들은 진학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동 및 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한 경험은 수급가구 및 저소득 가구 아동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급가구 아동들은 학교내 방과후 교실(81.3%), 공부방 및 지역 아동센터(5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37.0%) 등을 저소득 및 비빈곤 가구 아동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문화가구 아동들이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가족관계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적극적인 미래 설계 등에서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앞으로 학령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진입하는 다문화가구 아동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아동기의 다차원적 박탈 경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제 9 장

시설 빈곤아동의 실태와 특성

제1절 서론

제2절 시설아동의 현황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범주화 분석 결과

제5절 소결

제1절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시설아동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시설아동들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과 결핍, 사회적 배제, 차별 등을 의식주, 물리적 환경, 재정, 건강, 교육, 문화, 가족과 관계망, 일상생활 패턴, 미래 전망 등의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설아동의 빈곤과 결핍, 사회적 배제, 차별 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과 실천의 지침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초점은 시설아동의 ‘빈곤맥락’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빈곤의 맥락은 소득과 재산이라는 자산의 측면을 넘어 결핍과 사회적 배제, 차별 등의 이슈들과 연결된 복합적인 맥락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양한 차원이라는 것은 빈곤의 요소이면서 빈곤의 원인 또는 결과이기도 한 의식주, 물리적 환경 조건, 재정, 건강, 교육, 문화, 가족과 관계망, 일상생활 패턴, 미래 전망 등을 포함한다. 또한 양적 조사에서 파악하게 되는 ‘객관적인 실태’와 함께 ‘주관적인 의미’와 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2절 시설아동의 현황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해 10개로 구분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로 구분된다. 2016년 12월 기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양육시설

243개소 12,821명, 보호치료시설 11개소, 447명, 자립지원시설은 12개소, 243명, 일시보호시설은 12개소, 350명, 종합시설은 3개소, 140명으로 총 281개소에서 14,001명의 아동이 보호받고 있다. 그 밖에 공동생활가정은 480개소에 2,636명의 아동이 있으며, 개인양육시설은 20개소에 181명의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9-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2015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 계 | 양육시설 | 보호치료 시설 | 자립지원 시설 | 일시보호 시설 | 종합시설 | 아동 상담소 | 전용시설 | 개인양육 시설 | 공동생활 가정 |
|----|--------|--------|------------|------------|------------|------|-----------|------|------------|------------|
| 시설 | 281 | 243 | 11 | 12 | 12 | 3 | 6 | 4 | 20 | 480 |
| 현원 | 14,001 | 12,821 | 447 | 243 | 350 | 140 | - | - | 181 | 2,636 |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종사자수, 정원, 현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는 4,749명, 아동 정원은 14,469명, 아동 현원은 10,999명이었으며, 아동 현원대비 종사자 수는 평균 2.32명이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종사자 수는 1,036명, 아동 정원은 2,871명, 아동 현원은 2,325명이며, 아동 현원대비 종사자 수는 평균 2.24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이 보호 받는 아동이 가장 많았으며, 공동생활가정은 경기도 보호받은 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2> 참조).

다음으로는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성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에는 남아가 6,391명, 여아가 4,608명이며, 공동생활가정은 남아가 1,228명, 여아가 1,097명이 보호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남아가 여아보다 약 1.5배 정도 많으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남아가 여아보다는 많지만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표 9-3> 참조).

〈표 9-2〉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종사자수, 보호아동 정원 및 현원 현황(2015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분 | 사회복지시설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 | 시설수 | 종사자수 | 정원 | 현원 | 현원대비 종사자수 | 시설수 | 종사자수 | 정원 | 현원 | 현원대비 종사자수 |
| 전체 | 232 | 4,749 | 14,469 | 10,999 | 2.32 | 417 | 1,036 | 2,871 | 2,325 | 2.24 |
| 서울 | 49 | 1,298 | 3,961 | 3,002 | 2.31 | 63 | 144 | 432 | 311 | 2.16 |
| 부산 | 21 | 530 | 1,579 | 1,352 | 2.55 | 29 | 77 | 200 | 156 | 2.03 |
| 대구 | 23 | 341 | 1,144 | 764 | 2.24 | 15 | 38 | 99 | 78 | 2.05 |
| 인천 | 10 | 312 | 679 | 570 | 1.83 | 13 | 31 | 91 | 77 | 2.48 |
| 광주 | 12 | 235 | 740 | 608 | 2.59 | 26 | 64 | 182 | 143 | 2.23 |
| 대전 | 14 | 202 | 805 | 524 | 2.59 | 17 | 43 | 117 | 102 | 2.37 |
| 울산 | 1 | 43 | 150 | 127 | 2.95 | 7 | 17 | 46 | 40 | 2.35 |
| 세종 | 1 | 16 | 48 | 42 | 2.63 | 1 | 2 | 7 | 5 | 2.50 |
| 경기 | 29 | 729 | 1,660 | 1,505 | 2.06 | 123 | 293 | 846 | 735 | 2.51 |
| 강원 | 10 | 159 | 511 | 354 | 2.23 | 22 | 59 | 151 | 118 | 2.00 |
| 충북 | 13 | 327 | 797 | 620 | 1.90 | 23 | 66 | 160 | 132 | 2.00 |
| 충남 | 14 | 288 | 839 | 636 | 2.21 | 21 | 51 | 145 | 107 | 2.10 |
| 전북 | 16 | 298 | 900 | 736 | 2.47 | 44 | 106 | 298 | 238 | 2.25 |
| 전남 | 23 | 454 | 1,818 | 1,166 | 2.57 | 34 | 81 | 238 | 175 | 2.16 |
| 경북 | 15 | 274 | 1,136 | 790 | 2.88 | 11 | 29 | 76 | 57 | 1.97 |
| 경남 | 25 | 373 | 1,375 | 936 | 2.51 | 26 | 64 | 182 | 140 | 2.19 |
| 제주 | 5 | 168 | 288 | 269 | 1.60 | 5 | 15 | 33 | 22 | 1.47 |

주: 현원대비 종사자수는 현원에서 종사자 수를 나누었으며, 현황수치를 활용하여 별도로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표 9-3〉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성별 현황(2015년 12월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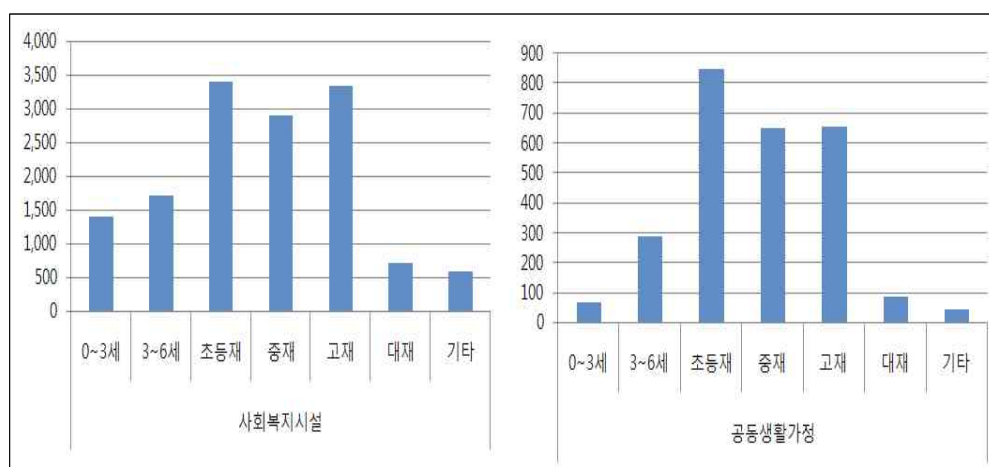
| 구분 | 사회복지시설 | | | 공동생활가정 |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전체 | 10,999 | 6,391 | 4,608 | 2,325 | 1,228 | 1,097 |
| 서울 | 3,002 | 1,715 | 1,287 | 311 | 136 | 175 |
| 부산 | 1,352 | 776 | 576 | 156 | 87 | 69 |
| 대구 | 764 | 438 | 326 | 78 | 52 | 26 |
| 인천 | 570 | 337 | 233 | 77 | 39 | 38 |
| 광주 | 608 | 361 | 247 | 143 | 71 | 72 |
| 대전 | 524 | 335 | 189 | 102 | 55 | 47 |
| 울산 | 127 | 70 | 57 | 40 | 32 | 8 |
| 세종 | 42 | 26 | 16 | 5 | — | 5 |
| 경기 | 1,505 | 843 | 662 | 735 | 397 | 338 |
| 강원 | 354 | 187 | 167 | 118 | 38 | 80 |
| 충북 | 620 | 386 | 234 | 132 | 65 | 67 |
| 충남 | 636 | 343 | 293 | 107 | 53 | 54 |
| 전북 | 736 | 443 | 293 | 238 | 118 | 120 |
| 전남 | 1,166 | 658 | 508 | 175 | 111 | 64 |
| 경북 | 790 | 473 | 317 | 57 | 21 | 36 |
| 경남 | 936 | 552 | 384 | 140 | 83 | 57 |
| 제주 | 269 | 163 | 106 | 22 | 6 | 16 |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취학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은 미취학아동 중에서 0~3세 미만이 1,395명, 3~6세 아동이 1,711명이었으며, 취학아동 중에서 초등학교 재학생이 3,388명, 중학교 재학생이 2,891명, 고등학교 재학생이 3,324명, 대학교 재학생이 710명이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미취학 아동 중에서 0~3세 미만이 65명, 3~6세 아동이 287명이었고, 취학아동 중에서 초등학교 재학생이 850명, 중학교 재학생이 652명, 고등학교 재학생이 653명, 대학교 재학생이 87명이다.

[그림 9-1]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취학 현황(2015년 12월 기준)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한편,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총 아동 발생 수는 4,975명에서 472명은 귀가 및 연고자에게 인도되었으며, 4,503명은 요보호아동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이혼 등, 미혼모아동, 기아, 부모 빈곤 실직 순으로 나타났다.

〈표 9-4〉 연도별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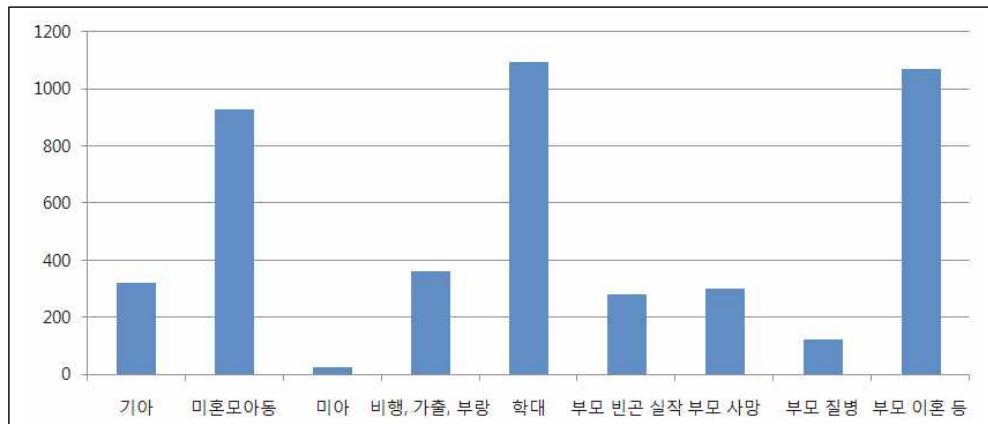
(단위: 명)

| 년도 | 총 아동 발생 수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 | | | | | | | | |
|------|--------------------|----------------------|-------------|-----|-----------|-----|------------------|-------|----------------|----------|----------|---------------|
| | | | 소계 | 기아 | 미혼모 아동 | 미아 | 비행, 가출, 부랑 | 학대 | 부모 빈곤 실직 | 부모 사망 | 부모 질병 | 부모 이혼 등 |
| 2015 | 4,975 | 472 | 4,503 | 321 | 930 | 26 | 360 | 1,094 | 279 | 301 | 122 | 1,070 |
| 2014 | 6,014 | 1,020 | 4,994 | 282 | 1,226 | 13 | 508 | 1,105 | 308 | 450 | 65 | 1,037 |
| 2013 | 6,834 | 814 | 6,020 | 285 | 1,534 | 21 | 512 | 1,117 | 338 | 545 | 133 | 1,535 |
| 2012 | 8,003 | 1,077 | 6,926 | 235 | 1,989 | 50 | 708 | 1,122 | 448 | 533 | 166 | 1,675 |
| 2011 | 8,436 | 953 | 7,483 | 218 | 2,515 | 81 | 741 | 1,125 | 418 | 536 | 154 | 1,695 |
| 2010 | 9,960 | 1,370 | 8,590 | 191 | 2,804 | 210 | 772 | 1,037 | 586 | 772 | 203 | 2,015 |
| 2009 | 10,500 | 1,472 | 9,028 | 222 | 3,070 | 35 | 707 | 1,051 | 710 | 763 | 230 | 2,240 |
| 2008 | 11,672 | 2,388 | 9,284 | 202 | 2,349 | 151 | 706 | 891 | 1,036 | 732 | 274 | 2,943 |

자료: 보건복지부(2015),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그림 9-2]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2015년 기준)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2015),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제3절 연구방법

1. 연구접근

이 연구의 목적은 시설아동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적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 접근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가진 체계에 대한 연구, 이슈 중심의 접근,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 다양한 자료원의 활용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 연구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공간을 가진 체계를 일상생활 패턴이라는 연속적 시간의 경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는 점, 빈곤의 맥락이라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사례(시설종사자와 아동)에 대한 개별 분석과 사례들을 통합하는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한다는 점, 심층면접 이외에 각종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질적 사례연구의 특징들을 공유하며 적합성을 갖는다.

2. 연구사례와 연구참여자

이 연구에서 ‘사례’는 개별 아동양육시설(대규모와 중소규모 각 1개소)과 아동공동생활가정들이다. 서울과 충남 두 지역에서 현원 50인 이상의 아동양육시설과 50인 이하의 아동양육시설, 7인 이내의 공동생활가정 각 1개소, 총 6개 시설을 선정하고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그 보호제공자인 시설 담당자(보육사, 시설별로 1명씩 총 6명)들이다. 각 시설별로 아동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 각 1~2명씩을 선정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시설아동은 총 6개 시설에서 초등학교 7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6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이다. 시설 종사자들과 시설아동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 <표 9-5>, <표 9-6>과 같다.

〈표 9-5〉 연구참여자-아동 특성

| 시설구분 | 학령 | 연령 | 성별 | 입소기간 | 입소경로/사유 | 가족 |
|------|-----|----|----|-----------|------------------|--------------|
| 시설1 | 18세 | 고1 | 남 | - | 복지사 권유 | 부모, 동생2 |
| | 14세 | 중1 | 여 | 초1부터 | - | 부모 |
| | 13세 | 초6 | 남 | 10세부터 | 부모 불화 | 부모, 형, 이복누나 |
| | 13세 | 초6 | 여 | 4세부터 | 모름 | 부모, 언니 |
| 시설2 | 17세 | 중3 | 여 | 중2부터 | 엄마와의 갈등, 가출 | 부모, 오빠(비동거) |
| | 13세 | 초6 | 여 | 4세부터 | 모름(엄마와 할머니가 싸워서) | 엄마(소재 미확인) |
| | 17세 | 고1 | 여 | 7세부터 | 경제적 어려움 | 부모(이혼), 오빠 |
| 시설3 | 16세 | 중3 | 남 | 출생 후부터 | - | 없음 |
| | 12세 | 초5 | 남 | - | - | - |
| | 18세 | 고2 | 여 | 초3부터 | 방임, 일시보호 | 부모 |
| 시설4 | 14세 | 중1 | 남 | 초6부터 | 고모의 학대로 인한 가출 | 부, 고모 |
| | 17세 | 고2 | 여 | 고1부터 | 부의 성추행 | 조모, 부, 오빠 |
| | 12세 | 초5 | 여 | 3세부터 | 모름 | 부모, 언니 |
| 시설5 | 12세 | 초5 | 여 | - | 부모 이혼 | 부모 |
| | 16세 | 중3 | 남 | 초5부터 | 친부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 | 친모, 양모, 이복동생 |
| | 17세 | 고1 | 남 | 중1부터 | 할머니 집에서 사회복지사 권유 | 부모, 형, 동생 |
| 시설6 | 19세 | 고3 | 여 | 12세부터(5세) | 아동양육시설 폐소 이후 | 고모 |
| | 16세 | 중3 | 남 | 9세부터(7세) | 아동양육시설 폐소 이후 | 부, 누나 |
| | 11세 | 초4 | 남 | 9세부터 | 부의 학대 | 조모, 부 |

〈표 9-6〉 연구참여자-종사자 특성

| 번호 | 지역 | 정원 | 현원 | 직급 | 성별 | 연령 | 학력 | 근속기간 | 결혼여부 | 가족 |
|-----|----|-----|-----|-----|----|-----|-----|------|------|----------|
| 시설1 | 서울 | 86명 | 80명 | 보육사 | 여 | 30대 | 초대졸 | 13년 | 미혼 | 부모, 형제 |
| 시설2 | 충남 | 80명 | 76명 | 보육사 | 여 | 20대 | 대졸 | 11개월 | 미혼 | 부모 |
| 시설3 | 서울 | 50명 | 50명 | 보육사 | 여 | 30대 | 대졸 | 9년 | 미혼 | 부모, 형제 |
| 시설4 | 충남 | 52명 | 49명 | 보육사 | 여 | 40대 | 대졸 | 12년 | 미혼 | 형제 |
| 시설5 | 서울 | 7명 | 7명 | 보육사 | 여 | 40대 | 대졸 | 1년반 | 기혼 | 배우자, 자녀1 |
| 시설6 | 충남 | 7명 | 7명 | 보육사 | 여 | 30대 | 대졸 | 7년 | 미혼 | 부모, 형제 |

3.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반구조화된 질문지(구조화된 박탈지표 포함)를 활용한 심층면접이다. 질문지는 시설아동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의 어려움에 대한 개방적 질문으로 시작하여 의식주, 물리적 환경, 재정, 건강, 교육, 문화, 가족과 관계망, 일상생활 패턴, 미래 전망 등을 묻는 구체적인 질문들과 아동박탈지표를 재구성한 구조화된 질문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시설아동의 빈곤과 관련된 객관적인 실태와 주관적인 의미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시설아동용 질문지와 시설종사자용 질문지는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사원들이 3~4회 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참여자별로 1~2회씩, 1~2시간 정도의 면접을 진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설종사자들을 통해 시설아동들의 생활조건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 접근에서 주로 활용하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내 분석은 각 사례(시설)별로 연구참여자(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과 시설 종사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난 빈곤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례 간 분석은 각 사례를 넘어서 시설아동들과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빈곤의 맥락과 그 안에서 나타난 차이점들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사례 간 분석에는 시설아동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시설종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분석, 통합적 맥락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사례 내 분석의 경우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본 연구보고서에는 생략하고, 시설아동과 종사자의 두 집단별로 분석한 사례 간 분석과 통합적 맥락분석 결과만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 간 분석에서 시설아동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인 범주화 표는 생략하고, 아래 연구결과에는 세 연령집단의 결과를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제4절 범주화 분석 결과

1. 시설아동들이 경험한 빈곤의 맥락

시설아동들이 경험한 빈곤의 맥락은 일상생활 패턴, 일상생활의 어려움, 건강, 재정, 학교생활과 학업, 주거, 시설생활 경험, 관계, 진로와 꿈, 시설 이전 경험, 시설의 영향, 시설생활이 만든 차이, 사회적 배제, 차별 경험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영역과 범주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학령집단(초/중/고)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인 맥락과 패턴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비교하면서 기술하였다.

가. 일상생활 패턴

1) 하루 일과

시설아동들의 하루 일과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 루틴과 방과 후 활동들로 구성되었다. 일상적 루틴은 기상-등교-수업-방과 후 활동-하교/시설복귀-숙제/개별 학습/자유시간/학원/과외/시설 프로그램/입시준비-취침 등으로 이어진다.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학원, 과외, 컴퓨터, 입시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러한 패턴은 학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준비나 진로준비와 관련되어 하교 후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초등학생의 경우 자유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점을 차이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기적 패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패턴은 주말과 방학 중으로 구분하였다. 주말에는 음악 레슨, 취미활동, 봉사, 교회활동, 교육 프로그램, 시설 행사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냥 친구와 놀러 다니기도 한다. 방학 중에는 더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시설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참여하기도 한다. 방과 후 수업을 위

해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어떤 시설에서는 한 달에 한번 자치회를 한다고 하였다.

학기 중 방과 후 활동은 학과 과목 관련 활동과 취미생활 관련 활동, 방과 후 수업 등으로 구성된다.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컴퓨터 학원이 학과 과목 관련 활동에 포함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방과후 프로그램들도 있다.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비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들은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밖에 시설아동들의 취미생활에는 개인적인 취미와 단체 취미활동이 포함되었다. 아동들이 언급한 개인적인 취미생활에는 판타지 책, 핸드폰 게임 등이 포함되었고, 단체 취미생활에는 여행, 캠프, 놀이공원, 천문대 관측 등이 포함되었다.

3) 다른 점

일상생활 패턴에서 시설아동들이 일반아동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동의서 서명처럼 부모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원장님 도장을 받는 등 복잡하다. 부모가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 둘째, 시설에서는 듣기 싫은 교육을 억지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시설에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인적인 약속을 못 지키게 된다. 자기는 시설에 일찍 돌아가야 하는데 친구들은 더 놀 수 있어서 부러웠다고 하였다. 셋째, 귀가시간과 새벽예배 등 특별한 규칙이 있다. 넷째, 활동이 많아서 심심하지 않고 친구들이 많아서 놀기도 좋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아쉬운 점으로는 혼자 편히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시설은 나라 것이라서 우리 집 같은 느낌이 안 든다는 진술도 있었다. 다섯째, 다른 환경이 부럽다는 진술들도 있었다. 특히 친구들이 가족이랑 놀고 있을 때 부러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여섯째, 시설 점검을 올 때 ‘무슨 집을 점검해?’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가정집과 시설에서 사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다는 아동도 있었다.

나. 일상생활의 어려움

1) 어려움

시설아동인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에는 자유가 없음, 통장에서 지출할 때 허락을 받아야 함, 고등학생이 되니 시설에서 안 챙겨줌, 같은 방 언니들과 갈등, 진로, 건강, 학업, 진로, 취업 걱정, 통금시간, 규칙이 많아 힘들 등이 포함되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단체생활에 동반되는 규칙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시설에서 더 이상 챙겨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의 양가감정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이니만큼 학업, 진로, 취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중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는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언급되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였고,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친구들과 약속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생겨서 못 놀았던 적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초등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스트레스와 해소방법, 시련을 극복한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스트레스와 해소방법 범주에서 아동들은 나이 많은 아동과의 관계, 친구와 갈등을 언급하였고, 만화책을 보면 짜증났던 게 사라진다고 하였다. 둘째, 시련을 극복한 방법은 비공식적 도움과 공식적 도움으로 나뉘었다. 비공식적 도움에는 친구들에게 말함, 형들이 말려줌 등이 있었고, 공식적 도움은 보육사에게 말함, 보육사가 말려줌 등이 있었다.

2) 해결방법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그다지 효과적이고 적절한 전략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노래감상, 외출, 게임, 친구들에게 말함, 먹을 것 챙겨먹기, 자격증 취득하기, 원장님께 말하기 등이다.

3) 상담

일부 시설아동들은 시설 내부의 임상심리사나 외부의 상담소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등학생은 이러한 상담이 좋은 정보를 알려줄 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하였다.

다. 건강

1) 건강 수준

고등학생들의 건강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보인다. 만점을 준 아동은 없었는데, 체력이 약하거나 치아가 썩었거나 살이 쪼들거나 운동하다가 부상이 있거나 감기, 발가락 부러짐, 배탈, 두통 등의 감점 요인들이 있었다.

중학생들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괜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아동이 둘 있고, 딱히 아픈 곳이 없어 9점을 준 아동도 있다. 한 아동의 경우 정서불안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살이 안 빠져서 6점을 주었다. 빈혈이 있어 운동을 심하게 하면 어지럽다는 아동도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점수 차이가 좀 났지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체로 건강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깎인 경우는 자주 다치거나 장이 약한 것, 똥똥함, 감기, 시력 때문이었다. 아픈 데가 없고 부족한 게 없다고 하면서도 10점 만점에 7점을 준 아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치료

몸이 아플 때는 대체로 간호사와 병원에 가거나 약, 간호 등을 해준다고 하였다. 시설에 입소하자마자 감기 몸살로 열이 나기 시작한 아동도 있는데, 병원에 가서 빨리 나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의료 지원이나 치료는 제때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병원이 있어 수술도 바로 할 수 있었다. 일상적으로는 보육사가 돌봐주고, 필

요한 경우 간호사와 협력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재정

1) 용돈

아동들의 용돈은 시설, 후원자, 부모로부터 나온다. 시설에 따라서는 아동에게 직접 용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후원통장을 통해서만 지급하기도 한다. 일부 시설은 아동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일부 시설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액수도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은 대체로 예측이 어렵고 불안정하며 금액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아동의 재정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부모들은 휴대전화를 사주는 등 현물을 주고 가는 경우도 있다. 현재 재정에 대한 만족도는 양분되고 있다. 즉 일부 아동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일부 아동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아동은 소비 자체를 귀찮아해서 편찮다고 하였다. 또 어떤 아동은 기본적인 용돈 이외에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달라는 입장이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 돈이 없으면 부럽다고도 하였다.

고등학생들이 시설로부터 받는 용돈의 액수에는 차이가 많았다. 한 달에 2-3만원부터 10만원까지 범위가 넓었다. 이러한 금액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족하지만 지낼 만하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저것 쓰다보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크게 문제는 없고, 오히려 더 많이 주면 과소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주는 용돈(후원 포함) 외에 부모가 용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후원자가 따로 건네주는 경우도 있다. 필요할 때마다 받고 있고, 그러면 되지만, 한 아동은 돈이 모자랄 때 더 빼 달라고 하기 어려워서 안한다고 하였다.

중학생인 시설아동들은 대부분 시설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그 금액에는 차이가 많았다. 적으면 5천원, 많으면 3만원 이상을 받았다. 보육사들이 상황에 따라 용돈을 더 주기도 하였다. 한 아동은 학교에서 후원을 많이 받고 있고, 장학금의 형태로 그 후원금을 받는다고 하였다.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아동들도 있었다. 만날 때마다 2-5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 상태와 지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중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아동들이 있는가 하면 적

당하다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다는 아동들도 있었다. 풍족하다는 입장들을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이 먹게 되고 생일선물도 항상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부족하다는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사먹고 싶을 때 사 먹으니까 부럽다는 생각이 반영되었고, 여학생의 경우 화장품을 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부족하다고 하였다. 바라는 점으로는 옷을 더 사주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용돈을 받으러 가지 않고 한 달에 한번 날을 정해서 용돈을 줬으면 좋겠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2) 통장

시설아동들의 재정관리는 통장관리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동들의 통장은 시설에서, 주로 보육사들이 관리하고 있었다. 아동들은 본인 명의의 통장이 2~3개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과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디딤씨앗통장과 용돈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돈 통장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주택청약 통장이나 별도의 개인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 참여자도 있었다. 한 아동은 범죄피해자 보상금과 장학금 등을 포함하여 꽤 큰 금액이 저장된 통장을 갖고 있었다.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는 원래 그 용도대로 퇴소/자립할 때 쓸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통장은 보육사가 관리하지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아동들은 용돈으로 받은 돈을 모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돈이 떨어지면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하는 방식에서는 통장을 받아서 아동이 인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의 요청에 따라 보육사가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다 보니 아동들이 과소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통장에 모은 돈을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일부는 본인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어떤 아동은 타인에게 나누겠다고 하였다. 본인이 사용한다고 한 경우에는 집 사고 밥 먹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고, 그림용품, 필요한 책을 사고 싶다고 한 아동도 있었다. 타인과 나누겠다고 한 아동은 가난한 사람한테 투자하고 모금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넉넉해 좋다는 응답과 함께 필요한 것은 다 충족할 수 있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다만 시설을 나가게 될

때가 걱정이라는 진술도 있었다.

3) 지출

고등학생들이 용돈을 지출하는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연예인 팬으로서 이런저런 물품들을 구입하기도 하고, 친구와 약속이나 학교 매점 등에서 쓰기도 한다. 일반 아동들과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이다. 지출과 관련한 아동들의 경험에는 돈을 받을 때 사용용도를 말해야 하는 귀찮음, 쓸 데 없다고 생각하면 안 줌 등이 포함되었다.

중학생들이 용돈을 지출하는 용도는 군것질, 학용품, 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 특별 지출 등이었다. 특별 지출에는 옷을 사거나 캠프 갈 때, 친구들과 놀러갈 때 등이 포함되었다.

초등학생들이 용돈을 사용하는 용도는 군것질, 저축, 학업 관련, 선물 구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군것질에 용돈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에서 상당히 많은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배고파서 군것질을 한다기보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간식이 자신의 선호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비교

자신이 받는 용돈을 친구들의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못 받는 친구들보다 많이 받는 편이라는 답도 있었고, 더 많이 받는 친구들이 부럽다고도 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들은 양육시설과 대비할 때 중간 정도라고 답했다.

중학생들은 친구들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과 부러워하는 생각으로 나누어졌다. 한 아동은 일반가정의 친구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용돈을 받을 때 느껴서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초등학생들에게 재정적으로 다른 친구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차이가 있다는 아동과 없다는 아동으로 나뉘어졌다. 차이가 있다는 아동들은 자신과는 달리 친구들이 항상 돈을 가지고 다닌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자신이 경제적으로 더 팬찮은 것 같다는 진술도 있었다.

5) 부모

부모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은 자신의 부모가 가난했었고, 지금도 가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잘 모르겠다고 한 아동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아동도 있었다. 부모와 접촉하고 있는 아동은 한번에 1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았다고 하였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다만 아동들의 경험에서는 중 또는 하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6) 시설 재정

고등학생인 시설아동들이 인식하는 시설 재정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다수의 아동들은 넉넉하거나 부족함이 없다고 본 반면에 중하 정도로 평가한 아동도 있다. 공동생활가정도 1년에 3회, 가까운 곳은 10번 정도로 자주 놀러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래 살던 가정보다 시설의 형편이 좋은 것 같다는 진술도 있었다. 한 아동은 먹는 것, 주거, 놀러 가는 걸 볼 때 중하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시설의 재정상황에 대한 중학생들의 평가는 아동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여유로운 편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보통인 것 같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여유롭다고 느낀 아동들은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나 부모와 살 때보다 더 풍요롭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시설 차원의 물질 자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것 말고는 없다, 필요해서 말씀드리면 다 챙겨주신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편이다 등의 일관된 진술이 나왔다. 최소한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받고 있는 비물질 지원으로는 피아노 레슨과 학원비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시설 재정의 영향에 대해 질문하고 나온 답변들로는 풍족하다고 느낌,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함, 돈이 없어 사고 싶은 걸 못 산 적이 있음, 독립하기 힘들 것 같음 등의 진술이 있었다.

7) 부와 가난의 의미

부와 가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답변이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고, 거지는 못 사는 사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은 불쌍해 보인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중학생들에게 그 답변은 바람직한 부자, 바람직하지 않은 부자,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 부자가 될 가능성 등으로 구분되었다. 바람직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 도덕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바람직하지 않은 부자는 반대로 돈 욕심을 내고 세금을 안내는 부자라고 하였다.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는 평균 이하 또는 돈이 많아도 도덕성이 높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고 하였다. 부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하며, 아껴 쓰고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하였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다수의 아동이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똑같은 사람이라거나 가난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언급한 아동도 있었다. 아동들이 생각하는 확연한 차이는 옷차림이나 냄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차이는 이기심, 노력에서 비롯되며, 사람들이 부자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자는 부유하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고,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다고도 하였다.

마. 학교생활과 학업

1) 학교생활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언급되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학업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수업시간에 주로 잠을 잔다고 진술하였다. 적성에 안 맞아 힘들다는 아동도 있었다. 성적은 다양한 수준으로 언급되었다. 초등학생 아동들의 기억에 좋았던 일은 파티하고 음식 만든 것, 경시대회 상장, 표창장 등이었다. 반면에 나빴던 일은 숙제를 안 해서 혼난 일이었다.

2) 어려움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등하교시 대중교통 이용, 학업에 뒤처짐, 시설에서 살 때 놀림 받음 등이 제시되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한 아동이 이전에 시설에서 살 때 친구들로부터 놀림 받은 경험을 언급한 것이다.

3) 관계

고등학생들에게 교사 관계와 친구 관계를 물어보았다. 교사와 아동의 관계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싫어하는 아동도 있었다. 또래 관계는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친하고, 특별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였다. 특별히 또래관계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교사와 관계는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진술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교사가 잘 대해준다는 언급은 있었고, 필요한 걸 챙겨주려고 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교사가 도와주어 면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학생 아동들이 경험한 교사관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관계와는 달리 친구관계에는 부정적인 경험도 있었다. 다만 현재의 경험 이 아닌 초등학교 때의 집단따돌림 경험이었다. 다수의 아동들이 지금은 친구들과 자주 놀러 다니고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 친한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초등학생들의 교사 관계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교사를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아동도 있었지만,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아동도 있었다. 중간 지점에는 평소엔 좋지만 화날 때 무서운 교사라는 평가가 있다.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평가한 교사들은 쉽게 가르쳐 주거나 능력이 보이는 경우였고, 부정적으로 평가된 교사들은 가르치는 걸 귀찮아하거나 무섭도록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이들이었다. 초등학생 아동들의 친구관계는 깊고 좁은 관계와 넓고 큰 관계로 대별되었다. 즉 적은 친구들을 깊이 친밀하게 사귀는 아동들도 있고, 많은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아동도 있었다. 대신 남녀 아동들의 관계 범위에는 차이가 있었고, 이성 간의 관계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시설생활 공개

중학생들에게 교사나 친구들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물어보았는데, 교사들은 알고 있고, 친구들은 아동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아는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는 공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중 일부는 시설에 데려 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동만 한명의 친구가 알고 있고, 놀러오고 싶다고 해도 변명을 대며 오지 않도록 한다고 진술하였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친구들은 거의 다 알고 있지만 아무 말도 안했다는 경우도 있고, 알지만 모른 체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의 경우 다소 지나친 정도로 신경을 써주어 부담스럽다는 아동도 있었다.

5) 공부

고등학생인 시설아동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공부를 싫어하기도 하고, 늦은 감이 있다며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안한다는 고백도 있으며, 해야 하나까 하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는 아동도 있다. 부모의 무관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나름의 분석도 있다.

중학생들의 경우, 학습은 시설아동들의 아킬레스건처럼 느껴진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 다수가 공부하는 것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한 명의 아동만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머지 아동들은 중간 정도이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학습 영역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시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아동들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생각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좋지도 싫지도 않음, 뚜렷한 과목 선호 등으로 구분되었다.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굳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과목마다 선호도 다르고, 성적도 과목마다 다르게 나온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평소에 학원에 안갈 때는 혼자 공부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으며, 학원에 가서는 형들이 도와줘서 실력이 좋아진다고도 하였다.

바. 주거

고등학생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좁고 덥고 냄새가 난다는 불만도 있지만,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고 다른 가정집이나 원가정이 살던 집, 이전 시설보다 좋다고 하였다. 주거와 관련한 불편사항들로는 물이 샌다거나 방이 좁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였고, 보육사가 같이 지내지 않는 방의 아이들은 통제를 받지 않아 편하다고 하였다.

중학생들의 주거에 대한 만족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만족한다는 입장과 불편하다는 입장으로 구분되었다. 대체로 신축건물에 새로 입주한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또는 현원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공간에 여유가 생긴 시설들은 아동들이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된 반면에, 노후 건물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은 좁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의 일부 공간에 놀이기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한 아동도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다. 부정적인 평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신축건물에 입주한 시설들의 경우 더 넓고 깨끗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고, 오래된 건물들도 현원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넓게 공간을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 일부가 좁다는 불평을 하기도 하였는데, 아직 성장수준이 낮은 초등학생들은 좁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도 원가정이 살던 주거환경과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재도구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이 부설되어 있는 경우 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시설생활 경험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시설생활의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원가족과 함께 살 때 하지 못했던 걸 시설에서 하고 있다,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다, 처음 왔을 때 형들 눈치 보는 게 힘들었다, 군대 같은 느낌이 들었다, 화목하지는 않다 등이었다. 긍정과 부정의 경험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경험들(눈치, 군대 느낌)은 현재보

다는 과거의 것들이었다.

중학생들의 경우, 시설생활 자체에 대한 경험도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괜찮고 편함, 매일 놀러가고 활동해서 좋음, 놀러가는 거 허락을 해줘서 좋음 등의 반응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부정적 반응도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시설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하거나 좋은 점이 있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상황이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자 옷장이 있다는 것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다는 것, TV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좋은 점으로는 외롭지 않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등을 꼽았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 외로울 틈이 없고 매우 다양한 경험들을 접하다 보니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설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프로그램도 많고 좋다. 일부 아동의 경우 넓은 공간에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하였는데, 어떤 아동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안 좋아하고 하라고 시키는 말투로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아. 관계

1) 보육사

고등학생인 시설아동들에게 보육사는 어떤 의미일까? 가장 중요한 의미단위로서 ‘엄마’다움에 대해서는 의미들이 엇갈렸다. 다수의 아동들이 엄마 같다고 표현한 반면에, 엄마 같지는 않다고 응답한 아동들도 있었다. 이러한 의미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아동들은 보육사들이 자신을 잘 돌봐주고 챙겨준다고 하였고, 보육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부모보다 낫다고도 하였다. 관계가 좋다가도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다.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방치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 때로는 보육사가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속상한 마음이 든다.

중학생들의 경우, 보육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경험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편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이 사는 보육사가 제일

편하고, 잘 챙겨주고, 착한 것 같고, 엄마 같고, 포근하다고 느끼며, 잘 들어주고,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아플 때 간호해 주고, 병원도 같이 가준다. 물론 좋지 않을 때도 있다. 아플 때 뭐라고 하거나 세대차이가 느껴지거나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을 때 등이다.

초등학생 아동들이 보육사와 맺고 있는 관계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시설 내 보육사들을 좋은 이모와 나쁜 이모로 분류하는 방식과 자신의 담당 보육사를 평가하는 차원이다. 아동들은 보육사의 성향과 자신의 성향을 비교하며 보육사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간섭하지 않으며 잘 이해하고 웃는 보육사는 좋아하지만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간섭하는 스타일의 보육사들은 나쁜 이모로 규정된다. 그러나 아동과 담당 보육사의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민거리가 있으면 같이 생활하는 보육사와 얘기한다고 하였고, 모두 친하고 잘해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시설 내에서도 보육사들을 부르는 호칭에는 차이가 있었다. 엄마, 선생님, 이모 등 관계의 친밀성에 따라 서로 다른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시설아동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고등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시설 친구들과 사이가 좋고, 가족 같은 느낌도 든다고 하였으며, 공감할 때가 많다고 하였다. 가끔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시설 형들이 나서서 막아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튼튼한 방패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중학생들의 입장에서 시설에서 같이 사는 아동들과의 관계는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모두와 친함, 모두와 친하지는 않음, 친하지 않음 등이다. 방학이 되면 같은 방끼리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안 친한 사람도 있고,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아이들도 있다. 성격 특성에 따라서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못하거나 혼자서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는 아동도 있다.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바라 본 시설 내 아동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육사의 수에 비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수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 관계의 다양성은 더욱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이 범주는 모두와 친함, 모두와 친하지는 않음, 친하지 않음, 도

움이 되는 관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설이나 한 방에 있는 아동들과 모두 다 친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고, 모두와 친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친구 몇 명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서 다른 아동들과 거의 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서로 학습을 도와주거나 숙제, 운동 등을 알려주면서 도움이 되는 관계로 이해되기도 한다.

3) 부모

부모에 대한 아동들의 의미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 보고 싶지 않다는 아이, 기억과 추억도 없다는 아이, 친부를 싫어했다는 아이처럼 부모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당시에는 편했으나 지금 보니 방임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나 가끔 안부 묻는 정도로 연락하며 만나는 경우도 있다. 그 반대편에는 관계가 좋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아이도 있으며, 착하고 잘해 준다고 응답한 아이도 있었다.

중학생인 시설아동들의 경우 부모와 만나는 경우보다는 단절된 경우가 더 많았다. 부모와 지속적으로 만난다는 두 아동은 1달 또는 2~3달에 한번 꼴로 만난다고 하였다. 연락이 두절된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거나 아버지 전화번호를 못 외워서 연락이 끊겼거나 1년 정도 연락이 안 되었거나 아동을 시설에 맡겨놓고 영영 사라져 버린 경우들이었다. 장차 바라는 바로 부모가 찾아오면 계속 만나고 유지할 생각이 있거나 사춘기 때 부모와 살고 싶다고 생각한 아동도 있었다.

초등학생 아동들이 부모와 맺고 있는 관계는 일정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즉 매일 통화를 할 정도로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그 중간에서 그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다. 다만 중고등학생들에 비해서는 긍정적 관계가 유지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4) 친형제

아동들 중에는 친형제들과 같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두 사례가 있었다. 한 아동은 부모를 대신해서 키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정이 많이 들었고, 지금은

다른 방에 살고 있어서 소외된 느낌이라고 하였다. 다른 아동은 오빠와 관계가 그저 그런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동생을 키우느라 친구들과 놀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초등학생들의 사례에서 형제 관계는 사이가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가 있었다. 사이가 좋은 경우 형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잘 혼내 준다고 하였고, 언니가 잘 챙겨준다는 아동도 있었다. 사이가 나쁜 경우 동생과 자주 싸우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5) 친척

고등학생들의 친척들과 관계는 대체로 매우 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촌누나가 있지만 친하지 않고, 할머니와 관계는 좋지만 겉으로만 그러하며,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하기 싫어서도 안한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연락을 했지만 이후로는 연락이 없다.

중학생들의 친척 관계는 원가족, 친인척 관계, 학대 경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원가족에 대한 기억은 회미하거나 오래 되었거나 아예 없다. 누나, 엄마와 잘 안 맞았던 기억도 있다. 큰아버지, 고모,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등 친척들과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밀함을 느끼기는 어렵다. 아빠와 함께 고모 집에 살 때는 별을 받거나 아무 것도 주지 않고 가둬놓은 적도 있었다. 학대 때문에 시설에 온 아동은 아직도 몸에 흉터가 남아 있다. 고모 집에서 버티는 것이 살면서 제일 어려웠다는 진술도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부모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과 관계는 지속적 또는 간헐적이었다. 즉 수시로 연락하고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친척이 방문하거나 명절 때만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가기 싫다고 표현하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6) 외부인

시설아동들이 만나는 시설 외부의 사람들로써 자원봉사자, 후원자, 과외 선생님, 사회복지사 등이 언급되었다.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는 수시로 시설에 와서 만나거나 밖으로 함께 외출을 하기도 하며, 이전에 알던 사회복지사와 연락을 하기도 한다. 한 아동은 4년 동안 과외를 받은 선생님이 있는데, 그 분이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대상이라고 하였다.

평소 도움을 주는 존재에는 자원봉사자, 학교 교사, 친구, 시설장 등이 언급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기 또는 수시로 와서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놀아주고 선물을 주기도 한다. 학교 교사들도 공책이나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기도 한다. 친구들도 부탁할 일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시설장도 일부 사례의 경우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그런 존재로 경험되고 있다.

7) 이루고 싶은 가정

아동들이 커서 장차 이루고 싶은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몇몇 아동은 혼자 살 생각이라고 하였다.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할 것이고, 원장님을 보면서 결혼을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하였다. 나머지 아동들 중에서는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이 되겠다거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 경우도 있었다.

자. 진로와 꿈

1) 강점

아동들의 개성만큼이나 각자의 강점도 다양한 형태로 언급되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모든 아동이 각자의 강점을 서로 다르게 표현했다. 만들기, 긍정성, 성실함, 착함, 가르치기, 오래 달리기, 활발함, 친화력 등이다.

중학생들의 장점은 다양한 레퍼토리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 머리를 잘 묶어줌, 설거지를 잘 함, 수영 등이었다.

초등학생 아동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운동이나 만들기, 집중력, 그림그리기, 동생들과 놀아주기, 노력을 잘 함 등 아동들마다 서로 다른 장점들이 언급되었다. 쉽게 빠치는 것을 단점으로 언급한 아동도 있다.

2) 진로와 희망

이 범주는 구체적인 직업과 관련된 진로와 진로준비, 인생의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진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목공, 사회복지, 방송국 PD, 경찰이나 경호원, 선교사, 디자이너 등이다. 이러한 진로와 관련하여 적성을 찾고 있거나 특정 직업을 놓고 고민 중이거나 다양한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몇몇 아동들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고 싶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진술하였고, 어떤 아동들은 동생과 함께 사는 것, 못 해본 것을 해보는 것과 같이 다소 막연한 희망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중학생들의 경우, 이 범주는 가까운 미래 계획, 궁극적인 진로 계획, 진로에 있어 필요한 도움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까운 미래 계획에는 인문계 진학, 미술학원, 어학공부 등이 포함되었다. 궁극적인 진로 계획에는 구체적인 직업들이 나열되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회복지사, 상담사, 래퍼, 외교관 등이다. 진로에 필요한 도움으로는 진로에 해당되는 직업인을 직접 만나 물어보고 싶다는 바람들이 언급되었다. 여기에는 화목한 가정의 구성원과 베푸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 답변한 중학생들은 다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잘하는 게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곧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였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다는 아동도 있었다. 체고 진학이 걱정된다는 아동이 있었던 반면에, 요즘 살면서 고민하는 것이 없다고 한 아동도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진로에 대한 계획은 이미 구체적으로 세워둔 아동도 있고,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도 많았다. 계획의 상세함은 주로 특정 직업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탐색한 경우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는 타인의 영향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더 어릴 때 처음 본 교사의 모습이 멋져 보여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식이다. 아동들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평범한 사람, 착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 등으로 구분되었다. 평범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언급한 아동의 경우 시골에 가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착한 사람에는 소

소한 것도 어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일에 무관심하지 않는 사람 등이 포함되었는데, 본인이 친구들 고민을 들어주고 관심을 가졌을 때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였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동도 있었다.

3) 걸림돌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 취업과 진학 사이에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 퇴소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막막하며,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걱정되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시설에서 반대하며, 성적에 맞는 대학을 찾기가 어렵다.

4) 일 경험

다수의 시설들이 고등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금까지 해본 경험도 없다. 일과는 다르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5) 본인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

본인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훌륭한 자녀교육, 자유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등으로 정리되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는 욕구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결혼은 하기 싫어서 안할 것이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면 자유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나중에 완벽한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차. 시설 이전 경험

시설 이전 경험의 다양성도 아동의 수만큼 많다. 개별 아동이 처해 있던 상황들이 모두 복잡하고 다르기 때문이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와 별거하고, 연락이 끊기고, 떠돌이 생활을 한 아이들이 있다. 대체로 가난하게 살았고, 부모 때문에 학교에도 못하고 좁은 단칸방에서 가족이 같이 살며 집에서만 살았던 적도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권유로 시설에 오게 되었지만 시설에 들어오고 싶지는 않았다. 거기 가면 맛고 산다거나 밥도 못 먹는다는 등 좋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시설로 들어오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중학생들의 경우, 아동기에 입소한 아동도 있고 청소년기에 입소한 아동도 있으며, 가족출하여 시설로 들어온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모네 집에 살다가 시설로 온 경우도 있다.

초등학생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된 시기는 영유아기와 아동기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3~4세 때 입소한 아동들이 있고, 초등학교시기에 들어오게 된 아동들도 있었다. 입소경로의 차원에서 보면, 아버지의 학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고가 들어와 사회복지사 등의 권유에 따라 입소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시설 이전의 다른 경험으로 가족에 대한 기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누구와 같이 살았고, 놀러갔던 기억들이 여전히 선명하게 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부모 기억은 없고 친척들과 놀던 기억이 흐릿하게 나는 경우도 있었다.

카. 시설의 영향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시설의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생활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경제관념을 알게 되었으며, 사회적 관계를 다양하게 갖게 되었고, 꿈에 대한 자극을 받았으며, 기회가 많이 주어졌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중학생들에게 시설이 미친 영향으로는 시설 자체의 장점과 변화, 롤모델이 생김 등이 언급되었다. 장점에는 시설이 집보다 더 편하다는 점, 멘토링, 자유로운 분위기, 화목함 등이 제시되었다. 시설에 와서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아동들도 있었다. 보육사이자 원장을 롤 모델로 삼게 되었다는 아동도 있다. 이와 달리 원장과 속 애

기를 하고 싶지만 바빠서 못하고 있다는 단점도 언급하였다.

타. 시설 생활이 만든 차이

시설 생활이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것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답변들이 나왔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 빼고는 다른 것이 없다는 답변도 있는 반면에 더 못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친구는 부러우며, 결혼할 때 허락받을 상대가 없다는 단편적인 답변도 있었다. 성인이 되면 자립해야 한다는 자각은 중요한 의미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많고 법적인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시설의 구조와 내용이 갖고 있는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간식을 더 많이 먹는다는 차이도 언급되었다.

중학생들의 경우, 이 범주에는 시설 생활이 좋음, 아쉬운 점, 바라는 점 등이 포함되었다. 시설 생활이 좋음이라는 범주에는 마음의 변화, 긴장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지내도 됨, 옷을 때맞춰 사줌 등이 포함된다. 아쉬운 점으로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어울려 지내야 하는 점,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점, 남자의 존재가 없어서 남자 어른들과 어색한 점 등을 들었다. 바라는 점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하는 것과 시설에서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들었다.

초등학생이 경험한 시설 생활의 차이는 시설 생활이 좋다는 반응과 다른 환경이 부럽다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 이전의 생활경험에 비해 외로움이 없어져서 좋다는 의견이었고, 다른 환경이 부러워지는 때는 친구끼리 싸웠을 때 달래주는 엄마, 좋은 인형세트, 친구의 친절함 부모, 원하지 않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등이 등장할 때다.

다른 차원으로, 아동 본인과 타인들을 비교하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자신이 더 행복해 보인다는 답변과 비슷한 수준, 타인이 더 행복할 것 같음, 모두 달라 비교할 수 없음 등의 하위범주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진술들을 보면 학원에 다니는 것이 행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친구들은 모든 일에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자괴감이 들 수 있다. 모두 달라서 비교할 수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파. 사회적 배제/차별 경험

고등학생들의 답변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묶어서 살펴보면, 고아라고 놀림 받거나 시설이 입주하는 것에 대한 이웃의 반대를 접한 경험 이 있었다. 나머지 사례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아동들이 경험 하는 사회적 배제나 차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들의 경우, 이 범주에는 시설을 바라보는 타인의 평가와 차별 경험이 포함되 었다. 먼저 시설을 바라보는 타인의 평가는 밝히고 싶지 않음, 특별하게 보지 않음, 타 인에게 부끄럽지 않음 등을 포함하였다. 밝히고 싶지 않음은 주로 친구들에 대한 것이 다.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친구들이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반면에, 나 머지 절반은 당당하게 말하고 친구들과 교사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자기 자신과 시설에 대한 시설아동들의 태도와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미 교사가 알고 있는 경우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정도의 관심을 보였고, 따로 불 러서 시설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차별 경험의 경우 다수의 아동들이 그런 경험을 가진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에 갔을 때 시설에 산다고 놀림을 받은 경험, 불쌍하다는 시선, 일반 가정 아동과 다를 것이라는 편견, 손가락질 을 받을 것이라는 편견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대처로는 놀리는 아이들을 학 년부장교사에게 알려서 체벌한 뒤 놀리지 않은 일,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음, 보육사 에게 말하고 싶지만 진지하게 고민해주지 않을 것이고 관계만 어색해질 것 같아 말을 할 수 없음, 상담을 하기 싫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좋겠음 등이 언급되었다.

초등학생들에게 차별 경험은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되었다. 친구들이 시설에 사는 걸 알고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우며, 엄마 없다고 놀리는 애들이 있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였다. 반대로 차별 경험이 없으며 계속 놀리거나 말하는 친구들은 없다는 진술도 있 었다.

2. 시설종사자들이 경험한 시설아동 빈곤의 맥락

시설종사자들이 경험한 시설아동 빈곤의 맥락은 일상생활 패턴, 재정, 자원과 지원, 일상생활의 어려움, 건강, 학교생활과 학업, 주거, 관계, 진로와 꿈, 시설의 영향, 시설 생활이 만든 차이, 사회적 배제, 차별 경험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영역과 범주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일상생활 패턴

1) 하루 일과

시설 아동들의 하루 일과는 기상-등교준비-학교생활-방과후 프로그램-하교-개별학습/학원/과외/상담치료-개인시간-취침준비-취침 등 일상적 루틴으로 이루어진다. 시설마다 구체적인 시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런 과정들로 진행된다.

시설아동들에게 나타나는 특이점은 상담과 치료를 받는 아동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시설 차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 기관의 요청이나 후원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시설 아동 전체가 참여하거나 일정한 인원이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럴 때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아동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 주기적 패턴

학기 중의 일상생활은 위 하루 일과와 마찬가지로 진행되며, 대체로 학교를 중심으로 미리 짜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인다고 하였다. 학기 중과는 달리 방학 중에는 여유시간이 더 주어지는 편이며, 방학 중에는 시설 차원의 캠프 등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점이 일반 가정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말에는 각자 일정에 따라 지내게 되지만,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들이 방문하여 시설 내에서 또는 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3) 일반 가정과 다른 점

시설생활이 일반 가정과 다른 점은 단체생활의 제약, 행정업무라는 장애물, 개별화 제약, 외부 방문자, 다양한 기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시설아동들은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부에서 와서 특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시설의 규칙 때문에 일상생활 시간활용이나 친구관계 등에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와 저녁 늦게까지 놀고 싶지만 시설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보육사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업무가 많아서 아동들을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 가정의 부모와 다른 점이라는 것이다. 셋째, 개별화 제약이 있다. 이는 시설아동들의 개별적인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애기들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는 투정을 모두 받아주지만 시설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안쓰럽다는 진술도 여기에 포함된다. 넷째는 자원봉사자나 후원자와 같은 외부 방문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다섯째,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원가정에서 지낼 때에 비해서 시설은 아동들에게 매우 다양하고 많은 경험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나. 재정

1) 개인 재정

가) 용돈

대부분의 아동들은 시설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으며, 연령이나 학령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양육시설들이 대부분 아동들을 위한 별도의 용돈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공동생활가정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의 용돈은 시설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후원자들이 주는 후원금과 부모가 수시로 주는 용돈을 통장에 담아두었다가 지급된다. 일부 시설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용돈만 통장으로 관리해서 지급하고 특히 부모가 주는 용돈은 관

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과 접촉하거나 만나는 아동들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수시로 용돈을 받기도 한다.

아동들의 다수는 용돈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부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시설종사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또한 후원자나 부모의 지급 정도에 따라 시설 아동들 사이에도 용돈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통장

시설아동들의 대부분은 2개 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시설 입소 직후 만들어지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CDA)이며, 다른 하나는 후원금을 포함한 개별 용돈 통장이다. 후자의 경우 통장 자체는 대체로 보육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출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에서 지출할 때는 아동들이 용돈기입장 등을 작성하여 용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동에게 경제적 개념을 심어주고, 수입지출 관리를 학습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다) 지출

용돈 지출은 주로 보육사가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아동들의 요구에 따라 인출하여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용도는 다양하겠지만, 초등학생들은 주로 군것질, 중고생들은 개인적인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육사가 통장을 보관하고 지출을 관리하다 보니, 일부 아동들, 특히 중고생 연령의 아동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일부 시설들은 고등학생 이후부터는 통장관리를 아동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아동들은 용돈을 친구와 어울리는 데 쓰지 못하는 데 대하여 아쉬워하고 있는데, 한 아동은 그것을 고통과 분노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2) 시설 재정

보육사들의 입장에서 시설의 재정 자체는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의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수준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식(음식)생활은 총량으로 볼 때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의(의류)생활은 대체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주거)생활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만족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시설 종사자들은 식비와 의류비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식비의 경우 1인당 경비가 너무 낮은 수준이며, 의복 구입비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 차원에서는 일상적으로 보조금에 후원금을 결합하여 의식주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식이 풍부해 보이고, 간식도 충분히 제공하며(후원 물품을 포함하여), 옷도 제때 사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식주는 기본적 욕구에 해당하므로 후원금이나 자체부담금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급여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과 진로준비, 퇴소준비 등에 필요한 재정은 시설 자체 노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규모, 지역의 재정규모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경험되었다. 그리고 의복 구입비나 학원비 등의 경우에는 개별 아동의 욕구에 맞춰 지원하고자 할 때 재정관리나 회계처리와 관련된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모두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전략은 후원일 것이다. 학원과 협의하여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설에 적립된 후원금을 활용하여 식비와 의류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이 자신의 급여를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곳도 있었다. 특히 공동생활가정들은 양육시설에 비해 규모 효과도 적기 때문에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과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시설종사자들은 시설이 아동의 전반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3) 부모 형편

시설 아동들에 비해, 시설 종사자들은 아동들의 부모가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부모들의 형편과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설 종사자들이 경험한 아동 부모들의 형편은 대체로 곤궁하다는 것이며, 예외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괜찮거나 좋아 보이는 부모도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동들에게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종사자도 있었다. 일부 시설은 매년 부모들의 상황을 조사해서 형편이 나아지면 퇴소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시설 종사자들은 시설이 부모, 특히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는 가정보다 아동을 위해 더 나은 안식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더 풍성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4) 재정 지원의 한계

시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재정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류와 수시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울 때가 그렇다. 구입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한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들의 입장에서 용돈이 부족하거나 마음대로 지출하지 못해서 느끼는 제약도 있다. 또한 개별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어려운 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비싼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한명이라도 사주면 모두에게 사줘야 하기 때문에 아예 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재정 지출을 할 때,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과 의무적으로 상담을 해야 하고 각종 기록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5) 아동들의 반응

아동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용돈과 시설 재정에서 비롯되는 의식주 생활에 대해 부족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동들은 시설 재정보다 자신의 필요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시설의 재정상황이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필요에 대해 더 생각하거나 일찍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종사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아이들이 포기하는 법을 배워서 인생에 대한 비관적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한편, 원가정을 다녀오는 아이들은 용돈을 많이 받아오기도 하는데, 이럴 때 우월감이나 질투심, 자격지심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종사자는 아동들에게 시설에 있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활용하라고 조언한다고 하였다. 일반 가정에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아동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자원과 지원

이 영역은 위에 제시된 재정 측면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재정은 자원이거나 지원의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과 구분하여 물질 자원과 비물질 지원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1) 물질 자원

시설들은 기본에 충실한 수준에서 물질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후원금 확보 등을 통해 그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별 아동의 수준에서 따로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 통장에 있는 자기 돈으로 사게 하여 개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2) 비물질 지원

시설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비물질 지원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임상심리사의 상담, 외부 상담소 활용, 부모 연계, 학원이나 과외 등 학습지원, 종사자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원들은 저소득가정들에 비해 더 풍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상담이나 치료 등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은 시설 내에 전문상담사가 채용되어 일상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가 아동들뿐만 아니라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경우 구체적인 유형이나 기관은 아동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지원과 진로적성 지도를 위해 다양한 학원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일상생활의 어려움

1) 어려움

시설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시설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청소, 퇴행, 학습에서 자립까지의 과정, 친구관계, 부모, 단체생활의 불편함, 비밀보장 이슈, 관계형성, 개별화, 인권 이슈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가벼운 이슈로서 청소는 한 방에 있는 시설 아동들이 모두 청소를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이다. 둘째, 일부 아동은 어린 아이 그대로 있기를 원하며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퇴행 행동을 보인다. 셋째, 다수의 아동들은 시설에 입소할 당시 학습의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후 학습과 학업수행, 진로탐색, 자립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자립의 경우 퇴소 이후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자립심이 일찍 생길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시설에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의존심이 더 커지는 작용도 있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다.

넷째, 용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규모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어쨌든 아동들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 큰 취약점이다. 일부 아동들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수의 아동들은 여전히 부모와 연락을 유지하거나 만나고 있으며, 그리워하고 있다. 부모가 없다는 것이 일상생활의 한 조각을 공백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보육사와 시설종사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는 채워지기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단체생활의 불편함이 있다.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섞여서 지내고 그 때문에 규칙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불편함은 불가피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것 말

고는 방법이 없다.

일곱째, 비밀보장 이슈다. 각 아동들은 종사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라지만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종 비밀이 지켜지지 않음을 불쾌하게 여길 수 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속내를 감추기도 하는 것이다. 여덟째, 개별화는 어렵다. 집단으로 모여 있어서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지만 각 아동들의 발달수준이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르게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다. 아홉째, 인권 이슈다. 이것은 아동들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다. 최근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설을 평가할 때 인권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개별화/단체생활의 딜레마와 맞물리면서 일상생활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2) 해결방법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은 인정과 지원, 다양한 시도를 하며,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한다. 즉 학업 차원에서 학습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하고, 아이의 수준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상담도 하고, 얘기도 듣고 하는 등 나름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설이라는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상담인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마. 건강

1) 건강 수준

아동들의 건강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수준은 일반 아동들과 비교하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체로 건강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는 달리 입소 당시 아동들의 영양 상태와 건강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상태는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지고

있다.

다만 치아건강과 체격, 체질, 발달지연, 학습능력 저하 등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동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방임되거나 학대를 받던 상태였다. ADHD나 약물 문제를 가진 아동들도 많이 있으며, 여자아동의 경우에는 낙태를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양육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 들어온 아동들이 다수 있는데, 이런 아동들이 대체로 위에 언급한 신체적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전염병이 돌면 한꺼번에 병에 걸려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한편으로 종사자들의 건강도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 보다는 공동생활가정의 경우가 더 그러한데, 매일 24시간 근무를 거듭하다 보니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식사도 불규칙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2) 치료

대부분의 시설은 건강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으며, 인근 병원들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가정에 비해 시설 종사자들은 아동에게 이상이 생기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고, 심리검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의 경우 치과의 후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양육시설들의 경우 간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동 건강을 전담하면서 보육사와 협력하고 있다. 이밖에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비타민, 호르몬, 식이조절, 운동요법 등을 추가하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운동

대부분의 시설은 시설 차원의 운동을 하거나 스포츠 학원을 연결하여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시설에 운동장과 헬스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태권도를 배우는 경우도 많았다.

바. 학교생활과 학업

1) 학교생활

연구에 참여한 시설 종사자들은 시설아동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이 대체로 일반아동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즉 대체로 잘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뤄진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학업수행의 문제는 여전히 걱정거리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진로 고민이 크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시설아동들이 하는 얘기는 대체로 친구관계에 대한 것이다. 대체로 소외되어 있지는 않지만 눈에 띄는 아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어떤 교사들은 주눅 들지 않고 활발하여 시설 아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2) 어려움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성적이다. 학업수준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시설 종사자들이 그 원인으로 ‘의지 부족’을 들었다.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포기를 먼저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원인으로 어렸을 때 성취와 지지를 경험하지 못함을 들기도 하였다. 공부 자체보다는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이다.

시설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동들의 선택권과 권유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 시설에서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동들의 선택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더 학습이 어려워지고 진로도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일부 시설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별도의 학습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어려움은 교사들이 시설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일부 교사들은 시설아동들을 다른 아동들과 동일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 교사들은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서 도우려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편견을 갖고 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아지면서 그러한 차별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술한 종사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설 아동들의 나쁜 습관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위생상

태가 좋지 않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해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어울리지 못하고, 잠만 자는 등의 행동을 해서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

3) 관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친구 관계는 대체로 괜찮은 편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에 따라 반 친구들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숨기기도 하고, 공개해도 친구들이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였다. 다수의 아동은 사실을 공개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오기도 한다고 한다. 친구관계 자체는 일반가정 아동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 관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교사들에 따라 차이가 많다.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배려하는 행위에 대해 아동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례들이 있었다. 아동들의 입장에서 일부러 적당한 거리를 두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방과 후 시간

방과 후 시간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도 있지만, 다수의 아동들은 시설로 돌아와서 숙제를 하거나 정리하고, 각종 학원과 프로그램, 상담치료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들은 아동들의 적성을 살리기 위해 일반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시설 종사자의 입장에서 아동들이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놀 틈이 없어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5) 공부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 아동들의 학업수행능력과 성적은 대체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학습지원을 받기 때문에 입소할 당시보다는 상당히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공동생활가정까지도 학습지원, 학원, 진로에 맞는 개별지원을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시설들은 나름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체능과 같이 상당히 많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사. 주거

시설아동들은 주거공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며, 원가정과 일반가정들보다 낫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새 공간으로 입주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넓은 개별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침대 등 가구도 개별화되어 있으며, 각자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 만족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건물이 노후화된 일부 시설은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좁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이가 많은 아동들(고등학생)의 경우 더 좁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수납공간도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연구에 참여한 시설들은 시설이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아동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재도구를 확보하여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 관계

1) 보육사

보육사와 아동들의 관계는 대체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 보육사와 아동들의 특성에 따라 역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보육사들의 차이는 이들의 관계에서 두드러지는 변수다. 서로 양육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고, 보육사에 따라 아동들의 행동도 달라지게 된다.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자신을 담당하고 돌보는 보육사들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 시설들의 경우 아동들이 담당 보육사를 넘어 여러 종사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시설 원장을 엄마 아빠로 부르며 의존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사와 아동의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아동들이 불평이 많아지기도 하고, 버릇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육사와 닮아간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달리 부정적으로 경험되는 측면도 있다. 아동들이 인권 교육을 받으면서 보육사의 관여를 인권 침해로 해석하고 명명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권과 권유 사이에 딜레마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다.

아동들이 보육사를 부르는 호칭에도 시설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모, 선생님, 엄마 등인데, 이것은 시설의 방침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아동의 성격이나 상황, 연령에 따른 변화일 수도 있다.

보육사들은 최선을 다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그 한계도 역시 경험하고 있다. 보육사는 보육사, 부모는 부모라는 것이다. 특정한 순간에 아이들에게서 ‘내 엄마아빠가 아니라는 벽’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의 빈자리를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다. 그럼에도 아동들은 보육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큰 아이들일수록 보육사의 일을 돕는 경향도 나타난다.

시설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여전히 높은 이직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교대 제도로 인한 교대근무의 장단점도 드러난다. 한 방을 맡고 있는 파트너와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설의 시스템에 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오랫동안 많은 아이들과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진되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한다.

2) 아동

시설 아동들 사이의 관계는 대체로 무난해 보이지만 대집단을 이루고 사는 시설의 상황에서는 역동성이 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때로 나이 많은 아동들이 어린 아동들을 고압적으로 대하거나 언어와 행동의 폭력을 보이기도 한다. 또래 아동들 사이의 갈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아동이 친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대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된 바 있는 군대식의 시설 문화, 즉 나이 많은 아동들이 어린

아동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나이에 따라 차례로 폭행하는 등의 문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진술에서 이런 문제들이 언급되었지만 현재가 아닌 오래 전에 벌어진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 심부름을 하거나 언니들 눈치를 보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였다.

3) 부모

부모와 관계를 보면, 다수의 아동들은 부모와 단절되어 있으며, 방문하는 부모들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경험하였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높아 질수록 방문 횟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자주 만나는 아동들은 부모와 정서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편이라고 하였다.

시설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부모의 알코올중독이나 범죄처럼 부정적인 일을 지켜본 아동들도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부모에 대해 물어보면 욕부터 하는 아동들도 있다. 전자든 후자든 아이들에게는 원래, 그리고 오래전부터 부모가 필요했던 것이다.

부모와 접촉이 있거나 종종 방문하는 경우, 시설 종사자들은 의도적 개입을 통해 부모가 아이와 약속을 정해 만나도록 하고 중간에 조율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동의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알려서 참석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부모는 아동과 자주 교류하지 않으며, 아동들은 시설 퇴소 후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다.

4) 외부인

시설 아동들은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과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는 관계로 경험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 아이들은 사회성을 키워가기도 하지만,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회성이 저하되기도 한다.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진로와 꿈

1) 장점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시설아동들에게 예체능과 관련된 재능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이러한 재능에 맞춰, 또는 일반적인 학습을 위해 학원이나 과외, 특기 개별지도 등을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체능의 경우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우며, 일찌감치 꿈을 포기하는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 다른 장점은 밝고 자유롭다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고 안 된다고 하면 이유를 물어보는 아이들이 많다.

2) 희망

시설아동들의 희망은 멀게 느껴지는 꿈과 같다. 꿈을 꾸고는 있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않는 것이다. 꿈이 없는 아이도 있다. 많은 아이들이 장래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얘기한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좋은 사람이 되거나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소원들도 있다고 하였다.

진로상담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며,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실업계로 많이 진학하는데, 일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학하기도 하고 나름의 진로를 찾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부모들과 접촉하는 경우, 진로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가 전달되기도 한다.

3) 시설 지원

시설아동들의 진로와 관련한 시설의 지원은 ‘힘닿는 데까지 더 많은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지도와 관련해서는 보육사들이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개입을 하고 있으며,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퇴소 이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립지원체계의 발

전을 통해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4) 걸림돌

시설아동들이 꿈을 갖고 적성을 찾으며, 진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재정의 한계, 기간의 한계, 돌봄의 한계 등이다. 시설 나름대로 많은 자원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예체능의 경우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해 주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러한 전문자원을 찾고 연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퇴소할 때 지급하는 자립지원금도 여전히 적고, 자립에 실패할 경우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5) 일 경험

아르바이트 등 일 경험의 경우, 시설에 따라 규칙이 다르지만 대체로 고등학생이 된 이후 선택적으로 경험삼아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설들은 아동들이 학업과 일반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고 있었다.

차. 시설의 영향

시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회성 대 눈치, 자기 숨기기, 자립심 대 의존, 삶이 안정됨, 불안, 보육사의 영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시설생활을 통해 아동들은 사회성이 발달하기도 하지만 눈치가 빨라지기도 한다. 눈치가 빨라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대인관계의 중요한 차원인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둘째 차원인 자기 숨기기와도 관련되어 있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신을 감추고, 의심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아동들은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상황에 있기도 하지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일반 아동들도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설아동들의 경우 내몰리듯이 자립하게 되고, 부모가 아닌 이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넷째와 다섯째 측면도 모순되는 현상이다. 시설은 아동에게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삶을 안정되게 만들지만 언젠가 나가야만 하고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을 준다.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시설 종사자들의 이직이 많다 보니 자신을 양육해 준 보육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 아동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카. 시설 생활이 만든 차이

시설 생활이 일반가정의 아동과 시설아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양상도 다양하게 경험되고 있다. 여기에는 불안정, 자기 소유 없음, 부모라는 결정적 차이, 발달 수준이 다름, 시설에 와서 나아짐, 참여자 채우기, 일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해 모름, 시설병, 자기 표현 등이 포함되었다. 이중 일부는 앞서 언급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차이 중 하나는 시설아동들이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흔히 알고 있고 행동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아동들이 자기 기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나를 속이려는 모습,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차이들을 발견하게 된다.

타.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의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다. 퇴소 후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밀릴 수 있다거나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정도의 경험이 언급되었다.

파. 차별 경험

시설 종사자들이 경험한 시설아동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경우 양육시설과의 차이를 느끼고 있고, 앞서 언급된 교사의 차별, 진학과정의 차별, 친구들의 이상한 시

선, 단체활동을 할 때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경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서 시설아동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지저분하다는 오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대중매체에서 시설아동들을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지역주민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을 경험한 참여자도 있다. 지금은 드러나는 차별보다는 은밀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다.

3. 시설아동의 빈곤맥락에 대한 통합 분석

시설 종사자들과 시설 아동들(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경험한 빈곤의 맥락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를 통합하여 하나의 맥락으로 재구성하였다([그림 9-3] 참조). 전체 구조와 세부 내용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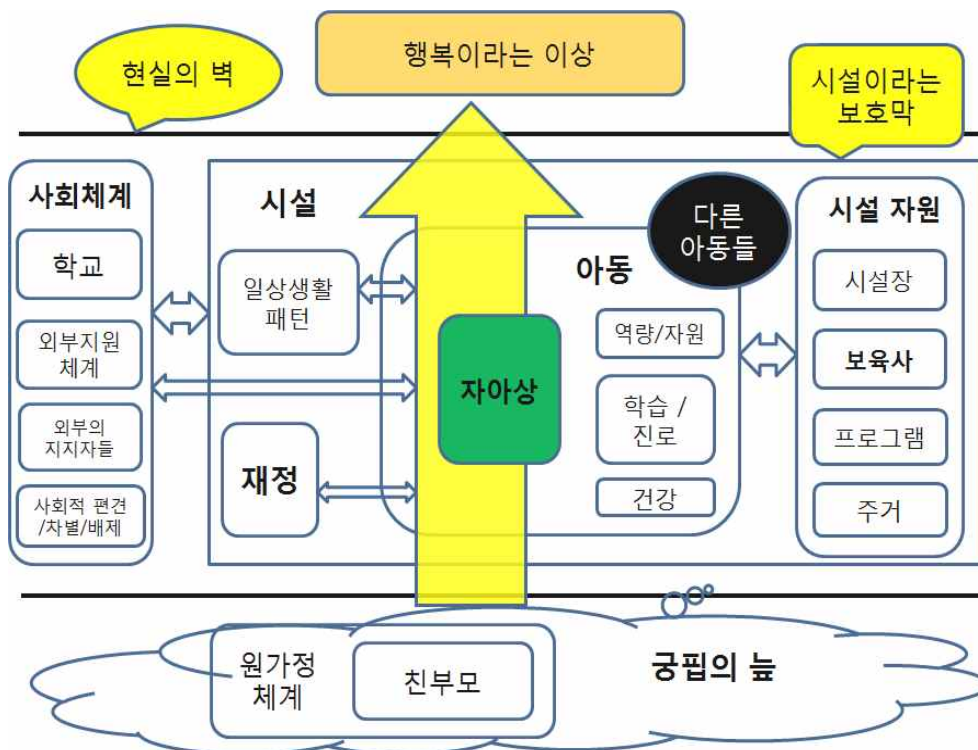
시설아동의 빈곤맥락에서 중심이 되는 하위맥락은 **시설의 재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시설의 재정은 정부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성되고, 그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보조금이다. **시설아동의 빈곤**을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 즉 충분히 영양을 공급할만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류(옷, 신발, 필수 장신구)를 충분히 구입해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주거공간이 좁거나 청결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가재도구(침대, 책장, 책상, 의자, 옷장 등)들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로 규정한다면, 현재 시설아동들은 빈곤하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에 입소하기 전 대부분의 아동들이 빈곤한 부모와 가정에서 생활했음을 고려하면, 시설은 아동의 **빈곤탈피**를 위한 결정적인 정책수단이다. 아래 그림에서 친부모를 포함한 원가정 체계는 대체로 ‘**궁핍의 늪**’에 빠져 있고 아동도 마찬가지였다. 원가정 체계와 시설을 구분하는 선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중에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아동에게는 ‘**시설이라는 보호막**’, 그리고 안전망이 생기고 궁핍 또는 빈곤의 늪에서 건져지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만으로도 이러한 빈곤 탈피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 특히 시설 종사자들은 식생활과 의생활 면에서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아동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시설 차원의 모금이나 후원이 있어야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먹이고, 옷을 사 줄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들은 이 수준을 넘어서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후원금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종사자들과 아동들은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먹고 있으며, 간식도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고까지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시설들은 의류비를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3] 시설아동의 빈곤맥락



그러나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점에서 정부보조금만으로도 이 수준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 영역의 경우에도 다수의 시설들이 최소한 원가정, 나아가 일반 가정들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동들과 공간의 배치에 따라서는 좁게 느낄 수 있으며, 가재도구들은 1인 1개씩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항들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집단별 분석결과에서 제시되지 않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 그것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재정과 자원의 크기가 달라지는 ‘**규모 효과**’다. 우선 양육시설들과 **공동생활가정**들 사이에는 아동 1인당 급여지원방식이 다르다. 양육시설들은 아동 1인당 급여를 계산하여 주부식비 등을 책정하고 시설 운영비로 합산하여 지급하지만, 공동생활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 수급자로 책정하여 1인당 급여를 지급하며 시설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1인당 급여는 동일하지만 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양육시설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은 그렇지 않다. 이는 아동들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방식과 용돈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동생활가정은 급여에서 떼어 용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여유가 없고, 후원금을 따로 모금해서 지급하기에도 여력이 없는 것이다.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재정 상태는 시설 자체의 재정규모나 아동 1인당 지급되는 급여수준보다는 월 단위로 또는 수시로 개별 아동에게 지급되는 ‘**용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점부터 시설 퇴소 전까지 용돈은 아동이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이 후원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후원금을 모으고 개별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모들이 아동을 만날 때 주고 가는 용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 내에서 부모의 용돈에 따라 아동들 사이에 재정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들이 이 이슈에 대해 더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주는 용돈을 고려하여 후원금을 조절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용돈 통장 이외에 모든 시설 아동들에게는 입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CDA)**이 개설되고 자립지원금이 쌓여가고 있다. 미래의 재정 악화를 대비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대안이지만 총액은 여전히 자립 지원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동들이 **행복이라는 이상**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설의 맥락에서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들은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자원과 지원을 아동들에게 공급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단 모든 시설이 연결하고 있는 자원은 **외부인인** 후원자들을 통한 **후원금과 자원봉사자**였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대학생을 활용한 학습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대학생 팀이나 기업 직원들이 단체로 와서 아동들과 놀아주거나 행사를 하거나 시

설 밖으로 나들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후원과 자원봉사자를 제외하면 시설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자원의 범위도 조절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학습지원이나 예체능 적성교육, 또는 운동** 자체를 위한 학원 연계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체로 학원에 가거나 아동들이 원하는 대로 개별적으로 보내거나 시설에 와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로서 **상담치료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큰 시설들은 시설 내에 임상심리상담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상담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많은 시설들이 외부 상담소에 아동을 의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설 차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체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교육프로그램이거나 외부 기관에서 재정지원을 하면서 실시하게 된 개입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전체 아동이나 특정 연령에 해당되는 아동들을 인원에 맞춰 모두 참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동 인권이 부각되면서 선택권과 자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은 특히 시설에 새로 입소한 아동들의 경우 **신체건강과 발달, 인지발달(학습능력),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수준**이 대체로 낮은 편이라는 점과 시설이 연결하고 활용하고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들을 통해 이러한 발달영역들이 평균 수준으로 수렴해 가지만, 일부 영역들은 반영구적인 손상과 누적된 발달지연 등으로 인해 일반아동들의 수준을 쫓아가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특히 **학습역량**이나 그것의 지표인 **성적**은 부적절한 부모에 의한 양육기간이 길어지고 입소 연령이 늦어질수록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양공급의 제한으로 키와 몸무게, 건강수준이 평균 이하인 경우도 많고, 치아처럼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영역들은 시설 입소 전에 이미 벌어진 일들이어서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다수의 아동들은 학령이 높아지면서 시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평균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습역량의 부족과 낮은 성적은 **진로선택**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아동들이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인문계에 진학하더라도 대학 진학시 전공 선택의 폭은 여전히 좁은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시설에서 종사자와 아동들이 예체능에 재능을 가진 아동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재능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되고, 진로로 연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과 자원의 규모, 형평성,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예체능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발달의 지연을 제외하면 아동들의 **건강과 그에 대한 관리체계**는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시설 내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보육사와 늘 협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시설 외부의 의료기관들과도 이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협약 등을 통해 진료비를 감면해주거나 할인해 주는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설은 아동의 건강과 신체발달 수준을 향상시키는 개입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취약점은 전염병과 같이 단체생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건강 이슈들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들을 제외하고, 시설아동의 빈곤맥락 그림에서 빠져 있는 것은 일상생활 패턴과 시설장, 보육사, 다른 시설아동, 친부모, 학교 교사와 친구 등의 대인 관계들이다. 먼저, **일상생활 패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의 일상생활은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학기 중의 하루 일과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아동들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차이는 시설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단체생활의 제약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유를 잃을 때가 많다는 점이다. 정해진 시간까지 시설로 돌아와야 하고, 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행사, 활동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맺은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경험된다고 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매우 긍정적으로 경험되는 시설생활의 차이도 있다. 바로 **‘다양한 기회의 제공’**이다. 학습이나 예체능학원도 그렇지만, 주말에 방별로 놀이공원에 놀러 가거나 문화행사와 각종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 패밀리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는 것, 방학마다 캠프를 다녀오는 것, 그밖에도 개별적으로 또는 시설 차원에서 단체로 다녀오

거나 이용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원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들이다.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 비교해 봐도 결코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시설이라는 장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의 패턴은 시설아동들의 삶을 제약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험과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시설이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지지체계**다. 가장 핵심적인 지지체계는 **보육사**일 것이다. 시설아동들이 가진 생태체계 맥락에서 부모가 빠진 자리를 보육사가 채우고 있다. 관계라는 측면에서 시설아동을 바라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일상생활에서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게 되지만, 그 관계의 질은 매우 빈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시설아동에게 좋은 관계의 모델이 되는 것이 보육사다. 부모처럼 늘 함께 생활하면서 돌봐주고 챙겨주고 가르쳐주고 놀러 다니고 잔소리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 그런 존재. 시설장 중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 물론 보육사에게는 한계가 있다. 부모의 역할 중에서 주로 엄마의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이고, 2교대를 하기 때문에 부모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엄마보다 이모,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주로 쓰는 데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언제든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보육사는 이직할 수 있다!).

보육사의 한계를 **시설장**이 채워주는 경우도 많다. 시설장들은 주로 외부에서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 역할 중에서 아빠 노릇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아동과 접촉은 많지 않더라도 그 역할은 아빠를 모델링하는 일이 될 것이다. 공동생활가정들과 일부 시설들에서는 실제로 시설장들이 보육사의 기능까지 맡아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며, 시설아동들로부터 엄마나 아빠로 불리기도 한다. 시설장들은 보육사보다 꽤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설장은 아동들의 관계 빈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일 수 있다.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아동**들은 성별, 연령, 학령, 성격 특성, 함께 거주한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시설 아동들 사이의 관계를 ‘**유사형제관계**’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 방에서 공간과 가재도구들을 공유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밖으로 놀러 다니기도 하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수용한다면, 형제의 수

가 대체로 너무 많다는 점을 빼놓고는 일반적인 형제관계와 다를 것이 없다. 형제가 많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함께 놀 수 있는 이가 많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개별적인 친밀함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단점이다.

친부모는 시설아동의 빈곤맥락에서 원인 요소였지만 시설을 통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개별적인 재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고, 자신이 시설아동의 생태체계에 만들어놓은 큰 구멍을 그나마 메울 수 있는 자원이다. 부모의 자리는 부모 밖에는 채울 사람이 없다. 부모와 아동의 관계는 천차만별이고 극과 극이지만, 대체로 친부모들은 아동과 자주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지 않고 있고, 아동이 나이 들어갈수록 그 관계도 점차 소원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관계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학교체계는 시설아동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교들은, 교사 수준에서, 시설아동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교사**들은 일반가정의 아동들에게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니 시설아동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부 교사들은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시설아동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이 담긴 말과 행동을 보이고, 일부 교사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당연히 후자가 전자보다 나은 것이지만 둘 다 아동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친구관계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중요한 요소다. 다수의 아동들은 친구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아동들은 학령이 낮을수록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친구들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숨기는 아동들도 있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는 정도는 아동의 성격이나 성향, 태도, 친구들의 특성, 관계의 질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아동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시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공개하고, 친한 친구들을 시설로 데려와서 같이 놀기도 한다.

친구관계는 시설아동의 복지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과 학습역량을 키우고,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며 공유하고, 성인이 된 이후 대인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고등학교 시기에는 인문계와 실업계 진학여부에 따라 관계와 학습의 질, 진로가 달

라지는데, 실업계에 진학했을 경우 대체로 좋은 **학업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구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제 시설아동의 빈곤맥락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남아 있다. 연구자는 그것을 ‘**자아상**’,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들’로 부르려고 한다. 이것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 자아개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설아동들이 갖고 있는 자아상은 앞서 제시된 연구결과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친구들에게 시설 생활 여부를 공개하는 장면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시설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일부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아상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사회적 배제, 차별,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친구들의 부정적 반응(놀림이나 놀람)과 교사들의 차별하는 듯한 태도 또는 편견의 표현, 그와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지나친 관심, 그리고 근린지역사회 주민들의 배제나 차별, 편견 태도와 지역사회 각종 현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의 은밀한 차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원가정에서 경험한 학대와 방임, 부모의 이혼과 갈등, 빈곤 상황 등이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위축시킨 것이 이후 전반적인 발달에 누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식주, 돌봄,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 관계 경험 등이 이러한 영향을 상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천차만별이다. 시설의 영향이 제한될수록 자아상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인지발달의 지연과 학업수행능력의 저하, 학업부진으로 이어지는 경험은 아동의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와 꿈, 미래에 자신이 이루어갈 가정의 이미지도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인은 시설 종사자들이 언급한 ‘**의지 부족**’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의 부재 또는 약한 연결이 시설아동의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시설 입소 이전의 좋지 않은 기억들, 부모의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 그에 대한 생각, 모델로서 부모의 역할을 지켜보면서 배울 수 없다는 것, 퇴소 이후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부모의 품이 없다는 것 등이 자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설아동의 빈곤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쟁점이 있다. 그것은 이 연구의 결과를 전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시설아동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이 연구에 참여한 시설과 종사자, 아동들이 전체 모집단 중에서 아웃라이어(outlier)에 해당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표준편차 이내에 포함되는 표본일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은 이 연구에 참여한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발생하였다. 즉, 연구진이 이들 연구사례와 참여자들을 찾을 때까지 서울과 충남 지역의 많은 시설들에 연락하였고, 그 시설들이 모두 연구참여를 거부하였는데, 그와는 달리 이들 시설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적어도 ‘개방성’의 측면에서는 특이한 사례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연구의 결과를 전체 시설에 적용할 때 일반화 오류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편 극단에 있는 아웃라이어들의 잠재적 상황을 예측하여 정책과 행정, 실천 지침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재정 측면에서 후원금이나 법인지원금이 거의 없이 전적으로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의식주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과 공동생활가정들이 있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나 외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아 기본적인 ‘보호’ 이외에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들이 있을 수 있고, 피학대 경험 아동들의 입소 증가와 함께 여전히 개별 종사자들이 양육해야 하는 아동의 수가 많은 상황에서 양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오히려 시설 내에서 학대와 방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시설평가와 감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설 내 학대사례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당장 이러한 소수 사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설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 보다는 부정적인 극단에 있는 아웃라이어 시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높이고, 평가나 감사, 내부고발, 언론 등을 통해 재정 부족이나 비리, 학대 사실이 노출된 시설들을 특별 관리하면서 양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제5절 소결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아동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서 시설 종사자 6명, 초등학교 고학년 7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6명, 총 2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시설 종사자들과 시설아동(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집단별로 묶어서 범주화하고, 이어서 시설아동의 빈곤 맥락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절대적 빈곤 개념을 기준으로 할 때, 의식주라는 단순한 욕구들만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시설아동들은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들은 원가정에서 빈곤했거나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들을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정부의 개입, 즉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부담’에 해당하는 법인부담금이나 후원금을 통해 빈곤선의 경계에 있는 아동들을 빈곤선 위로 올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류비가 상당히 부족한 시설도 있었고, 시설 유형에 따라 주거의 질이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보조금만으로 시설아동의 빈곤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 시설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맥락의 요소들은 첫째, 시설장과 보육사, 간호사, 임상심리상담원을 포함한 시설 종사자들과 그들의 양육 행위와 개입, 둘째, 공공기관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과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 셋째, 학습과 적성, 교양을 위한 학원, 과외(개별지도), 넷째, 물질적 지원을 주로 제공하는 후원자와 비물질적 지원을 위주로 한 자원봉사자, 학교체계와 교사들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설아동의 신체건강과 발달,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 자립준비를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며,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시설아동의 빈곤맥락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자아상’인 것으로 보인다. 원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위축된 자아상은 다른 발달영역들의 지연과 누적으로 인한 영향을 받

아 긍정적인 반전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아상에서도 핵심은 자아존중감이 라고 생각되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학습 의욕을 갖기 어렵고, 학업이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시점에서 시설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나 차별, 편견은 시설의 당사자들에게 예상보다 크게 또는 심각하게 경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교와 근린지역사회의 하위체계들과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더 큰 지역사회의 여러 지점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이 편견이 반영된 말, 차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충격적이거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고, 제도적인 수준과 개별, 집단 수준의 사회적 배제도 일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재정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생계급여’가 아닌 ‘생활급여’ 수준으로 증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즉, 시설아동이 주변 친구들과의 평균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생활의 경우 주거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야 하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을 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설 입소 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시설들이 하나둘씩 폐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후 건물들을 가진 시설부터 폐쇄하고, 소규모 시설들을 중심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공간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금을 모으고 있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립을 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1~2인 단독가구의 지역별 전월세비를 고려하여 그 수준에 맞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시설 차원의 후원금과 친부모의 용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시설아동들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위에 언급한 자산형성이 아동들의 물적 자본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은 인적 자본에 해당된다. 현재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심리정서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확대하고

내용을 보완하며, 공공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특히 입소 초기 1~3년 사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과 함께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별적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는 학습지원과 적성/진로탐색과 준비 과정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캠프, 각종 행사 등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시설에 맡겨 두면 시설들 사이의 차이가 커지고, 아동들 사이의 차이도 커지기 때문이다. 각 시설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아이들을 통합하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의 아동들이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시설아동들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개별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시설장, 보육사, (퇴소생 선배들을 포함한) 시설아동, 후원자, 자원봉사자, 친부모, 친척, 교사, 친구, 이웃 등으로 구성된 관계망의 각 단위들은, 비록 일반가정의 팬찮은 부모들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과 비교하면, 연결고리가 약하고 지원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단위들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그 관계들을 강화하면 총체적인 사회적 자본의 양과 질은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단위(보육사 등 종사자, 시설장, 시설아동, 친부모, 친구, 교사 순?)부터 순차적으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보육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임상심리상담원도 시설 내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아동에 특화된 임상심리사 또는 충분히 훈련된 전문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일상적으로 심리사회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시설 외부에 있는 개별 또는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시설과 접촉하거나 시설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나 기업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연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때문에 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초등학교 이전과 중학교 이후 장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멘토링 방식으로 아동을 돌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훈련,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제 범위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확대와 입소기간 연장, 또는 양쪽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생활할 수 있는 가족생활시설 또는 가족공동생활가정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아동양육시설의 현원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시설의 유희공간이 늘어나고, 시설 자체가 폐쇄되고 있으며, 시설의 다기능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자주 아동을 방문할 수 있는 부모들이 있는 경우 부모가 시설에 입주하여 공동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것이 당분간 어렵다면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을 공동주택의 형태로 추가 신설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는 현재 기본적으로 3년 이내,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입소기간을 현실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아동의 부모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시설에서 원가정 복귀에 성공한 비율과 유형, 특성 및 개별 사례에 대한 추적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시설아동의 빈곤맥락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넘어 당사자인 시설아동과 시설종사자들이 경험한 시설생활의 주관적 의미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나름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사례와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참여자 선택의 편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설에 연구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고 협조를 얻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는데, 이 과정에서 연락한 많은 시설들이 연구참여를 거부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시설과 공동생활들은 기꺼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허락한 곳들이었다. 따라서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나 운영체계, 프로그램, 종사자와 아동 간 관계 등의 여러 측면들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시설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종사자와 아동들도 종사자들 사이의 논의를 통해 또는 시설관리자와 종사자들의 추천에 의해 선정되고 이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도 부정적인 경험은 적고, 긍정적인 경험은 많은 이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 4 부 결론

제10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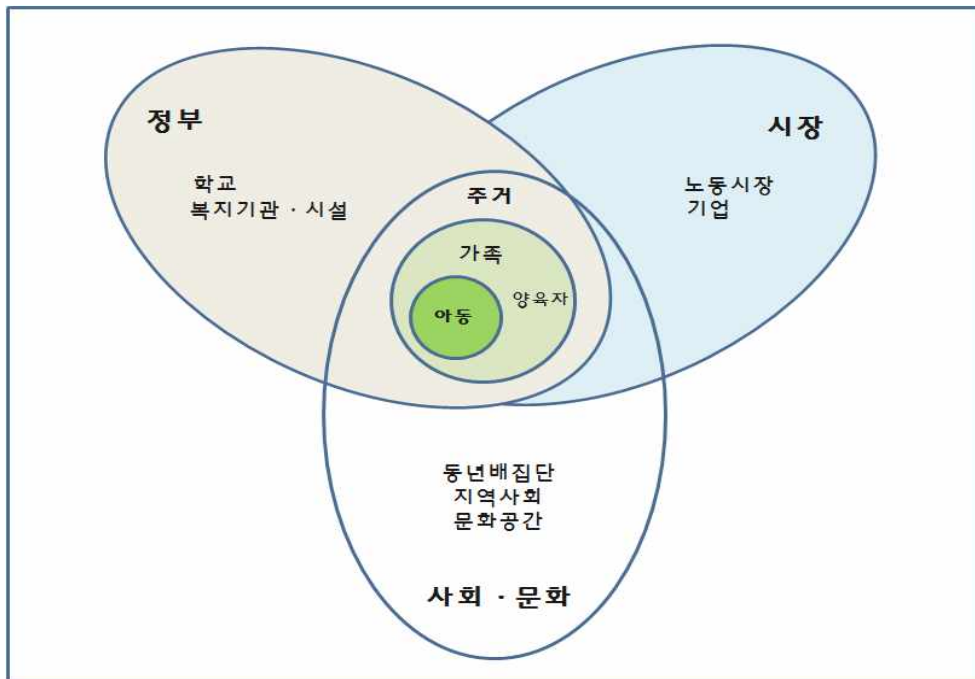
제 10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2012년에 제정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첫 번째 실시되는 아동빈곤 실태연구 보고서로서, 아동빈곤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계측 방식에 기초하여 아동빈곤의 최근 추이와 규모를 추정하고, 아동의 빈곤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빈곤에 대한 기존 이론과 계측 방식들,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였으며, 여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빈곤 추이 변화와 특성, 그리고 빈곤아동의 실태를 영역별·가구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결론을 대신하여, 본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함과 아울러, 분석의 결과가 주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정책적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그림 9-3]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주요 영향인자들(agents)



먼저, 아동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과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빈곤은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민감한 발달과정을 겪고 있는 아동기의 빈곤경험은 다른 인간 발달 시기에 비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아동의 발달은 미래의 사회·경제적 복리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빈곤이 아동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나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환경 등 아동을 둘러싼 복합적인 환경 요소들을 매개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단편적인 빈곤의 영향 여부를 넘어 빈곤이 어떠한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동기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개입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에 망라되어 있는 만큼, 향후 아동빈곤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부처들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차원적 아동빈곤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요 국제기구와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빈곤지표와 함께 다차원적 아동빈곤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OECD 아동복지 지표, 유럽연합(EU)의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위험 비율(at-risk-of poverty of social exclusion rate, AROPE) 지표와 아동박탈지표, UNICEF의 아동복지지표, 영국의 다차원적 아동빈곤지표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차원적 아동빈곤지표라고해서 기존의 소득 중심의 빈곤지표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득을 지표의 중심에 두되 이러한 소득의 빈곤을 유발하는 혹은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의 요소들을 아우르면서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차원 지표들은 공통적으로 물질적 복지와 더불어 주택과 주거환경, 교육, 아동의 건강과 안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도와 부모의 건강, 사회적 관계와 문화생활 등도 아동빈곤지표의 척도로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다차원적인 아동빈곤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피드백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 선진국의 아동빈곤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개입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다. EU와 미국에서는 최근 아동빈곤이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영역별·성격별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EU의 경우 Europe 2020의 사회적 포용 목표 속에서 아동 빈곤과 배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EU 차원의 전략 목표 수립과 회원국 차원의 실행계획 수립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조정되고 있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아동빈곤률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급여와 근로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물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이 두 사례의 시사점은 아동의 특수성과 다차원성을 고려한 아동빈곤지표 개발의 필요성,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피드백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현금과 현물급여의 조화를 통해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 한부모·이민배경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긍정적 차별 시책의 강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 교육, 문화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빈곤대응 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이다.

넷째, 아동가구 내 성인의 활성화(activation)와 복지지원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최근 아동빈곤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증가 일로에 있던 아동빈곤은 2010년 전후로 뚜렷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빈곤 감소는 주로 아동가구 내 취업자 수 증가와 근로소득의 상대적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아동의 다차원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빈곤가구가 가구주 중 저학력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저소득과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또한, 빈곤 아동가구의 가구주는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빈곤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가구 내 성인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가구 내 성인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숙련 수준이 낮거나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보호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나 고용서비스(enabling service)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빈곤 가구 중 여성(한부모)가 가구주가구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고용 장벽을 제거해 주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 거주지역에 질 높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탄력적인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아동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정체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빈곤아동가구에 대해서 현금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율과 빈곤갭을 감소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

요도 있다.

다섯째, 아동빈곤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중 가장 밀착된 공간은 주택과 주거환경이라 할 수 있다. 빈곤가구의 주택 문제는 크게 주거비의 과부담과 불안정성 문제와 주거의 질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 경향'과 맞물려 빈곤 아동가구의 월세 비율은 40~60%에 이를 정도로 높고, 이로 인해 이들 가구의 월세 과부담 비율 또한 12~20%로 비빈곤 가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빈곤 아동가구의 비율 또한 30~40%에 이르렀다. 특히, 아동과 관련한 주거의 질은 비단 주거공간의 과밀이나 노후화에 머물지 않는다. 질적 분석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두운 거리나 성범죄자와 가까운 주거환경, 그리고 성별로 분리되지 않은 주거공간과 유해한 학습 환경 같은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미시적이고 세밀한 정책적 배려와 개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섯째, 아동의 특성과 재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최근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 본 분석의 결과, 특히 사교육의 계층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또한, 비수급 빈곤아동가구를 중심으로 저소득가구의 교육비 과부담가구의 출현율이 매우 높았다. 즉, 저소득부모의 경우 여전히 자식 세대에서는 교육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열망하면서 가구경제에 비추어볼 때 매우 높은 교육투자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 측면에서는 고소득가구와의 사교육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질적 연구 결과에서 이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아동이 비교적 공부를 잘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없는 부모의 안타까움과 더불어, 아동이 가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꿈을 접는 '희망의 휴전상태'도 목격되곤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애초에 학교교육을 통한 꿈의 실현에 대한 열망을 접고 아르바이트에 열중하거나, 더 나쁘게는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등에 빠지기도 한다. '기회의 균등'은 근대화된 국가의 최소조건이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의 재능과 꿈, 끼를 살리는 교육의 실현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 더 질 높은 공교육과 저소득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

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주양육자의 양육태도와 관련해서 빈곤아동 가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평균적으로 부부싸움의 횟수가 잦고, 자녀 양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질적 분석의 결과에서도, 빈곤이라는 각박한 현실, 특히 한부모와 같이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하는 환경은 아동을 이룬 시기에 ‘애어른’으로 만들거나 혹은 그 반대로 반항·퇴행과 같은 행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부담과 우울을 아동에게 투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곤 한다. 아동기의 불행한 가족 관계와 경험은 성인기에까지 트라우마와 상흔을 남길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가족상담, 심리지원, 부모교육과 같은 좀 더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덟째, 빈곤아동의 문화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결과, 계층 간 문화활동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으며, 특히 가족과의 여행이나 기념일, 외식 등을 향유하지 못하는 빈곤 아동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취미활동 역시 대부분 옥내 취미활동으로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과 함께 문화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빈곤아동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빈곤아동의 가구유형별 특수성을 감안한 배려 깊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아동빈곤예방법에서는 빈곤아동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아동, 한부모가족지원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을 받는 아동,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을 통한 빈곤의 규정상 법상의 빈곤아동 정의와 현실상의 정의 사이에는 다소의 괴리가 존재한다. 특히 한부모가족지원이나 다문화가족지원을 받는 가구들이 모두 빈곤가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자면 단순히 경제적 결핍을 넘어서는 사회적 배제 차원의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이혼의 증가와 외국 국적자와의 혼인 증가로 한부모가구와 다문화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부모가구는 ‘빈곤의 여성화’로 대변되는 여성 한부모가구의 높은 빈곤화 위험과, 일과 양육을 한부모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데 따른 어려움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구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자녀가 겪는 적응 문제, 차별과 편견

을 포괄하는 사회적 배제 문제도 큰 차원에서 아동빈곤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가족해체 등의 문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받는 내상으로부터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적응과 편견의 문제, 특히 청소년 후기의 퇴소에 따른 경제적·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사전적 배려가 필요하다 등등. 탈산업 사회의 특징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꼽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전형적 가족상’이 존재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보편화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는 별개로, 한 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시설아동 등이 가지는 추가적인인 욕구와 특수성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문헌 <

<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pp.57-79.
- 김광혁(2006a). 빈곤이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4), pp.265-289.
- 김광혁(2006b). 아동기 빈곤이 학구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 빈곤의 시기와 기간, 정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1, pp.195-217.
- 김광혁(2006c). 빈곤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2006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김광혁(2007). 경제적 박탈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한국아동권리연구, 11(2), pp.187-207.
- 김광혁(2015). 가족의 경제적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웃환경과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3), pp.129-159.
- 김광혁, 차유림(2007). 가구빈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1), pp.29-51.
- 김낙년(2015).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낙성대경제연구소 working paper.
- 김미곤, 여유진, 양시현, 강성호, 김태완, 이정민(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안나(2014). 가구유형별 빈곤과 배제의 특성 연구, 가족과 문화, 25(1), pp.237-265.
- 김연아, 정원오(2016).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비판사회정책, 50, pp.334-377.
- 김은지(2016). 한부모가족의 빈곤추이와 결정요인, 2016년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5.27.
- 김은지, 황정임, 최인희(2013). 한부모가족지원 종합대책 수립 연구. 여성가족부.
- 김은지 외(2013).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은지 외(2015).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이선 외(2009).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 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이선, 이아름, 황정미(2014).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혜영, 진미정, 김은지, 이희길, 심수진, 이재경(2015). 가족가구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통계 개발원.
- 방하남, 김기남(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pp.193-222.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5).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2014.
- 보건복지부(2015).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 석미정(2016). 자녀의 부모화(parentification)에 관한 국내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2), pp.53-75.
-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 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신현옥 외(2012).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 과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 신광영(2016a). 사회민주주의 복지사상: 뮌헨과 에스핑 안데르센을 중심으로. 김윤태 엮음. 복지와 사상. 한울아카데미. pp.43-68.
- 신광영(2016b). 한국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125-141.
- 양경은, 함승완(2015). 다문화정책의 사회통합 효과: 다문화교육정책이 이주배경 아동의 학교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2(2), pp.9-31.
-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여유진, 김수정, 구인회 외(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외(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외(2014).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국민대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 여유진, 김영순, 강병구, 김수정, 김수완, 이승윤, 최준영(2016).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레짐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승환, 김광혁(2012). 가족 빈곤이 고교진학 유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4),

- pp.1-20
- 이삼식(2012). 외국의 보육·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 169호.
- 이주연, 김미숙(2013).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건복지포럼, 203, pp.90-103.
- 이혜원 외(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임세희(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pp.377-402.
- 전병유(2016). 한국의 불평등 2016. 서울: 페이퍼로드.
- 정기선(2014). 국내체류 이주민 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 방향: 다문화시대, 이주민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 제16차 다문화가족포럼 자료집 (2014. 6. 11), 여성가족부.
- 정은희 외(2013).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희, 이주미(2015).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진현환(2013).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 삼성경제연구소.
- 최은영, 홍장표(2014). 세대 간 직업계층의 이동성. 지역사회연구, 22(1), pp.51-70.
- 최필선, 민인식(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pp.31-56.
- 통계청. (2016. 10. 29)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에서 2016. 10. 29. 인출.
- 통계청. (2016. 10. 7) 2015년 인구총조사. <http://www.index.go.kr>에서 2016. 10. 7. 인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 행정자치부(각년도). 외국인주민 현황. 2009-2015.
- 황정미(2012). 다문화가족과 국민의 경계 -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민족연구, 50, pp.64-81.
-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2013).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도시지역의 비혼 1인가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lexander, K. L., Entwisle, D. R. and Thompson, M. S. (1987). School Performance, Status Relations, and the Structure of Sentiment: Bringing the Teacher Back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pp.665-682.

- Atkinson, A.B. (2010). Poverty and the EU: The New Decade, Macerata Lectures on European Economic Policy, Dipartimento di Studi sullo Sviluppo Economico, *Working Paper 24*, University of Macerata, May 2010.
- Becky F. Antle , Andy Frey , Anita Barbee , Shannon Frey, Jennifer Grisham Brown and Megan Cox, (2008). Child Care Subsidy and Program Quality Revisited.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9(4), pp.560–573.
-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and N. Tomes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pp.S1–S39.
- Ben-Arieh, A. and Frones, I. (2007). Taxonomy for Child Well-being: What Should be Measured and Wh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4, pp.249–250.
- Blank, Susan W., Blum, Barbara B. (1997). A Brief History of Work Expectations for Welfare Mothers. *The Future of Children WELFARE TO WORK* 7(1):28–38.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teach, M. Vallas, R., and Schultz, E., (2016). *A Progressive Agenda to Cut Poverty and Expand Opportunity*.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Washington D.C.
- Bourdieu, P. (1986). Forms of Capital, in John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pp.245.
- Braatz, J. and Putnam, R. (1996) *Families communities and education in America: exploring the evidence*. Centre on Organisation and Restructuring of Schools, Madison. Wisconsin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 Bradley, R. and Corwyn R.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pp.371–399.
- Brody, G. H., and Flor D. L. (1998). Maternal resource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69(3), pp.803–816.
- Brody, G. H., Flor D. L., and Gibson N. M. (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5), pp.1197-1208.
- Brody, G. H., Stoneman, Z. and Flor, D. (1995). Linking Family Processes and Academic Competence among Rural African American Youth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pp.567-579.
- Brooks-Gunn, J. and Duncan G.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pp.55-71.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2016). *Policy Basics: The Child Tax Credit*
- Chase-Lansdale, P. L, Gordon R. A., Brooks-Gunn J. and Klebanov P. K. (1997). Neighborhood and family influences on the intellectual and behavioral competence of preschool and early school-age children. pp.79-118. *In Neighborhood Poverty*, Vol. 1. edited by J. Brooks-Gunn, G. J. Duncan, and J. L. Aber (Eds.), New York: Russell Sage.
- Child Trend, (2016). *Receipt of Snap Benefits*.
<http://www.childtrends.org>. 2016.10.31.인출.
- Child Trends, (2015). *Children in working Poor Families*.
<http://www.childtrends.org> 2016.8.30. 인출.
- Chung H. L. and Steinberg L. (2006) Relations Between Neighborhood Factors, Parenting Behaviors, Peer Deviance and Delinquency among Serious Juvenile Offend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pp.319-331.
- Coleman, J. C.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 S95-S120.
- Coleman, J. C.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onger, R. D., Elder H. G, Lorenz, F. O., Conge, R. K. J., Simons, R. L, Whitbeck, L. B., Shirley .H and Janet. N. M.,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pp.643-656.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and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pp.526-541.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and Whitbeck, L. B. (1993). Family economic stress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 Developmental Psychology*, 29, pp.206–219.
- Conger, R. D., Elder, G. H., Lorenz F. O. and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pp.541–61.
- Conger, R. D., Conger, K. J. and Elder, G. (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pp.288–310. *I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edited by G. J. Duncan and J. Brooks–Gun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onger, R.D., and Donnellan, M.B., (2007)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o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human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pp.175–199.
- Conger, R. D., McLoyd, V. C.,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and G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pp.179–193.
- Cooper, A. M. (1990). Fallacy of a single model for school achievement: Considerations for ethnicity. *Sociological Perspectives*, 33(1), pp.159–184.
- Corcoran. M. (2000). Mobility, persiste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determinants of children's success. *Focus*, 21(2), pp.16–20.
- Danziger, Sheldon. (2007). Fighting Poverty Revisited: What Did Researchers Know Forty Years Ago? What Do We Know Today?. *IRP Focus*, 25(1), pp. 3–11.
- Davies, D. (1999). *Child Development: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 De Garmo, D. S., Forgatch, M. S., and Martinez, Jr, C. R. (1999). Parenting of divorced mothers as a link between social status and boy's academic outcomes: unpacking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Child Development*, 70(5), pp.1231–1245.
- DeNavas–Walt, C. and Proctor, B. (2015).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14*. Current Population Reports, U.S. Census Bureau.
- Desai, M. and Shah, A. (1988). An Economic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Poverty. *Oxford Economic Papers*, 40, pp. 505–22.
- Dohmen, T. (2005). Housing, mobility and unemployment. *Regional Science and*

- Urban Economics*. 35(3), pp. 305–325
- Duncan, G. J. (1994). Families and neighbors as sources of disadvantage in the schooling decisions of White and Black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3, pp.20–53.
- Duncan, G. and Brooks–Gunn, J.(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uncan, G., Brooks–Gunn J., and Klebanov, P. K.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2), pp.296–318.
- Duncan, G., Yeung, W. J., Brooks–Gunn J., and Smith, J. R. (1998). How much does childhood poverty affect the life chances of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pp.406–423.
- Eamon M. K. (2002). Effects of poverty on mathematics and reading achievement of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2(1), pp.49–74.
- Eccles, J. S., and Midgley, C. (1989). Stage/environment fit: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lassrooms for early adolescents. In R. E. Ames and C. Ames (Ed.),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3*, pp.139–186.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Edin, K. and Lein, L.(1997).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Elder, G. H.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Social Change in Life Exper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der, G. H. Jr, and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pp.25–45,
- EC. (2012). *Europe 2020: A European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European Commission.
- EU. (2013). *Child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 framework for European action*. Library Briefing.
- Eurostat (2016). *Children 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ec.europa.eu).
- Eurostat (2016).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Indicators to Support the Europe 2020 Strategy*.
- Ekono, M., Jiang, Y., and Smith, S. (2016). *Young Children in Deep Poverty*.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Columbia University.

Food and Nutrition Service (2016). *National and/or State Level Monthly and/or Annual Data – Latest Available Month March 2016*.

<http://www.fns.usda.gov/pd/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 2016.08.25. 인출.

Frazer, Hugh. and Eric Marlier. (2012). *Current Situation in relation to Child Poverty and Child Well-being: EU Policy Context*. Key Challenges and Ways forward. European Union, CY 2012 EU.

Gershoff, E T., Lawrence, A. J., Cybele, R. C. and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 mediators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8, pp.70–95.

Guo, G., and Harris K. M. (2000). The mechanisms mediating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Demography*, 37(4), pp.431–447.

Gutman, L. M. and Eccles, J. S. (1999). Financial strai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s' achievement: Testing model equivalence between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6), pp.1464–1476.

Haapanen, Sonia. (2015). *The European Parliament Confirms that Fighting Child Poverty is Top Priority for Europe*.

Carita Europa(www.caritas.eu).

Haveman, R., Blank, R., Moffitt, R., Smeeding, T., and Wallace, G., (2015). The War on Poverty: Measurement, Trends, and Policy, *Journal of Policy and Manage*, 34(3);593–638.

Haveman, R. and Wolfe, B. (1995). The determinants of children's attainments: A review of methods and finding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 pp.1829–1878.

Hill, N. E., Castellino, D. R., Lansford, J. E., Nowlin, P., Dodge, K. A. and Bates, J. (2004). Parent academic involvement as related to school behavior, achievement, and aspirations: Demographic variations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5), pp.1491–1509.

Hill, M. S. and Sandfort, J. R. (1995).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on Productivity

- Later in Lif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2), pp.91–126.
- HM Government. (2012) *Measuring Child Poverty: A Consultation on Better Measures of Child Poverty*. Presented to Parlia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by Command of Her Majesty November 2012.
- Hoelscher, P. (2004). *A thematic study using transnational comparisons to analyse and identify what combination of policy responses are most successful in preventing and reducing high levels of child poverty*.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Huston, A.C., McLoyd, V.C. and Garcia C. G. (1994). Children and poverty: Issues in contemporary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pp.275–282.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6). *Report for selected countries and subjects*. <http://www.imf.org>. 2016.10.31. 인출.
- Jackson, A. P., Brooks-Gunn J., Huang, C. and Glassman, M. (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s. *Child Development*, 71(5), pp.1409–1423.
- Jenson, J. M. and Fraser, M. W. (2011) *Social Policy for Children and Families: A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 Sage Publication California
- Jeffrey, G. (2003). The Effects of Time Limits, The EITC, and Other Policy Changes on Welfare Use, Work, and Income among Female-headed Famil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2), pp.394–408
- Jiang, Y., Ekono, M., & Skinner, C. (2016). *Basic Facts about Low-Income Children: Children under 18 Years, 2014*.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Columbia University. [wlc_2014statechild-careassistancereport-final.pdf](#). In addition, in July 2014,
- Jones, C., Clark, L., Grusec, J., Hart, R., Plickert G. and Tepperman, L. (2002). *Poverty, social capital, parenting and child outcomes in Canada*. Ottawa: Applied Research Branch, Strategic Polic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Kathleen Short (2011). The Research SUPPLEMENTAL POVERTY MEASURE: 2010, *Current Population Reports*, pp.60–241. U.S. Bureau of the Census,
- Kidd, Stephen. (2012). Child Poverty in OECD Countries: Lessons from Developing

- Countries. *Pathways' Perspectives on Social Polic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No.2*. 2016, June.
- Kimenyi, M. S. (1995). *Welfare dependency, Economics of Poverty, Discrimination and Public Policy*.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Klebanov, P. K., Brooks-Gunn, J., Chase-Lansdale, P. L. and Gordon, R. A. (1997). *Are neighborhood effects on young children mediated by features of the home environment? In Neighborhood poverty*. 1, (ed.), Brooks-Gunn, J., Duncan, G. J. and. Aber, J. L.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 Korenman, S., Miller, J. E. and Sjaastad J. E. (1995).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LS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2), pp.127-155.
- Lee, V, and Croninger, R. G. (1994). The relative importance of home and school in the development of literacy skills for middle-grad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2, pp.286-329.
- Leventhal, T., Brooks-Gunn J.. and Kamerman S. B. (1997). *Communities as place, face, and space: Provision of services to poor, urba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Neighborhood Poverty 2*, (ed.). Brooks-Gunn J., G. J. Duncan, and J. L. Aber. New York, Russell Sage.
- Lindsey, Duncan (2009). *Child Poverty and Inequality: Securing Better Future for America's Childr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nver M., Brooks-Gunn, J. and Kohen, D. (2002). Family Processes as Pathways from Income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pp.719-734.
- Mack, J. and Lansley, S. (1985). *Poor Britain*. London, Allen & Unwin.
- Marr, C., Huang, C., Sherman, A. and DeBot, B. (2015). *EITC and Child Tax Credit Promote Work, Reduce Poverty and Support Children's Development*. Research Finds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Washington D.C.
- Matthews, Hannah., Schulman, Karen., Vogtman, Julie., Johnson-Staub, Christine., and Blank, Helen. (2015). *Implementing 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Reauthorization: A Guide for States*. THE CENTER FOR LAW

- AND SOCIAL POLICY (CLASP) THE NATIONAL WOMEN'S LAW CENTER (NWLC).
- Mayer, S. (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yer, S. and Jencks C. (1989). Growing Up in Poor Neighborhoods: How Much Does It Matter?. *Science*, 243, pp.1441-45.
- McLoyd, V.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pp.311-346.
- McLoyd, V.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pp.185-204.
- Mistry, R. S., Biesanz, J. C., Taylor, L. C., Burchinal, M., and Cox, M. J. (2004). Family income and its relation to preschool children's adjustment for families in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40(5), pp.727-745.
- Nolan, Brian & Christopher T. Whelan. (1996). *Resources, Deprivation and Poverty*. Oxford, Clarendon Press.
- OECD (2013). The OECD Approach to Measure and Monitor Income Poverty across Countrie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s. *Working paper*, pp.17-25(Nov. 2013).
-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 OECD (2015). *How's Life for Children? in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 OECD/European Union (2015).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5*. OECD Publishing, Paris.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5). *Fiscal Year 2016 Historical Tables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budget/fy2016/assets/hist.pdf> 2016.08.20. 인출
- Pagani, L. S., Boulerice, B. and Tremblay, R. E. (1997). *The Influence of Poverty on Children's Classroom Place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Consequences of*

- Growing Up Poor*. (ed.) Duncan, G. J. and Brooks-Gunn, J.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Raver, C. C., Gershoff, E. T. and Aber, J. L. (2007). Testing equivalence of mediating models of income, parenting, and school readiness for White, Black, and Hispanic children in a national sample. *Child Development*, 78(1), pp.96-115.
- Roeser, R. W., Eccles, J. S. and Sameroff, A. J. (2000). School as a context of early adolescents' academic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Elementary School Journal*, 100(5), pp.443-471.
- Rowe, D.C. and Rodgers, J.L. (1997). Poverty and Behavior: Are Environmental Measures Nature and Nurture?. *Developmental Review*, 17, pp.358-75.
- Rutter M. (1983). School effects on pupil progress: Research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Child Development*, 54, pp.1-29.
- Sachs, J. (2016). High US Child POverty: Explanations and Solutions. *Academic Pediatrics*, 16, pp.S8-S12.
- Sampson, R. J., and Morenoff, J. D. (1997). Ecological perspectives on the neighborhood context of urban poverty: Past and present. pp.1-22. *In Neighborhood Poverty 2 (ed.)* Brooks-Gunn, J. Duncan, G. J., and. Aber J. L. New York, Russell Sage.
- Sampson, R. J., Raudenbush, S. and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ave the Children. (2014). Child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A Matter of Children's Right.
- Schulman, Karen and Helen Blank, (2014). *Turning the Corner: State Child Care Assistance Policies 2014*. NWLC, 2014.
<http://www.nwlc.org>. 2016.08.25.인출.
-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pp.1-17.
- Sen, Amartya. (1973).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Smeeding, T. and Thévenot, C. (2016). Addressing Child Poverty: How does the United States Compare With Other Nations? *Academic Pediatrics*. 16(3S) pp.S67-S75.

- Smith, J. R., Brooks-Gunn, J. and. Klebanov, P. K. (1997). *Consequences of living in poverty for young children's cognitive and verbal ability and early school achievement*. I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ed.). Duncan, G. J and Brooks-Gunn, J.,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teinberg, L., Lamborn, S. D. Dornbusch, S. M. and Darling, N. (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63, pp.1266-1281.
- Stewart, E. B. (2006). Family and individual level predictors of academic success for african american students: A longitudinal path analysis utilizing national data. *Journal of Black Studies*, 36(4), pp.597-621.
- Susan W. Blank Barbara B. Blum, (1997). A Brief History of Work Expectations for Welfare Mothers. *The Future of Children WELFARE TO WORK 7(1)*, pp.28-38.
- The Centre for Social Justice(CSJ). (2012). *Rethinking Child Poverty*. May 2012.
- The Children's Society. (2013). *Measuring Child Poverty*.
- Townsend, Peter (1979). *Poverty in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ownsend, Peter (1993). *The International Analysis of Poverty*. Harvester Wheatsheaf.
- TARKI Social Research Institute and Applica. (2010). Child Poverty and Child Well-being in the European Union: Report prepared for the DG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United E.2) of the European Commission.
- UNICEF Office of Research. (2013).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Innocenti Report Card 11, UNICEF Office of Research, Florence.
- UNICEF,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P-2013-03.
- U.S. Bureau of the Census, (2016). "Table 10. Related Children in Female Householder Families as a Proportion of All Related Children, by Poverty Status: 1959 to 2014".
<http://census.gov/hhes/www/poverty/histpov/> 2016.08.30. 인출.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6). *Trends in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Participation Rates: Fiscal Year 2010 to Fiscal Year 2014*.

- <http://www.fns.usda.gov/snap/trends-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participation-rates-fiscal-year-2010-fiscal-year>
- U.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0). *Head Start Impact Study Final Report*.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6). <https://eclkc.ohs.acf.hhs.gov/hslc/data/factsheets> 2016.10.31.인출.
- U.S. Bureau of the Census, (2016). *Current Population Survey, 1959-2014*. <http://census.gov/topics/income-poverty/poverty.html>. 2016.08.25.인출.
- U.S. Bureau of the Census, (2015). <http://census.gov/topics/income-poverty/poverty.html>. 2016.08.25.인출.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5).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Statistics*.
- U.S. Department of Treasury, (2010).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https://www.eitc.irs.gov/EITC-Central/eitcstats>. 2016.08.25.인출.
- Vallas. R. and Boteach, M., (2016). *A Blueprint for Cutting Poverty and Expanding Opportunity in America*. <http://www.americanprogress.org>. 2016. 09.20.인출.
- Wilson, W. J. (1991a). *The Truly Disadvantag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Wilson, W. J. (1991b). Studying inner city social dislocations: The challenge of public agenda resear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1), pp.1-14.
- Yeung, W.J., Linver, M.R. and Brooks-Gunn, J. (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3, pp.1861-1879.
- Zill, N. (1984). *American Children: happy healthy and insecure*. New York, Double day Anchor.

부록 1. 주요 EU 국가들의 아동빈곤 결과와 핵심 도전들 < <

〈부표 1〉 주요 EU 국가들의 아동빈곤 결과와 핵심 도전들

| 구분 | 그룹 | 아동빈곤 결과 | 핵심적 도전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강점 | 가구구성 | 핵심 도전 관련 기타 요인들 | 정책의 효과 | | 아동빈곤을 형성하는 기타 요인들 |
|-----|----|---|---|--|-------------------------------------|---|---|--------------------------|
| | | | | | | 소득지원 | 보육 | |
| 덴마크 | A | - 좋음 - 빈곤율: 전국평균보다 낮고, EU 평균보다 훨씬 낮음 - 빈곤갭: 전체인구보다 더 높고, EU 평균과 유사 | - 무직가구 아동이 적고, 근로빈곤 수준이 매우 낮음 -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맞벌이' 모델이 지배적 | - 한부모는 전일제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높음 - 무직한부모를 가진 아동과 무직부모를 가진 아동이 가장 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 | | - 아동에 대한 재분배 수준은 낮지만, 아동에게 가는 이전은 빈곤한 아동에게 매우 집중되어 있음 - 이전은 매우 효과적: 빈곤을 절반 이상 감소 | - 광범위한 보육 서비스 활용 가능 | - 비EU 배경을 가진 아동이 가장 취약 |
| 프랑스 | A | - 평균 이상 - 빈곤율: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EU 평균보다는 낮음 - 빈곤갭: 전국평균과 EU 평균보다 낮음 - 지속빈곤: 낮음 | - 무직가구 아동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근로빈곤 수준도 상당히 낮음 - 무직과 저노동강도 가구의 아동이 아동빈곤에 가장 크게 기여 | - 무직이거나 '홀벌이' 부부가구의 아동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침 - 무직 한부모가구 아동 또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영향은 작음 | 무직과 저노동강도가구의 아동: - 초중등 교육 수준의 부모 | - 아동에 대한 재분배 수준은 거의 EU 평균이고, 빈곤감소효과는 EU 평균보다 상당히 높음 | - 영아에 대한 보육 사용은 EU 평균을 상회하지만, 빈곤한 부모의 수급률은 낮음 | - 비EU 이민배경을 가진 아동이 가장 취약 |

| 구분 | 그룹 | 아동빈곤 결과 | 핵심적 도전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강점 | 가구구성 | 핵심 도전 관련 기타 요인들 | 정책의 효과 | | 아동빈곤을 형성하는 기타 요인들 |
|------|----|--|--|---|---|---|--|---|
| | | | | | | 소득지원 | 보육 | |
| 벨기에 | 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좋음 -빈곤율: 전국평균보다는 높지만, EU평균보다는 낮음 -빈곤갭: 전체인구와 유사하고, EU평균보다는 낮음 -지속빈곤: 중간 -가장 어린연령(0-5)이 가장 나쁜 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아동들이 무직가구에 포함 -저노동강도 부모 또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지속실업이 결정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직가구 아동의 절반은 한부모와 거주(대부분 모)하며, 1/3은 대가족과 거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직과 저노동강도가구 아동의 경우: -젊은 엄마 -저학력 부모 -3명이상 아동 -이민 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한 아동에 대한 재분배 수준이 높음 -하지만 소득지원은 무직가구 아동에 표적화되어 있고, 빈곤감소 폭은 EU 평균보다 낮은 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 사용은 EU 평균보다 높지만, 저소득 가족과 이민가구에서 더 낮게 유지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격차. 브뤼셀과 왈로니아에 살고 있는 아동의 빈곤율이 더 높음 -비EU 이민배경을 가진 아동이 가장 취약 |
| 네덜란드 | 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 이상 -빈곤율: 전국평균보다 높지만, EU평균보다 낮음 -빈곤갭: 전국평균과 동일하고, EU평균보다는 낮음 -지속빈곤: 낮음 -가장 어린아동(0-5)이 가장 열악한 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1+1/2부양자' 모델이며, 양 부모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는 드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직 한부모가족 아동과 홀벌이가구 아동이 아동빈곤에 가장 크게 기여 -대가족 아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 위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에 대한 재분배수준이 낮고, 아동에게 가는 사회적 이전은 빈곤한 아동에 매우 집중되어 있음 -이전은 무직가구 아동에게 표적화되어 있어서, 그들의 빈곤을 상당히 감소시킴 -일반적인 빈곤감소효과는 EU 평균수준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적 보육 사용률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EU 이민배경을 가진 아동이 가장 취약 |

| 구분 | 그룹 | 아동빈곤 결과 | 핵심적 도전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강점 | 가구구성 | 핵심 도전 관련 기타 요인들 | 정책의 효과 | | 아동빈곤을 형성하는 기타 요인들 |
|-----|----|--|--|--|---|---|---------------------------------------|---|
| | | | | | | 소득지원 | 보육 | |
| 핀란드 | A | - 좋음 - 빈곤율: 전국평균보다 낮고, EU 평균보다 훨씬 낮음 - 빈곤갭: 전국평균보다 낮고, EU 평균보다 훨씬 낮음 - 지속빈곤: 중간 | - 부모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율, 맞벌이 모델이 지배적 - 덴마크와 스웨덴보다 낮은 엄마들의 파트타임 고용 | - 한부모와 대가족 아동 비율이 EU 평균보다 높지만, 빈곤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음 - 무직가구 아동의 절반은 한부모가족 아동 | | - 아동있는 가구로가는 사회적 이전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약간 작지만, 이전은 저소득 아동가구, 특히 6세 미만 아동과 한부모가족에 집중되어 있음 - 빈곤감소효과는 EU 평균보다 훨씬 높음 | -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공식적 보육의 사용은 EU 평균보다 낮음 | - 비EU 이민배경 아동의 빈곤율이 매우 높지만, 빈곤선 이하 가구 아동의 1/10 정도만 설명 |
| 스웨덴 | A | - 좋음 - 빈곤율: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고, EU 평균보다는 훨씬 낮음 - 빈곤갭: 전국평균보다 낮고, EU 평균보다 훨씬 낮음 - 지속빈곤: 낮음 | - 맞벌이와 1+1/2 벌이 모델이 보편적 -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엄마들의 비율이 노르딕 국가들 중 가장 높음 - 무직가구에 사는 아동의 빈곤위험 증가 | - 빈곤위험은 한부모와 대가족일수록 증가 | | - 일반적 아동과 빈곤 아동 모두 사회이전이 표적화되어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수준 때문에, 효과성이 EU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 보육의 활용도와 사용이 높고, 빈곤지위와는 무관 | - 아동 10명중 1명은 EU 밖에서 태어나고, 이들중 40%는 빈곤, 빈곤 아동의 1/3 이상을 설명 |
| 독일 | B | - 좋음 - 빈곤율: 전국평균보다 낮고, EU 평균보다 훨씬 낮음 - 빈곤갭: 전국평균보다 낮고, EU 평균과 유사 | -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아동이 무직가구에 거주 - ‘홀벌이’ 모델이 편재하지만, 이러한 아동들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 무직가구 아동의 3/5가 한부모가구에 거주 | 무직가구와 저노동강도가구 아동: - 저학력 부모 - 한부모 - 이민 배경 | - 무직가구 아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재분배 - EU국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빈곤감소 효과 | - 서독지역에서 보육 활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빈약 | - 비EU 이민배경 아동이 가장 취약 |

| 구분 | 그룹 | 아동빈곤 결과 | 핵심적 도전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강점 | 가구구성 | 핵심 도전 관련 기타 요인들 | 정책의 효과 | | 아동빈곤을 형성하는 기타 요인들 |
|-----|----|---|---|---|--|--|---|--|
| | | | | | | 소득지원 | 보육 | |
| 영국 | 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 미만 -빈곤율: 전국평균과 EU 평균보다 높음 -빈곤갭: 전국평균과 차이가 없고, EU평균보다는 낮음 -지속빈곤: 낮음 -빈곤위험은 영아(0-2)에서 가장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아동이 무직가구에 속해 있음 -저강도노동을 하는 부모 또한 아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속실업이 결정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직가구 아동의 절반 이상이 한부모가구에 속함 -무직가구 아동의 1/4는 3명 이상 아동을 가진 가구에 살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직과 저강도 노동 가구 아동: -젊은 엄마 -초중등 학력 부모 -한부모 -2명 이상 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에 대한 재분배 수준은 EU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 -또, 빈곤아동에게 가는 이러한 이전의 비중이 상당히 큼 -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세 아동에 대한 공식 보육의 활용이 EU 평균보다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EU 이민배경을 가진 아동이 가장 취약 |
| 그리스 | 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을 상당히 하회 -빈곤율: 전국평균과 EU 평균보다 높음 -빈곤갭: 전국평균보다 높고, 때 평균보다 훨씬 더 큼 -12-17세 아동이 영유아보다 훨씬 더 빈곤위험이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빈곤이 높은 수준 -저노동강도 부모 또한 아동에 영향을 미침 -‘홀벌이’모델이 지배적 -저노동강도와 근로 빈곤은 자영업과 강한 관계가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명의 성인과 2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가 저노동강도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대가족은 급여시스템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홀벌이’가구의 아동: -젊은 엄마 -저학력 부모 -한부모 -2자녀 -이민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수준의 지출 -사회이전은 최소 1명의 부모가 일하는 아동들의 빈곤위험을 낮추는데 미미한 영향을 미침 -매우 표적화된 체계이지만, 낮은 지출수준으로 인해, 무직가족조차도 다른 자원(가구간 이전, 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 미만과 3-5세 아동의 보육시설 활동도가 낮음 -비공식 보육이 편재되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편차: 북부지역 아동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음 -비EU 이민배경을 가진 아동이 가장 취약 |

| 구분 | 그룹 | 아동빈곤 결과 | 핵심적 도전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강점 | 가구구성 | 핵심 도전 관련 기타 요인들 | 정책의 효과 | | 아동빈곤을 형성하는 기타 요인들 |
|------|----|---|--|--|--|---|---|---|
| | | | | | | 소득지원 | 보육 | |
| 스페인 | 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을 상당히 하회 -빈곤율: 전국평균과 EU 평균보다 높음 -빈곤갭: 전국평균보다는 약간 더 크고, EU 평균보다는 훨씬 큼 -지속빈곤: 중간 -12-17세 아동이 영유아보다 훨씬 더 빈곤위험이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수준의 근로빈곤 -저노동강도 부모가 아동에 영향을 미침 -‘홀벌이’모형이 지배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명의 성인과 2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의 아동이 아동빈곤에 가장 크게 기여하지만, 대가족도 저노동강도와 근로빈곤에 강한 영향을 미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홀벌이’가구 아동: -젊은 엄마 -초중등 학력의 부모 -3명 이상의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아동과 또한 빈곤아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재분배 -낮은 수준의 지출과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낮은 재분배는 이전의 낮은 빈곤감소효과를 초래 -홀벌이가구 아동은 작은 비율의 사회이전만을 받고, 이는 빈곤을 경감하는데 미미하게만 기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적 보육의 사용은 거의 EU 평균 수준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EU 이민배경을 가진 아동이 가장 취약 |
| 이탈리아 | 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을 상당히 하회 -빈곤율: 전국평균과 EU 평균을 상당히 상회함 -빈곤갭: 전국과 EU 평균보다 상당히 더 높음 -지속빈곤: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홀벌이가구 아동에게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높은 수준의 근로빈곤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빠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한 홀벌이가구의 아동은 대부분 부부와 2명 이상의 아동이 함께 살고, 이러한 대가족이 상당히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홀벌이가구의 아동: -젊은 엄마 -초중등 학력의 부모 -2명 이상의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수준의 지출 -일반적인 아동과 빈곤아동에 대한 재분배 수준은 낮으며, 따라서 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도 낮음 -홀벌이가구 아동도 마찬가지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 사용은 영아에서 낮고, 특히 빈곤아동의 경우도 낮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EU 이민배경을 가진 아동이 가장 취약 -남부지방과 주요섬들(시칠리와 산디니아) |

자료: TARIKI (2010) 재정리

〈부표 2〉 주요 EU 국가들의 핵심 도전과 정책 대응

| 구분 | 그룹 | 주요 도전 | 소득지원 | 노동시장과 보육에 대한 접근 | enabling 서비스의 접근 |
|-----|----|----------------------------------|--|---|--|
| 덴마크 | A | 아동 빈곤율 9.5% 이민가족 아동 | 보편적 아동급여와 출생수당 18주의 모성급여는 임금에 기초하여(최대액까지) 산정. 부성급여는 2주. 육아휴직은 32주(실업보험급여의 60% 지급) | 보육공급이 광범위: 0-2세 아동의 63%가 공식 보육을 받고, 3-5세 아동의 96%는 데이케어시설에 등록되어 있음 | 이민자 아동의 중도탈락률을 줄이고, 교육 졸업을 돕기 위해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멘토서비스, 더 실용적인 훈련원, 교사의 보충훈련, 액션플랜)가 계획 중 주택 측면에서, 사회적, 예방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사회적 취약자에게 주택설비를 강화하도록 기금이 할당됨. |
| 프랑스 | A | 아동 빈곤율 15% 무직가구 아동 이민가족 아동 | 보편적 아동급여(2명 이상 아동이 있는 가족)과 출생수당.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보충적 (자산조사) 가족수당 지급 16주의 모성급여와 11일의 부성휴가가 순 봉급의 100%(특정 금액까지) 지급 부모급여(PAJE)는 자산조사 급여이며, 아동이 출생부터 3세가 될 때까지 지급. 육아휴직에서의 최근 변화는 3자녀 이상을 가진 부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부모 간 나누어서) 본인이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는 가족지원수당(family support allowance: ASF) 자격이 있으며, 특정 수준 미만 소득이라면, 자산조사 한부모수당(API)도 함께 받을 수 있음 | RSA(2009년 6월 도입된 solidarity income)은 최소 'insertion' 소득 혹은 한 부모 수당을 받는 수급자와 이미 고용되어 있지만 소득이 낮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 수급자는 guidance 자격이 있고 고용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일단 고용되면, 그들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지만, 비례적이지는 않는 RSA와 근로소득을 무한 기간 동안 결합할 수 있음. | 결혼 후 5년 동안 부부에게 그리고 피부양가족을 가진 가족에게 가족주택급여(ALF)가 지급됨. 등록주택을 임대하거나, 할인대출(allocated subsidised loans)을 받은 사람에게 개별주택보조(APL)가 지급됨 ALS는 연령이나 고용지위와 무관하게 어떤 사람에게나 지급될 수 있는 자산조사 사회주택보조금임. |

| 구분 | 그룹 | 주요 도전 | 소득지원 | 노동시장과 보육에 대한 접근 | enabling 서비스의 접근 |
|------|----|-----------|---|---|---|
| 네덜란드 | A | 아동빈곤 14% | 보편적 아동급여(2007년에 급여액 상승) 출산수당은 없음 16주의 모성휴가(최대 금액까지 일일 임금의 100% 지급). 2008년 6월에, 자영 여성에 대한 공공 모성제도가 발효됨. 2009년 1월부터, 부모휴가는 양부모 모두 13주에게 26주로 확대 2009년 이후, 아동관련 예산은 아동양육비의 소득연계 상환을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기초지자체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더 오랫동안 개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보충적 조세크레딧은 2008년 증가. 2009년에, 한부모와 저소득 부모가 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초 조세크레딧(IACK) 실시 | 2006년 이후, 기초지자체는 초등학교에 디딤돌교실(intermediate classes)을 개설하여, 네덜란드어를 잘 못하는 학생을 1년간 집중 언어훈려 실시 'empower neighbourhoods'(Krachwijken)을 위한 액션플랜은 주택개량과 사회개선(고용 증진, 이웃의 사회통합 강조 등) 포함. |
| 핀란드 | A | 아동빈곤율 11% | 보편적 아동급여와 출생수당 105일의 모성급여(첫 56일 동안 근로소득에 따라 90%~32.5%; 나머지 동안 소득에 따라 70-40-25%) 18일의 부성급여(12일 이상을 썼다면 추가 1-12일까지 연장 가능)와 158일의 부모휴가(첫 30일 동안 소득에 따라 75%~32.5%, 나머지 기간 동안 70-40-25%) 아동 양육수당은 3세 미만 아동을 시에서 제공되는 데이케어를 사용하는 대신 집에서 키우는 경우 지급(정액 기본금액과 자산조사 증액으로 구성) | 모든 아동(10개월-6세)은 시에서 관장하는 데이케어에 대한 법정 권리를 가짐 가족소득이 일정 미만이면, 데이케어는 무료임 사회정책은 근로유인을 강화하도록 강하게 설계되어 있음 | 주택수당은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임차인과 자가주택 소유주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음(아동이 있으면 수당은 더 커짐) 주택대출에 지급되는 이자는 과세소득에서 감면될 수 있음(한도액까지), 하지만 이러한 보조는 성격상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 |

| 구분 | 그룹 | 주요 도전 | 소득지원 | 노동시장과 보육에 대한 접근 | enabling 서비스의 접근 |
|-----|----|-----------------------------------|--|--|---|
| 스웨덴 | A | 아동 빈곤율 11.5% 이민가족 아동 | 보편적 아동급여. 출산수당 없음 부모는 480일의 부모급여 자격이 있으며, 이 중 60일은 출산예정일 이전에 받을 수 있음. 첫 390일 동안, 급여는 소득 연계(이전소득의 80%)이며, 나머지 90일은 정액으로 지급 기초지자체는 부모휴가 종료 후에 아이를 키우는 기간을 확대하고 이후 일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세까지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제공할 수 있음. | 저소득자와 중간 소득자에게 한계효과를 감소시키고, 일하는 동안 더 일하고 파트타임을 풀타임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 조세크레딧의 누적적 증가 도입. 부모휴가를 부모가 가능한 골고루 쓰도록 하기 위해 젠더 평등 보너스 제공: 부모(주로 아빠가) 집에 머물 때, 다른 저임금 부모에게 추가적인 세금 경감혜택 부여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데이케어 선택할 부모의 자유를 증가시키기 위해 데이케어 바우처 시스템 제공 | 정부가 취약지역에서 교육조건을 향상시킴으로써 고등학교 탈락을 감소하는데 정부의 주안점이 두어짐. 20세까지 의료는 무료임. (자산조사) 주거수당은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족에게 제공됨 |
| 벨기에 | B | 아동 빈곤율 17%. 무직가구 아동 이민가족 아동 | 보편적 아동수당과 출생수당 15주의 모성급여(첫 30일 동안 임금의 82%, 이후 75% 지급) 육아휴직(전일제 혹은 시간제)는 정액(fixed rate)지급 2008년 10월: 저소득 한부모와 소득이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가족수당 금액이 상향조정. 2009년부터: 통합수당(공공서비스부조센터에서 지급되는 사회부조)도 2% 증액 | 구직자의 초기모니터링. 구직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사후(follow-up)모니터링 보육시설의 지속적 확대 육아휴직에 대한 다양한 옵션 제시 저소득가족이 일하도록 하는 유인책(면세점 상향, 사회보험기여금 감면 확대) | 현존하는 대부분의 유인책은 세금공제를 통한 주택소유 장려. 하지만 면세점 이하 소득을 가진 저소득가족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가지 않음. 하지만, 사회대출(social loans)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Wallonia와 Brussels에서 확대될 예정 |
| 독일 | B | 아동 빈곤율 18%. 무직가구 아동 | 보편적 아동급여와 출생수당 140일의 모성급여는 기준임금의 100% 지급. 아빠는 10일의 부성휴가 혜택을 사용했지만(이전 근로소득 연계액), 2009년에 이 권리는 폐지됨 2008년 이후, 부성급여는 최대 575일(모성 휴가기간까지 포함)까지 이전 근로소득의 100% 지급 | 어린 아동을 가진 부모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없고, 유연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음. 도시 지역에 특히 보육시설이 심각하게 부족. 공보육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지자체에 의해 지급되는 자산조사 생계급여가 있으며, 이는 주택에 대한 실지출도 포함. 모기지 이자는 특정 기준까지 세금 감면. 출발 자금이 없는 젊은 가족은 모기지 론에 대해 추가적 보증을 받을 수 있음. 구매 여력이 없는 가족에게 특별히 표적화된 시 임대주택에 강조점이 두어짐 |

| 구분 | 그룹 | 주요 도전 | 소득지원 | 노동시장과 보육에 대한 접근 | enabling 서비스의 접근 |
|-----|----|------------------------------------|---|--|---|
| 영국 | B | 아동 빈곤율 22.5% 무직가구 아동 이민가족 아동 | 보편적 아동급여. 출산수당은 저소득 엄마들이 활용 가능 39주의 모성급여(2007년 4월부터 연장)는 첫 6주 동안 평균소득(상한액 없음)의 90% 지급, 나머지 주동안 주당 122유로(이보다 적으면 본인 평균소득의 90%) 보육 조세크레딧은 등록 보육시설 비용의 80%까지 지급 아동 관점에서 Out-of-work 급여가 향상되었으며, Income Support(Child Tax Credits로 전환)에 아동 관련 급여도 포함 | 뉴딜: 청년실업자, 한부모, 장애인, 고령 근로자와 기타 취약집단을 포함한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 아동이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2010년 7세) 잡센터의 구직인터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한부모의 고용 증진 노력. 최저임금 향상, 고용전환자에 대한 데이케어비용 지원 증가를 포함한 'make work pay'에 주안점 | 16세이후 취학중인 저소득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교육보조수당(Educational Maintenance Allowance) 지급 Sure Start 센터운영 등 |
| 그리스 | D | 아동 빈곤율 23% 근로빈곤가족 아동 | 보편적 아동급여. 2006년 이후, 3번째 자녀부터 출생수당 지급 119일의 모성급여가 정액으로 지급 6개월의 육아휴직은 법정 최저임금으로 지급 6세 미만 3번째 아동을 가진 가족에게(소득과 무관하게) 3번째 자녀급여 지급 연간소득이 일정 미만 가족에게 6-16세 아동에 대한 개인소득세 급여(allowance) 지급 | 약 15% 아동만이 공식 보육을 받음 지난 10여년간 법정 최저임금은 평균소득 대비 감소해 왔으며, 현재 45% 수준(1990년대 중반은 55%대). 저소득을 부양하기 위해, 2000년 사회보험 기여금 상환(rebate) 도입: 최저임금 이상 5.5%까지 버는 근로자는 연금보험에 대한 기여금 전액을 상환받을 자격이 있음 | 사회주택의 상대적 저발달과 기여에 기초한 주택부조 지급은 많은 빈곤가족이 적정 주택을 활용할 수 없음을 의미. |

| 구분 | 그룹 | 주요 도전 | 소득지원 | 노동시장과 보육에 대한 접근 | enabling 서비스의 접근 |
|-----|----|---|--|---|--|
| 스페인 | D | 아동 빈곤율 24% 근로빈곤가족 아동 저노동강도가 구 아동 | 가족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면 아동급여가 지급됨 보편적 출생수당 16주의 모성급여(한부모의 경우 둘째자녀에 대해 18주, 셋째 자녀에 대해 20주)와 13일의 부성급여(모두 임금의 100% 지급). 모성급여와 부성급여는 자영자도 활용가능 | 학령전 시설 수가 증가해 왔으며, 0-2세 아동의 학령전시설 참여율이 2004년 17%에서 2007년 27%로 상승 1990년 이래 무기계약을 장려하는 정책이 유기계약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데 기여(2008년 29%). 최저임금이 최근 증가(2003년 평균임금의 36%에서 2008년 43%로). 취약자를 돌보기 위해 근로일을 줄인 근로자들은 케어 첫2년 동안 사회보장목적의 기여를 전일제와 동일하게 해줌.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또한 모성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해 경감됨. 비경활 5년이 넘는 여성(비경활 이전에 적어도 3년은 일한 경우)을 고용한 고용주는 4년 동안 사회보장기여에서 감면 혜택을 받음 | 중등의무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16세 넘는 학생들에게 훈련을 완수해서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2008-09년에 Initi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Programme을 시행. 높은 조기 자퇴율(EU가 15%인데 비해, 2007년 31%)에 대응하기 위한 Second-chance programmes도 시행 |

| 구분 | 그룹 | 주요 도전 | 소득지원 | 노동시장과 보육에 대한 접근 | enabling 서비스의 접근 |
|------|----|-----------------------------|--|---|--|
| 이탈리아 | D | 빈곤율 25.5% 저노동강도가 구 아동 | 아동급여는 가족소득에 따라 다른 보편적 출생수당 5개월의 모성급여(근로소득의 80% 지급) 부성휴가는 최대 6개월까지(자녀 출산 후 첫 8년동안)이며, 마지막 봉급의 30% 지급 3개월을 받은 아빠는 1개월의 추가 부성 휴가 자격이 있음(4개월동안 휴가를 받 을 수 있다는 의미). 휴가는 개별적 권리 이지만, 부부 합산 1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 고용률은 EU 국가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제한된 보육 기회(대다수 부모는 비공 식적 아동 돌봄을 사용)와 연관되어 있음. 2006년 출범한 제한된 보육 프로그램 (Piano straordinario nidi)와 별개로, 제 한된 커버리지와 급여액의 새로운 두 가지 일시 사회급여(the Bonus famiglia and the Social Card)가 2009년 도입, 보육시 설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거나 아동을 가족 에 대한 사회적 이전이 증가하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 또, 2009년 School Reform은 교수 수의 질질적 감소와 전일제 학습계획 감축으로, 일-가정 책임을 양립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실질적 압력으로 작용 | 가장 핵심적 사회문제와 정부의 복지우선 순위를 다루는 2009년 Libro Bianco는 여전히 아동빈곤 문제와 여성의 노동력 참여 독려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 |

자료: TARIKI (2010) 재정리

부록 2. 심층면접 조사표 <

1. 빈곤가구(자녀)

자녀면접 질문지

1. (도입 질문) 일상생활 및 고민

1)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 (00 이름)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2) 요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나 고민거리가 있나요?

2-1) 그런 어려움이나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2. (건강) 자녀 건강

1) (00 이름) 의 건강상태는 어때요?

(가장 건강한 상태를 10, 가장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요?)

2) (00 이름) 가 제일 잘하는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운동할 때 체력이 떨어지거나 힘든 적이 있었어요?)

(만일 그렇다면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요?)

3) (00 이름) 는 공부하는데 체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한 적이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3.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

1) (00 이름)는 부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 (00 이름)는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3) 왜 어떤 사람들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가요?

4)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5) 우리집의 경제적 형편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6) 우리집의 경제적 형편은 (00 이름) 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7) (00 이름) 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경험이었나요?

8) 앞으로 우리 집의 경제적 형편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만일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9) (00 이름) 는 용돈이 얼마나 되나요?

넉넉한 편인가요?

용돈이 더 생기면 어디에 쓰고 싶은가요?

4. 학교생활, 학업 및 문화생활

1) (00 이름)이의 학교생활을 소개해줄 수 있어요?

1-1) 학교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왜 그렇지요?

1-2) 제일 학교가기 싫을 때는 언제예요? 왜 그렇지요? 그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1-3) (00 이름)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요?

1-4) 제일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소개해줄 수 있어요?

1-5) 혹시 친구들에게 놀람을 받거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2) (00 이름)는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다닌다면) 그 학원은 어떻게 다니게 되었어요?

(안다닌다면) 안다니기로 한 이유를 얘기해줄 수 있어요?

3) (00 이름)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은 어때요?

4) (00 이름)가 학업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에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인 이유는?

5) (00 이름)가 좋아하는 문화활동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극장, 모임, 취미 등)

왜, 그 활동을 좋아해요? 얼마나 자주 활동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자주 못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5. 부모/가족 및 주거환경

1. 부모님(엄마, 혹은 아빠)이 (00 이름)와 보내는 시간은 어느정도예요?

1-1) (청소년일 경우) 부모님이 어릴 때 함께할 시간이 많았어요?

1-2) 혹시 부모님이 필요할 때 옆에 안계셨던 경험이 있었나요?

어떤 것이었나요?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1-3) 부모님(엄마, 혹은 아빠)과 가장 행복했던 경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게 왜 기억에 남았을까요?

2) 부모님이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 부모님은 왜 기쁠까요?

3) 부모님이 가장 슬프거나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4) (00 이름)는 부모님과 가장 크게 갈등을 느낄때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때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나가요?

5) (00 이름)가 부모님께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왜 그런가요?

6) (00 이름)가 우리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한탄어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족은 000 이다 식으로...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7) (00 이름)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때요? 불편한 것은 없어요?

살고 있는 동네는 어때요? 주변이 무섭거나 위험한 것은 없어요?

6. 진로 및 꿈

1) (00 이름)의 장점이나 능력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00 이름)는 앞으로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부모님은 (00 이름)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왜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혹시 갈등은 없었나요?

4) (00 이름)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5) (00 이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위에서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을까요?

6) (00 이름)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어려움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7)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빈곤가구(부모)

부모면접 질문지

1. (도입 질문) 가구원 파악, 문화생활, 주거환경

1) 귀하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시는 일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가족은 누가 함께 살고 있지요?

(각 가족 구성원 소개 부탁) 가족 각각이 하시는 일?

2) 요즘 귀하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루 일과나 일주일의 생활패턴, 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3) 귀하가 즐기시는 문화생활이나 취미활동이 있습니까?

왜, 그 활동을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활동할 수 있습니까?

(자주 못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살고 계신 동네는 어떻습니까? 위험하거나 불편하거나, 혹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2. (건강) 가구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1) 지금 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떠한지요?

다른 가족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가장 건강한 상태를 10, 가장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 (병이나 지병이 있었거나 현재 있다면) 제때에 제대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왜, 치료를 제때 못하셨습니까?

3) 현재 귀하의 정신(마음) 건강의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른 가족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건강한 상태를 10, 가장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4) (심리/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에,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해보았습니까?

4-1) 그렇다면 그 경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용 서비스 내용, 이용 후의 변화)

4-2) 아니라면 그 이유가 있습니까?

3. 이동빈곤 경험, 사회정책 체감 및 탈빈곤 전망

1) 지금 귀하 가구의 경제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가구의 경제상태를 10점 만점으로 본다면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하십니까?)

(왜 그렇게 점수를 주셨습니까?)

(귀 가구가 빈곤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2)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1) 왜 그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2)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귀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꼭 필요한 생활용품 (예, 세탁기, 스마트폰, 컴퓨터)를 갖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로 인한 불편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귀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식주, 즉 옷 입는 것, 식사 양, 집세를 못낸 적이 있습니까? 이로 인한 불편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귀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과금을 못내서 전기, 전화, 수도, 난방 등이 끊긴 적이 있습니까? 이로 인한 불편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귀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미루거나 약을 사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로 인한 불편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3)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겪었던 곤란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3-1)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3-2) 혹시 주위 사람들이나 친지, 외부단체, 나라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중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4) 일 때문에 자녀를 혼자 두거나, 혹은 자녀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4-1)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5) 귀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신청하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5-1)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2) 현재도 수급권자입니까? 아니라면 그 외의 다른 복지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신청한 경험이 없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일 수급권을 신청하여 수급권자 지정을 받았다면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신청하였으나 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수급권을 얻지 못했던 경험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 가장 절실한 급여는 무엇이었습니까?

-> 만일 수급자 지정을 받았다면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신청하여 수급경험이 있는 경우)

-> 수급권자가 된 후 받고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 가장 크게 혜택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 만일 수급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 만일 수급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을까요?

(현재에도 수급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그 중 가장 절실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 할 수만 있다면 수급권자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지금 현재 수급권을 벗어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께서는 언제쯤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6) 앞으로 몇년 뒤, 귀댁의 자녀가 성장하면 귀댁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7) 국가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떠한 도움이 가장 절실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8) 지금 만일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 자녀 양육 및 자녀와의 관계

1) 요즘 귀하의 자녀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자녀는 행복한 편입니까?

2)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요즘 귀하의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귀하의 자녀를 볼 때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4)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귀하께서는 자녀와 겪어본 가장 큰 갈등은 무엇입니까?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요?

5. 자녀의 꿈과 교육

1) 귀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요?

2) 귀하께서도 자녀가 가지고 있는 꿈과 같은 생각이신지요?

귀하께서는 자녀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일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 귀하가 생각하기에 자녀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3-1) 자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야 할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넘겠습니까?

4) 최근 들어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에게 시키고 싶은 일을 못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4-2) 귀하께서는 자녀가 몇 살때까지 부모가 교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시설(아동)

시설 아동면접 질문지

1. 개인 특성

| | |
|------|--|
| 성별 | |
| 나이 | _____년 _____월 _____일생. 현재 만 _____세 _____개월 <나이 관련 특이사항> _____ |
| 학력 | <학력 관련 특이사항> _____ |
| 종교 | |
| 가족 | <원가족 가제도> |
| 입소경로 | |
| 입소기간 |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현재까지: _____년 _____개월 |

II. 귀하의 주관적인 생활 경험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 일상생활 패턴

1)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2) 일주일, 한 달, 분기별(학기 및 방학 등으로 구분), 1년 단위로 규칙적으로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방금 이야기한 일상생활 패턴에서 남들과 다른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다른가요?

2. 일상생활의 어려움

1) 요즘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일, 고민거리가 있나요?
: 그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2) 일상생활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하거나 필요하거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있나요?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 방금 이야기한 점들을 남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3) 일상생활에서 물질 이외에 부족하거나 필요하거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있나요?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 방금 이야기한 점들을 남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3. 건강

1) 몸의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 가장 건강한 상태가 10, 가장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0이라고 할 때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해요?

: 왜, 그렇게 생각해요?

: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요?

2)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나요?

: 큰 병을 치르거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 치료와 간병은 어떻게 받았나요?

3)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고 있나요?

: 운동할 때 체력이 떨어지거나 힘든 적이 있었어요?

4) 건강상태나 운동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나요?

4. 재정

1) 한 달 용돈은 얼마나 되나요?

: 그 용돈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나요?

: 용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용돈이 넉넉한 편인가요?

2)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들을 관리하고 있나요?

: 어떤 통장들이 있는지, 각각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 통장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3) 시설의 경제적 형편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4) (친부모가 있다면) 부모님의 경제적 형편은 현재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 친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이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나요?

5) 시설과 부모님의 경제적 형편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6)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경험이 있나요?

7)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5. 학교생활과 학업

1)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2) 그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3) 반 친구, 같은 학년 친구, 전후배, 교사 등과 관계는 어떤가요?

4) 학교 방과 후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학원, 방과 후 프로그램, 개별학습 등 심층질문)

5) 공부하는 건 어떤가요? (성적을 포함)

: 공부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것이 있나요?

: 공부를 더 잘 하고 싶은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6. 주거

1) 자신이 생활하는 주거공간(방과 거실, 집, 건물, 지역사회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주거공간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3) 주거공간에 대해서 더 바라는 것이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7. 사회적 관계

1) 보육사 선생님을 포함한 시설의 어른들과 관계는 어떤가요?

2) 시설 내 친구들이나 다른 아이들과 관계는 어떤가요?

3) 부모님과 만나고 있나요?

: 만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어떻게?

: 안 만나고 있다면, 부모님과 이런 상황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 부모님과 가족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4) 친형제가 있나요?

5) 부모님과 형제 이외에 다른 가족, 친척 등과 연락하고 있나요?

6) 시설에서 살면서, 연락하거나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나요?

7) 나중에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가요?

8. 진로와 꿈

1) 본인의 장점, 재능, 능력, 특기 등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앞으로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3) 꿈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4) 그동안 수입이 있는 일(아르바이트 등)을 해본 적이 있나요?

5)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어려움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9. 지금까지 시설에서 생활해 온 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 평소 생활하면서 자신이 일반 사회 구성원들과 차이가 있거나 거리가 있거나 넘기 힘든 벽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기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2. 시설 안팎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III. 귀하의 2016년 6월말까지 생활여건을 토대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 개인용품 | 귀하가 생각하기에 ① 꼭 필요하다 ② 있으면 좋다 | 나는 ① 갖고 있다 ② 안(못)갖고 있다 | 개인용품 | 귀하가 생각하기에 ① 꼭 필요하다 ② 있으면 좋다 | 나는 ① 갖고 있다 ② 안(못)갖고 있다 |
|------|-----------------------------------|------------------------------|------|-----------------------------------|------------------------------|
| | | | | | |
| 1 | 휴대전화 | 1 2 | 1 2 | 1 2 | 1 2 |
| 2 | 책상 의자 | 1 2 | 1 2 | 1 2 | 1 2 |
| 3 | 침구 (침대 등) | 1 2 | 1 2 | 1 2 | 1 2 |
| 4 | 책장 | 1 2 | 1 2 | 1 2 | 1 2 |
| 5 | 놓잇감 | 1 2 | 1 2 | 1 2 | 1 2 |
| 6 | 통장 | 1 2 | 1 2 | 1 2 | 1 2 |
| 7 | 개인용 컴퓨터 | 1 2 | 1 2 | 1 2 | 1 2 |
| 8 | | 1 2 | 1 2 | 1 2 | 1 2 |
| 9 | | 1 2 | 1 2 | 1 2 | 1 2 |
| 10 | | 1 2 | 1 2 | 1 2 | 1 2 |

IV.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의 2016년 6월말까지 생활여건을 토대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 생활용품 | 귀하가 생각하기에 ① 꼭 필요하다 ② 있으면 좋다 | 우리 집에서는, ① 갖고 있다 ② 안(못)갖고 있다 | 생활용품 | 귀하가 생각하기에 ① 꼭 필요하다 ② 있으면 좋다 | 우리 집에서는, ① 갖고 있다 ② 안(못)갖고 있다 |
|------|-----------------------------------|------------------------------------|------|-----------------------------------|------------------------------------|
| | | | | | |
| 1 | 세탁기 | 1 2 | 1 2 | 1 2 | 1 2 |
| 2 | 전자레인지 (가스오븐포함) | 1 2 | 1 2 | 1 2 | 1 2 |
| 3 | 냉장고 | 1 2 | 1 2 | 1 2 | 1 2 |
| 4 | 정수기 (생수구입포함) | 1 2 | 1 2 | 1 2 | 1 2 |
| 5 | TV | 1 2 | 1 2 | 1 2 | 1 2 |
| 6 | 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 | 1 2 | 1 2 | 1 2 | 1 2 |
| 7 | 진공청소기 | 1 2 | 1 2 | 1 2 | 1 2 |
| 8 | 컴퓨터(노트북) 및 인터넷 유,무선 연결 | 1 2 | 1 2 | 1 2 | 1 2 |
| 9 | 에어컨 | 1 2 | 1 2 | 1 2 | 1 2 |
| 10 | 자동차 | 1 2 | 1 2 | 1 2 | 1 2 |

| 2016년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귀하가 생각하기에 | | 우리 집에서는, | |
|-----------------------------|----|---|--------------------------|---|---------------------------------|---|
| ※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 | |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못)있으면 좋다 | | ① 하(못)있고 있다 ② 안(못) 하(못)있고 있다 | |
| 식생활 | 11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것 | 1 | 2 | 1 | 2 |
| | 12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 | 1 | 2 | 1 | 2 |
| | 13 |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파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먹는 것 | 1 | 2 | 1 | 2 |
| 의생활 | 14 |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오버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 1 | 2 | 1 | 2 |
| | 15 | 여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 1 | 2 | 1 | 2 |
| 주택 및 주거 환경 | 16 | 출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는 것 | 1 | 2 | 1 | 2 |
| | 17 |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 | 1 | 2 | 1 | 2 |
| | 18 |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 1 | 2 | 1 | 2 |
| | 19 |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는 것 | 1 | 2 | 1 | 2 |
| | 20 |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 1 | 2 | 1 | 2 |

| 2016년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 | | 귀하가 생각하기에 | | 우리 집에서는, | |
|--|----|---|--------------------------|---|---------------------------------|---|
| | | |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있으면) 좋다 | | ① 하고(갖고) 있다 ② 안(못) 하고(갖고) 있다 | |
| 의료 및 건강 | 21 |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것 | 1 | 2 | 1 | 2 |
| | 22 |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 | 1 | 2 | 1 | 2 |
| | 23 |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 1 | 2 | 1 | 2 |
| 가족 활동 및 문화 생활 | 24 |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구성원들과) 2~3일 정도의 여행(떠서)을 다녀오는 것 | 1 | 2 | 1 | 2 |
| | 25 |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외식 등) | 1 | 2 | 1 | 2 |
| | 26 |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구성원들과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 1 | 2 | 1 | 2 |
| 사회적 지지 | 27 |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 1 | 2 | 1 | 2 |
| 저축 | 28 | 재정적인 지출을 대비하는 것(저축 등) | 1 | 2 | 1 | 2 |
| | 29 | 원가족 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저축 등) | 1 | 2 | 1 | 2 |
| | 30 | 시설 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다담씨앗통장, 시설에서 따로 개설한 통장, 결연후원 등) | 1 | 2 | 1 | 2 |

| 2016년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 | | 귀하가 생각하기에, | | 우리 집에서는, | | |
|--|----|---------------------------------------|--------------------------|---|---|---|---|
| | | |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있으면) 좋다 | | ① 하고(갖고) 있다 ② 안(못) 하고(갖고) 있다 ③ 해당없다 (2015년 1년 기간 동안 학령기 자녀가 없는 경우) | | |
| 교육 | 31 |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는 것 | 1 | 2 | 1 | 2 | 3 |
| | 32 |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파외를 시키는 것 | 1 | 2 | 1 | 2 | 3 |
| | 33 |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는 것 | 1 | 2 | 1 | 2 | 3 |
| | 34 |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지는 것 | 1 | 2 | 1 | 2 | 3 |

| ※ 2016년 6월말까지,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 | | | ①예 ②아니오 |
|--|----|--|--|--|--|------------|
| 경제적 어려움 | 35 |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 | | | |
| | 36 |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 | | |
| | 37 |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 | | | |
| | 38 |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 | | |
| | 39 | 본인이나 구성원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 | | |
| | 40 |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자가 또는 무상인 경우 ③ 해당 없음 | | | | |
| | 41 |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내지 못한 적이 있다. ※ 학업 진학을 포기, 중단(휴학)하는 경우 포함 ※ 등록금 분납(대출) 포함 ※ 초·중·고·대·대학교 자녀가 없는 경우 ③ 해당 없음 | | | | |

※ 2016년 6월말까지, 귀하는 시설 구성원, 부모, 친척, 친구 등과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 구분 | 해당자 존재 여부 | 1) 고민상담 (정서적도움) | | 2) 청소, 식사준비, 세탁 (도구적도움) | | 3) 간병, 수발, 병원통원 도움 | | 4) 경제적 도움 | | | | | |
|------|-------------|--------------------------|--------------|-------------------------|--------------|--------------------|--------------|-----------------|--------------|------------------|--------------|------------|--|
| | | | | | | | | (4-1) 정기적 현금 지원 | | (4-2) 비정기적 현금 지원 | | (4-3) 현물지원 | |
| | | ①있음 ②없음 | ① 받음 ② 제공 | ① 받음 ② 제공 | ① 받음 ② 제공 | ① 받음 ② 제공 | ① 받음 ② 제공 | ① 받음 ② 제공 | ① 받음 ② 제공 | ① 받음 ② 제공 | ① 받음 ② 제공 | | |
| 42 | 보육사 등 시설종사자 | | | | | | | | | | | | |
| 43 | 시설 내 구성원들 | | | | | | | | | | | | |
| 44 | 친부모 | | | | | | | | | | | | |
| 45 | 후원자 등 | | | | | | | | | | | | |
| 46 | 자원봉사자 | | | | | | | | | | | | |
| 47 | 학교 교사 | | | | | | | | | | | | |
| 48 | 친척 | | | | | | | | | | | | |
| 49 | 친구 | | | | | | | | | | | | |
| 50 | 이웃 | | | | | | | | | | | | |
| 응답문항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② 그런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 | ① 있다 ② 없다 | | | | | |

51 귀하의 경제적 생활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함)

| ← 힘들다 | | | | | | | | | | → 넘쳐나다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 | | | | |

52 귀하가 빈곤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 |
|----------------|--|
| 과거 (~2015년) | |
| 현재 (2016년~) | |

① 전혀 없(었)음 ② 거의 없(었)음 ③ 가끔 있(었)음 ④ 자주 있(었)음 ⑤ 항상 있(었)음

53 귀 가구(시설)의 소득 및 생활수준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 지난 2년 (경험) | 향후 2년 (예상) |
|---------|------------------------|---------------|---------------|
| 1) 소득 | ① 증가 ② 변화없음 ③ 감소 | | |
| 2) 생활수준 | ① 향상 ② 변화없음 ③ 악화 | | |

54 개인적인 생활비 수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 지난 2년 (경험) | 향후 2년 (예상) |
|------------------|--|---------------|---------------|
| 1) 수입 (용돈, 저축 등) | 평균 수입 _____ 만원 ① 부족함 ② 적절함 ③ 남음 | | |
| 2) 지출 | 평균 지출 _____ 만원 ① 부족함 ② 적절함 ③ 남음 | | |

: 위에서 이야기한 수입과 지출의 항목과 쓰임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부족하거나 남는다면, 어느 정도나 그러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4. 시설(관계자)

시설 관계자 면접 질문지

I. 개인 특성

| | |
|------|---|
| 성별 | |
| 나이 | _____년 _____월 _____일생. 현재 만 _____세 |
| 학력 | <학력 _____ 관련 _____ 특이사항> |
| 종교 | |
| 가족 | <가족도> |
| 입사시점 | |
| 근로경력 |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현재까지: _____년 _____개월 |

II. 시설 특성

| | | | | | | |
|----------|-----------------------|------|------|-----|------|-------|
| 소재지 | | | | | | |
| 법인 | | | | | | |
| 시설 규모 | 정원 | | | 현원 | | |
| 아동 현황 | 3세 미만 | 미취학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등 |
| | | | | | | |
| 종사자 현황 | 원장 | 사무국장 | 보육사 | | | |
| | | | | | | |
| 2016년 예산 | <전체 예산, 아동 1인당 지원금 등> | | | | | |
| 비고 | | | | | | |

III. 귀하와 아동들의 생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귀하 본인과 귀하가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일상생활 패턴

1)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2) 일주일, 한 달, 분기별(학과 방학 등으로 구분), 1년 단위로 규칙적으로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방금 이야기한 일상생활 패턴에서 일반 아동들과 다른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다른가요?

2. 재정

1) 한 달 용돈은 얼마나 되나요?
: 그 용돈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나요?
: 용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용돈이 넉넉한 편인가요?

2)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들을 관리하고 있나요?
: 어떤 통장들이 있는지, 각각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통장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3) 시설의 경제적 형편은 어떤 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4) (친부모가 있다면) 부모들의 경제적 형편은 현재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5) 시설과 부모들의 경제적 형편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3. 시설 차원에서 각 아동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물질적 자원과 비물질적 지원들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4. 일상생활의 어려움

1) 요즘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일,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 그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2) 일상생활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 방금 이야기한 부족한 점들을 다른 아동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가요?

3) 일상생활에서 물질 이외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 방금 이야기한 부족한 점들을 다른 아동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가요?

5. 건강

1) 몸의 건강상태, 신체적 발달수준은 어떻습니까?
: 가장 건강한 상태가 10, 가장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0이라고 할 때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해요?
: 왜, 그렇게 생각해요?
: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요?

2)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나요?
: 큰 병을 치르거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 치료와 간병은 어떻게 했나요?

3)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 운동할 때 체력이 떨어지거나 힘든 적이 있었나요?

4) 건강상태나 운동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나요?

6. 학교생활과 학업

1)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2)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3) 반 친구, 같은 학년 친구, 선후배, 교사 등과 관계는 어떤가요?

4) 학교 방과 후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학원, 방과 후 프로그램, 개별학습 등 심층질문)

5) 공부하는 건 어떤가요?

: 공부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것이 있나요?

7. 주거

1) 주거공간(방과 거실, 집, 건물, 지역사회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주거공간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주거공간에 대해서 더 바라는 것이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8. 가족과의 관계

1) 보육사들을 포함한 시설의 어른들과 관계는 어떤가요?

2) 시설 내 친구들이나 다른 아이들과 관계는 어떤가요?

3) 아동들이 부모와 만나고 있나요?

: 만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어떻게?

: 안 만나고 있다면, 부모와 이런 상황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4) 친형제들이 있나요?

5) 부모와 형제 이외에 다른 가족, 친척 등과 연락하고 있나요?

6) 시설에서 살면서, 연락하거나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나요?

9. 진로와 꿈

1) 아동들의 장점, 재능, 능력, 특기 등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앞으로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요?

3) 꿈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4)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5) 그동안 수입이 있는 일(아르바이트 등)을 해본 적이 있나요?

10. 지금까지 시설에서 생활해 온 것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사는 것이 아동들의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평소 생활하면서 아동들이 일반 사회 구성원들과 차이가 있거나 거리가 있거나 넘기 힘든 벽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기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3. 시설 안팎의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IV. 귀하의 2015년 1년 동안의 생활여건을 토대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 개인용품 | 귀하가 생각하기에 ① 꼭 필요하다 ② 있으면 좋다 | 나는 | | 개인용품 | 귀하가 생각하기에 ① 꼭 필요하다 ② 있으면 좋다 | 나는 | |
|-------------|-----------------------------------|---------|-------------|-----------|-----------------------------------|---------|-------------|
| | | ① 갖고 있다 | ② 안(못)갖고 있다 | | | ① 갖고 있다 | ② 안(못)갖고 있다 |
| 1 휴대전화 | 1 2 | 1 2 | 1 2 | 6 통장 | 1 2 | 1 2 | 1 2 |
| 2 책상/의자 | 1 2 | 1 2 | 1 2 | 7 개인용 컴퓨터 | 1 2 | 1 2 | 1 2 |
| 3 침구 (침대 등) | 1 2 | 1 2 | 1 2 | 8 | 1 2 | 1 2 | 1 2 |
| 4 책장 | 1 2 | 1 2 | 1 2 | 9 | 1 2 | 1 2 | 1 2 |
| 5 놀잇감 | 1 2 | 1 2 | 1 2 | 10 | 1 2 | 1 2 | 1 2 |

V. 귀하가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의 2015년 1년 동안의 생활여건을 토대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 개인용품 | 귀하가 생각하기에 ① 꼭 필요하다 ② 있으면 좋다 | 아이들은 | | 개인용품 | 귀하가 생각하기에 ① 꼭 필요하다 ② 있으면 좋다 | 아이들은 | |
|-------------|-----------------------------------|---------|-------------|-----------|-----------------------------------|---------|-------------|
| | | ① 갖고 있다 | ② 안(못)갖고 있다 | | | ① 갖고 있다 | ② 안(못)갖고 있다 |
| 1 휴대전화 | 1 2 | 1 2 | 1 2 | 6 통장 | 1 2 | 1 2 | 1 2 |
| 2 책상/의자 | 1 2 | 1 2 | 1 2 | 7 개인용 컴퓨터 | 1 2 | 1 2 | 1 2 |
| 3 침구 (침대 등) | 1 2 | 1 2 | 1 2 | 8 | 1 2 | 1 2 | 1 2 |
| 4 책장 | 1 2 | 1 2 | 1 2 | 9 | 1 2 | 1 2 | 1 2 |
| 5 놀잇감 | 1 2 | 1 2 | 1 2 | 10 | 1 2 | 1 2 | 1 2 |

VI. 귀하가 살고 있는 가정의 2015년 1년 동안의 생활여건을 토대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 생활용품 | 귀하가 생각하기에 ① 꼭 필요하다 ② 있으면 좋다 | 우리 집에서는, | | 생활용품 | 귀하가 생각하기에 ① 꼭 필요하다 ② 있으면 좋다 | 우리 집에서는, | |
|------------------|-----------------------------------|----------|-------------|--------------------------|-----------------------------------|----------|-------------|
| | | ① 갖고 있다 | ② 안(못)갖고 있다 | | | ① 갖고 있다 | ② 안(못)갖고 있다 |
| 1 세탁기 | 1 2 | 1 2 | 1 2 | 6 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 | 1 2 | 1 2 | 1 2 |
| 2 전자레인지 (가스오븐포함) | 1 2 | 1 2 | 1 2 | 7 진공청소기 | 1 2 | 1 2 | 1 2 |
| 3 김치냉장고 | 1 2 | 1 2 | 1 2 | 8 컴퓨터(노트북) 및 인터넷 유·무선 연결 | 1 2 | 1 2 | 1 2 |
| 4 정수기 (생수구입포함) | 1 2 | 1 2 | 1 2 | 9 에어컨 | 1 2 | 1 2 | 1 2 |
| 5 TV | 1 2 | 1 2 | 1 2 | 10 자동차 | 1 2 | 1 2 | 1 2 |

| 2015년 1년 동안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귀하가 생각하기에 | | 우리 집에서는, | |
|-----------------------------|----|--|--|---------------------------------|---|
| ※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 |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있으면) 좋다 | | ① 하고(갖고) 있다 ② 안(못) 하고(갖고) 있다 | |
| 식생활 | 11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 것 | | 1 | 2 |
| | 12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 것 | | 1 | 2 |
| | 13 |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 것 | | 1 | 2 |
| 의생활 | 14 |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오버류(코트, 파카, 털이냐 가죽옷 등)를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 | 1 | 2 |
| | 15 |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 | 1 | 2 |
| 주택 및 주거 환경 | 16 | 출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는 것 | | 1 | 2 |
| | 17 |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 | | 1 | 2 |
| | 18 |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는 것 | | 1 | 2 |
| | 19 | 목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는 것 | | 1 | 2 |
| | 20 |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 | 1 | 2 |
| 의료 및 건강 | 21 |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것 | | 1 | 2 |
| | 22 | 아자 아프면 처방에 가는 것 | | 1 | 2 |
| | 23 |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 | 1 | 2 |
| 가족 활동 및 문화 생활 | 24 |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구성원들)과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오는 것 | | 1 | 2 |
| | 25 |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외식 등) | | 1 | 2 |
| | 26 |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구성원들과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 | 1 | 2 |
| 사회적 지지 | 27 |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 | | 1 | 2 |
| 저축 | 28 | 재정적인 지출을 대비하는 것(저축 등) | | 1 | 2 |
| | 29 | 원가족 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저축 등) | | 1 | 2 |
| | 30 | 시설 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다담씨앗통장, 시설에서 따로 개설한 통장, 결연후원 등) | | 1 | 2 |

| 2015년 1년 동안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귀하가 생각하기에, | | 우리 집에서는, | | |
|-----------------------------|----|---------------------------------------|--|---|---|---|
| ※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고 번호를 기록함 | |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있으면) 좋다 | | ① 하고(갖고) 있다 ② 안(못) 하고(갖고) 있다 ③ 해당없다 (2015년 1년 기간 동안 학령기 아동이 없는 경우) | | |
| 교육 | 31 |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는 것 | | 1 | 2 | 3 |
| | 32 |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는 것 | | 1 | 2 | 3 |
| | 33 |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는 것 | | 1 | 2 | 3 |
| | 34 |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지는 것 | | 1 | 2 | 3 |

| | | | |
|--|---|---|--|
| ※ 2015년 1년 동안, 귀하가 있는 시설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①예 ②아니오 | |
| 경제적 어려움 | 35 |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 |
| | 36 |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
| | 37 |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 |
| | 38 |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
| | 39 | 본인이나 구성원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
| | 40 |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저가 또는 무상인 경우 ②에 해당 없음 | |
| 41 |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내지 못한 적이 있다. ※ 학원, 진학을 포기 중단(휴학)하는 경우 포함 ※ 등록금 분납(대출) 포함 ※ 초·중·고등 교육 내역이 없는 경우 ②에 해당 없음 | | |

51 아동들의 경제적 생활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함)

| | | | | | | | | | | | |
|-------|---|---|---|---|---|---|---|---|----|--------|--|
| ← 힘들다 | | | | | | | | | | → 넘쳐나다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52 아동들이 빈곤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 |
|----------------|--|
| 과거 (~2014년) | |
| 현재 (2015년~) | |

① 전혀 없(었)음 ② 거의 없(었)음 ③ 가끔 있(었)음 ④ 자주 있(었)음 ⑤ 항상 있(었)음

53 귀 시설 아동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 지난 2년 (경험) | 향후 2년 (예상) |
|---------|------------------------|---------------|---------------|
| 1) 소득 | ① 증가 ② 변화없음 ③ 감소 | | |
| 2) 생활수준 | ① 향상 ② 변화없음 ③ 악화 | | |

54 아동들의 생활비 수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 | | 지난 2년 (경험) | 향후 2년 (예상) |
|------------------|----------------|------------------------|---------------|---------------|
| 1) 수입 (용돈, 저축 등) | 평균 수입 _____ 만원 | ① 부족함 ② 적절함 ③ 남음 | | |
| 2) 지출 | 평균 지출 _____ 만원 | ① 부족함 ② 적절함 ③ 남음 | | |